

軍

Military History

史

2022. 3. 제122호

- 1951년 5월 용문산 전투 기간 국군과 유엔군의 화력 운용 고찰
- 한국 해군의 상징, ‘해군기’
- 신흥무관학교와 검성학교에서 부른 항일노래
- 조선후기 한강 송파지역의 군사적 의미와 장시 개설
- 조선 초기 大閱의 정립과 진법훈련의 변화
- 661년 고구려-당 전쟁의 전황
- 연·진과 고조선의 전쟁
- 1990년 걸프전 시 미 해병대의 해상차단작전 분석
- 갈리아 전쟁기 로마군 병참술의 한계
-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미·중 군사경쟁 양상 분석
- 전략대안의 창출과 선택
 - “솔라리움 프로젝트(Project Solarium)” 사례 -

[자료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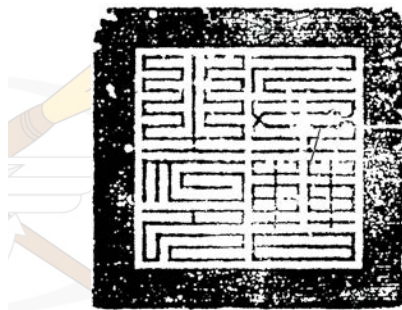
- 한반도주둔일본군 사료총서 ①~⑨
 -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편, 역사공간, 2020, 202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第122號
2022. 3.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22. 3. 제122호

- | | | |
|-----|---|-----|
| 1 | ▶ 1951년 5월 용문산 전투 기간 국군과 유엔군의 화력
운용 고찰 | 류의연 |
| 37 | ▶ 한국 해군의 상징, '해군기' | 신성재 |
| 81 | ▶ 신흥무관학교와 검성학교에서 부른 항일노래 | 김명섭 |
| 117 | ▶ 조선후기 한강 송파지역의 군사적 의미와 장시(場市) 개설 | 김미성 |
| 161 | ▶ 조선 초기 大閱의 정립과 진법훈련의 변화 | 허대영 |
| 205 | ▶ 661년 고구려-당 전쟁의 전황 | 이민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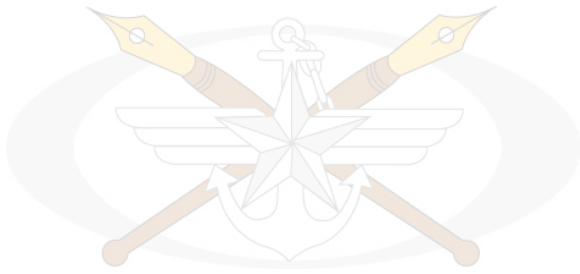


軍史



Contents | 2022. 3. 제122호

- | | | |
|-----|--|------------|
| 249 | ▶ 연·진과 고조선의 전쟁 | 윤병모 |
| 287 | ▶ 1990년 걸프전 시 미 해병대의 해상차단작전 분석 | 이표규 |
| 335 | ▶ 갈리아 전쟁기 로마군 병참술의 한계 | 배은숙 |
| 375 | ▶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미·중 군사경쟁 양상 분석 | 강정일 |
| 421 | ▶ 전략대안의 창출과 선택
- “솔라리움 프로젝트(Project Solarium)” 사례 - | 이진기
손한별 |
| 463 | ▶ [자료소개] 한반도주둔일본군 사료총서 ①~⑨
-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편, 역사공간, 2020, 2021 - | 서민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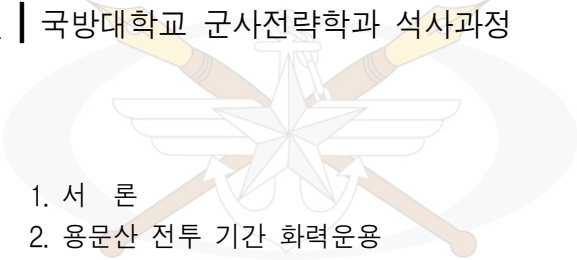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1-36
<https://doi.org/10.29212/mh.2022..122.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951년 5월 용문산 전투 기간 국군과 유엔군의 화력 운용 고찰

류의연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과정

- 
- 목 차
1. 서 론
 2. 용문산 전투 기간 화력운용
 3. 화력운용 분석
 4.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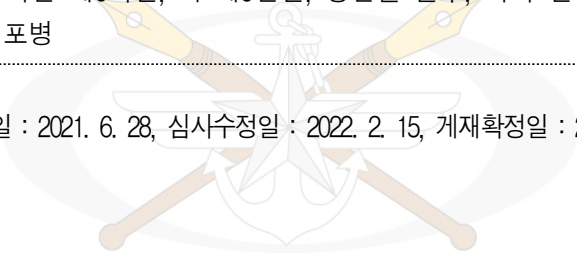
초 록 본 연구는 1951년 중공군 제5차 2단계 공세 기간 발생하였던 전투 중,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된 용문산 전투에서의 국군 제6사단과 미 제9군단의 화력 운용을 분석한다. 기존 전투사 연구는 기동부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화력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미진하였다. 전쟁 전반에 걸쳐 화력이 중요하게 운용되었던 6·25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군과 유엔군 포병의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투상보와 국방부 및 육군의 공간사, 포병 참전용사 증

언록, 중공군 기록과 소련 군사고문단 보고서, 미군이 6·25 전쟁 당시 활용했던 1944년 야전포병 전술 교범과 미 제9군단 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용문산 전투 기간 화력운용을 분석한다.

용문산 전투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교과서적인 화력운용, 지형과 기상의 제한사항을 극복하려는 노력, 압도적인 포병 전력, 충분한 군수지원을 바탕으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할 수 있었다. 화력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였으나 고착되지 않은 유연한 화력운용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화력운용에 힘입어 국군 제6사단 제2연대는 3배에 달하는 중공군 제63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국군 제6사단, 미 제9군단, 용문산 전투, 화력 운용, 포병

(원고투고일 : 2021. 6. 28,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서론

6·25전쟁은 화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전쟁이다. 중공군 제5차 공세부터 정전에 이르기까지 미 제8군을 지휘했던 밴 플리트 장군(Van Fleet, James Alward, 1892-1992)은 “가능하면 화력으로 해결하라!”¹⁾라고 명령할 정도로 화력을 중시하였다. 특히 중공군 제3차 공세 이후로는 국군과 유엔군의 화력이 전장의 승패는 물론, 정전회담의 진행까지 좌우할 정도로 전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화력 분야에 대한 전투사 연구는 미진하였다. 화력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력지원체계와 통신 운용, 대화력전, 작전지속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투사 연구는 기동부대 위주로 이루어졌고, 화력운용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드물다.

용문산 전투는 중공군 제5차 제2단계 공세(이후 중공군 5월 공세) 기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중공군의 대규모 돌파와 연계하여 중서부전선에 위치한 유엔군의 증원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중공군 제19병단과 미 제9군단이 벌인 전투 중 하나이다. 용문산 전투는 국군 제6사단이 중공군 제5차 제1단계 공세(이후 중공군 4월 공세) 기간 발생했던 사창리의 패배를 극복하고, 국군 최초로 중공군을 격퇴함과 동시에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5월 공세를 막아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²⁾ 이후 이어

1) Paul Braim 저, 육군교육사령부 역, 『위대한 장군 밴 플리트』, (계룡: 육군교육사령부, 2001), p. 407.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전투』 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 534.

지는 파로호 전투로 중공군은 24,141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7,905명이 포로로 잡히면서 전선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유엔군 축출이라는 목표를 버리고 지구전과 제한전으로 전환하여 정전회담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6·25전쟁의 전환점이 되는 전투이다.³⁾

이 전투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국군 제6사단의 장도영 사단장(張都暎, 1923-2012) 이하 전 장병의 결사 정신과 제2연대의 고수방어, 국군 및 유엔군 포병과 공군의 강력한 화력지원으로 중공군의 파상공세를 격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강력한 화력으로 중공군의 대공세를 격퇴할 수 있었다고 모든 연구가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용문산에서의 화력운용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51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중공군 5월 공세 중 용문산 전투에서의 화력 운용을 분석하여 당시 국군과 유엔군 화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6·25전쟁 전투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과 기동부대의 관점에서 전투의 배경과 경과를 상세히 다루고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까지 제시하였으나, 화력운용에 있어서는 강력한 화력을 지원 받았던지,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했다는 식으로 짧게 기록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1952년의 백마고지 전투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포탄과 폭탄이 떨어져 산의 높이가 낮아졌다고 할 만큼 유명한지라 나중남⁴⁾, 조남준⁵⁾ 등에 의해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권: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p. 557-558.

4) 나중남,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제105호(2017): pp. 45-93.

5) 조남준, “백마고지 전투 간 국군 제9사단의 화력운용 고찰-포병운용을 중심으로”, 『군사』 제117호(2020): pp. 47-92.

관련 참전용사들의 증언도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용문산 전투에서의 화력운용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 군사연구소의 공간사, 포병학교에서 발간한 『포병 전투사례집』, 온창일의 『한민족 전쟁사』에서는 “밴 플리트 사격” 효과와 미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적시 적절한 화력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운용된 사실만 짧게 나열하거나 전투의 결과만을 가지고 적의 피해나 목표 달성에 기여한 바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운용과정과 그 속의 문제점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1983년 국방부에서 발간된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화력 운용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주로 인물들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출처가 불명확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고, 통찰력 있는 이해 또한 제공해주지 못한다. 나중남은 국군 제2연대가 상급부대 포병 화력지원에 힘입어 적을 격퇴하였으며 강력한 화력지원으로 용문산 전투의 승리를 이루어냈다고 주장하나, 공간사와 마찬가지로 화력의 세부적인 운용과정은 다루고 있지 않다.⁶⁾

중국군 공간사를 번역한 국방부의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권』과 육군 군사연구소의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 1권』에서는 용문산 전투와 이어서 발생한 화천 저수지에서의 참패를 기록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용을 부풀려 미군과 국군의 수 개 대대를 격멸하였으나 군수지원의 한계로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철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명복⁷⁾과 최영근⁸⁾은 중공군의 입장에서 용문산 전투를 분석하고 그들의 전술과 패인을 분석하고 있으나, 화력운용

6) 나중남,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전쟁』, (서울: 양서각, 2018), p. 278.

7) 정명복, “6·25전쟁기 중공군 5월 공세에 대한 전투사적 고찰”, 『군사』 제71호 (2009): pp.111-149.

8) 최영근, “6·25전쟁 용문산 전투에 대한 전투사적 고찰: 중국군의 패배 요인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47집(2019): pp. 115-142.

에 대한 연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화력의 결과만을 강조하거나 기동부대의 입장에서 화력을 언급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중공군에 대한 연구나 그들의 공간사에서도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화력운용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용문산 전투 당시 국군 제6사단 직접지원⁹⁾ 포병부대인 제27포병대대 작전장교를 역임한 예)대령 고기환이 “나는 포병의 전사가 없다고 본다. 대부분의 전투가 화력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전사 속에 화력지원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¹⁰⁾라고 말한 것과 같이 포병의 전투사는 아직 세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거드먼슨(Bruce Gudmundsson, 1959-)은 미군이 화력지원을 일종의 공익사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격렬하게 작동하는 세부적인 중간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스위치를 누르거나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과 같이 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¹¹⁾ 6·25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화력 운용에 대한 미군의 포병 운용 교리와 지휘통제 체계, 지상군과 공군의 협조관계, 무기체계, 군수지원체계까지 연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문헌은 1차 사료인 국군의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3권(6사단)』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포병 출신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모은 『포병과 6·25전쟁

9) 포병은 화력지원관계 설정을 통해 기동부대에 대한 지원 책임을 지게되며, 직접지원, 화력지원, 일반지원 및 화력지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 직접지원은 지원부대가 지정된 특정부대만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군본부, 『야전교범1-1 군사용어』, (계룡: 육군본부, 2019), p. 183.

10) 육군 군사연구소,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계룡: 육군 군사연구소, 2012), p.29.

11) Bruce Gudmundsson 지, 김여흥 역, 『포병역사(On Artillery)』, (서울: 도서출판 제일, 1999), pp. 154-155.

증언록』과 소련의 입장에서 유엔군의 화력 운용을 평가한 라주바예프(Razuvaev, Vladimir Nikolaevich, 1900-1980)의 보고서 등을 추가로 참고한다. 특히 미군의 1944년 야전 포병 교범과 미 제9군단 보고서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유엔군의 화력지원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군 화력 운용과 중공군 포병에 대한 분석, 작전지속지원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본 뒤 함의를 도출한다. 연구범위는 중공군 4월 공세가 종결된 1951년 4월 30일부터 용문산에서 중공군 제63군을 격퇴하고 유엔군이 공세로 이전하는 1951년 5월 21일까지로 한다.

2. 용문산 전투 기간 화력운용

용문산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되는 양평 북방에 위치한 1,157고지로, 이를 중심으로 북서 방향으로 353고지와 울업산 등이 북한강까지 이어지며, 북동 방향으로는 나산, 장락산, 559고지 등이 흥천강까지 이어진다.¹²⁾ 작전지역은 산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산악 기동을 주로 하는 중공군에게는 유리하였으나, 국군과 유엔군에게는 관측과 사계 확보가 어려워 불리하였다. 다만 용문산을 국군 제6사단이 장악하고 있어 중공군을 감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중공군에게 피탈 시에는 아군의 전선이 양분되어 각개격파 당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용문산 12-17km 북쪽으로는 북한강과 흥천강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으며, 이 공간을 사수해야 중공군의 양평, 여주를 거쳐 충주로 향하는 진출을 저지할 수 있었다.¹³⁾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전투』 1권, p. 531.

13)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아틀라스』, (서울: 육군사관학교, 2013), p. 173.

가. 용문산 전투 개관

펑더화이(彭德懷, 1898-1974)는 4월 공세에서 작전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국군과 유엔군의 화력으로 인해 막대한 병력 및 장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는 4월 공세에서 병력이 우세하더라도 화력이 열세하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울을 점령하는 것보다 유생역량을 섬멸하는 것이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한다는 전쟁 목표 달성에 있어 효과적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펑더화이는 중동부 전선에서 한 국군을 섬멸함으로써 미군까지 포위소멸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19병단을 조공으로 설정하여 서부 전선의 유엔군 주력이 중동부 전선으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¹⁴⁾

쑹스륜(宋時輪, 1907-1991)이 지휘하는 중공군 제19병단은 서울 동쪽에서 전투력을 집중해 중서부전선의 유엔군을 견제하고자 하였다.¹⁵⁾ 병단의 주력은 청평천 북서쪽에 집결한 뒤 공세가 시작되면 한강을 도하하여 전과를 확대할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의도로 푸충비(傅崇碧, 1916-2003)가 지휘하는 제63군과 예하 3개 사단(제187, 제188, 제189사단)을 용문산 북쪽 북한강과 홍천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전개하였다.

중공군 4월 공세를 저지한 미 제8군 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1951년 4월 30일, 현재 점령중인 노네임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위력수색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밴플리트 장군은 취합된 정보판단을 기초로 중공군의 공세가 중동부 전선을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권: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p. 499.

15) 위의 책, p. 503; 육군 군사연구소,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 1권, (계룡: 육군 군사연구소, 2017) p. 103.

향할 것이라는 점과 이전처럼 축차적으로 중공군의 전투력을 소모시키는 것은 정전회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였고, 따라서 철수와 지연이 없는 방어작전을 통해 노네임선을 사수하기로 결정하였다.¹⁶⁾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9군단은 서측부터 미 제24사단, 국군 제2사단, 국군 제6사단, 미 제7사단이 배치되었다. 국군 제6사단은 중공군 4월 공세 시 사창리에서의 패배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용문산 일대로 이동한 상태였다. 국군 제6사단장 장도영 장군은 손실된 병력과 장비를 보충하고¹⁷⁾ 저하된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 정신적 재무장을 강조하였다. 예하 연대는 용문산(1,157m)을 중심으로 서쪽에 제19연대, 동쪽에 제7연대를 배치하여 노네임선을 따라 주방어지역을 형성하였고, 북쪽으로 12-17km 떨어진 북한강과 청평천, 홍천강이 합류하는 지역 일대에 제2연대를 추진 배치하여 전투전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2연대 예하 대대는 각각 도하 예상 지역을 감제할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제2대대는 북한강을 감제할 수 있는 울업산(381m)을 점령하여 연대의 좌전방을 담당하였고, 제1대대는 홍천강을 감제할 수 있는 미사리 부근의 559고지를 점령하여 우전방을 담당하였다. 제3대대는 연대의 예비로, 울업산 후방 353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¹⁸⁾ 축차 진지는 제1대대 나산(628m), 제2대대 427고지로 선정하여 명에 의거 최초진지에서 철수 후 점령하도록 하였다.

16) 위의 책, p. 510.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p. 441.

18) 위의 책, pp. 552-5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전투』 1권, pp. 531-532.

중공군의 공격은 1951년 5월 17일 야간 제63군의 1세대 사단들이 북한강과 흥천강을 도하하면서 시작되었다. 국군 제2연대 우전방을 담당한 제1대대는 중공군이 도하하는 시점부터 대대가 보유한 박격포와 미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및 요청하여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제2연대 좌전방에서는 중공군이 나룻배 등을 이용해 북한강 도하를 시도하였으나, 제2대대가 적극적으로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중공군의 도하 수단을 모두 파괴하였다. 도하가 불가능해진 중공군은 막대한 병력 손실을 감수하고 유엔군에 의해 강제되고 있던 청평댐 제방을 이용해 강을 건넜으나, 국군의 신속한 조명사격과 최후방어사격으로 저지되었다. 중공군 일부가 재차 공격하였으나 국군은 다시 한번 적시적인 화력 유도를 통해 공격을 격퇴하였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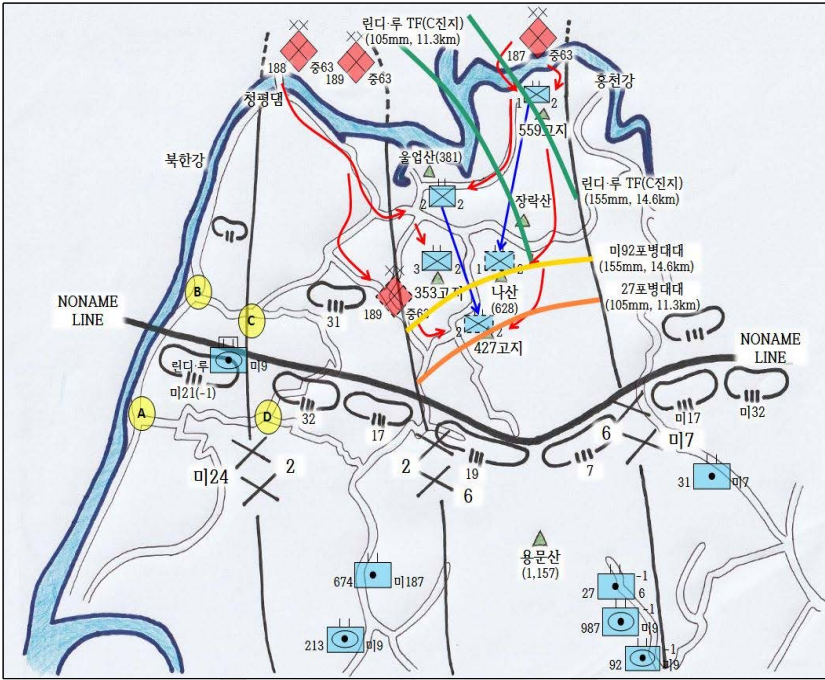
중공군 제63군은 국군 제2연대의 강력한 저항과 화력지원으로 인해 경계지역을 주방어지역으로 오판하였다. 중공군은 5월 19일 새벽부터 주력을 투입하여 돌파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국군 제2연대는 축차진지로 후퇴하였으며,²⁰⁾ 같은 날 20시부로 중공군은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한때 국군 제2연대 방어진지를 일부 돌파하여 국군 제6사단 주방어지역 전방 3-4km 지점까지 진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예비부대까지 모두 소모한 중공군 제63군은 공세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²¹⁾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pp. 75-82.

20)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3권(6사단)』, p. 4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전투』 1권, p. 531.

21) 위의 책, p. 115.

< 그림 1 > 국군 제6사단 작전지역 상황도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6·25전쟁사』 8권, p. 553에 추가하여 작성.

나. 중공군의 화력운용

용문산 전투에서의 중공군 화력운용은 중공군 전술에 대한 자료와 관련 연구, 중공군 참전자의 증언 및 중국과 소련에서 작성한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영근의 연구에 따르면, 중공군은 1개 군이 공격 시 225문의 화포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63군이 보유한 화포 역시 수량이 충분했을 뿐 아니라 국군 제6사단 대비 월등히 많은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다음 장에서 중공군 제63군의 공격준비사격 결과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포

병 전력이 우월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²²⁾ 5월 공세에 참여했던 중공군이 11개 군 규모였으므로 약 2,500문이 공세에 참여했을 것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중공군 보병사단은 일반적으로 1개 포병대대, 총 12문의 38식 야포 또는 일본 산포를 보유하고 있었다.²³⁾ 용문산 전투 이후 생포된 중공군 제63군 제187사단 소속 포로들이 패주과정에서 사단 산포 12문 중 4문만을 회수하였다고 증언한 점과²⁴⁾ 1951년 3월 이후 소련으로부터 곡사포를 본격적으로 지원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9월에 이르러서야 1,300여 문 수준이 되었다는 점도²⁵⁾ 중공군의 포병 전력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 소련의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공군 제5차 공세 준비과정에서 새로 투입된 각 병단은 장비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화포는 부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⁶⁾ 소련 군사고문단은 중공군의 문제점이 화력운용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5월 공세 종료 직후인 1951년 6월 16일, 소련 군사고문단이 총참모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중공군은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포병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포병사단의 대부분은 포탄 부족²⁷⁾과 사격술이 부재하여 전혀 운용되지 않고 있다”²⁸⁾고 기록하고 있

22) 최영근은 국군 사단이 보유한 화포의 수가 76문이라고 기록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1952년 이후 포병 전력이 증강되기 전까지 국군 사단에는 1개 포병대대(15-18문)만 편성되어 있었다.; 최영근, (2019), pp. 129-130.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 무기』 2권, p. 117; 김기준, “6·25전쟁 분석을 통한 군수지원 발전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 39.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p. 157.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 무기』 2권, p. 131.

26) 육군 군사연구소,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 1권, pp. 91-92.

27) 당시 중공군은 보급능력 부족으로 탄약을 도수운반 하였으며 문 당 20발 정도를 휴대할 수 밖에 없었다.; 위의 책, p. 117; 김기준, (2006), p. 39.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비에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226-227.

다. 종합하여 평가해보면 중공군의 5월 공세 중 용문산 전투에서 중공군 제63군이 활용 가능한 화력은 미 제9군단의 가용 화력 대비 열세였으며, 화력운용 측면에서도 미흡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국군과 유엔군의 화력운용

국군과 유엔군은 강력한 화력만이 중공군의 막대한 병력을 동원한 제파식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사전에 강력한 화력계획을 수립하였다. 5월 12일 미 제9군단 포병여단은 방어작전을 위한 화력계획 작성을 완료하고 예하부대에 분배하였다.²⁹⁾ 당시 국군 제6사단 직접지원 부대인 제27포병대대 작전장교 직책을 수행했던 예)대령 고기환은 “적의 접근로와 사주방어를 위한 화력계획으로 화력집중점 약 100여 개를 만들어 배포하고 사전에 제원을 산출하여 사격하도록 준비하였다. 따라서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³⁰⁾, 미 제9군단 포병여단의 기록과 참전용사의 증언이 일치하는 바, 사전 치밀한 화력계획을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 제9군단이 국군 제6사단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포병은 6개 대대 이상이었으나, 진지 위치와 사거리를 고려하면 그보다 적은 포병만을 지원할 수 있었다. 국군 제6사단의 전투유선망도³¹⁾를 통해 제27포병대대가 증원포병을 통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미 제7사단과 유선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과 당시 제27포병대대의 대대장이었던 박정호 중령이 “인접 사단의 포병부대인

29) IX Corps Artillery, *Book I, Command Report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p. 12.

30) 육군 군사연구소,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p. 37.

31)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3권(6사단)』, p. 492.

미 제31포병대대(미 제7사단 예하 포병대대) 등이 동원되어 집중포격을 가했다.”라고 증언하고 작전과장이었던 김정희 대위가 “인접 사단의 포병연락장교들이 자진해서 사격지휘본부로 찾아와 협조해주고 군단 포병이 최대한으로 지원하여 우리 천막은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증언한 점³²⁾ 등을 고려해 볼 때, 미 제7사단의 포병도 지원 해주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 1951년 5월 18일 기준 포병부대 임무 현황

부 대	소 속	임 무	27대대와 관계
린디·루 특임대	미 제9군단 포병	18·27대대 지원(Supported)	화력증원
제27포병대대	국군 제6사단	사단 직접지원	-
제92포병대대	미 제9군단 포병	미 7사 포병·제27포병대대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 ³³⁾	화력증원
제987포병대대	미 제9군단 포병		화력증원
제213포병대대	미 제9군단 포병	18·27포병대대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	화력증원
제674포병대대	미 제187연대전투단		화력증원
제17포병대대	미 제9군단 포병	미 24사 포병·린디·루TF· 18대대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	-
제937포병대대	미 제9군단 포병		-
미 제24사단 포병연대	미 제24사단	18·27포병대대 화력증원	화력증원
제31포병대대	미 제7사단 포병	사단 일반지원	-
제18포병대대	국군 제2사단	사단 직접지원	-

* 출처 : IX Corps Artillery, Book V,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pp. 158-167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p. 105.

33) 미 제9군단 일반지원과 동시에 지정된 포병부대를 화력증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공군에 비해서 많은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연대의 경계지역이 용문산으로부터 12-17km 이격된 점은 화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당시 국군 제6사단을 화력지원한 포병부대 진지제원은 아래와 같다.

〈표 2〉 1951년 5월 18일 기준 포병부대 진지제원

포병대대	진지 좌표	사거리	이격거리 / 사격가능여부	
			경계지역 (북한강)	주방어지역 (용문산)
린디·루 특임대	CS 610 622	14.6km	13.0km / ○	6.6km / ○
제27포병대대	CS 757 548	11.3km	21.0km / X	9.8km / ○
제92포병대대	CS 760 544	14.6km	21.5km / X	10.4km / ○
제987포병대대	CS 755 547	11.3km	21.0km / X	9.8km / ○
제213포병대대	CS 645 546		19.6km / X	10.4km / ○
제674포병대대	CS 645 554	11.3km	18.8km / X	9.7km / ○
제31포병대대(미7사단)	CS 793 597	14.6km	18.7km / X	9.4km / ○

* 출처 : IX Corps Artillery, Book V,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pp. 164-178 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군 제6사단이 활용할 수 있었던 모든 포병부대는 주방어지역인 용문산 일대로는 화력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제2연대가 점령한 경계지역 최후진지인 북한강과 흥천강 일대에는 사거리가 미치지 못하여 화력지원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미 제9군단은 ‘린디·루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Lindy Lou, 이하 린디·루 특임대)’를 편성 및 추진 배치하여 경계 지역에 위치한 국군 제2연대의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린

디·루 특임대³⁴⁾로부터 제2연대 제2대대까지 이격거리는 10-13km로 지원이 가능했지만, 국군 제2연대의 우전방을 담당한 제1대대의 경우 이격거리가 15-18km에 달해 화력지원이 불가능하였다.³⁵⁾ 그로 인해 제1대대에는 처음부터 관측반이 파견되지 않았으며³⁶⁾, 중공군이 도하를 시작하던 시점에 자체 보유한 박격포만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러한 제한사항을 국군 제6사단은 물론 미 제9군단까지 인지하고 미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고, 제1대대 역시 공군이 지원될 것임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기에 중공군 제1제대 사단의 도하와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

제2연대의 좌전방에서도 미 제5공군이 청평댐-호명리-고성리 일대에 10여 차례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중공군의 도하를 저지하고 막대한 손실을 강요할 수 있었다. 도하 수단을 상실한 중공군은 병력 손실을 감수하고 도보로 제방을 이용해 북한강을 건너 22시경 울업산 남서측의 신천리로 접근하였으나, 제2대대장이 박격포의 포구방향을 신속히 남서측으로 전환하여 조명사격을 지시하고 제2대대 포병 관측장교 하태환 소위가 사전 계획된 최후방어사격을 요청하였으며, ‘린디·루 특임대’가 화력을 지원함으로써 저지당하였다. 신천리 일대는 평지였기에 화력 지원은 효과적이었고 적의 공격은 일시 중단되었다. 대대장은 적의 공격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대대 관측소를 울업산 신선봉에서 신천리 일대를 감제 할 수 있는 219고지(CS687707)로 이동시켜

34) ‘린디·루 특임대’는 4개 진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디를 점령했는가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가 달라졌다.

35) 육군 군사연구소,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p. 37.

36) 일반적인 경우 제1대대에도 관측 1개반이 파견되어야 하나 처음부터 이를 파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작전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포병 화력계획이 없었고, 제2연대와 제1대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용문산전투』, pp. 69-70.

양호한 관측여건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중공군이 19일 04:30경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막대한 피해를 강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1951년 5월 17일 야간부터 19일 새벽까지 진행된 경계지역 최초진지 전투에서 제2연대는 ‘린디·루 특임대’의 포병 화력지원과 미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아 진지로 접근하는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강력한 화력은 중공군 제63군이 국군의 방어지역을 오판하는 결과를 유발하였고 주력의 조기 투입을 유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화력은 철수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1대대는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여 네이팜탄 투하와 기총 소사로 중공군 공세가 느슨해진 틈을 타 포위망을 탈출하여 나산의 축차진지를 점령하였고,³⁷⁾ 제2대대도 19일 19시경 미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으며 축차진지인 427고지로 철수하였다.

이어지는 중공군 총공격으로 축차진지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국군 제2연대의 축차진지를 지나는 유일한 통로인 위육골 일대에 사전 준비한 치밀한 화력계획은 국군 1개 연대가 중공군 1개군의 총공격을 막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 국군 제2연대가 사전 구축한 견고한 방어진지는 진내사격에도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공군에게 피해를 강요할 수 있게 해주었고, 포병대대와 박격포의 지속적인 조명지원사격은 야간전에서의 중공군에 대한 공포와 열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중공군은 전진할수록 그동안 사거리가 미치지 않아 사격하지 못하고 있던 미군 포병대의 사격까지 받게 되면서 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³⁸⁾ 이 날 제2연대를 지원한 포병이 소모한 탄약은 정확한 수량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통제보급율보다 훨씬 많은 탄약을 사용한 것은 분명해 보

37) 앞의 책, pp. 71-72.

38) 앞의 책, p. 134.

이다.³⁹⁾

중공군의 피해는 제6사단 전투상보에서는 전사 500-600명, 육본 정기 작전보고 제143호는 전사 2,000명, 미 제8군 정기 작전보고는 1,128명이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⁰⁾ 미 제9군단 포병 보고서에 따르면 군단 전 지역에서 화력에 의한 중공군 전사자만 9천여 명에 달하며, 국군 제6사단 지역의 포병 화력지원 임무는 약 2,500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⁴¹⁾ 기록 별로 전과가 상이하여 정확한 전과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포병 화력지원으로 인한 중공군 전사자가 만 명에 가깝다는 것은 라주바예프가 평가했듯이 유엔군 포병 화력지원의 효과가 우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²⁾

3. 화력운용 분석

용문산 전투에서의 화력 운용을 전투 경과와 함께 살펴보았지만 깊이 있는 전투사 연구를 위해서는 분야별 분석과 평가가 필

39) 미 제9군단 보고서에 따르면 19일 18시부터 20일 18시까지 제27포병대와 증원 포병이 보고한 탄약 소모량은 약 5,500발이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에는 증원포병이 사격한 것까지 포함하여 약 3만 발을 사격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에 수록된 예)대령 고기환의 증언에 따르면 제27포병대대만 하루 6,000-7,000발을 사격했다고 한다. 당시 과도한 사격으로 화포가 과열되어 발생한 근탄에 우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더 많은 탄약 보급을 위해 탄약을 은닉하거나 재고량을 허위보고하는 행태가 잔존했다는 기록도 있어 참전자의 증언이 실제 탄약 소모량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김기준, (2006), p. 40.

40) 위의 책, p. 113.

41) IX Corps Artillery, *Book V,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pp. 164-178.

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권, pp. 352-353.

요하다. 화력 운용은 단순히 포탄 사격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화력운용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화력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그동안 다루지 않은 화력의 세부적인 부분을 분석하였다.

가. 탄력적인 화력지원체계 구성 및 운용

6·25전쟁 당시 미군 포병 교범에 따르면 포병의 지원관계 유형은 직접지원, 화력증원, 그리고 일반지원이라는 3가지 형태로 구분되었다. 국군 제6사단의 ‘직접지원(DS, Direct Support)’⁴³⁾ 포병대대는 제27포병대대였으며, 보병연대에는 연락장교를, 각 보병대대에는 관측반을 파견할 의무가 있었다. 미군 보병사단의 경우 사단에 4개 포병대대가 예속되어 있어, 각 연대마다 1개 포병대대(105mm)가 직접지원하고, 사단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일반지원 포병대대(155mm)도 1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던 반면, 1952년 이전까지 국군 보병사단은 사단별 1개 포병대대(105mm) 밖에 보유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화력지원체계를 편성할 수 없었다.

미군의 고민은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가 주로 국군 보병사단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국군의 포병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군은 미군 군단이 보유한 포병자산을 국군 보병사단을 위해 지원하는 ‘화력증원(RF, Reinforcing Fire)’⁴⁴⁾ 관계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용문산 전투에서 제27포병대대는 미 제9군단 포병인 제92, 제987포병대대의 화력

43) 군사용어사전은 직접지원을 “지원부대가 지정된 특정부대만을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부대는 피지원부대의 지원요청에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육군본부, 『야전교범1-1 군사용어』, p. 183.

44) 군사용어사전은 화력증원을 “포병부대가 타 포병부대에 화력 증강의 임무를 부여하는 표준 전술적 임무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의 책, pp. 174-175.

증원을 받았고, 제27포병대대 지휘소에 증원포병 연락반이 파견 와서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군 제6사단은 미군 포병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용문산 전투 기간 압도적 화력을 운용할 수 있었다.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중공군 제63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자 국군 제6사단은 더 많은 화력지원이 필요하였다. 이때 미 제9군단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일반지원(GS, General Support)’⁴⁵⁾ 포병을 국군 제6사단 지역에 추가로 지원하였다. 일반지원 포병인 미 제17, 937포병대대는 각각 8인치, 155mm 곡사포 부대로⁴⁶⁾, 중공군이 청평댐을 횡단할 때와 국군 제2연대의 진지가 돌파당할 위기에 처했던 5월 19일 야간부터 20일 새벽까지 화력을 지원해주었다.⁴⁷⁾

특이하게도 국군 제6사단 우측의 미 제7사단을 지원하는 포병인 제31포병대대도 부대 임무 상 국군 제27포병대대와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력을 지원해주었다. 제27포병대대는 미 제7사단 포병연대와 유선망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증언록에 따르면 타 사단의 연락장교가 자발적으로 찾아와 화력지원을 해주었다.⁴⁸⁾ 이를 미루어 볼 때 교리상 포병 지원관계에는 없는 개념이지만 상황이 위급하고 군단장의 관심 지역이었으며, 서측의 국군 제2사단과 동측의 미 제7사단의 전투전초는 먼저 철수하여

45) 군사용어사전은 일반지원을 “지원부대가 소속된 상급부대 또는 피지원부대의 예하 부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의 책, p. 124.

46) 일반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포병부대는 군단 전 지역에 대한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기에 통상 장사거리의 대구경 화포를 보유한 부대가 지정된다.

47) 미 제17, 제937포병대대는 최초 사거리가 닿지 않아 국군 제6사단에 대한 화력 지원이 제한되었으나, 중공군이 주방어지역 전방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사격이 가능해졌다.

48) 좌측의 국군 제2사단은 1개 포병대대밖에 보유하지 못하여 타 사단을 지원할 수 없었을 것이나, 우측의 미 제7사단은 일반지원 포병대대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해당 사단들은 화력지원 부담이 적었던 만큼 미 제7사단에서도 가용한 화력을 지원해 주었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1950년 말부터 1951년 초까지 국군은 충분한 포병자산을 보유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화력지원체계 역시 갖추어지지 않아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군은 이 점을 고려하여 용문산 전투에서는 교리에 고착되지 않고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화력을 운용함으로써 국군이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임시적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고 1952년부터 국군 포병자산 증강과 야전포병단 창설 등을 통해 미군에 가까운 화력지원체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국군 보병사단은 백마고지 전투, 금성지구 전투 등에서 국군 독자적인 화력 운용만으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격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나. 린디·루 특수임무부대(Lindy·Lou Task Force) 운용

1951년 5월 3일, 미 제9군단 포병 지휘관 길모어 준장(William N. Gillmore)은 구두명령을 하달하여 ‘린디·루 특임대’를 편성하였다.⁴⁹⁾ 미 제92포병대대 대대장인 라부이 중령(Lt. Col. LaVoie)이 특임대장을 맡았으며, 미 제92포병대대 A포대(155mm M41 자주포), 미 제987포병대대 A포대(105mm M7 자주포), 국군 제27포병대대 B포대(M2A1 105mm 곡사포), 미 제24사단 제21연대 제2대대, 미 제194공병대대 A·B중대와 미 제74공병대대 A중대가 배속되었다.⁵⁰⁾ 보병대대의 임무는 특임대의 진지를 둘러싸고 공세적 정

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p. 25.

50) IX Corps Artillery, *Book V,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pp. 57-58, 133; William T. Bowers and John T. Greenwood, *Passing the Test: Combat in Korea April-June 1951*,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11), pp. 182-184.

찰을 수행하여 경계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공병중대의 임무는 기동로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미 제9군단의 작전지역은 산악지형이 주를 이루었고 폭우까지 내려 도로상태가 불량하였다. 따라서 도로 정비를 통해 특임대의 이동 여건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범위는 군단 후방지역으로부터 청평담에 이르는 도로였다.⁵¹⁾

미 제9군단은 중공군 5월 공세를 대비하면서 1개 포병대대만을 가진 국군 보병사단의 능력으로는 경계지역 연대에 대한 충분한 화력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게다가 경계지역이 주방어지역으로부터 12-17km 북쪽에 위치하여 화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포병을 추진하여 운용하다가 점차 후방으로 이동하여야 하는데, 경계지역에서부터 후방으로 이동할 도로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국군 제6사단 우측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 제2사단을 직접지원하는 제18포병대대가 동해안에서 양평으로 이동 중에 있어 제2사단을 지원할 포병이 없다는 것이었다.⁵²⁾ 따라서 ‘런디·루 특임대’는 제2사단의 경계지역 연대를 주로 지원하는 동시에, 제6사단의 경계지역까지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⁵³⁾

특임대는 경포(輕砲)인 105mm와 중포(中砲)인 155mm로 혼성 편성되었다. 국군 제6사단까지 화력지원을 하기 위해서 긴 사거리를 가진 155mm 화포가 필요했으나, 불량한 도로상태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105mm 자주포와 곡사포를 혼성 편성하였다. 이러한 편성에 대해 미 제92포병대대 매팅글리 중위(Leroy B. Mattingly)는 전술적·행정적 측면에서 단일 유형의 포병대대보다 작전이 더 복잡했으며 국군 부대를 통제하기 위해 통역사도 필요한 점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⁵⁴⁾

51) William T. Bowers and John T. Greenwood, (2011), p. 184.

52) 앞의 책, p. 183.

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p. 36.

이들의 진지는 A, B, C, D 등 4개 진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비가 내려 미 제9군단에서는 도로상태를 걱정하였고, ‘린디·루 특임대’는 5월 4일 A진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수색대를 편성하여 도로를 정찰하였다. 실제로 M41 자주포가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우선 105mm 포대만 더 전방에 위치한 C진지로 이동하도록 하면서, 공병이 도로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5월 12일 도로가 정비되어 전 포대가 집결하였고, 5월 14일에는 청평댐까지 이어지는 모든 도로가 정비되었다.⁵⁵⁾

5월 16일 야간, 미 제24사단 전방에서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국군 제2, 제6사단 전방 북한강 대안에서도 중공군과 접촉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임대는 요청에 따라 청평댐과 그 접근로에 대한 증원차단사격을 실시하였고, 5월 17일 03:30부터 09:30까지 105mm 1,100발과 155mm 450발을 사격하였다. 같은 날 아침, 국군 제2사단이 감청한 중공군의 무선통신 중에는 포병 화력으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으니 고지대에 대기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공군은 막대한 피해를 무릅쓰고 청평댐 횡단을 지속 시도하여 약 300명이 14:00에 횡단에 성공하였고, 추가 횡단을 막기 위해 군단의 다른 포병 부대들도 사격에 가세하였다.⁵⁶⁾

중공군의 총공격이 시작된 5월 19일 16:30부터 다수의 사격 요청이 접수되기 시작하였고 군단은 모든 가용 포병을 활용하여 화력을 지원하였다. 이날 특임대는 105mm 2,500-3,000발, 155mm 1,300-1,400발을 사격하였다.⁵⁷⁾ 5월 21일 01:00에 이

54) 위의 책, p. 193.

55) 앞의 책, pp. 186-187.

56) 앞의 책, pp. 189-192.

57) IX Corps Artillery, *Book V,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p. 174; William T. Bowers and John T. Greenwood, (2011), p. 192.

르자 중공군의 공격은 소강되었으며, 그날 아침 평터화이가 전전선에 대한 철수를 지시하면서 전투가 마무리되었다.

라부이 중령은 후에 이 작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군, 특히 제2사단 제31연대와 소통이 미흡했으며, 협조되지 않은 작전으로 인해 부대가 고립될 위기에 처하거나 우군을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박격포도 사용하지 않았고, 철수하면서 화력지원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공간사에서도 제2연대의 경계연대가 모두 철수했다는 기록을 볼 때, 제31연대는 전투를 잘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⁵⁸⁾ 또한 ‘린디·루 특임대’와 같은 임시 혼성편성부대는 다수의 상급부대가 존재하게 되어 통일된 지휘가 불가능했으며, 편제장비와 보급체계를 고려해보았을 때 미 제92포병대대 단일로 편성하는 것이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⁹⁾

‘린디·루 특임대’는 임박한 대규모 적의 공격, 부족한 아군의 화력자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기상과 지형 속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편성된 혼성부대였다. 비록 전투수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중공군의 압도적 병력을 압도적 화력으로 침묵시킴으로써 중공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다. 관측반 운용

관측반 운용에 관련된 세부내용은 6·25전쟁 당시 사용한 미군의 포병 교범⁶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교범에서는 모든 관

58)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3권(6사단)』, p. 4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권: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p. 553.

59) 위의 책, pp. 193-195.

60)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FM 6-20 1944 : War Department field manual, Field Artillery, Tactical Employmen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4).

측자가 충분히 깊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은 아군 포병부대가 사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군 포병부대의 사거리를 벗어난 지역을 점령했던 국군 제2연대 제1대대에 관측자가 파견되지 않은 것은 누락이거나 단편적인 조치가 아니라 당시 미군 포병 교리에 근거하였던 것이다.⁶¹⁾ 하지만 사거리가 닿지 않는다고 지원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범 9장 항공지원에 “공군이 포병 사거리를 벗어난 표적을 타격하며, 결정적 국면에서 포병의 화력을 강화해주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⁶²⁾고 명시한 것을 볼 때, 제1대대에는 공군에 의한 근접항공지원을 계획함으로써 화력 운용의 공백을 메우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제1대대는 미 제5공군 F-51 편대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아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함은 물론, 피해 없이 축차진지로 철수할 수 있었다.

용문산 전투에서 활용한 관측 방법은 전방 관측자에 의한 관측과 항공기에 의한 관측이었다. 직접지원 포병대대는 전방 중대급 기동부대에 전방 관측자⁶³⁾를 보내야 하며, 대대급 기동부대로 파견된 연락장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군은 여건이 불비하여 대대에 관측장교를, 연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였다. 다만 경계지역을 담당한 국군 보병연대들은 직접지원 포병대대의 관측자뿐만 아니라 ‘린디·루 특임대’의 관측자도 지원 받아 화력유도 임무를 수행하였다.⁶⁴⁾

61) 앞의 책, p. 18.

62) 앞의 책, p. 34.

63) 전방 관측자의 최우선 임무는 적 부대를 관측하고 화력을 유도하는 것이며, 다음은 포병부대가 전선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해주는 것이었다.

64) 국군 제2사단 제31연대에는 허츠(Hertz) 소위, 제6사단 제2연대에는 버너블(Venable) 소위가 파견되어 ‘린디·루 특임대’와 통신망을 연결하고 화력 유도 임무를 수행하였다.; William T. Bowers and John T. Greenwood, *Passing the Test: Combat in Korea April-June 1951*, p. 189.

항공 관측은 군단이 자체 보유한 경비행기에 의해 수행되었다. 미 제9군단 예하 포병대대가 보유한 항공기는 L-19 기종으로⁶⁵⁾, 활주로가 없는 야지에서도 이륙할 수 있었다.⁶⁶⁾ 이들은 상공에서 표적을 관측하는 임무와 항공 사진을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항공 관측은 전방 관측자가 발견할 수 없는 후방지역에 위치한 적 포병자산을 식별하여 대포병 사격 표적을 제공하는 것과 정확한 화력유도, 화력에 의한 적의 피해를 확인함에 있어 당시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관측반은 포병 화력을 운용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그간의 연구에서는 소외되었다. 관측반은 단순히 포병의 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동부대와 포병부대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전방 작전상황을 공유해줌으로써 포병 작전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준다. 또한 관측반 인원들의 숙련도와 적절한 장비의 구성은 화력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적의 기동부대는 물론, 화력 자산까지 타격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다. 하지만 포병에 관한 연구도 미비한 환경 속에서 관측반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라. 작전지속지원

포병 작전에서 군수는 지휘관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화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탄약과 유류 문제가 달려있으며, 수시로 정비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작전지속

65) 1951년 5월 12일 기준, 미 제9군단 포병여단 예하 항공관측용 L-19는 모두 11대였으며, 포병여단 본부 3대, 제17, 제92, 제987, 제213포병대대가 각각 2대씩 보유하였다.; IX Corps Artillery, *Book VII,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p. 24.

66)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FM 6-20 1944 : War Department field manual, Field Artillery, Tactical Employment.*, p. 21.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과는 반대로 공간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다.

용문산 전투 뿐 아니라, 1951년 이후 모든 전투에서 포병 탄약 보급 문제는 심각하였다. 통제보급율의 5배까지 사격하는 “밴 플리트 사격”을 실시하게 되면서 탄약 보급 문제가 악화되었으며, 특히 국군의 경우에는 차량도 부족하여 탄약을 수송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당시 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군수보급체계 운영은 미 제8군 담당하였으며, 국군 부대의 군수업무도 미 군사고문관이 관장하였는데⁶⁷⁾, 다행히 이들이 탄약 재보급 여건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제27포병대대의 군사고문관 카스트로(Castro) 소령과 미 제9군단 탄약장교, 군단 수송부대가 긴밀히 협조해주었다. 6·25전쟁 기간 전방으로의 탄약 수송은 열차로 이루어졌는데 지평리 탄약집적소가 중부전선을 지원해주었다는 것을 보아⁶⁸⁾ 지평역⁶⁹⁾에서 탄약을 하역했을 것이다. 지평역은 제27포병대대와 약 10km 이격되어 있어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왕복 30분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나, 차량에 탄약을 적재 및 하역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왕복 4시간이 소요되었다. 제27포병대대가 보유한 탄약차는 6-7대에 불과하였으며 대당 120발 정도밖에 적재할 수 없어 24시간 운용하여도 4,300-5,000발 보급이 한계였고, 6,000-7,000발에 달하는 일일 탄약 소모량을 따라갈 수 없었다.⁷⁰⁾ 이러한 상황에서 미 군사고문관 계통으로 보급에 대한 행정처리가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미군 수송부대가 탄

67) 국군은 군수 분야에서 행정상 오류와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미 군사고문관에 의해 직접 관리되었다.; 김기준, (2006), p. 45.

68) 육군 군사연구소,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p. 39.

69) 지평역은 1940년 4월 1일부터 운영되었으며, 용산역과 청량리역으로 철로가 연결되어 있어 보급선을 유지하기 용이했을 것이다.; <https://www.letskorail.com/ebizprd/stationMainList.do#>. (검색일: 2021.06.04.).

70) 위의 책, p. 39.

약 수송을 지원해주었으며 탄약집적소도 가까웠기 때문에 충분한 탄약을 보급받을 수 있었다.

과도한 사격은 화포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지속된 사격으로 인해 화포의 포신이 과열되었고 이로 인해 근탄이 발생하곤 하였다. 문제는 근탄이 아군 방어진지로 떨어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국군 제2연대 제5중대 지역에서 중공군에 대한 화력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엄폐호 외부에 있던 일부 인원들에게 아군 포탄이 낙탄되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차후 조사에 따르면 가열된 포신 때문에 발생한 근탄으로 확인되었는데⁷¹⁾, 당시 참전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제27포병대대 포대장들도 장비 고장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지속 실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⁷²⁾ 화포는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마모가 발생하며, 이를 적절히 정비해주어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용문산 전투 당시에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한 지속되는 사격으로 적절한 정비를 실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작전기간 중 내린 폭우도 군수 문제를 가중시켰다. 폭우로 망가진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3개의 공병중대가 투입되어 보수하였지만, 짧은 정비시간으로 인해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5월 12일 이동중이던 ‘린디·루 특임대’의 미 제92포병대대 A포대 M41 155mm 자주포 1대가 엉성하게 보수된 도로 가장 자리에 빠지고 말았고, 이를 구난하는데 16시간이 소요되었다.⁷³⁾ 당시 중공군의 공격이 있었다면 해당 지역에 있던 모든 부대가 자주포 구난으로 인한 도로 폐쇄로 어려움에 빠졌을 것이다.

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pp. 84-85.

72) 위의 책, pp. 105-106.

73) William T. Bowers and John T. Greenwood, *Passing the Test: Combat in Korea April-June 1951*, pp. 186-187.

‘린디·루 특임대’는 전방으로 추진된 것으로 인해 급식도 문제가 되었다. 임시 혼성편성부대였기 때문에 자체 취사반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만약 편성되었더라도 취사장은 잦은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근접 지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 제92포병대대 A포대장이었던 게러티 대위(John F. Gerrity)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급식은 주방어선 후방에서 조리되어 매일 3회, 편도 24km 거리를 달려 추진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⁷⁴⁾

작전지속지원의 문제는 전투사 연구 시 종종 간과하게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이 부분의 문제들인 경우가 많다. 특히 포병부대는 작전지속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4. 결 론

본 연구는 용문산 전투에서의 화력운용 분석을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동부대 위주 전투사 연구는 전투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용이하였지만, 기동 외 다른 분야 및 기능의 세부적인 모습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국군과 유엔군 화력운용의 세부적인 모습과 운용 체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용문산 전투 기간 국군과 유엔군 포병부대가 단순히 포탄 사격만 우수하게 실시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작전 준비과정부터 치밀하게 화력계획을 작성하였고 문제가 발생할 부분을 미리 정비하였으며, 화력지원이 제한된다면 특임

74) 위의 책, p. 188.

대를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상급 지휘관의 의지가 있었다. 작전 실시간에는 장비가 고장나고 탄약이 부족해도 끝까지 화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는 포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미군은 당시 교범에 입각하여 화력지원을 수행하였는데, 영웅적 인물에 의한 극적인 승리나 영화같은 기동전이 아닌 교과서적인 작전 수행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전투사에서 흔히 접하는 ‘강력한 화력 운용’이라는 용어 뒷편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용문산 전투 기간 화력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한계점도 식별되었다. 국군 포병 자산의 불비로 인해 정상적인 화력지원체계가 구성되지 못하였고, 이는 중공군의 공세에 국군 사단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작전 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우군 피해가 발생하거나 작전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은 용문산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사례를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함으로써 개선되는데, 만약 식별된 문제들을 단순한 또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였다면 현재의 국군은 없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전투사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방대한 사료에 비해 아직 화력운용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포병이 주목을 받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관심 부족도 있지만, 병과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일반 연구자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부분이 크다. 향후 화력 운용에 대한 연구방법이 더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전투들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1차 사료

IX Corps Artillery, Book I, Command Report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접속날짜 2021년 5월 28일).

<http://archive.history.go.kr>

IX Corps Artillery, Book III, Staff Section Journal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접속날짜 2021년 5월 28일).

<http://archive.history.go.kr>

IX Corps Artillery, Book V,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접속날짜 2021년 5월 28일).

<http://archive.history.go.kr>

IX Corps Artillery, Book VII, Supporting Documents - Hq. & Hq. Btry., IX Corps Artillery, May 1951. (접속날짜 2021년 5월 28일).

<http://archive.history.go.kr>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FM 6-20 1944 : War Department field manual, Field Artillery, Tactical Employmen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4).

2. 공간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용문산전투』,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8권: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주요전투』 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3권(6사단)』, (서울: 육군 군사연구실, 1987).

3. 단행본

공군역사기록관리단, 『한글개정판 UN공군사 (상권): 한국전쟁 (1950.6.25. ~1952.6.30.)』, (계룡: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17).

나종남,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전쟁』, 서울: 양서각, 2018.
<http://uci.or.kr//G901:A-0009247898@N2M>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_____,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온창일, 『한민족 전쟁사』, (경기: 집문당, 2011).
<http://uci.or.kr//G701:B-00047957351@N2M>

육군 군사연구소,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계룡: 육군 군사연구소, 2012).

<http://uci.or.kr//G901:A-0006405848@N2M>

_____, 『중국군이 경험한 6·25전쟁』 1권, (계룡: 육군 군사연구소, 2017).

육군본부, 『야전교범 운용-4-19 105밀리 포병대(자주)』, (계룡: 육군본부, 2018).

_____, 『야전교범1-1 군사용어』, (계룡: 육군본부, 2019).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아틀라스』, (서울: 육군사관학교, 2013).

육군 포병학교·화력센터, 『포병 전투사례집』, (전남: 육군 포병학교·화력센터, 2014).

Bowers, William T. · Greenwood, John T. *Passing the Test: Combat in Korea April-June 1951*,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11).

Braim, Paul, 육군교육사령부 역, 『위대한 장군 밴 플리트』, (계룡: 육군교육사령부, 2001).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조상근 역, 『한국전쟁에서의 전투지원: 1950.6.27 ~ 1953.7.27.』, (서울: 범한서적주식회사, 2008).

<http://uci.or.kr//G901:A-0006234104@N2M>

4. 논 문

정명복, “6·25전쟁기 중공군 5월 공세에 대한 전투사적 고찰”, 『군사』 제71호(2009): 111-149.

<https://doi.org/10.29212/mh.2009..71.111>

- 나종남,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 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제105호 (2017): 45-93,
<https://doi.org/10.29212/mh.2017..105.45>
- 조남준, “백마고지 전투 간 국군 제9사단의 화력운용 고찰 - 포병운용을 중심으로 -”, 『군사』 제117호(2020): 47-92,
<https://doi.org/10.29212/mh.2020..117.47>
- 최영근, “6·25전쟁 용문산 전투에 대한 전투사적 고찰: 중국군의 패배 요인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47집(2019): 115-142,
<https://doi.org/10.17934/jmhs..148.201912.115>
- 김기준, “6·25전쟁 분석을 통한 군수지원 발전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http://uci.or.kr//G901:A-0005289950@N2M>

(Abstract)

A Study on the Fire employment of the R.O.K. Army and U.N. Forces during the Battle of Yongmunsan in May 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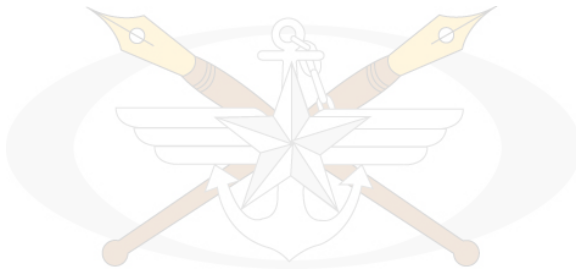
Ryu, Eui-yeon

This study attempts to research the fire employment of the 6th Infantry Division of R.O.K. Army and the 9th Corps of U.S. Armed forces in the Battle of Yongmunsan from May 17 to May 21, in 1951. The research on the history of combat has been carried out mainly in terms of maneuver, and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firepower is insufficie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Korean War, the analysis of firepower was a key factor throughout the whole war,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ield artillery tactical manuals, command and control systems, weapons systems, and support systems of the artillery units of the U.N. Forces at that time. For that, this study analyzes the ROK 6th Division's combat reports, official publicized history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Army, testimonies of artillery veterans, records of the Chinese Communist Army and reports of Soviet military advisers, and reports of the U.S. 9th Corps.

In the Battle of Yongmunsan, the U.N. Forces was able to stop the large-scale offensive operation carried out by Chinese forces based on the standard of using firepower, limitation by terrain and weather conditions, overwhelming artillery capabilities compared to the enemy, and sufficient logistics support. There were various problems during operations, but they were overcome by flexible firepower operations that were not fixed. Due to the strong and effective use of firepower, the 2nd

Regiment of the ROK 6th Division was able to defeat the 63rd Army of China, which was three times larger.

Keywords : The 6th R.O.K. Division, The 9th U.S. Corps,
Battle of Yongmunsan, Fire employment, Arti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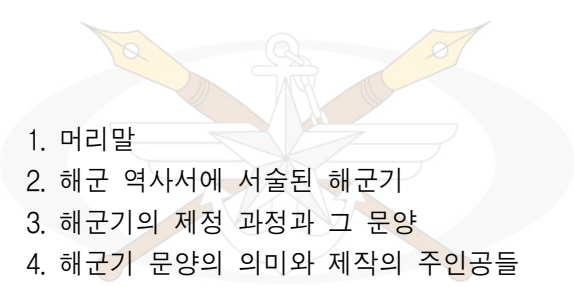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37-80
<https://doi.org/10.29212/mh.2022..122.3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 해군의 상징, ‘해군기’

신성재 |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목 차

- 
1. 머리말
 2. 해군 역사서에 서술된 해군기
 3. 해군기의 제정 과정과 그 문양
 4. 해군기 문양의 의미와 제작의 주인공들
 5. 해군기 문양의 연원과 영향
 6. 맺음말

초 록 해군기는 한국 해군의 얼굴이자 상징이다. 이 글은 한국 해군을 대표하는 해군기의 제정 과정과 문양에 반영된 상징,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해군기에 관한 공식 역사 서술은 해군본부가 1961년에 발행한 『대한민국해군사』에 나타난다. 해당 역사서는 해군기가 조선해안경비대가 발족하던 1946년 6월 15일에 제정된 것으로 서술한다. 제정된 해군기는 진남색 바탕지에 태극, 교차된 닻으로 구성된 오늘날과 동

일한 문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대 해군화보집에는 닷이 없다. 분석 결과 해군기가 조선해안경비대 시절에 처음 출현하였으나 진남색 바탕지에 태극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된다. 교차된 닷이 포함 되어 오늘날과 동일한 문양으로 완성된 것은 대한민국해군이 출범 하던 1948년 8월 15일 즈음이었다.

해군기의 진남색 바탕지는 삼면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바다를, 교차된 닷은 해군의 단결을, 태극은 한국을 상징한다. 해군기를 제작한 주인공으로 확실한 인물은 손원일과 정금모 제독이다. 김영철·김일병 제독과 장호근도 기록상 개연성이 높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군기 문양 중 태극은 한국을 상징하는 고유한 문양이다, 그러나 교차된 닷은 미군정기에 미국 해군장교들이 사용하던 모표 문양에서 유래한다. 창군기부터 미국 해군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오던 상황에서 이를 해군기 문양으로 차용한 것이었다. 문양사적인 측면에서 해군기 문양에는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과 미 해군식의 교차된 닷 문양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군기는 제정된 이후 해군 부대기 제작의 기준이 되었다. 장교와 부사관이 패용하는 ‘근속 30주년 기념휘장’ 문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태극과 교차하는 닷으로 형상화된 해군기 문양은 해군 장교의 견장형 및 수장형 계급장을 장식하는 문양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제어 : 한국 해군, 해군기, 문양, 상징, 태극, 닷

(원고투고일 : 2021. 12. 18,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머리말

한국 해군을 대표하는 것으로 군기(軍旗), 군가, 구호, 정신, 문양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해군기(海軍旗)는 한국 해군의 얼굴이자 상징이다. 장병들의 사기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해군가(海軍歌)도 해군을 대표한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깃든 경례 구호 필승(必勝)도 마찬가지다. 손원일(孫元一) 제독이 해군 창설과 더불어 실천 지침으로 표방한 충무공정신(忠武公精神)은 충무공5대 정신으로 정립되어 해군을 대표하는 정신이 되었다. 각종 공식 문서와 상장, 수첩, 증명서 등의 바탕을 장식하는 해군표지(海軍標識) 문양 역시 해군을 대표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해군을 대표해온 얼굴이자 상징인 해군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군기는 소속 군과 부대를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기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¹⁾ 해군기는 해군을 대표하는 군기이다.²⁾ 해군기가 처음 출현한 것은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海防兵團)이 조선해안경비대(朝鮮海岸警備隊)로 발족하던 1946년 6월 15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³⁾ 해군기는 이 시기에 출현하여 해군 건설에 뛰어 들었던 장병들의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주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어진 6·25전쟁기에는 장병들의 정신 전력을 하나로 모으고 승리의 투혼을 발휘하게끔 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해군기는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1) 국방부, 『군기령』(대통령령 제14223호, 1994.4.30.), 일부개정.

2) 해군본부, “해군 군(부대)기 규정,” 『해군규정』 제2511호(2021.3.9.), 일부개정.

3)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해양선각자들이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을 창단한 것이 1945년 11월 11일이었다. 해방병단은 이후 1946년 6월 15일에 조선해안경비대로 발족하였다.

장병들의 결속력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사기와 투지를 고양시키는 데 있어 무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따라서 해군기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본질적으로 해군정신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해군기가 출현한 뒤 다양한 부대기들이 제정되었는데,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군기의 제정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문양사의 시각에서 보자면 해군기 문양의 역사적인 연원과 후대에 끼친 영향도 추적할 수 있으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해군기 연구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군기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해군본부가 1961년에 발행한 『대한민국해군사』 속에 서술된 내용이 전부가 아닐까 싶다.⁴⁾ 서술된 내용은 단편적이고 소략하다. 해사신문에도 해군기 유래에 관한 글이 간명하게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해군본부가 발행한 해군사의 한자식 표기를 한글로 바꾼 것일 뿐 내용은 동일하다.⁵⁾ 해군본부가 발행한 『대한민국해군사』에 따르면, 해군기는 해군이 창설되던 시점에 오늘날 날과 동일한 문양으로 제정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창군기의 실상을 담은 화보집과 관련 기록물에는 그와 달리 해석될만한 자료가 있어 자세한 분석이 요망된다.⁶⁾ 해군기를 제정하던 과정에서 문양상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기존 해군사 서술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군기를

4) 海軍本部 政訓監室, 『大韓民國海軍史』 第3輯(行政·作戰合編), 海軍教材廠, 1961, 21~22쪽.

5) 『玉浦』 제2004호(1966년 2월 10일) ; 『해사학보』 제2703호(1972년 11월 1일).

6) 이 글을 작성함에 있어 해군본부가 발행한 해군화보집과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이하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는 공문서 기록물 자료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는 공문서 기록물은 해군본부가 1950~1980년대까지 생산해낸 복제사 관련 자료들이다. 현재 이 자료들은 해기단이 원본과 함께 CD본 형태로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다(관리번호 : 14-D-전-000020). 논문 작성의 편의를 위해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는 CD본 자료집에 대해서는 잠정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제정한 주인공들과 제정된 해군기가 이후의 해군 문양사에 미친 영향도 밝혀진 것이 없다. 이 점 역시 해군기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적극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상 제시한 문제 의식과 새롭게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근간 하여 한국 해군의 얼굴이자 상징인 해군기의 역사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논지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해군이 발행하고 있는 공식 역사서인 『대한민국해군사』에서 해군기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제시하면서 문제점과 보완점을 추출해 낼 것이다. 3장에서는 해군기가 제작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해군기 문양의 변화상을 추적하고 공식적으로 해군기가 제정되는 시점을 밝혀낼 것이다. 4장에서는 해군기 문양에 반영된 역사적인 의미와 그동안 해군 역사서 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해군기 제정에 참여한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5장에서는 해군기 문양의 연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제정된 해군기 문양이 이후 해군의 문양과 상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문양사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2. 해군 역사서에 서술된 해군기

한국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에서 출발하여 정부가 수립되던 1948년 8월 15일에 이르러 '대한민국해군'으로 발족하였다.⁷⁾ 이를 계기로 해군은 한반도의 전 해역을 수호하는 군에 걸맞게 체제를 정비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갔다. 동시에 해군은 전통시대의 수군을 계승하고 현대 해군사를 조명하는 작

7)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大韓民國海軍史』(行政篇) 第1輯, 1954, 114쪽.

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진 한국의 해양 역사를 집대성한 『한국해양사』⁸⁾와 해방 이후 현대 해군의 창설과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한 『대한민국해군사』는 그 주목할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⁹⁾ 한국 해군의 대표적 상징인 해군기는 1961년에 발간된 『대한민국해군사』(행정·작전 합편) 제3집에 그 제정 과정이 실려 있다. 해당 역사서에 서술된 해군기와 관련한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1] 여기서 먼저 해군기의 제정을 보기까지의 경로를 살펴보자면, 원래 海防兵團 시대에는 따로이 단기 또는 함정기가 없고, 태극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①-2] 그리고 4279년(1946)에 해방병단이 朝鮮海岸警備隊로 발족하여 새로운 임무를 전개하게 됨과 함께 새로이 隊 또는 대한민국해군을 대표하는 旗의 제정·사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서 간부들의 신중 토의 결과로 眞藍色紙 기폭의 우측 4분의 1 方形 내에 태극을 중앙으로 닻(錨) 두 개를 사방으로 교차하는 그림을 넣어서 대한민국해군을 의미하는 함정기를 제작하여 함정상 또는 경비대 건물 등에 사용하게 되니 이것이 대한민국 해군기의 시초이었다.

[①-3] 그 후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조선해안경비대가 대한민국 정규 국군인 대한민국해군으로 발족되면서도 경비대 시대의 隊旗를 그대로 군기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6·25 공산 남침으로 인한 3년간의 전란 중에 있어서 UN 해군의 일원으로 적함을 무찌르고 모든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동서남 삼면의 해상

8)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韓國海洋史』, 1954.

9)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이 현대 한국 해군사를 공식적으로 발간한 것은 1954년이었다. 당시 발간된 역사서는 『大韓民國海軍史』(行政篇) 第1輯이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대한민국해군사』 발간 작업은 오늘날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서 감명 깊게 함정상에 휘날리던 것도 곧 이 해양경비대 (해안경비대 - 필자 주) 시대부터 사용되던 해군기이었다.

[①-4] 그러나 이것을 대한민국 해군기로 정식 결정을 보게 된 것은 휴전 후 4288년(1955) 9월 5일 海軍服制委員會의 결의에 의한 것이며, 동년 21일에는 해본발 제4624호 참모총장 예규 통첩으로 시달을 보게 된 것이다.¹⁰⁾

해군기의 제정 역사는 위 『대한민국해군사』의 서술 내용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전문의 내용을 크게 네 문단으로 구분하여 서술의 타당성과 보완점을 제시한다.

먼저 ①-1의 서술 내용은 해방병단시대 해군기에 대한 사용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해방병단이 창단되던 당시에는 단을 대표하는 단기 또는 함정용 해군기가 없었기 때문에 태극기를 대용하였다고 한다. 해방병단이 창단된 시기가 1945년 11월 11일이고,¹¹⁾ 그 뒤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된 것이 이듬해인 1946년 6월 15일이므로¹²⁾ 해군기를 제작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태극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서술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해방 직후의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해방병단 창설에 여념이 없던 실정이었으므로 해군기 제작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이다. 군함이 국가를 상징한다는 근대적 개념의 해군 문화가 통용되던 시기였으므로 해군기 대신 태극기의 사용은 현실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해방병단시대에는 해군기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다음 ①-2의 서술 내용을 보자. ①-2는 해방병단이 조선해안

10) 海軍本部 政訓監室, 앞의 책, 1961, 21~22쪽.

11)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앞의 책, 1954, 19~20쪽 ; 海軍本部, 『海軍30年史』(1945~1975), 1978, 10~11쪽.

12) 군정법령 제86호에 따라 변경되었다(海軍本部, 앞의 책, 1978, 13쪽).

경비대로 개칭된 이후로 사용된 해군기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즉 조선해안경비대가 1946년 6월 15일자로 발족함에 따라 경비대를 대표하는 해군기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간부들이 신중히 토의한 결과 해군기의 제작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제작된 해군기는 진남색을 바탕으로 기 우측¹³⁾ 1/4 방형 내에 태극과 교차된 닷 두 개를 배치하는 문양으로 하였고, 이렇게 제작된 군기가 해군기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해군기가 조선해안경비대가 발족되던 1946년 6월 15일 이후의 어느 시점에 처음 출현하였다는 서술은 타당성이 높다. 현전하는 당대 자료 속에 해군기가 실제 등장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문양 면에 있어서는 당시의 해군기와 바로 뒤 시기의 해군기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①-2의 서술에 따르면 당시 제작된 해군기는 진남색 바탕지에 좌측 상단 1/4 방형 내에 태극과 교차된 닷으로 형상화된 문양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대의 해군활동이 수록된 해군화보집에는 그와 조금 다른 문양의 해군기가 실려 있다.¹⁴⁾ 이 자료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해군기 제작 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해군기 제작과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는 조선해안경비대 시절에 해군기가 제작되었고, 그 문양은 진남색 바탕지에 태극과 교차된 닷이 장식된 형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작된 해군기 문양은 변함 없이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해군화보집에 수록된 사진자료는 그것과 다른 문양이기에 새롭게 재해석할 여지가 있다.

13) 해당 역사서에는 우측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좌측의 오키이다. 이하 좌측으로 통일한다.

14) 해군본부 군사연구실, 『바다로 세계로 - 寫眞으로 본 海軍五十年史(1945~1995)』, 1996, 17~20쪽. 해군화보집에 수록된 사진자료의 원본은 해기단이 소장 보관하고 있다. 관련 사진자료에 대한 분석은 3장에서 상론한다.

①-3은 조선해안경비대 시절에 제작된 해군기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는 물론 6·25전쟁기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동서남 해역의 해상작전에서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대한민국해군이 출범하던 정부수립기와 6·25전쟁기에 해군기가 육상과 해상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것처럼, 조선해안경비대 시절에 사용되던 해군기 문양이 대한민국해군이 출범하던 시기와 그 이후인 6·25전쟁기까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서술에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해군기가 촬영된 관련자료 등으로 보아 대체로 대한민국해군이 정식 발족하던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등장하는 해군기 문양은 조선해안경비대 시절의 해군기 문양과 달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한민국해군이 발족한 뒤에 사용된 해군기 문양에 대한 서술 내용은 보완이 요구된다.

①-4는 해방병단을 시작으로 조선해안경비대, 이후 대한민국 해군에 이르러 해군기가 공식적인 승인을 거쳐 제정된 사실을 담고 있다. 해군기가 제정된 일자에 대해 1955년 9월 5일자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역사서의 이어지는 기록을 통해 명확히 입증된다.¹⁵⁾ 즉 해군 복제규정이 1952년 2월 28일에 일괄적으로 제정되고,¹⁶⁾ 장병들이 사용하는 복식과 해군 예식을 제·개정하는 심의 기구로 해군복제위원회(海軍服制委員會)가 1954년 10월에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서술 내용은¹⁷⁾ 해군기가 1955년 9월 5일에 한국 해군을 대표하는 군기로 정식 의결

15) 海軍本部 政訓監室, 앞의 책, 1961, 24~25쪽, '복식관계 결정사항표' 참조. 1955년 9월 15일자로 서술한 견해도 있으나 오독으로 판단된다(박원규, 「海軍服制 變遷概要」, 『海軍』 272호, 해군본부 정훈감실, 1977, 160쪽).

16) 박원규, 앞의 글, 1977, 152쪽.

17) 해군복제위원회의 제정은 1954년 10월 13일 해군발 제2700호에 의거하였다. 제1차 해군복제위원회는 장호근 대령을 의장으로 동년 10월 28일에 개회되었다(海軍本部 政訓監室, 앞의 책, 1961, 23쪽).

<자료 1> 해군기(1987)



되었다는 사실을 적절히 설명해준다. 당시 제정된 해군기는 진남색을 바탕으로 그 좌측 상단 1/4 크기의 흰색 방형 내에 태극과 교차된 흑색 앵커를 새겨넣은 형상이었다. 이 문

양은 오늘날 한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해군기 문양과 동일하다. 1955년 제정된 해군기와 동일한 문양의 1987년 해군기를 제시하면 자료 1과 같다.¹⁸⁾

한편 『대한민국해군사』는 해군기 제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는 내용도 있다. 바로 해군기를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한 인물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는 『해군에 식복제기록물자료집』에 그 주인공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리라 본다. 해군기가 제정된 뒤 그 문양이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문양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위 서술 내용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해군이 창설되던 초창기에 출현한 대표적인 문양인 만큼 동시대는 물론, 이후로 등장하는 해군의 여러 문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18) 海軍士官學校博物館, 『博物館圖錄』, 1997, 76쪽(도판번호 126). 흰색, 흑색은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색상이자 전 세계 해군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색상이다.

3. 해군기의 제정 과정과 그 문양

1945년 11월 11일은 한국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이 탄생한 날이었다. 한국 해군은 해방병단이 탄생하던 1945년 11월부터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창군기로 명명해

<자료 2> 해방병단 함정과 태극기(1946.)



오고 있다.¹⁹⁾ 창군기는 정부 수립과 더불어 대한민국해군이 출범하는 등 체제 수립과 변화가 수반되던 역동적인 시기였다. 하지만 인사, 전력, 군수 등 해군의 여러 영역

에서 질적인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패망한 일제가 버려두고 간 유산과 해방정국기를 이끌던 미군정의 제도와 문화가 혼용되던 열악하기 짝이없던 어수선한 시기였다. 해군은 사관의 임명, 장병들에 대한 계급 미부여, 피복 및 복제가 마련되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²⁰⁾ 점차 미해군식 제도를 수용하면서 발전을 모

19) 해군본부 군사연구실, 1996, 앞의 책, 1~33쪽 ; 해군전투발전단, 『해군상식 100문 100답』, 2004, 21~26쪽. 한국 해군의 시대구분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김주식, 『해군의 창설과 발전』, 『군사』 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209~211쪽 참조.

20) 金省三, 「우리 海軍의 걸어온 길 - 나의 海軍生活의 回想을 中心으로」, 『海軍』 創刊號(제1권 1호), 海軍傭兵會出版部, 1951, 29~30쪽 ; 신성재, 「한국 해군장교 정모회장의 변천과 그 함의」, 『군사』 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250~252쪽.

색해 나아갔다.

해군이 처한 상황이 이러하였으므로 해군을 상징하는 해군기의 제작과 사용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대한민국해군사』가 당시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듯이,²¹⁾ 태극기가 해군기를 대신하여 함정상에 게양되었던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해방병단 문구가 새겨진 함정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창군기 사진(자료 2)은²²⁾ 이러한 실정을 잘 보여준다. 이 사진자료에 주목해보아 해방병단 시절에는 별도의 해군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지 않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1946년 6월 15일에 해방병단이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된

<자료 3> 해군기(1946.8.15.)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자료 3은 1946년 8월 15일에 광복 1주년을 기념하여 서울 남대문 쪽으로 행진하던 조선해안경비대 대원들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다.²³⁾ 이 사진에서 흥미로

창군기 해군 복제의 미비적 상황과 그 실상에 대해서는 박원규, 앞의 글, 1977, 151~160쪽 ; 김정자, 『한국군복의 변천사』, 민속원, 1998, 340~341쪽 ; 金舜圭編, 『韓國의 軍服飾發達史 II(現代篇)』, 國防軍史研究所, 1998, 270~271쪽 참조.

21) 海軍本部 政訓監室, 앞의 책, 1961, 21쪽.

22) 海軍본부 군사연구실, 앞의 책, 1996, 15쪽(해방병단 함정). 사진 원본은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다.

23) 海軍본부 군사연구실, 앞의 책, 1996, 17쪽(남대문 쪽으로 행진하는 해안경비대). 사진 원본은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다.

운 점은 좌측 병사가 들고 행진하는 태극기와 대칭하여 우측 병사가 들고 있는 해군기 문양이다. 『대한민국해군사』가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해안경비대가 발족하던 1946년 6월 15일 이후 해군기가 출현하고 있음은 설명해주지만, 그 문양에는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해군사』는 동시기의 해군기 문양이 진남색 바탕지에 좌측 상단 1/4 크기의 방형 내에 태극과 교차된 닷이 새겨진 것으로 서술하였는데,²⁴⁾ 사진상으로 보아 둥근 태극 형상은 보이지만 닷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진이 조금 흐릿하고 해군기가 접혀진 부분이 있어 실제 닷 문양의 식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해군기 문양에 닷이 반영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당대 그 문양이 보다 선명하게 촬영된 해군기 사진을 제시하면 자료 4와 같다.

자료 4는 해군 창설 2주년 기념행사에서 해군기를 들고 있는 호기대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²⁵⁾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1947년 11월 11일이었고, 기념행사 장소는 진해였다.²⁶⁾ 이 사진자료는 앞서 제시한 사진자료 3과 비교하여 당시 해군기 문양을 훨씬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군기를 들고 있는 기수가 해군기를 수직에 가깝도록 내리고 있기 때문에 태극과 닷 문양의 유무를 쉽게 파악할 있다. 해당 사진에서 태극 문양은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닷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료적 근거는 해군기의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보여진다. 우선 해방병단이 창단되어 그 명칭이 유지되던 1946년 6월 14일까지 해군에는 그것을 상징하는 해군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군함의 법적 지위가 국가를 상징하므로 해

24) 海軍本部 政訓監室, 앞의 책, 1961, 21~22쪽.

25) 해군본부 군사연구실, 앞의 책, 1996, 18쪽(해군창설 2주년 기념 행사에서 해군기를 들고 있는 호기대). 사진 원본은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다.

26) 위와 같음.

<자료 4> 해군기(1947.11.11.)



군기 대신 태극기를 당분간 해군본부와 함정상에 게양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해군을 대표하는 해군기가 처음 제작된 것은 해방병단이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되던 1946년 6월 15일 이후였

다. 그 구체적인 시점은 광복 1주년을 기념하여 조선해안경비대가 1946년 8월 15일 축하 행진을 하는 사진자료(자료 3)에 의지해보아 조선해안경비대가 발족하던 시점 혹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던 시점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광복 1주년을 기념하는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군기를 제작하였던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당시 해군기는 진남색 바탕지에 좌측상 1/4 크기의 흰색 방형 내에 태극이 새겨진 문양이었다. 『대한민국해군사』는 닷 문양도 서술하고 있어 마치 해군기가 조선해안경비대 시절부터 오늘날과 동일한 문양이었던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조선해안경비대 시절의 해군기에는 닷 문양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²⁷⁾

그렇다면 해군기에 닷 문양이 반영되어 현재의 해군기와 동일한

27) 1970년대 공문서 중에는 조선해안경비대가 발족하던 1946년 6월 15일에 닷이 포함된 오늘날과 동일한 문양의 해군기가 처음으로 제정된 것처럼 기록한 것들이 있다(「군기자료 제출 회신」,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사운영 1020호(1967.2.21.) ; 「군기자료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근 244-1514호(1974.4.4.). 하지만 관련 사진 자료로 보아 닷은 그 이후의 시기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5> 해군기(1949.3.)



문양으로 완성된 것은 언제였을까? 이 점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사진자료 4의 해군기가 촬영된 시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진자료 4의 해군기가 촬영된 시점은 1947년 11월 11일이다. 이는 적어도

1947년 11월 중순까지는 해군기 문양상에 변화가 없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그 뒤로 촬영된 해군기 사진에는 다른 문양의 해군기가 등장한다. 다음 자료를 보자.

자료 5는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BOXER함의 함장을 영접하는 행사를 촬영한 사진이다.²⁸⁾ 행사가 있었던 시기는 1949년 3월이었고, 장소는 인천 경비부에서였다. 이 사진에서 흥미로운 점은 좌측에 정렬해 있는 해군기수가 들고 있는 해군기 문양이다. 1947년 말까지 사용된 해군기 문양과 비교하여 1949년 3월 당시의 해군기 문양에는 교차된 닻이 반영되어 있다.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이 사진에서 닻을 식별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는 해군기 문양이 1949년 단계로 접어들면서 현재와 동일한 완성된 문양으로 변화되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이 자료에 주목할 경우 해군기 제작이 완성된 시점은 1949년 초반으로 설정할 수 있음직하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1948년 8월 15일에 정

28) 해군본부 군사연구실, 앞의 책, 1996, 20쪽(미 항모 BOXER호 함장 영접 장면). 사진 원본은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다.

부가 수립됨과 동시에 해군이 조선해안경비대에서 대한민국해군으로 정식 발족한 점이다. 국가적으로나 해군 내부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던 역사적인 시점에 해군을 대표하는 문양의 해군기가 새롭게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추정해볼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과 같은 진남색 바탕지에 태극, 닻을 형상화한 해군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더불어 대한민국해군이 출범하던 1948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제작되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해본다.²⁹⁾ 결국 이렇게 제작된 해군기는 6·25전쟁기에 해군을 상징하는 군기로 널리

<자료 6> 해군기 문양(1959.10.15.)



사용되었고, 그 뒤 1955년 9월 5일에 이르러 해군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해군기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당시 제정된 해군기와 동일한 문양의 1959년 10월 15일자 해

군기 자료를 제시하면 자료 6과 같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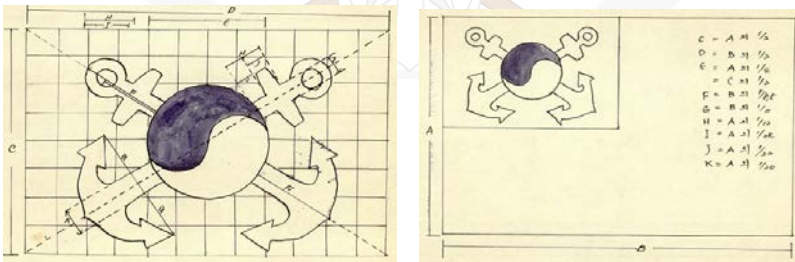
29) 1949년 3월에 완성된 문양의 해군기가 등장하고 있는 점에서(자료 5) 필자의 이러한 추정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 시점을 1948년 8월로 반드시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1948년대 전반기를 특정짓는 명확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제정 시점은 조금 수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30) 「군기 도시 작성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발 제3196호(4292, 10.15.). 당대 원본 자료는 <별지 1> 참조.

4. 해군기 문양의 의미와 제작의 주인공들

1955년에 정식으로 승인된 해군기는 국방부 지시³¹⁾에 따라 1959년 10월 15일자 「군기 도시 제출의 건」 명칭의 공문서로 작성되어 그 문양과 의미, 규격 등이 보고되었다.³²⁾ 해군기의 치수와 규격, 제작 방식은 이보다 조금 뒤 시기인 1962년 10월 20일자로 작성 보고되었다. 그 내용은 「각종 군기 및 기치에 관한 자료 제출」 문서에 수록되어 있는데(자료 7),³³⁾ 당시 제정된 해군기 규격은 오늘날의 해군 군(부대)기 규정에 수록된 규격과 동일하다.³⁴⁾ 이러한 사실은 1955년에 공식적으로 제정된 해군기가 변함 없이 현재의 해군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자료 7> 해군기 규격(1962.10.)



그렇다면 당시 제정된 해군기에는 어떠한 문양사적 의미가 반영되

- 31) 「군기 도시 제출의 건」,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국방총 제10878호 (4292.9.23.).
- 32) 「군기 도시 작성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발 제3196호 (4292.10.15.).
- 33) 「각종 군기 및 기치에 관한 자료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사운영 제1020호(1962.10.20.). 당대 원본자료는 <별지 2> 참조.
- 34) 해군본부, “해군 군(부대)기 규정,” 『해군규정』 제2511호, 2021.3.9. 일부개정, 28-14쪽.

었으며, 해군기 제작에 참여하였던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해군본부가 국방부 앞으로 1959년 10월 15일에 보고한 공문의 ‘군기 도시 설명서’를 통해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 해당 자료의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군기 도시 설명서. 1. 도해에 대한 상징. (가) 해군기의 제정을 보기까지의 경로를 살펴보자면 원래 해방병단시대에는 따로이 단기 또는 함정기가 없어 태극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오던 중 단기 4279년도(1946 - 필자 주)에 해방병단이 조선해안경비대로 발족하게 되어 새로운 업무를 전개하게 됨과 함께 새로이 대 또는 대한민국 해군을 대표하는 기의 제정이 요구된 것임. (나) 여기서 당시 몇 간부들의 신중 토의 결과 진남색지 기폭의 좌측상 1/4 방형 내에 태극을 중앙으로 닻(錨) 두 개를 사방으로 교차하는 그림을 넣어서 대한민국 해군을 의미하는 함정기를 제작한 것임. (다) 기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1) 진남색은 대한민국 삼면의 바다를 의미하며 (2) 닻(錨)을 교차한 것은 우리 해군의 단결을 의미한 것임. (3) 그 중앙의 태극기는 국가를 표시한 것임. 2. 고안자. 예비역 중장 孫元一·鄭曉謨, 예비역 소장 金永哲·金一秉 3. 제작 연월일. 단기 4278년(1945 - 필자 주) 11월.³⁵⁾

위 자료에서 흥미로운 점은 해군기 제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이 『대한민국해군사』의 내용과 거의 그대로 합치한다는 점이다.³⁶⁾ 해군기 문양이 상징하는 의미, 제작에 참여한 인물, 제작의 연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록 내용은 『대한민국해군사』의 역사 서술과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해군사』가 이보다 2년 뒤인 1961년에 발행되었던 사실에 주목해볼 때

35) 「군기 도시 작성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발 제3196호 (4292. 10. 15.).

36) 海軍本部 政訓監室, 앞의 책, 1961, 21~22쪽.

위 공문서의 해군사 관련 서술을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제정된 해군기를 구성한 각각의 문양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반영되었다. 먼저 바탕을 장식하고 있는 진남색은 바다를 표현한 색상으로 삼면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바다를 상징한다. 닷을 교차시켜 배치한 것은 우리 해군 구성원들의 단결을 의미한다.³⁷⁾ 중앙을 장식하고 있는 태극은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각각의 문양이 상징하는 의미에 따라 제정된 해군기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종합하면 굳은 단결력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삼면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이 존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한편 위 자료는 당시 해군기 제작에 참여했던 인물들 또한 명시하고 있다. 예비역 중장 손원일·정공모(鄭兢謨) 제독과 예비역 소장 김영철(金永哲)·김일병(金一秉) 등 4인이 그 주인공들이다.³⁸⁾ 하지만 이들 4인을 해군기 제작의 주인공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같은 문서의 뒷장에 첨부된 「문서처리전」 란을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그 고안자가 불명확하다는 견해도 병기하고 있다. “88년(1955 - 필자 주) 예식복제위원회에서 ‘해군기를 제정함에 있어 종전에 관습적으로 사용해오던 기를 해군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안자, 제정 연월일, 상징의 설명 등이 불명함.”³⁹⁾ 해군본부가 국방부로 보낸 공문서 본문에서는 해군기 고안자로 손원일·정공모·김영철

37) 교차된 닷에 대해서는 ‘연합된 힘’, ‘연합된 해양력’으로 의미를 부여한 자료도 있다. 「군기자료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근 244-113호(1974.1.9.) ; 「군기자료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근 244-1514호(1974.4.4.). 당대 원본자료는 <별지 3·4> 참조.

38) 해당 공문서에서 김일병 제독은 타자로 작성한 글씨가 아닌 수기로 기록되어 있다.

39) 「군기 도시 작성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발 제3196호(4292.10.15.).

· 김일병 등 4인의 예비역 제독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별첨의 「문서처리전」에서는 고안자는 물론 제정 일자, 상징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음은 해군기 제작의 주인공들을 밝혀내는 작업을 곤혹스럽게 한다. 그렇다면 당시 공문을 작성했던 담당자는 왜 이처럼 서로 상충되는 기록을 남겼던 것일까?

1959년 10월 15일 당시 공문 작성자가 해군기 제작자와 관련하여 모호한 기록을 남겼던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존재하였다. 동년 10월 14일 즈음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메모 보고 용지에는 위 제작자와 합치되지 않는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1. 해군기 제정에 대하여. (가) 제작자. … 孫元一, 鄭兢謨, 張湖根 (나) 기 설명. … 靑色은 삼면의 바다를 의미하고, 닳을 교차한 것은 단결을 표시한 것이며, 중앙 太極旗는 국가 표기로 한 것임. 4292(1959년 - 필자 주). 10. 14. 1815. 전 參謀總長 閣下로부터 확인하였음(전화로) ○○○께서⁴⁰⁾

위 자료는 해군본부 인사국장이 교육단장 앞으로 1959년 10월 14일자로 발송한 「복제 규정 중 추가 제정 회신」 공문에 첨부된 메모 보고의 내용이다. 이 메모 보고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해군기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자료는 앞서 제시한 10월 15일자 공문서에 명시된 인물들과 조금 다르다. 손원일·정궁모 제독은 제작자 명단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김영철·김일병 제독은 10월 15일자 공문에 있음에 비해 장호근(張湖根)은 메모 보고에만 기록되어 있다. 메모 보고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해군기 제작에 참여한 주인공들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근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10월 14일 1815시에 전 참모총장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점이다. 여기서 전 참

40) 「복제 규정 중 추가 제정 회신」,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발 제3172호 (4292.10.14.). 당대 원본자료는 <별지 5> 참조.

모총장은 당시를 기준으로 바로 이전에 참모총장을 역임한 인물일 수 있다. 그러나 확신하기는 어렵다. 초대 참모총장(당시 명칭은 총참모장)을 역임한 손원일 제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해군기 제작자와 관련하여 전화를 통해 작성된 메모 보고의 내용과 기존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 합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문서 작성자⁴¹⁾는 10월 15일자 공문의 뒷장에 별첨으로 고안자가 불명확하다는 기록을 남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해군기 제작의 주인공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봄직하다. 우선 공문서와 메모 보고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손원일과 정궁모 제독은 그 주인공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공문서에 언급된 김영철·김일병 제독과 메모 보고에 기록된 장호근 역시 그 개연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록 양 자료상 차이가 있지만 이들 3인은 손원일·정궁모 제독과 더불어 해방병단이 창단되던 시점부터 해군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던 인물들이다. 이들이 창군기 이래 해군기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혹은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다 확실한 자료적 근거가 뒷받침되기 전까지 해군기 제작의 주인공으로 단정하는 것은 유보한다. 결론적으로 손원일·정궁모 제독은 해군기 제작의 주인공들이 확실하고, 김영철·김일병 제독과 장호근은 개연성이 높은 인물로 추정할 수 있겠다.⁴²⁾

41) 당시 「복제 규정 중 추가 제정 회신」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은 최금용 준위였다.

42) 관련 자료상 손원일·정궁모 제독은 해군기 제작의 주인공임에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나머지 인물들 역시 그 주인공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규명은 훗날의 추가적인 자료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5. 해군기 문양의 연원과 영향

한국 해군의 얼굴인 해군기 문양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세계 해군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양과 한국을 상징하는 문양을 간결하면서도 조화롭게 반영한 형상이다. 닛은 전 세계적으로 해군과 군함을 상징한다.⁴³⁾ 이에 비해 태극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고유한 문양이다.⁴⁴⁾ 해군기 색상 역시 보편성과 고유성을 내포하고 있다. 좌측의 방형 공간은 흰색, 그 안에 새겨진 닛은 흑색으로 세계 해군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색상이다. 이에 비해 해군기의 바탕지는 진남색으로 우리 해군의 독특한 색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보편적이며 고유한 속성을 간직한 해군기에 대하여 문양사적인 차원에서 주목해볼 점은 그 문양이 무엇으로부터 연원하였고, 이후의 해군에 존재하는 어떤 문양에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이다. 문양사적인 연원에서 주목해볼 문양 소재는 단연 태극과 교차된 닛이다. 태극은 앞서 강조했듯이 한국을 상징하는 문양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닛은 한국의 고유한 문양과는 거리가 있다. 더구나 그 문양은 하나가 아닌 두 개를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된 닛의 형상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였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같은 시기에 미국 해군장교들과 한국 해군장교들이 사용하던 모표 문양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43) 신성재, 앞의 논문, 2015, 253쪽.

44) 金舜圭 編, 앞의 책, 1998, 211쪽 ; 신성재, 「한국 해군의 ‘근속 30년 휘장’ 제정 사」, 『한국민족문화』 7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208쪽.

<자료 8> 한미 해군장교의 모표
(1952.12.)



<자료 9> 한국 해군장교 모표
(1951.1.)



먼저 자료 8은 손원일 제독이 1952년 12월 10일에 미국 해군 교육소를 시찰하였던 당시 미측 장교 및 작업공과 함께 촬영된 사진이다.⁴⁵⁾ 자료 9는 1950년 초에 한국의 해군장교들이 사용하였다고 하는 모표이다.⁴⁶⁾ 두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손원일 제독이 착용하고 있는 정모에 부착된 모표와 뒤에 서 있는 미국 해군장교가 착용한 정모의 모표 문양이 거의 유사한 점이다. 중앙의 둥근 원형 속에 새겨진 문양이 다를 뿐 모표 상단을 장식하고 있는 독수리와 교차된 닻은 동일한 문양이다.⁴⁷⁾ 양국 해군장교 모표가 사용된 선후 관계는 미국 해군이 한국 해군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점이다. 당연히 한국 해군장교들이 미국 해군장교들이 사용하는 모표를 모방하였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실제 한국 해군장교들은 1956년 8월에 독창적인 거북선형 모표가 출현하

45) 윤경호 외, 『대한민국 건군의 주역 손원일 제독』, 해군사관학교, 2015, 8쪽; 신성재, 「해군장교 정모 휘장의 변천과 역사적 의미」, 『대한민국 해군 우리의 미래』 (해군창설 70주년 기념 특별전), 해군사관학교박물관, 2015, 295쪽.

46) 海軍士官學校 博物館, 앞의 책, 1997, 66쪽(도판 109).

47) 중앙에 새겨진 문양의 차이는 미국 해군장교 모표는 성조기를 방패형으로 제작한 형상이고, 한국 해군장교의 모표는 동아시아 지구본을 표현한 형상이다.

기 전까지 한동안 독수리가 형상화된 미 해군식 문양의 모표를 사용한 전력이 있다.⁴⁸⁾ 이런 점에서 추정컨대 한국의 해군기에 반영된 교차된 닳은 해방 이후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기에 미 해군장교들이 사용하던 모표에 새겨진 닳 문양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한국 해군 장교들이 미해군식 독수리형 모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1952년 12월 이전의 어느 시점,⁴⁹⁾ 1951년 1월⁵⁰⁾ 혹은 동년 6월⁵¹⁾ 등으로 파악되는데, 미 해군장교들의 모표 문양은 그보다 훨씬 이른 미군정기부터 인지되고 있었다. 미군정기에 사용되고 있던 미국 해군장교의 모표에 새겨진 닳 문양은 한국 해군장교들 사이에서 널리 인지되었을 것이고, 이를 누차 접해오던 상황에서 해군기를 구성하는 닳 문양으로 선택하였음직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아 해군기 문양에는 태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유한 문양과 함께 닳으로 표현된 미 해군식 문양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하는 문양사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다.

한국의 고유성과 미국 해군으로 대표된 보편적 특징이 반영된 해군기는 제정된 이래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문양적인 측면에서 해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도 해군기가 제도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이를 계기로 해군에 속한 다양한 부대의 군기가 출현하고 제정되는데 있어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다. 1962년 이후로 한국함대, 해군사관학교, 해군교육단(신병훈련소) 등 다양한 부대들이 자신들의 부대를 상징하는 부대기를 제작하였는데, 그 제작의 기준과 시원은 해군기로부터 비롯하였다.⁵²⁾ 대소 규모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해군에 속

48) 한국의 해군장교 모표가 독수리형으로부터 거북선형 문양으로 새롭게 개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신성재, 앞의 논문, 2015, 260~274쪽 참조.

49) 신성재, 앞의 논문, 2015, 256쪽.

50) 海軍本部, 앞의 책, 1978, 154쪽; 海軍士官學校 博物館, 앞의 책, 1997, 66쪽.

51) 해군본부, 앞의 책, 1996, 374쪽.

52) 해군의 각 부대가 부대기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해

한 각 부대의 부대기는 해군기 제정을 계기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자료 10> 해군 근속 30주년
기념휘장(1982.)



한편 해군기는 문양사적인 측면에서 장교와 부사관의 30년 근무 공적을 현양하는 ‘해군 근속 30주년 기념 휘장’ 문양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자료 10으로 제시한 휘장이 바로 1982년에 제정된 해군 근속 30주년 기념휘장이다.⁵³⁾ 해군기 문양과 비교하여 근속 30주년 기념휘장에서 주목되는 문양은 태극이다. 이 태극 문양에 대해서는 해군보다 조금 이른 1979년부터 육군이 사

용하던 근속 30주년 기념휘장의 중앙에 새겨진 태극에 유의하여 육군의 그것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한 견해가 있다.⁵⁴⁾ 이 견해와 함께 해군기에 나타나는 태극 문양도 유의해볼직하다. 창군기 이래 태극이 해군기를 구성하는 핵심 문양으로 오랜 세월동안 사용되던 현실에 비추어 보아 근속 30주년 기념휘장을 제정하던 당시에 해군기의 태극 문양을 참작하였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태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양으로 해군 구성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친숙화되었던 까닭에 근속 30주년 기념휘장의 소재로 채택되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태극과 교차하는 닷으로 형상화된 해군기 문양은

군기 제정 작업이 완료되면서 예하 부대로까지 확대되었다. 1962년 수집된 다양한 부대기 자료는 「각종 군기 및 기치에 관한 자료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사운영 제1020호(1962.10.20.) 참조.

53) 金舜圭 編, 앞의 책, 1998, 433쪽 ; 신성재, 앞의 논문, 2021, 211쪽.

54) 신성재, 앞의 논문, 2021, 212쪽.

장교의 견장형(肩章形) 및 수장형(袖章形) 계급장을 장식하는 표지장(標識章)으로도 사용되었다. 해군 기본병과를 나타내는 병과(兵科) 표지로 사용된 사례가 그것이다.⁵⁵⁾ 창군 이후 1950~1960년대 장교의 견장형 및 수장형 계급장을 보면 금줄로 장식한 계급 표시와 함께 원형으로 둘러싸인 내부에 별이 장식된 병과 표지가 부착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⁵⁶⁾ 한국 해군이 차용하던 이 병과 표지의 별 문양은 본래 미 해군이 사용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별 문양은 태극과 교차된 닳으로 이루어진 해군기를 형상화한 문양으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해군장교 견장형 및 수장형 계급장에 반영된, 해군기 문양을 차용한 태극과 교차하는 닳의 병과표지(기본병과) 문양은 오늘날에까지 이어지면서 장교들 사이에서 널리 애용되고 있다.

6. 맺음말

해군기는 한국 해군의 얼굴이자 상징이다. 이 글은 한국 해군을 대표해온 해군기의 제정 과정과 문양에 반영된 상징,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해군기를 공식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역사서는 해군본부가 1961년에 발행한 『대한민국해군사』이다. 해군 역사서는 해군기가 해방병단에서 조선해안경비대로 새롭게 발족하던 1946년 6월 15일에 제정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정된 해

55) 당시 병과(兵科)의 의미는 특수병과(군의, 위생, 군목, 기술, 경리)에 대비되는 기본병과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병과라는 용어 대신에 기본병과를 사용한다(해군본부, “해군 복제(위장) 규정,” 『해군규정』 제2545호(2021.8.24.), 일부개정, 157-112쪽.

56) 金舜圭 編, 앞의 책, 1998, 343~345쪽.

군기는 오늘날과 동일한 문양으로 진남색 바탕지에 태극, 교차된 닻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대의 해군화보집에는 닻이 없고, 태극만이 존재한다. 관련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해군기는 조선 해안경비대 시절에 처음 출현하였으나 그 문양은 진남색 바탕지에 태극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해군기가 오늘날과 같이 교차된 닻이 포함된 완성된 문양으로 제정된 것은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해군이 출범하던 1948년 8월 15일 즈음이었다. 해군기를 구성하는 문양에는 국가 정체성과 구성원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가 반영되었다. 바탕을 이루는 진남색은 삼면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바다를 나타낸다. 교차된 닻은 해군 구성원들의 굳은 단결을 의미하고, 태극은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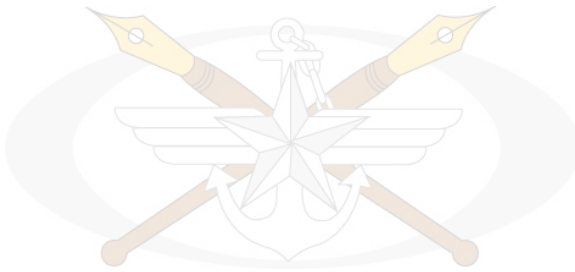
해군기를 제작한 주인공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 제작자가 일부 다르게 기록된 두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겨진 하나의 자료에는 손원일·정공모·김영철·김일병 제독이 적시되어 있고, 다른 자료에는 손원일·정공모 제독과 장호근이 기록되어 있다. 두 자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손원일·정공모 제독은 그 주인공이 분명해 보인다. 김영철·김일병 제독과 장호근 역시 개연성은 높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군기의 문양 중 태극은 한국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그러나 교차된 닻은 해방 후 미군정기에 미 해군장교들이 사용하던 모표 문양에서 유래한다. 미 해군장교들의 모표 문양이 교차된 형상인데, 창군기부터 미국 해군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오던 한국 해군이 이를 해군기 문양으로 차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해군기 문양에는 태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유한 문양과 함께 닻으로 표현된 미 해군식 문양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군기는 제정된 이후 해군의 다양한 부대기 제정에 제도적인 영향을 끼쳤다. 해군본부 예하의 부대기는 해군기의 규정과 기준

을 근간으로 제작되었다. 해군기는 장교와 부사관의 30년 근무 공적을 기념하는 ‘근속 30주년 기념휘장’ 문양에도 영향을 끼쳤다. 휘장의 중앙에 장식된 태극 문양이 그것이다. 태극이 창군기 이래 해군기를 구성하는 핵심 문양으로 사용되어온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속 30주년 기념휘장의 문양 소재로 자연스럽게 채택되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와 함께 태극과 교차하는 닻으로 형상화된 해군기 문양은 해군장교의 복제 및 계급장 문양에도 영향을 끼쳤다. 해군장교의 견장형 및 수장형 계급장을 장식하는 문양으로 태극과 교차된 닻의 해군기 문양이 사용되고 있음이 이를 말해준다.



〈참고자료〉

〈별지 1〉 군기 도시 작성 제출(1959. 10. 15.)

문서구분 ()급비밀 / 보통		해군 공문기안지		문서부호 인1-6	등록번호
기안자 김홍	담당자 김홍	과장 김홍	부국장 김홍	참모 김홍	참모(부)장 김홍
4292.10.15		10.15			040123
발안번호 이본인발제3186호		발안인명 김홍		4292.10.15	
수신자 (명·성·함소) 국방부장관		발신자 함보총장			
<p>제 목 군기 도시 작성 제출</p> <p>국방출제 10878호 (92. 9. 19.) 에 의거 별첨과 여 하 작성 제출함.</p> <p>별첨 1. 군기 도시...2부 2. 도시설명서...2부</p>					
306				342	
문서-1 (4290.07.19)			페이지 27cm X 20cm		

군기 도시 설명서

1. 도해에 대한 상징

(가) 해군기의 제정을 보기까지의 경로를 살펴 보자면 원래 해병 병단 시대에는 따로 이 단기 또는 함정기가 없어 해군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오던중 단기4278년도에 해관 병단이 조선해안경비대로 발족하게되어 새로운 업무를 전개 하게됨과 함께 새로이 데, 또는 대한민국 해군을 대표하는 기의 제정이 오구 된것임.

(나) 여기서 당시 몇 간부들의 신중 토의 결과 진남섬지 기폭의 직측 상 4/1 방형너에 해군을 중앙으로 단(鎗) 두개를 사방으로 고차하는 그림을 넣어서 대한민국 해군을 의미하는 함정기를 제작 한 것임.

(다) 기의 부분적을 설명 하자면 다음과 같음.

- (1) 진남섬은 대한민국 삼면의 바다를 의미하며
- (2) 단(鎗)을 고차한것은 우리해군의 단검을 의미한 것임.
- (3) 그 중앙의 해군기는 국가를 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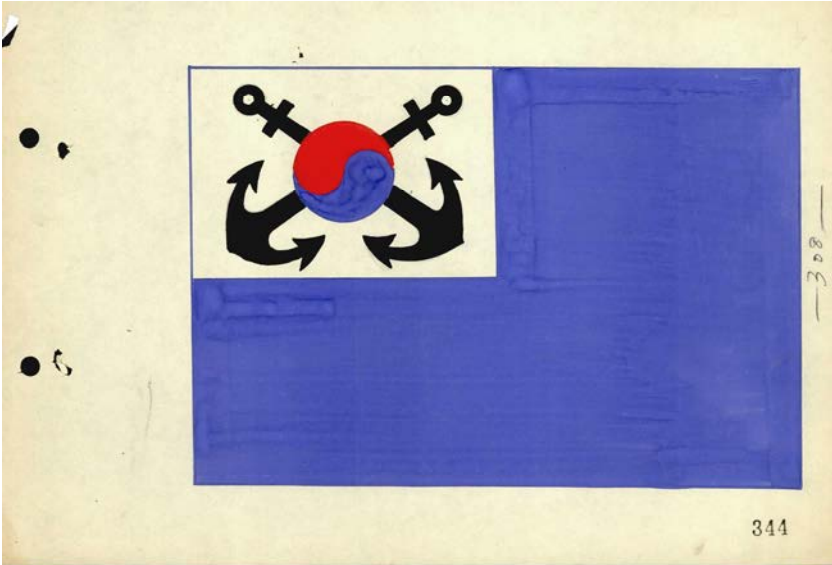
2. 그 안 자

애의역 중 장	손	원	일 (孫 元 一)
"	정	금	모 (鄭 鎭 護)
애의역 소 장	김	영	철 (金 永 哲)
"	김	일	병 (金 一 秉)

3. 제작 년월일

단기 4278년 11월

- 307 -



문서처리전

발신처	국방부	주관부서	인사국	첨수	수지	292,9.2,3
제목	군기 도시 제출의 건					
결	계	의	견	원래결의	의	견
담당관	해군기 도시 및 설명서를 작성 제출하겟음.					
처리요령	89년 여수복귀위원회에서 해군기 제정함에 있어 "從前) 慣習的으로 使用되오던 旗를 陸軍旗로 한다" 고 되어 있음. 夫案者, 陸軍 旗 制定 年月日. 海軍의 說明 等) 구명함					

〈별지 2〉 각종 군기 및 기치에 관한 자료 제출(1962. 10. 20.)

() 비 면 공 문 기 안 지

기 안 자	담당관	과 장	부국장 (차장)	국 장 (참모)	실장	모공	부휘	지휘관
소속인사운영처상권 제공된 위 성명 퇴 금 용 42962. 10. 19.	[Handwritten Signatures]							
합 의								
제무번호	해본인사운영 1020		문서 번호	1110		보 연	관	
문서일자	1962. 10. 20.		공 문	[Handwritten Mark]		종 결	10.20 [Handwritten Mark]	
수신 (경유참조)	구방부장관(참조:군무국장)		발 신	[Handwritten Mark]		공 문	통 장	
<p>제 목 : 각종 군기 및 기치에 관한 자료 제출</p> <p>별 첨: (1) 해본 인참고시1020.3 제 목: 해군 부대기 운영규정 (2) 해 군 기 (3) 해군 장성기</p> <p>1. 국 군무 1643호 (1962.8.2)에 의거 별첨과같이 제출합니다.</p> <p>배부처: 라(㉮ 10)</p>								

행정-1(갑)
규격 27x20

36-3f0

74

〈별지 3〉 군기자료 제출(1974. 1. 9.)

기안용부지					
분류기호	해본인근			전결규정 34 조 (4)항	
문서번호	244-113 후	(권좌번호 옥4552)		인사처장 권결사항	
저적기간					
시행일자	73.12.7 74.1.9				
보존년한	10/3				
보조기간	담당관	2222		협	
				조	
기안책임자	소명 차영환				
경유수신참조	국방부장관	박심	해군참모총장	홍제	74.1.9
제 목	군기자료 제출				
<p>국인근 203.2-668 (73.12.7) 의거 당군 군기자료를 첨부와같이 제출합니다.</p>					
<p>첨 부 1. 해군기 깃막 사진 및 설명서 2부</p>					
<p>2. 해군 장성기 깃막사진 8매</p>					
<p>3. 군함 연통 도안 복사판 10부. 7장</p>					
					경서
					관인
					발송
보급품 인계					257

- 2 -

299시역 272 (71.12.1)
홍리성 제5호 (69.1.15)

190mm x 268mm 면적지 40g/m²

해군기 설명서

1. 계 식

- 가. 기폭의 가로 대 세로의 비는 3:2로 한다.
- 나. 좌측 상부 가로의 1/2, 세로의 1/2되는 부분은 백색으로 하고 그외는 진남색 바탕으로 한다.
- 다. 백색 바탕에는 단순한 흑색 닳 27를 그려서 그 모양에 적색 및 진남색의 태극을 놓는다.
- 라. 좌상부와 하부에 묶음을 준다.
- 마. 기폭 면두미에 치매줄을 한다.

... 단 식

- 가. 바탕의 푸른색은 바탕을 상징
- 나. 닳은 해군을 상징
- 다. 닳을 두개 그려서 그 것은 연합된 것을 과시하며,
- 라. 태극은 한국을 상징함.

3. 제책일자

1945년 11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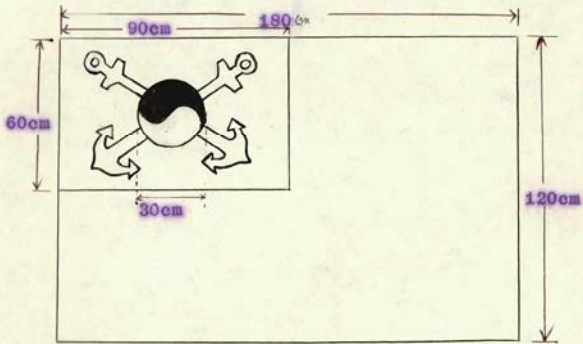
1-1

〈별지 4〉 군기자료 제출(1974. 4. 4.)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총기완납지</p>			
본류기호	해본인군	권결규정	3조 (4)항
문서번호	244-1518호	(권화번호	육4552)
처리기간		군무처장	전결사항
시행일자	1974. 4. 4	인사군부처장	
보존년한	3/1	4/10	
보조기간	담당관		협조
기안 책임자			
경유수신참조	국방부 장관 인사국장	발신	해군 참모총장 통계 4/6
제목	군기자료 제출		
<p style="text-align: center;">국인군 203.2-139 (24. 3. 18) 의거 당군 군기자료를 첨부와같이 제출합니다.</p>			
<p>첨부 1. 해군기 칼막사진 2매 2. 해군기 설명서 1부. 끝</p>			
			청서
			관인
			발송
<p style="color: red; 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반응으로 불친매음 승용인등등임하사</p>			
<p>190mm x 268mm 휘상지 40g / m²</p>			
<p>태권서식 272 (71. 12. 1) 용리형 제5호 (69. 1. 15)</p>		<p>208</p>	

해군 기 설 명 서

1. 제정년월일: 1946. 6. 15
2. 제정근거 및 규정: 군정법령 제86호에 의거 조선 해안경비대로 개칭됨에 따라 현 해군기 초로 제작 사용
3. 규격:



4. 도안 및 제작자: 미 상
5. 특 기: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가. 푸른 바탕은 박달 상징
나. 두 개의 앵커 교차하는 연합된 해양력 표시
다. 태극은 한국 상징

<별지 5> 복제 규정 중 추가 제정 회신(1959. 10. 14.)

문서구분		해군		문서부호		종계관	
()공비()보()종		공문기안지		인-6			
서명	기안자	승당관		과장	부지휘관	지휘관	
	최금용			장			
일	4292.10.13			10.13/093			
발안							
발안번호	해방인양제 3192호	발안연월일	92.10.14				
수신자 (경유·참조)	교육단장	발신자	인사국장				
<p>재 목 복제 규정중 추가 제정 회신</p> <p>해고단발제 1845호(92.10.7.)로 전의한 보기에 대하 여는 현행 제정을 개정 수록 하여 인쇄공이오니 양리하시암</p>							
- 313 -						349	
문합-1 (4290.07.19)				정지 27cm X 20cm			

M E M O

429

수신자:

1. 海軍旗制定에 대하여.

제1) 制作者... 孫元一, 鄭鍾謨, 張湖根

제2) 旗說明... 靑色은 三面의 旗아는 意味未已.
 次은 日外의 旗은 國法은 標示한 것이며,
 中央의 旗은 國家標示한 것임.

4292. 10. 14. 0815. 前 魯道總定 閣下 呈 呈 閣下 確認
 斗 斗 (稅 記 記) 斗 斗 斗 斗

발신자: 350

행정 一2 (4292 3. 13) 장지 450,000 規格 135 cm x 20cm

〈참고문헌〉

1. 1차 사료

『군기령』, 『玉浦』, 『해군규정』, 『해사학보』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관리번호 : 14-D-전-000020),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4.

2. 단행본 및 논문

金省三, 「우리 海軍의 걸어온 길 - 나의 海軍生活의 回想을 中心으로」, 『海軍』 創刊號(제1권 1호), 海軍恤兵會出版部, 1951.

金舜圭 編, 『韓國의 軍服飾發達史 II(現代篇)』, 國防軍史研究所, 1998.

<http://uci.or.kr//G901:A-0008558523@N2M>

김정자, 『한국군복의 변천사』, 민속원, 1998.

<http://uci.or.kr//G701:B-00113842231@N2M>

김주식, 「해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https://doi.org/10.29212/mh.2008..68.209>

박원규, 「海軍服制 變遷概要」, 『해군』 272호, 해군본부 정훈감실, 1977.

신성재, 「한국 해군장교 정모휘장의 변천과 그 함의」, 『軍史』 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https://doi.org/10.29212/mh.2015..94.247>

_____, 「해군장교 정모 휘장의 변천과 역사적 의미」, 『대한

민국 해군 우리의 미래』(해군창설 70주년 기념 특별전), 2015.

신성재, 「한국 해군의 ‘근속 30년 회장 제정사」, 『한국민족문화』 7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https://doi.org/10.15299/jk.2021.3.78.201>

윤경호 외, 『대한민국 건군의 주역 손원일 제독』, 해군사관학교, 2015.

<http://uci.or.kr//G901:A-0006563154@N2M>

海軍本部, 『海軍30年史』(1945~1975), 1978.

해군본부 군사연구실, 『바다로 세계로 - 寫眞으로 본 海軍五十年史(1945~1995)』, 1996.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大韓民國海軍史』(行政篇) 第1輯, 1954.

_____, 『韓國海洋史』, 1954.

海軍本部 政訓監室, 『大韓民國海軍史』 第3輯(行政·作戰合編), 海軍敎材廠, 1961.

海軍士官學校 博物館, 『博物館圖錄』, 1997.

해군전투발전단, 『해군상식 100문 100답』, 2004.

(Abstract)

The Navy Flag : the symbol of Republic of Korea Navy

Shin, Seong-jae

The Navy Flag represents and symbolizes Republic of Korea Navy(ROK Navy). This passage aims to discuss o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for the flag, symbols inside it, and the historical meanings behind the Navy Flag, the representation of ROK Navy.

The official and historical documentation of the Navy Flag can be found in the text "Republic of Korea Naval History" published in 1961 by ROK Navy Headquarters. The text writes that the Navy Flag was first announced in June 15, 1946, when the Joseon Coast Guard was established. The original Navy Flag had the same design as the present one, exhibiting the Taegeuk symbol and the crossed anchors on the deep blue background. However, the anchors do not appear on the Navy's pictorial album published at that time. The analysis on the flag revealed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flag was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Joseon Coast Guard, the flag only had the Taegeuk symbol on its background, missing the crossed anchors. It was not until the official launch of ROK Navy, August 15, 1948, that the Navy Flag had the crossed anchors on its background as it is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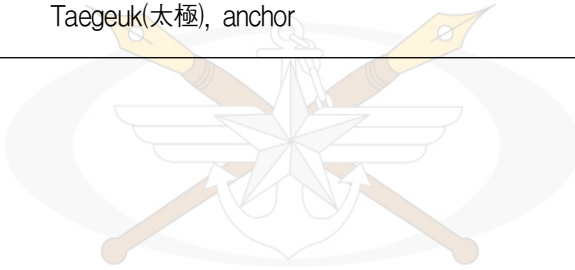
The deep blue background, the crossed anchors, and the Taegeuk symbol, each one symbolizes the Korean seas surrounding the country, the naval solidarity, and Republic of Korea itself. It is certain that Admiral Son Won-il and Jung Geung-mo were the central figures in the making of the Navy Flag. Admiral Kim Young-chul, Admiral Kim Il-byung, and Jang Ho-geun are also likely to be involved in the process according to records, although further examination needs to be undertaken.

Of all the patterns in the Navy Flag, Taegeuk is a unique pattern symbolizing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crossed anchors derive from the cap badges used by the United States Navy officers. The ROK Navy chose to adopt such pattern in times of the long-lasting close ties with the

United States Navy. Thus, in terms of the history of patterns, the Navy Flag patterns include Taegeuk, the symbol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crossed anchors from US Navy.

After its establishment, the Navy Flag became the prototype model for the flags of the Navy units. It also influenced the badge of 30 year service for Navy officers and chief petty officers. The Navy Flag, which consists of Taegeuk and the crossed anchors, is also used in the insignias of naval officers.

Keywords : Republic of Korea Navy, Navy Flag, Pattern, Symbol, Taegeuk(太極), anchor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81-115
<https://doi.org/10.29212/mh.2022..122.8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신흥무관학교와 검성학교에서 부른 항일노래

김명섭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목 차

1. 머리말
2. 신흥무관학교에서 부른 항일노래
3. 검성학교에서 부른 항일노래
4. 맺음말

초 록 1910~20년대 만주 무장 독립운동의 요람인 신흥무관학교와 검성학교의 졸업생들은 많은 항일노래를 만들어 함께 부르고, 지키며 독립의식을 고양시켰다. 신흥무관학교에서 부른 애국가는 1910년 창가집의 12장에 실린 애국가를 가사만 조금 달리했으며, 곡조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인 것으로 보인다.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조지아행진곡>(Marching Through Georgia)을, 신흥학우단 단가는 <스와니강> 원곡을 차용하고 <수절가>의 가사를 단의 나라 사랑·독립정신을 담아 바꿔 불렀다.

독립군가 중에는 일본 창가의 곡조를 차용해 애국적인 가사로 바

꾼 노래도 있는데, 이는 1914년 광성학교의 『최신창가집』에 실린 노래를 가사 바꿔 불렀다. 그 사례로 <(독립군)용진가>는 일본 창가를, <조국 생각>은 일본 군가인 <전우>의 곡조를 빌려 애국적 가사로 바꿔 항일노래로 불렀다. 1919년 3·1운동 이후 망명객들이 많이 불러 <3·1운동가>로 알려진 노래의 원전은 <도강가(渡江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6월 일본군의 침탈로 부득이 폐교하고 말았다. 이후 교장을 역임한 여준과 그의 제자로 교관을 지낸 오광선이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하기 위해 검성학교를 창설해 개교하였다. 검성학교 학생들은 이곳에서도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비롯해 <독립군가> 등을 자주 불렀다. 특히 학생들이 부른 항일노래 중 눈에 띄는 것은 국치일에 부른 <국치의 노래>, 운동회 때 부른 <야구>, 일본 군가의 곡조를 빌려 독립군의 군가로 부른 <승리의 행진곡> 등을 들 수 있겠다.

주제어 : 신흥무관학교, 검성학교, 항일노래, 창가, 독립군가

(원고투고일 : 2022. 1. 6,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머리말

1910년 8월 29일 일제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항일 무장투쟁의 산실로 1911년 6월 서간도 통화현(通化縣)의 합니하(哈泥河)에 설립된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를 꼽을 수 있다. 신흥무관학교는 청산리·봉오동 전투를 비롯한 1920년대 만주 독립전쟁을 이끈 군사적 요람인 동시에 서간도 지역 한인사회를 개척한 지역 중심체로, 나아가 근대 민족학교를 세우고 이끈 교육 중심지이기도 하다. 해외 독립기지 건설을 도모해온 이회영 6형제와 이상룡·이동녕·여준 등 신민회 인사들에 의한 학교 설립과정과 학생모집, 학교의 교육내용이나 교직원 및 졸업생들의 면면이나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¹⁾

실제로 신흥무관학교 관련 인사들은 민족계몽 활동과 독립군 양성은 물론 서간도 지역 학교설립과 운영, 지역사회 문화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²⁾ 더욱이 신흥학교 졸업생과 신흥학우단

1)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종합적 연구성과로는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2 ; 김병기, 『100년만의 만남 신흥무관학교』, 국가보훈처 2011 ; 박환, 『신흥무관학교』, 선인, 202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신흥무관학교 교관이나 졸업생들에 대한 연구로는 박환, 「잊혀진 만주지역 독립운동가 金昌煥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3, 2012 ;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尹起燮」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 김민호, 「이범석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3 ; 김주용, 「李章寧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8, 2014 ; 박성순, 「1910년대 신흥무관학교 학생모집의 경로와 거점」 『한국근현대사연구』 82, 2017 ; 박성순, 「1919년 대한독립의군부와 길림군정사연구-呂準을 중심으로 한 신흥무관학교 세력의 활동상에 주목하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8, 2019 ; 서동일, 「유림의 만주 이주와 신흥무관학교 설립」 『송실사학』 45, 2020 ; 김명섭, 「오광선의 생애와 만주 독립군 활동」 『군사』 121호, 2021.1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은 학교 운영과 지역 계몽의 지도적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인근 통화현(通化縣)과 유하(柳河縣) 일대의 소학교 교원으로 활약하면서 새로운 문명과 독립정신을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맡았다.³⁾

민족계몽의식과 항일 독립정신이 강렬했던 신흥무관학교와 신흥학우단 인사들이 어떤 교과과정을 갖고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어져왔다. 또 신흥무관학교 교가와 애국가를 비롯해 당시 독립지사들이 부른 항일노래도 일부 소개되었다.⁴⁾ 하지만 아직 어떤 항일노래를 가르치고 불렀는지, 어떤 곡에 누가 작사를 했는지, 그 노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연구된 바는 그리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신흥학교와 이를 이은 검성학교의 졸업생들이 남긴 회고록을 바탕으로 이 학교들에서 가르치고 즐겨 부른 항일노래의 유형과 성격, 그 역할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꾀해 보고자 한다.

3) 신흥무관학교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연구로는 김태국, 「신흥무관학교와 서간도 한인 사회의 지원과 역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40, 2011 ; 장세운, 「1910년대 남만주 독립군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 『만주연구』24, 2017 ; 박성순, 「석주 이상룡의 「만주기사」 분석을 통해 본 신흥무관학교의 하급교육기관 실태」, 『동양고전연구』67, 2017 등을 참조.

4) 김보희, 「북만주지역의 독립운동가요-1910년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43, 2008 ; 길태숙, 「재만조선인 항일투쟁 노래의 과거와 현재적 의미-신흥무관학교 교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44, 2008 ; 안병삼,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의 망실과 그 특징」, 『한국민족문화』39, 2011 ; 신광호, 「항일전쟁 시기 중국 조선족 항일가요의 정서 연구」, 『국악교육』33, 2012 ; 전호수, 「신흥무관학교 군사교범 탐색」, 『동아연구』38, 2019 ; 김수현, 「사료로 보는 애국가 짓기와 부르기의 역사」, 『동양학』82집, 2021.

2. 신흥무관학교에서 부른 항일노래

1910년 12월 31일 압록강을 건너 이회영 6형제를 시작으로 안동 유림 이동녕(李東寧)·이상룡(李相龍)·김동삼(金東三) 일가를 비롯해 전국의 민족지사들이 속속 봉천성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 서쪽 추가가(鄒家街)에 정착하였다. 이듬해인 1911년 3월 경학사(經學社)를 설립한 이 망명 지도자들은 초대 교장 이동녕과 교감 김달, 학감 윤기섭을 중심으로 그해 6월 신흥강습소를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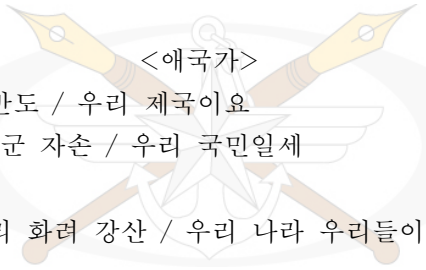
이어 일제의 폭정을 피해 서간도로 탈출해 오는 이주 한인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자, 학교 운영진은 경학사를 확대·발전시킨 부민단(扶民團)으로 재편하였다. 부민단은 1912년 가을 통화현(通化縣) 합니하(哈泥河)로 신흥강습소를 옮겨 본격적인 독립군 양성에 돌입했다. 흑한과 전염병, 마적의 습격 등으로 여러 난관을 겪었지만, 교직원과 학생들은 힘겨운 노력 끝에 1913년 5월 교사 낙성식을 갖고 본격 신흥무관학교로 규모와 체제를 갖추었다.⁵⁾

합니하의 신흥무관학교는 통화현에서 고뢰산청하자의 첩첩산중을 한참을 돌아 현재의 광화진(光華鎭)으로부터 동북쪽으로 2~3km 떨어진 강가에 자리하였다. 훈강(波瀾江) 상류에 해당하는 합니하는 구릉진 산을 휘감으며 넓은 평야와 언덕을 만들었는데,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키기에는 더없이 좋은 요새였다. 교사와 연병장은 광화진 쪽에서는 물론, 합니하가 흐르는 곳에 나 있는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숨겨져 있어 적으로부터

5) 원병상, <원병상수기-신흥무관학교>『독립운동사자료집』10, 1975, 12~15쪽.

터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

전교생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한 학생들의 일과는 새벽 6시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흑한 속에서도 어김없이 시행한 아침체조에 이어 청소와 세면을 마치면 식탁에 둘러앉아 조출한 아침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면 집합나팔 소리에 따라 조례가 시작되었고, 전 교직원인 배석한 조례식은 점명(點名)을 한 후 <애국가>를 불렀다. 당시 신흥무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부른 것으로 알려진 애국가에 대해 석주 이상룡(李相龍)의 며느리 허은(許銀, 1907~1997)은 “석주 어른이 지은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으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애국가>
 화려강산 동반도 / 우리 제국이요
 품질 좋은 단군 자손 / 우리 국민일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 우리 나라 우리들이 길이 보전
 하세” 6)

허은이 기억하는 신흥무관학교에서 부른 애국가의 가사는 1910년대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애국가 중 1910년 손봉호(孫鳳鎬)가 필사한 것으로 알려진 『창가집』 제12장에 실린 <애국가(愛國歌)>와 가장 유사하다. 그 가사 원본은 다음과 같다.⁷⁾

6)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90쪽.

7) <제12장 애국가>『손봉호창가집』, 1910년 필사본.

<애국가>

<p>가사원본</p>	
<p>가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華麗江山 東半島(는) / 우리帝國이요 四千餘年 檀君子孫 / 우리 國民일세 (후렴) 無窮花 三千里 華麗江山 / 大韓사름 大韓으로 기리 保全호세 2. 愛國하는 義兵熱誠 / 白頭山과 갖고 忠君하는 一片丹心 / 東海갓치 김히 3. 二千萬人 오죽흐말 / 나라스랑흐야 士農工商 貴賤업시 / 職分을 다호세 4. 우리大韓 우리皇上 / 皇天이 도우사 國民同樂 萬萬歲에 / 太平獨立호세.

이 <애국가>는 진명학교 음악교사인 김인식(金仁湜)이 1910년 『보중친목회월보(普中親睦會月報)』6호에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 곡조에 본인이 가사를 써서 악보로 게재한 곡의 1절 가사와 <무궁화가>의 후렴으로 만들어 창가집에 실었다. 애국가의 곡조는 스코틀랜드 가곡으로 널리 알려진 노래인 <올드 랭 사인>에 맞춰 불렀음을 알 수 있다.⁸⁾

8) 김수현, 「사료로 보는 애국가 짓기와 부르기의 역사」 『동양학』82집, 2021, 41~42쪽.

애국가를 부르는 생도들 앞에서 1913년 당시 교장인 여준(呂準, 1862~1932)은 뜨거운 눈물을 흘려 감격을 주었다고 한다. 이 노래는 3·1절 행사 때나 8월 29일 국치일, 10월 1일 개천절 등 기념행사 때에 의례 식전에 불렀다.

애국가 제창에 이어 생도들은 앞산 뒷산이 마주 올리도록 우렁차게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부르며 조국 광복의 맹세를 거듭 다짐했다. 현전하는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여러 관련자들의 회고가 있지만, 그중 당시 생도대 대장이었던 원병상(元秉常)의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신흥무관학교 교가(校歌)>

1. 서북으로 흑룡태원 남의 영절의
 여러만만 현원자손 업어 기르고
 동해섬 중 어린것들 품에 다 품어
 젓-먹여 준-이가 뉘-뇨
 (후렴)
 우리우리 배달나라의 / 우리우리 조상들이라
 그네가슴 꿩눈피가 우리 핏줄에 / 찰-찰찰 걸치며 돈-다

2. 장백산 밑 비단같은 만리 낙원은
 반만 년래 피로 지킨 옛집이어늘
 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어 맡기고
 종서름 받-느니 뉘-뇨
 (후렴)
 우리우리 배달 나라의 / 우리우리 자손들이라
 가슴치고 눈물 뿌려 통곡하여라 / 지-옥의 첫-문이 온-다

3. 칼춤추고 말을 달려 몸을 단련코
 새론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길러

씩어지는 우리 민족 이끌어 내어

새나라 세-울-이 뉘-뇨

(후렴)

우리 우리 배달 나라의 / 우리 우리 청년들이라

두 팔 들고 고향쳐서 노래하여라 / 자유의 깃발이 뿔다.⁹⁾

노래 앞구절에서 원병상과 허은은 ‘흑룡태원(黑龍太原)’으로, 김재원은 ‘흑룡대원(黑龍大原)’으로 각기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흑룡강 강변의 넓은 평야를 뜻하는 이 가사는 신흥학교로부터 동북과 서북 방향에 위치한 고조선의 옛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 <신흥무관학교 교가>의 곡조는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 헨리 C. 워크의 작곡으로 널리 알려진 군가인 <조지아 행진곡> (Marching Through Georgia)을 차용한 것이다.¹⁰⁾ 이 곡의 작사자는 부민단 단장을 지낸 석주 이상룡(李相龍)이란 주장도 있지만, 사료적 근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¹¹⁾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중국에서 출판된 자료집에 실려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항일투쟁 노래와 마찬가지로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 의지를 다지고 긍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1910~1920년대의 대표적인 애국계몽가이며 독립운동가요라 할 수 있다.¹²⁾

9) 원병상, <원병상수기-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10, 1975, 20~22쪽 ;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86~87쪽.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거나 관련자로서 교가 가사를 남긴 또 다른 기록으로는 신흥무관학교 출신 姜華麟의 전기를 펴낸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혜안, 2002, 72~73쪽을 참조.

10) 노복순, 「항일가요의 가사 결합양상과 특성-〈조지아행진곡〉 활용 곡을 중심으로」 『동양학』, 2021.

11)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혜안, 2002, 72~73쪽. 학교의 교가인 만큼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의 교가도 작사한 바 있고 1913년부터 1917년까지 4년간 교장을 지낸 여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 길태수, 「재만조선인 항일투쟁노래의 과거와 현재적 의미-〈신흥무관학교 교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44, 2008.

신흥무관학교는 단지 본과와 속성과 또는 군사과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한 것만이 아니다. 1913년 3월 신흥강습소의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자, 교장 여준을 비롯한 교감과 운영진은 졸업생을 정단원으로 한 동창회 성격의 혁명결사로 그해 5월 6일 ‘신흥교우단(新興校友團), 1916년 말 신흥학우단(新興學友團)으로 개명’을 조직했다. 신흥교우(학우)단은 “혁명대열에 참가하여 대의를 생명으로 삼아 조국광복을 위해 모교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 최후의 일각까지 투쟁한다.”는 설립취지에 맞춰 강령과 단시(團是), 단가(團歌)를 만들어 애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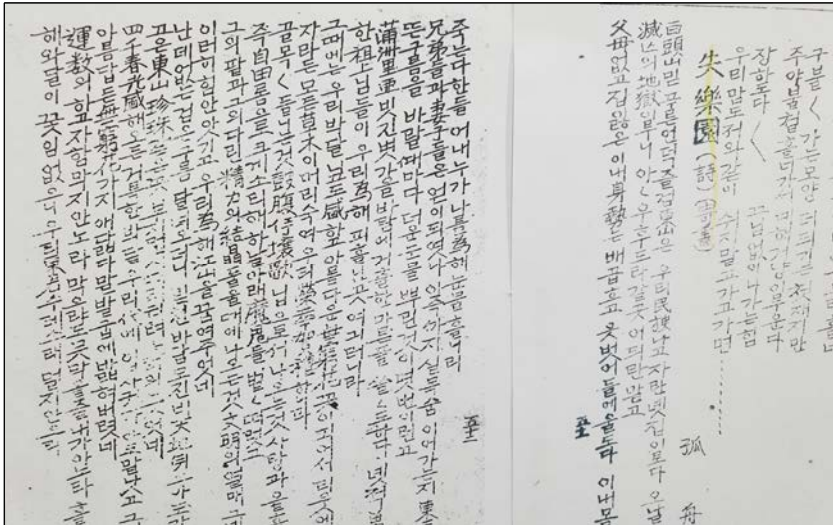
신흥교우단은 기관지로 『신흥교우보(新興校友報)』를 발간해 미국 하와이 교포들과 러시아 연해주 한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그중 『신흥교우보』 제2호(1913년 9월 15일)가 발굴·공개되었는데,¹³⁾ 시사논단과 함께 시나 소설 등의 창작물이 실렸다. 그중 고주(孤舟)라는 필명으로 ‘실락원곡(失樂園曲)’이 실렸는데, 무려 20연에 이르는 장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낙원 같은 민족의 터전이 오늘날 ‘멸망의 지옥’에 이르러 잃었다는 비통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는 이상룡의 손부 허은이 기억하는 독립군가나 1929년 남만주 일대에서 조직된 조선혁명당의 당군인 조선혁명군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벌인 계기화(桂基華)가 구술로 제공한 15절에 걸친 노래 가사나 거의 일치하였다.¹⁴⁾ 『신흥교우보』에 실락원곡 시가와 계기화가 부른

13) 장세운, 「신흥교우단의 기관지 『신흥교우보』」 『한국독립운동사연구』36, 2010 ; 김주용, 「『신흥교우보』를 통해 본 신흥무관학교」 『한국독립운동사연구』40, 2011. 『신흥교우보』와 『신흥학우보』 원본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청산리대첩 이우석 수기·신흥무관학교』, 2013에 게재되어 있다.

14) 崔滌周, 「석주 李相龍 서간도 始末記-孫婦 許銀여사에게 듣는다」 『정경문화』246호, 1985년 8월호 ; 桂基華 제공, <실락원> (「새 배달 노래 - 1920년대 재만주동포 애창곡」 『한국독립운동사연구』2, 1988, 705~707쪽). 허은 여사가 기억하는 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백두산 밑 푸른 언덕 길고 긴 동산 / 우리 민족 나고 자란 옛집이런만 / 오늘 와서 멸망의 지옥 이르니 / 아하 오호 돌아갈 곳 어디란 말가 / 동편에 뜬구름 바라볼 때마다 / 더욱 눈물 뿌리기 몇 번이던가 / 형제들과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표 1〉 孤舟 작시 ‘실락원곡’ (1913.9-위)과 재만주동포 애창곡(1929-아래) 비교



백두산 밑 푸른 언덕 계림동산은 / 우리 민족 나고 자란 옛집이어늘
 오늘 와서 멸망의 지옥 이르니 / 아하 우리 돌아갈 길 어디란말가
 부모 잃고 길 잃은 이 내 신세는 / 배고프고 옷벗어 들에 우도다
 이 몸이 무엇에 죽는다한들 / 어느 누가 날 위해 눈물흘리랴
 형제들과 처자들은 어찌되었나 / 아직까지 실목숨 이어가는지
 동천에 뜰구름 바랄 때마다 / 더운 눈물 뿌림이 그 몇 번인가
 만주리아 빛긴별 가을바람에 / 거칠고도 많은풀 쓸쓸도하다
 한옛적에 용장한 조상님들이 / 우리 위해 피흘린 곳 여기이니라 (후략)

두 시가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1929년 조선혁명군 계기화가 기억하는 노래는 최소 9절 이상 가사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913년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의 결사단체인 신흥교우단 단원의 창작시 〈실락원곡〉은 이후 시가로 머무르지

처자들 어찌되었나 / 아직까지 쓴목숨 이어가는지.”

않고 많은 독립지사들의 기억과 노래를 통해 1920~30년대 만주 독립군의 항일가요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1916년 말 신흥교우단은 신흥학우단으로 개칭되었는데, 이 무렵 단시와 단가가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신흥학우단의 단시는 4·4조의 가사체로 되어 있다가 곡조를 차용해 노래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단원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주민들이 쉽게 따라 배우고 즐겨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단원들이 부른 단시의 곡조는 알 수 없으나,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흥학우단 단시가>

1. 또또따따 기상나팔 그얼마나 새롭던가
조국의 얼 맞아드려 절치부심 칼을갈며
광복대업 달성코자 兄아弟아 金蘭結盟
우리단의 단결일세
2. 우렁차다 군가소리 山崩地折 하였어라
한번뛰어 강을건너 한번쳐서 왜적토평
그 기세 장할세라 越湯踏火 그기상은
우리단의 기백일세
3. 시베리아 遠東千里 거침없이 遍踏할제
野獸馬賊 다만나고 만주벌판 雪寒風에
갖은고초 다겪어도 일편단심 나라회복
우리단의 정신일세
4. 백만적병 무찌르던 乙支蘇文 垂範대로
포연탄우 火海속에 東征西伐 육탄삼아
救國成人 하신故友 백절불굴 절개로세
이것이 곧 우리 團是.¹⁶⁾

15) 이명숙, 「신흥무관학교와 항일노래」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신흥무관학교의 독립운동』 심포지엄 발표문, 2021.12.9.

16) 이 곡은 1982년 광복군가보존회에서 펴낸 『광복의 메아리』에 신동열이 제공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신동열(申東烈, 1899~1974, 평북 의주)은 1920년 고산자진

단시와 함께 〈신흥학우단가〉는 1916년 12월 26일 제10회 정기총회에서 제정되었다. 곡의 가사는 1917년 1월 13일에 발행한 『신흥학우보』제2권 제2호에 원문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

〈신흥학우단가〉

祖上의 세우신 넷나라 어디메뇨
 忠勇한 무리야 그 恩惠 껏까지 이즈라
 四千春光 빛나소든 배달 내나라
 自由의樂園을 지을者 우리가 안인가
 종설움 받으며 0(실?)목숨 이어가는
 二千萬 生靈의 人生길 引導할이 뉘뇨
 굳은마음 참된 精誠 힘을 다하야
 찌어진 民族의 새榮光 나타내이어라
 우리의 마음을 練鍛코 큰힘길러
 넷나라 억만년 새 基礎 鞏固케 세우세
 大千世界 덩고남은 기운다하랴
 普天下 優勝의 冕旒冠 길히 빛나도다.

《신흥학우보》 원문의 제목 하단에 ‘수절가 곡조동(守節歌曲調同)’이라 표기하고 있어 이 단가는 당시 널리 알려진 〈수절가〉의 곡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1914년 북간도 광성학교의 노래집 『최신창가집』에 〈수절(守節)〉이란 제목으로 수록된 〈수절가〉는 미국의 스테픈 콜린스 포스터가 1851년 작곡한 〈스와니강〉(Swanee River)이 그 원곡이다.¹⁸⁾ 단가의 작사자는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의군부에 이어 광복군에 복무하였다(『독립유공자공훈록』5, 1988 ;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혜안, 2002, 339쪽). <원병상 수기-신흥무관학교>(『독립운동사자료집』10, 18~19쪽)에서의 신흥학우단 團是는 3절과 4절만 소개되어 있어 1·2절은 후일 덧붙여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17) 『신흥학우단 단가(守節歌曲調同)』, 『신흥학우보』제2권 제2호(1917년 1월 13일).

18) <守節> 『最新唱歌集-附樂典』(국가보훈처, 해외한국독립운동사료14, 1996, 51쪽)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다.

신흥무관학교에서 가르친 노래 중에는 애국계몽운동 시기에 만들어진 창가들이 적지 않다. 신흥중학교를 다닌 큰 오빠 허채(許釵)에게서 노래를 배운 이상룡의 며느리 허은이 기억하는 노래 중에는 창가인 <정신(精神)>이 있다.

<정신>

슬프도다, 우리 민족아! / 오늘날 이 지경이 웬일인가?
사천여 년 역사국으로 / 자자손손 복락하더니
오늘날 이 지경이 웬말인가?

(후렴)

철사주사(鐵絲絢絲)로 결박한 줄을 / 우리의 손으로 끊어
버리고
독립만세 우뢰소리에 / 바다가 끓고 산이 동(動)하겠네.¹⁹⁾

이 곡은 국권을 상실한 시기 국내에서 널리 부른 <정신>(또는 <감동가(感動歌)>)로서 1914년 북간도 광성학교의 노래집 『최신창가집』에 <정신(精神)>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널리 알려진 노래이다. 모두 8절로 된 이 곡의 보표는 이 책 78쪽에 실린 ‘애국가와 동(同)’이라 표기하였으므로 그 곡조를 짐작할 수 있다. 1910년 8월 29일 강제 합병 직후 이 노래를 ‘애국가’로 부를 정도로 만주의 민족학교와 독립운동 단체들이 주요 향일가요로 보급하고 불렀다고 한다.²⁰⁾

19)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77~78쪽. 『최신창가집』에 실린 <정신>가 1절의 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슬프도다 우리민족아 / 사천여년 력사국으로 / 자자손손 복락받더디 / 오늘날 이지경 웬일인가/ 철사주사로 결박한 줄을 / 우리손으로 끈어버리고 / 독립만세 장한 소리에 / 동해가변 흥해야 육지가 되리라.” 1982년 광복군가보존회에서 펴낸 『광복의 메아리』에서는 <감동가>란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20) 《신한민보》1910년 9월 21일자.

당시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이 부른 군가에는 일본군의 군가를 차용해 가사를 바꿔 부른 노래도 있다. 교가와 함께 생도들이 배우고 자주 부른 <독립군>용진가>가 대표적이다.²¹⁾ 가사는 다음과 같다.

<독립군>용진가>

1. 요동만주 넓은뜰을 쳐서파하고
여진국을 토멸하고 개국하옵신
동명왕과 이지란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같이 원수쳐보세
2. 칭천강에 수병 백만 쳐서 파하고
한산도에 왜적들을 격멸하옵신
을지공과 이순신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같이 원수쳐보세
3. 만국회에 배를갈라 피를 뿌리고
육혈포로 만인중에 원수짜죽인
이준공과 안의사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같이 원수쳐보세
4. 혈전8년 동매국을 쳐서파하고
장파윤과 화성돈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같이 원수쳐보세

(후렴)

나가세 전쟁장으로 / 나가자 전쟁장으로
검수도산 무릅쓰고 나아갈 때에 / 독립군아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삼천만번 죽더라도 나아갑시다.²²⁾

21)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혜안, 2002, 72~73쪽. <원병상수기-신흥무관학교>(『독립운동사자료집』10, 32~33쪽)에서는 <독립군 용진가>로, 1982년 광복군가보존회에서 펴낸 『광복의 메아리』에서는 <용진가>란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22) 원병상, <원병상수기-신흥무관학교>(『독립운동사자료집』10, 1975, 32~33쪽)에서는 1절만 소개되었다. 허영춘, 『독립운동가요의 고찰 및 음악교육으로의 수용적 가치 탐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76~79쪽.

《(독립군)용진가》의 작사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노래의 원곡은 1908년 일본의 카미나가 료오게쯔(神長瞭月)의 창가 〈하이카라 부시〉로서 그 악곡을 차용한 것이다. 이상준의 각종 창가집에 〈권학(勸學)〉 또는 〈전진가(前進歌)〉란 제목으로 달리 불리었다.²³⁾ 용진가의 가사는 이미 1917년 일제의 정보보고서에서 수차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²⁴⁾ 1917년 이전에 작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대 만주 독립군 진영에서 널리 부른 노래 중에 〈조국생각〉(또는 〈독립군은 거름〉)으로 알려진 곡이 있다. “海蔘衛(블라디보스톡)와 서·북간도 등지에서 유행하는 창가”란 소개와 함께 《신한민보》1918년 6월 13일에 1~4절, 6월 20일자에 5~7절 가사가 각각 소개된 이 노래는 실제 서간도와 북간도,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에서도 널리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²⁵⁾ 이 노래도 일본 군가의 곡조에 맞춰 당시 망명객의 심경과 다짐을 담은 가사로 바꿔 부른 경우라 하겠다.

<조국생각>

1. 이곳은 우리나라 아니언만
무엇을 바라고 예왔는가
자손의 거름될 이네 독립군
설 땅이 없지마는 희망이 있네
2. 국명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
사해에 티끌같이 떠다니네
이렇다 웃지 말라 유국(有國) 국민들

23) 노동은 편저, 『항일음악 330곡집』, 민족문제연구소, 2017, 272~273쪽.

24) <秘受0392호>不穩者發見處分の件(함경남도경무부보고)(1917.1.11.)

25) 1982년 광복군가보존회에서 펴낸 『광복의 메아리』에서는 민중식 제공으로 〈독립군은 거름〉이란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 자유의 활동할 날 있으리니
3. 한반도에 성장한 우리 민족아
하나님이 주신 독립석하에
당당한 자유생활 끈혀진지
사변이 밟서 지나 갔도다
 4. 해외에 나선 우리 동포야
괴로우나 질거우니 우리 마음에
와신상담 잊이말고서
원수 갑흘 준비하여 뵈시다
 5. 두만 건너를 살펴보오니
금수강산은 빗을 일었고
신성한 단군자손 우리동포는
저놈에 철망에 걸여 잇고나
 6. 서비리아 찬바람에 이고생함은
한반도 너를위함이로다
너와 나와 서로 만나볼때는
독립년 밖에 다시 없고나
 7. 높이솟은 백두산아 내말드러라
저것너 富士山부터 밀어라
우리의 창년이 지진되여서
富士山 번질날 멀지 안토다
 8. 조국을 일코 가던 영혼은
턴당(천당)도 도로혀 디옥(지옥) 되리니
이말을 잊이말고 분발하면
한반도 강산회복 하리라.

이 노래는 독립운동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만주로 온 독립군의 비장한 모습을 담은 것으로 민족의 슬픈 현실을 표현하면서도 '자손의 거름'될 독립군으로서 조국독립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²⁶⁾ 노래의 작사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원곡은 일본군가인 <전우(戰友)>로서 1905년 일본의 마시모 히센(眞下飛泉)이 작사, 미요시 카즈오키(三善和氣)가 작곡해 러일전쟁 이후 유명해진 노래를 가사만 바꿔 부른 것이다.²⁷⁾ 이 노래는 1914년 북간도 광성학교에서 편찬한 노래집 『최신창가집』에 수록되어 학생들에게 널리 불리게 되었다.²⁸⁾

1919년 3월 국내 전역은 물론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일제의 수탈과 탄압에 쫓겨 압록강을 건너 망명한 많은 젊은이들이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로 찾아 들었다. 당시 만주로 망명하던 참담함과 새로운 문무를 익혀 독립전쟁에 나서고자 하는 이들이 부른 노래 중에는 <도강가(渡江歌)가 있다. 이상룡의 며느리인 허은이 일부 기억하는 이 노래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도강가>(일명 <3.1운동가>)

1. 일천구백이십오년 삼월 일일은

26) 《신한민보》1918년 6월 13일자(3면)에는 1~4절까지, 6월 20일자(3면)에는 5~7절까지 소개되었다.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혜안, 2002, 75~76쪽)과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민족문제연구소, 2010, 88~89쪽)에는 4절까지만 소개되어 있다.

27) 허영춘, 『독립운동가요의 고찰 및 음악교육으로의 수용적 가치탐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84~87쪽.

28) 1914년 광성학교에서 편찬 『최신창가집』에 실린 <조국생각>의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곳은 우리나라 아니언만 / 무엇을 바라고 이에왔는가 / 자손의 거름될 이네 독립군 / 설 땅이 없지마는 희망이 있네
2. 국명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 / 하해를 티끌같이 떠다니네 / 잃었다 웃지마라 자유국민들 / 자유회복 할날이 있으리라.” 중앙아시아 고려인 노래를 연구해 온 김보희는 카자흐스탄에서 <이곳은 우리나라 아니언마는>이란 제목으로 악보를 채보하였고, 북한에서 펴낸 『조선민족음악전집(민요편 4)』(평양:예술교육출판사, 1999)에서는 <독립군가>란 제목으로 실렸다고 밝혔다(김보희, 「북만주지역의 독립운동가요-1910년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43, 2008, 36~37쪽).

이내 몸이 압록강을 건넌 날이니
 연년이 이날은 돌아오건만
 나의 목적 달하지 전 못잊으리라

2. 삼천리 강산은 나의 집
 부모형제 친구들 다 이별하고
 한줄기 눈물로써 압록강건너
 한숨으로 부모국을 하지하였네
3. 님을두고 떠난 외로운 내몸
 간곳마다 고생이오 학대로구나
 동포야 묻노니 내죄뿐이라
 내죄도 있으리라 같이 나가자
4. 西伯利亞 찬바람에 몸을 날리며
 스슬랜드 동산에 눕기도하고
 蒙古리아 沙漠도 밟아들보며
 亞羅比亞 별판에도 거니리로드.²⁹⁾

이 노래는 1927년 《조선일보》에 <만몽답사(滿蒙踏査)>라는 연재코너를 집필하던 이종정(李鍾庭)이 만주 길림을 여행하던 도중 기차 안에서 들은 것이라며 전문을 소개한 것이다.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와 곡조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1910~20년대 망명객들에게 널리 불리었으며, 이후 <3·1운동가> 또는 <3·1절노래>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³⁰⁾

1919년 3월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 이후 무장투쟁에 의한 결전의 필요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내외의 수많은 청년들이 입학할 지

29) 李鍾庭, <만몽답사>《조선일보》1927년 11월 10일자 ;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89쪽에서는 “사천이백 오십이년(서기 1919년) 삼월 일일은,,,못 돌아오리”로 다소 가사를 달리 기억하고 있다.

30) <도강가>는 1982년 광복군가보존회에서 펴낸 『광복의 메아리』에 <3·1운동가>란 제목으로, 1995년 중국 요녕성에서 전정혁이 수집해 정리한 『조선족항일투쟁노래 선집』에는 <압록강을 건넌 노래>로 소개되었다.

원하였다. 이 무렵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현역 일본군 장교였던 지청천(池青天, 1888~1957)이 동지 김광서(金光瑞)와 함께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에 합류하였다. 이에 신흥무관학교는 무장투쟁을 수행할 군대양성을 목적으로 합니하 본교에 이어 분교로 통화현 칠도구(七道溝) 쾌대모자(快大帽子), 유하현 고산자(孤山子) 하동대두자(河東大肚子) 등 3곳에 군사기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즉 합니하 본교와 칠도구(七道溝) 쾌대모자(快大帽子) 분교에는 3개월의 일반훈련과 6개월 과정의 후보훈련을 실시하였고, 유하현 고산자에는 2년제 고등군사반을 두어 고급 간부를 양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항일전쟁의 시기가 점차 앞당겨짐에 따라 고등군사반과 초등군사반 모두 3개월간의 단기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일제의 정보자료에 의하면, 1920년 1월 당시 통화현 합니하 본교의 학생수가 97명이며 고산자의 학생 수가 약 120명, 유하현 쾌대모자의 학생 수가 100명 정도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교관이었던 원병상은 한 학년 학생 수가 18세 소년부터 50세 노년 학생까지 600여 명 규모였다고 증언하였다.³¹⁾

3. 검성학교에서 부른 항일노래

성황을 이루던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6월경 부득이 문을 닫게 되었다. 일제의 독립군 토벌작전과 만주 침략에 노골화되었고, 마적단의 잦은 습격과 중국 관헌들의 방해도 가중되었기 때

31) 원병상, <원병상수기-신흥무관학교>『독립운동사자료집』10, 1975, 27~29쪽 ; 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항일무장독립운동과 백산 지청천장군』, (주)문화과지성사, 1995, 42~45쪽.

문이다.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로 크게 패전한 일본군이 시베리아와 나남에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와서 협공을 꾀하려 한다는 정보에 따라 부득이 신흥무관학교 본부와 학생들을 백두산 근거지로 이동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그해 10월 청산리에서 크게 패전한 일본군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인촌의 비무장 민간인을 참혹하게 학살하는 ‘경신참변’을 일으켜 많은 애국지사들이 길림성·흑룡강성으로 흩어져야 했다.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북상한 대한독립군단도 1921년 6월 러시아령 자유시(현재의 스보보드니)에서 한국 독립운동사상 가장 비극적인 참화를 겪어야 했다. 러시아 혁명군의 배신으로 인해 동족간의 살육전을 벌여야 했던 이른바 ‘흑하사변’으로 인해 대한독립군의 피해는 사망 272명, 익사 31명, 행방불명 250명, 포로 917명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었다.³²⁾

자유시에서의 참변으로 독립군의 주력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자, 여준은 서간도 일대의 독립군을 규합하기 위해 새 무관학교를 만들려 했다. 여준은 일제와 러시아의 탄압에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임시정부의 처사에 반발하여 그의 개조를 요구하는 한편,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발송한 터였다. 나아가 폐교되었던 신흥무관학교를 아예 길림시 액목현(額穆縣) 황지강자향(潢地崗子鄉)으로 옮기기로 하고, 1922년 초 액목현 대황지(大荒地, 현 蛟河市 남강자)에 검성학장(儉成學莊, 혹은 검성학당, 후에 검성중학으로 개칭)을 세우고 교장에 취임했다. 여준은 마을 주민들의 협력으로 세운 이 학교에 석주 이상룡 일가를 모신데 이어 가장 믿음직한 제자인 오광선을 불러 체육선생으로 삼았다.³³⁾ 여준과 오광선은 이곳을 서로군정서의 새로운 독립군

32) 오광선, 「반세기의 증언」, 《조선일보》 1964년 3월 27일 ;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3권』, 국학자료원, 1980, 284쪽.

33) 허은 구술·변장에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2010, 94쪽 ; 지

기지로 삼기위해 둔전제를 실시하여 장기 전략을 세웠다.

“학당 창건 초기에 여준이 교장 겸 영어과를 가르치고 원
신흥무관학교 군사교관이었던 오광선이 체육교원으로 있
었고, 오일선과 박일준 등이 기타 학과목 교수를 맡았다.
학생 수는 70~80명이었다. 학당에는 기숙사와 식당이 마
련되어 있었으며, 학생들은 모두 집단생활을 하였다.....처
음 대황지에 학교를 지을 때 3채에 10여 칸이 달린 집을
지었다. 그후 하북산기슭의 사황지(지금의 신안툰)로 옮겨
가 낡은 집 15칸을 사고 또 일부 간의건물을 지어 교실(3
개)과 학생기숙사, 교무실로 썼다. 비록 학교조건이 아주
보잘 것 없었지만, 교원과 학생들의 교수 및 학습열성은
아주 드높았다.”³⁴⁾

정의부의 군사위원장인 지청천의 가족도 길림성 1924년 액목
현 황지강자로 이주했다. 이후 장남 지달수(池達洙, 1909~ 1969)가
검성중학을 졸업했으며, 딸인 지복영(池復榮, 1920~2007)도 이 학
교 부속 소학교를 다녔다. 지청천과 오광선 가족은 검성학교를 ‘ㄱ’
자로 마주 볼 수 있는 건물에 살았다.

지복영의 회고에 의하면, 검성중학교는 둔전제 방식으로 운영
했기에 교사와 학생 구분 없이 모두 들에 나가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오전에 학과 공부에 오후에 농사일을 해야 했기에 새벽이
나 저녁시간을 이용해 군사교육을 받았다. 비록 목총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진짜 총 못지않게 이용하면서 군사지식을 터득하는
동시에 체력을 단련했다.”고 한다.³⁵⁾

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43~44쪽.

34) 김동림, <검성학당>〔길림조선족〕, 중국·연변인민출판사, 1995, 479~480쪽 ;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103~104쪽.

지복영은 검성중학에서 있던 8월 29일 국치일 행사도 기억했다. 국치일은 한인 교포들이 나라 잃은 부끄러움을 절치부심 잊지 말고 정신을 분발해 기필코 독립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므로 모두 음식을 하지 않고 굶었다고 한다. 낮에는 운동장에서 기념식도 거행하고 또 중학교 학생들이 평소에 연마한 군사교육으로 분열식도 하고 격검(擊劍)도 하여 교포들을 고무했다. 국치일에 부른 것으로 알려진 <국치의 노래>는 다음과 같다.

<국치의 노래>

1. 경술년 추팔원 이십구일은
조국의 운명이 떠난 날이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여라
갈수록 종설움 더욱 아프다
2. 조성의 피로써 지킨 옛집을
백주에 남에게 빼앗기고서
처량히 사방에 표랑하오니
눈물을 뿌려서 조상 하여라
3. 어디를 가든지 세상사람은
우리를 가리켜 망국노라네
천고에 치욕이 예서더할까
후손을 위하여 눈물 뿌려라
4.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때니
아픔과 슬픔을 항상 머금고
복수의 총칼을 굳게잡고서
지옥의 쇠문을 깨뜯지어다.³⁶⁾

35)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39~42쪽.

36)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85쪽 ;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48쪽. <국치의 노래>는 1982년 광복군가보존회에서 펴낸 『광복의 메아리』에서는 <국치추념가>란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국치일 밤에는 중학교 강당에서 연극을 했다. 입추의 여지없이 뻣뻣하게 사람들이 모였다. 연극 내용은 독립운동을 하러 집을 떠난 아버지를 어린 아들 형제가 찾으러 떠난다는 이야기인데, 배우와 관객들이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고 한다.³⁷⁾ 후일 〈국치추념가〉로 제목이 바뀌어 불린 〈국치의 노래〉는 1908년 문인 최남선(崔南善)이 스코틀랜드의 민요 악곡에 한글가사를 붙여 만든 〈경부철도(京釜鐵道)〉 노래의 선율을 차용하고 리듬 형태를 바꿔 만들어진 것이다. 이 노래는 1872년 스코틀랜드의 시인 로버트 번스에 의해 창작된 〈호밀밭 사이로〉(Comin 'thro' the Rye)라는 민요악곡을 차용해서 만들었다. 〈경부철도〉 노래는 1914년 중국 서간도 망명객들이 세운 민족학교인 광성중학교에서 편찬된 노래집 『최신창가집』에 수록되어 널리 불리운 상황이었기에 가사를 바꿔 부를 수 있었던 것이다.³⁸⁾

학생들은 등학교하면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을 충으로 싸 죽이는 즉흥 연극을 하기도 했다. 왜놈이 거꾸러지면 ‘만세 만세 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면서 작대기에 수건을 매달아 태극기를 대신했고, 또 막대기를 총대 삼아 둘러메고서는 줄을 지어 〈용진가〉·〈독립군가〉·〈충무공 노래〉, 나아가 〈신흥무관학교 교가〉까지 소리 높여 부르면서 행진했다고 한다.³⁹⁾

김성학교에서도 10월 3일 개천절 날이나 체육대회 때에는 큰 기념행사를 가졌다. 동네에서 떡과 설탕을 사오고 운동장에 모여 먹으며 놀았다. 체육운동 때마다 목청껏 불렀던 응원가에도 독립 투쟁의 의지와 열망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안창호 선생이 작

37)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48~49쪽.

38) 허영춘, 『독립운동가요의 고찰 및 음악교육으로의 수용적 가치탐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76~79쪽. 광성학교『최신창가집』에 실린 〈경부철도〉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우렁차게 토하난 汽笛소리에 /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나가서 / 뿔리부는 바람에 형세같으니 / 날개가진 새라도 못따르겠네.”

39)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77~78쪽.

사한 〈소년남자가〉이다. 검성학교에 대해 이상룡의 며느리인 허은(許銀)도 검성학교를 다닌 오빠들을 따라 배우며 부르던 이 노래에 대한 같은 기억을 갖고 있다. 이 곡은 1914년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에는 〈야구(野球)〉라는 제목으로 실렸는데, 작사는 안창호(安昌浩)이며 서양 음악가인 이상준(李尙俊, 1884~1948)이 작곡하였다.⁴⁰⁾

<야구>

무쇠골격 돌근육 소년남아야
 황황한 대한혼 발휘하여라
 다달았네 다달았네 우리나라에
 소년의 활동시대 다달았네
 만인 대적 연습하여
 후일 공훈 세우세
 절세영웅 대사업이
 우리 목적이 아닌가.⁴¹⁾



허은은 또 당시 학생들이 부른 군가로 제목을 알 수 없는 다음의 곡을 기억하고 있다.

하늘 밑의 모든 백성 앞을 부를 때

40) 1914년 북간도 광성학교의 『최신창가집』에서는 〈야구〉로, 1916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발행의 『애국창가』에서는 〈소년남자가〉로, 1918년 국내에서 이상준에 의해 발행된 『최신창가집전』에서는 〈운동회〉가로 수록되어 있다(반혜성,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 발행 『애국창가』 연구」 『이화음악논집』 23집, 2019 참조).

41)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2010, 103~104쪽. 1914년 광성학교에서 펴낸 『최신창가집』에 실린 〈야구〉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무쇠골격 돌근육 소년남아야 / 애국의 정신을 발휘하여라 / 다달았네 다달았네 우리나라에 / 소년의 활동시대 다달았네 (후렴) 만인대적 연습하여 / 후일 전공 세우세 / 절세영웅 대사업이 / 우리 목적이 아닌가.” 이 곡은 1982년 광복군가 보존회에서 펴낸 『광복의 메아리』에서는 〈소년행진가〉란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파도같이 물러온들 그 무엇이라
 나가라 싸워라 대승계 월계관
 내게로 돌아와 싸워라 싸워라
 오전(五戰)과 육전(六戰)의 모든 주인은
 분분함이 백운심처(白雲深處) 소낙비로다
 신체를 발육하는 동시에
 경쟁심 주의를 양성하려고
 공기 좋고 구역 넓은 운동장으로
 활활 나는 듯이 빨리 나가세
 만인(萬人) 대적(大賊) 연습하여 / 후일 전공 세우세.⁴²⁾

이 군가는 후일 북로군정서의 총사령관이던 대한독립군단의 부총재인 김좌진(金佐鎭)이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승리의 행진곡〉의 가사 내용이 가장 유사하다. 〈승리의 행진곡〉은 1897년 만들어진 일본 군가로 〈군함행진곡〉(烏山 啓 작사, 瀬戸口 藤吉 작곡)이 원전이다.⁴³⁾

1. 압록두만 흥안령에 발해의 달에
 길이길이 밟았던 그때 그리워
 거센 바람 높은 소리 큰 발자취로
 거침없이 위아래로 달려가누나
 (후렴)
 나가라 싸워라 대승리 월계관/내게로 오도록 나가 싸우라
 나가라 싸워라 대승리 월계관/내게로 오도록 나가 싸우라
2. 잘즈른 익힌 힘줄 별떡거리고
 절절 끓는 짙은 피는 넘치려누나

42)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87-88쪽.

43) 김보희, 「북만주지역의 독립운동가요-1910년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43, 2008, 38쪽.

- 한뼘되재 비긴달에 칼을 뽑을제
 바위라도 한번 치면 부서지리라
3. 하늘 아래 모든데서 악을 뿌리며
 조수같이 밀려온들 그 무었이라
 싱긋 웃고 무쇠 팔뚝 번쩍일 때에
 구름속의 선녀들도 손뻑치리라.⁴⁴⁾

검성중학교는 1924년 가을 30여 명의 졸업생을 제1회로 배출하였다. 그러던 중 마적단의 습격과 추위,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마적들은 한인촌에 자주 습격해 찾아와 쌀을 내놓으라고 주민들을 협박하였고, 안 주면 폭행과 납치를 서슴치 않았다. 독립군들이 마을을 비운 사이 쳐들어오면 할 수 없이 쌀을 퍼주었다고 한다. 검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했던 오광선의 차녀인 오희옥은 당시 일본군과 마적의 침탈에 맞서 학교에 총구멍도 만들어 냈다고 한다.⁴⁵⁾

하지만 이렇게 정성을 들인 검성학교는 점차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좌경화됨에 따라 1927년 ‘청년강습소’로 개칭되었다. 강사진도 소련과 중국 관내, 조선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지식인들이 초청되어 정치경제학과 혁명사, 유물사관 등을 강의하였다. 그러자 교장인 여준과 교관 오광선 등은 더 학교에 머물지 않고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여준과 지청천·홍진 등과 함께 길림성 아성현(阿成縣)의 대석하(大石河)로 이주하였다. 학교에 남은 공산

44) 광복군가보존회, 『광복의 메아리』, 1982, 64쪽.

45)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쌀 한말씩 퍼주고 그랬어. 학교 마당에 집 같은게 있어서 거기다 총구멍을 다 해놨어. 일본군이나 마적이 들어오면 대항하려고. 거기 가 검성중학교야. 거기 교실이 작아. 나는 공부하러 거기를 가고 그랬어. 우리 언니도.”(김명섭, 『용인지역 3대독립운동가연구 서설-오희옥 여사 인터뷰』, 『용인향토 문화연구』5집, 2003 ; 박환, 『용인출신 여자독립군 吳姬玉여사 면담록』, 『용인향토 문화연구』6집, 2006 ; 박숙현, 『마지막 증언』, 북스토리, 2019 참조).

주의자들은 각지에 청년과 농민들로 군중조직을 묶어 소책자를 찍어 나누어줌으로써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적극 선전하였다.

검성중학교 학생들은 늘 여러 마을에 내려가 야학교를 꾸리고 강연회를 열며 문예공연과 기념활동을 가지고 《여성해방가》, 《반일가》, 《무산아동가》, 《소년대행진곡》 등 혁명가곡을 배워주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생동 활발하고도 군중들이 즐기는 형식으로 반제반봉건적혁명 사상을 선전하였다.⁴⁶⁾

1920년대 후반 당시 검성중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부른 항일 노래인《여성해방가》·《반일가》⁴⁷⁾·《무산아동가》·《소년대행진곡》⁴⁸⁾등의 작사와 작곡자를 비롯해 가사의 내용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검성학교는 1928년말, 중국 당국의 ‘교육권 회수’ 정책에 따라 부득이 폐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검성중학을 졸업한 많은 졸업생들이 항일 독립투쟁의 선두에 나서 향후 지역의 주요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 항일전장에서 활약한 권태산과 한일광 등이 대표적이다.

46) 김동립, <검성학당>〔길림조선족, 중국:연변인민출판사, 1995), 480~481쪽 ; 원시희,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2-불씨』, 중국북경민족출판사, 1995, 726~728쪽.

47) <반일가>로 채보된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전토 인민들이 무장하여라 / 모순 많은 제국주의 강도놈들을 / 일차대전 피비린내 가시기도 전 / 이차대전 대도살을 개시한다.”(남희철 주필, 『항일가곡선집』, 연변인민출판사, 2015, 54쪽).

48) <여성해방가>와 <무산아동가>·<소년대행진곡>이란 제목의 노래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남희철 주필, 『항일가곡선집』(연변인민출판사, 2015)에서는 <여자해방가>로, <소년단행진곡>으로 각기 다른 제목으로 채집된 것으로 확인된다.

4. 맺음말

1910~20년대 만주 무장 독립운동의 요람인 신흥무관학교와 검성학교의 졸업생과 관계자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당시 민족지사들이 만들고 부르며 지킨 항일노래를 추적해 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의 5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신흥무관학교에서 부른 애국가는 1910년 손봉호가 필사한 창가집의 12장에 실린 애국가를 가사만 조금 달리했으며, 곡조는 〈올드 랭 사인〉인 것으로 보인다.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조지아 행진곡〉을, 신흥학우단 단가는 〈스와니강〉 원곡을 차용하고 〈수절가〉의 가사를 단의 나라사랑·독립정신을 담아 바꿔 불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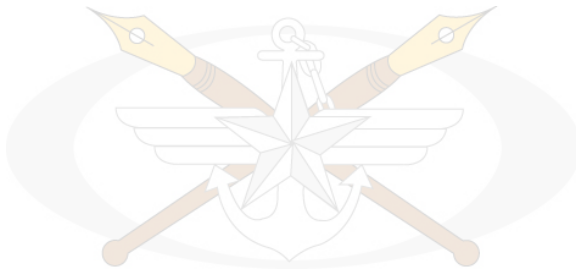
둘째, 독립군가 중에는 일본 창가의 곡조를 차용해 애국적인 가사로 바꾼 노래도 있다. 〈〈독립군〉용진가〉는 〈하이카라 부시〉를, 〈조국생각〉은 군가 〈전우〉를 차용했는데, 1914년 광성학교의 『최신창가집』에 실린 이 노래를 가사만 시대상황에 맞게 애국 계몽적 내용으로 바꿔 불렀다.

셋째,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압록강을 건너 망명객들이 많이 불렀는데, 그중 〈3·1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노래의 원전은 〈도강가(渡江歌)〉임을 알 수 있다. 이 곡의 가사는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에 실려 있다.

넷째, 1920년 6월 일본군의 침탈로 폐교된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하기 위해 여준·오광선 등이 액목현 대항지에서 검성학교를 창설해 개교했는데, 학생들은 이 곳에서도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비롯해 〈용진가〉·〈독립군가〉 등을 자주 불렀다. 특히 학생들이 부른 항일노래 중 눈에 띄는 것은 국치일에 부른 〈국

치의 노래), 운동회 때 부른 〈야구〉, 행진 군가인 〈승리의 행진곡〉 등을 들 수 있겠다.

다섯째, 1927년 검성중학교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좌경화됨에 따라 ‘청년강습소’로 개칭되었다가 이듬해 말 중국 당국에 의해 폐교되고 말았다. 1920년대 후반 당시 검성중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부른 항일노래로는《여성해방가》·《반일가》·《무산아동가》·《소년대행진곡》등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노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논저

김병기, 『100년만의 만남 신흥무관학교』, 국가보훈처, 2011.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해안, 2002.

<http://uci.or.kr/G701:B-00091470416@N2M>

남희철 주필, 『항일가곡선집』, 연변인민출판사, 2015.

박환, 『신흥무관학교』, 선인, 202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2.

<http://uci.or.kr/G701:B-00047961563@N2M>

원시희,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2-불씨』, 중국북경민족출판사, 1995.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http://uci.or.kr/G901:A-0006562708@N2M>

_____,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항일무장독립운동과 백산지청천장군』, (주)문학과지성사, 1995.

<http://uci.or.kr/G901:A-0008502119@N2M>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청산리대첩 이우석 수기·신흥무관학교』, 2013.

<http://uci.or.kr/G500:1310377-02012035362982@N2M>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http://uci.or.kr/G701:B-00099013229@N2M>

2. 논문

길태숙, 「재만조선인 항일투쟁 노래의 과거와 현재적 의미-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44, 2008.

<http://uci.or.kr//G704-001255.2008..144.007>

김보희, 「북만주지역의 독립운동가요-1910년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43, 2008.

<http://uci.or.kr//G704-000884.2008.43..003>

김수현, 「사료로 보는 애국가 짓기와 부르기의 역사」, 『동양학』 82집, 2021.

<https://doi.org/10.17320/orient.2021..82.25>

김태국, 「신흥무관학교와 서간도 한인사회의 지원과 역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2011.

<https://doi.org/10.15799/kimos.2011..40.002>

노복순, 「항일가요의 가사 결합양상과 특성-<조지아행진곡> 활용 곡을 중심으로」, 『동양학』, 2021.

<https://doi.org/10.17320/orient.2021..84.153>

박성순, 「석주 이상룡의 『만주기사』 분석을 통해 본 신흥무관학교의 하급교육기관 실태」, 『동양고전연구』 67, 2017.

<https://doi.org/10.16880/SEC.2017.67.06.173>

반혜성,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 발행 『애국창가』 연구」, 『이화음악논집』 23집, 2019.

<https://doi.org/10.17254/jemri.2019.23.1.005>

신광호, 「항일전쟁시기 중국조선족 항일가요의 정서연구」, 『국악교육』 33, 2012.

<http://uci.or.kr/G704-SER000002235.2012.33.33.005>

안병삼, 「중국 조선족학교 교가의 망실과 그 특징」, 『한국민족문화』 39, 2011

<http://uci.or.kr/G704-001560.2011..39.004>

이명숙, 「신흥무관학교와 항일노래」,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신흥무관학교의 독립운동』 심포지엄 발표문, 2021.12.9.

장세윤, 「1910년대 남만주 독립군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 『만주연구』 24, 2017.

<https://doi.org/10.22888/mcsa..24.201712.89>

허영춘, 『독립운동가요의 고찰 및 음악교육으로의 수용적 가치탐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Abstract)

The anti-Japanese song at Shingheung Military Academy and Gumsung school

Kim, Myung-se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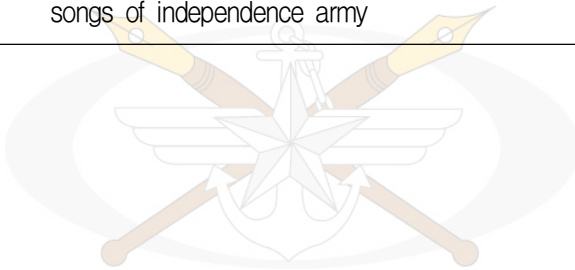
The Graduates of Shinheung Military Academy(新興武官學校) and Gumsung School(儉成學校), the cradle of the Manchurian armed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1910s and 20s, made many anti-Japanese songs, and they sang, kept them together, and raised the spirit of independence. The 'Korean national anthem(愛國歌)' sung by Shinheung Military Academy wa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lyrics of the Korean National anthem in Chapter 12 of the Patriotic Song Book in 1910, and the tune seems to be "Auld Lang Syne." Singheung Military Academy song borrows 'Marching Through Georgia', and Shinheung-student unit price borrows 'Swanne River'.

Among the independent military songs, there is also a song that borrowed the tune of the Japanese Changga(唱歌) and changed it into patriotic lyrics, which changed the lyrics of the song from Gwangseong School's "The Collection of the Latest Changga" in 1914. As an example, '(Independent Army) Yongjiinga(勇進歌)' borrowed the Japanese Changga, and 'The Thought of Homeland' borrowed the tune of 'Fallow Soldier(戰友)', a Japanese soldier, and sang it as an anti-Japanese song. Since the March 1st Movements in 1919, the original copy of the song, known as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s Song(3·1運動歌)', had been called by many exiles, indicating that the 'Dogang song(渡江歌)' is the original version of the song.

However, Shinheung Military Academy was inevitably closed in June 1920 due to the Japanese army invasion. Since then, Yeojun(呂準), who served as the principal established and opened Gumsung School to

succeed Shinheung Military Academy. Students at Geomseong School often sang ‘Shinheung Military Academy School Song’ and ‘Songs of Independence Army’ here. In particular, among the anti-Japanese songs sung by students, ‘Song of National Humiliation’ expressed on the indignity of being lost the country by Japan in 1910, "Baseball" sung on sports day, and ‘March of Victory’ sung as a military song of the independent army.

Keywords : Shingheung Military Academy, Gumsung school,
anti-Japanese song, patriotic song,
songs of independence arm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117-160
<https://doi.org/10.29212/mh.2022..122.11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후기 한강 송파지역의 군사적 의미와 장시(場市) 개설

김미성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목 차

1. 머리말
2. 송파나루의 군사적 입지 조건
3. 송파창(松坡倉)의 설치와 남한산성의 창고 운영
4. 송파장(松坡場)의 설치와 광주유수의 보호
5. 맺음말

초 록 이 논문은 송파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조선후기 송파장(松坡場)의 상업적 발달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점을 논증함으로써, 상업과 군사시설의 상호관련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를 드러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송파장의 시작과 번영 과정에는 그 군사적 목적과 기능이 관통하고 있었다.

첫째, 송파나루는 수어청에 소속되며 군영의 별장(別將)이 관할하

는 한강변 4진(四津) 중 하나였다. 광주의 진사(鎭守)가 위치한 곳이었으며, 수어청의 둔전과 군관·진군도 배치되었다. 이러한 송파나루는 일찍부터 ‘보장(保障)의 중지(重地)’로 여겨지며 중시되었다.

둘째, 송파창(松坡倉)은 남한산성의 핵심적 군량 창고로서 기능하였다. 송파창은 한강을 통해 실려 오는 전국의 군량미들과 목재들이 일차로 집하되는 곳이었다. 높은 산성까지의 운송이 어려웠으므로 강변 송파창은 효율적인 창고였다. 송파창의 곡물들은 봄에 인근 백성들에게 환곡으로 분급되었고 가을에 환곡을 갚을 때에는 남한산성에 납부하게 하였다.

셋째, 송파장은 군사상 요충지에 충분한 인구를 모집하기 위해, 또 그 모민(募民)들과 진군(鎭軍)의 안정적인 생업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18세기 초 수어사의 제안에 따라 개설되었다. 처음에는 남한산성 근처에 개설되었으나 송파나루쪽으로 옮겼으며, 송파장은 빠르게 성장하여 19세기 초 전국 15대 장시로 꼽히기에 이르렀다. 한성의 시전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송파장을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에도, 송파장의 국방상 기능이 인정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송파 지역 사례에서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장시가 개설·이전·성장·유지되었다. 이 사례는 조선후기 상업사 연구에서 군사적 물류의 영향성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 송파나루, 송파창, 송파장, 수어청, 남한산성,
광주유수부, 모민(募民)

(원고투고일 : 2022. 1. 7,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머리말

조선후기 천여 개에 달했던 전국의 장시(場市)들은 주로 상업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¹⁾ 송파장(松坡場)도 19세기 초 『만기요람』에서 전국 15대 장시에 속하는 대장시로 꼽혔고, 또 한성부에 가장 인접한 대장시였으므로, 기존 조선후기 상업사 연구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었다. 특히 한강변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서울 상업을 논할 때에는 송파장과 송파상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²⁾ 당시 행정구역상에서는 송파가 한성부에 속하지 않았고 경기도 광주에 속했으나, 한강을 매개로 서울의 상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후기 서울 상업에서 송파는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었다. 송파는 조선후기 서울 주변에 형성되었던 ‘위성도시’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하였다.³⁾ 한편, 송파장은 송파나루에 위치하였으므로 외방(外方) 포구(浦口)를 매개로 하는 유통로 연구에서도, 전국 단위의 원거리 무역을 했던 상인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포구로서 설명되었다.⁴⁾ 하지만 최근 조선후기 상업에 대한 연구자가 뜸해진 상황이라 송파장에 대한 후속 연구도 적은 편이다.

송파장이 전국적인 대장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송파나루가 수로·육로 교통의 요지에 입지했던 점, 또 당시 최대의 소

1) 김대길, 『朝鮮後期 場市研究』, 국학자료원, 1997

2) 최완기, 「朝鮮後期 松坡商의 都賈活動」, 『도시행정연구』 8, 1993 ; 최완기, 「VIII. 松坡場의 商人들」,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서울학교양총서 1)』,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4 ; 고동환,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1998, 82~87쪽 ; 변광석, 『朝鮮後期 市廛商人 研究』, 혜안, 2001, 132쪽, 180쪽, 219쪽

3) 손정목, 「李朝後期 서울周邊에 形成된 衛星都市研究(上)」, 『도시문제』 1975년 11월 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5

4) 고동환, 「18·19세기 外方浦口의 商品流通 발달」 『한국사론』 13, 1985, 10쪽

비시장이었던 한성과 인접해 있었다는 점, 그러나 시전상인들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속해 있었다는 점 등 교통·상업상의 이점들이 작용한 덕분이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도성 인근의 몇몇 다른 장시들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이점들이었다.

하지만 송파장의 경우에는 다른 장시들과 차별적인 이점도 있었다. 송파장이 위치했던 광주는 남한산성이 위치한 곳이었고 18세기 말 유수부로 승격되었던 지역이었다. 송파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곳에 장시가 개설된 시점부터 혁파 논란 이후 장시가 지속적으로 번영하기까지 ‘군사상의 명분’이 중요하게 관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부분은 기존 송파장 또는 송파상인에 대한 연구에서 크게 주목되지 못하였다.⁵⁾

사실 조선후기 상업은 군사문제와 생각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구체적인 실례로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조선후기 서울 지역 군병(軍兵)들의 상업 활동이다. 임진왜란 이후 군문(軍門)이 증설되며 서울 인근의 군병들이 늘었고, 훈련도감의 경우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운영되며 군병들에 대한 급료를 지불하였다. 그런데 재정난으로 급료 지불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는 군병들이 자체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만든 수공업품[受持之物]을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비시전상인으로서도 시전처럼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패(市牌)’라는 일종의 상업 허가증을 지급해주기도 하였다.⁶⁾ 이 군병들의 상업활동은 도고 활동을 벌이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⁷⁾ 군병들의 상행위는 시전

5) 김대길, 앞의 책, 1997, 259~264쪽에서 조선왕조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진보(鎭堡) 등을 설치하며 동시에 장시를 신설 또는 이설하는 사례들을 제시한 바 있었다.

6) 변광석, 앞의 책, 2001, 169~170쪽

7) 최주희, 「18세기 중후반 훈련도감의 立役 범위 확대와 도감군의 상업활동」 『한국사학보』 71, 고려사학회, 2018. 노영구 외, 『조선후기 중앙 군영과 한양의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에도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상인들과 충돌하며 ‘난전(亂塵)’의 주축으로 여겨져 논란이 되었고, 결국 시전으로 편입된 경우도 있었다.⁸⁾

한편, 조선후기 국가의 재정난으로 인해 각 관청들이 상업활동을 통해 재정 수입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밝힌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⁹⁾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청 등의 중앙 군영들도 재정 보충 수단으로 활발한 상업활동을 하였다. 지방에서도 강화도 구관청(句管廳), 평양 천류고(泉流庫), 개성부, 통영(統營), 그리고 여타 병영·수영 등에서 어(漁)·염(鹽)·철(鐵)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벌였던 사례가 확인되었다.¹⁰⁾

군문이나 군병들이 직접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군사시설 인근에서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한 사례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전라병영이 있었던 강진(康津) 지역에서 활동한 ‘병영상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특히 19세기 말 병영에서 약국을 경영했던 박씨가(朴氏家)의 문서들이 최근 소개되면서 이 지역 상인들의 활동 범위가 전국적으로 왕성하였던 점이 논의되었다.¹¹⁾ 이들 연구에서는 ‘북에는 개성상인[松商], 남에는 병영상인[兵商]’이라는 표현도 볼 수 있다.¹²⁾ 이렇듯 강진의 상인들이 전국단위의 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던 배경으로는 전라병

8) 백승철, 『朝鮮後期 商業史研究：商業論·商業政策』, 한국연구원, 2000, 265쪽

9) 백승철, 『朝鮮後期 官廳의 商業活動과 그 構造』, 『한국사연구』 106, 1999

10) 백승철, 앞의 책, 2000, 234~235쪽; 백승철, 『조선 후기 서울 관청과 군문의 상업 활동』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 서울역사편찬원, 2021, 282~288쪽

11) 김덕진, 「19세기말 康津 朴氏家の 兵營 진출과 藥局 경영」, 『역사학연구』 52, 호남사학회, 2013; 김덕진, 「19세기말 전라도 강진 병영 박약국의 약재매입 실태」 『역사와 경계』 103, 부산경남사학회, 2017; 주희춘, 「병영상인 박세정의 기업경영과 상인정신」, 『다산과 현대』 10,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7; 주희춘, 『병영상인, 경영을 말한다』, 남양미디어, 2017; 김덕진, 「19세기말 朴藥局의 고객관리와 경영전략」 『남도문화연구』 38,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9; 김덕진, 「19세기말~20세기초 전라도 강진 병영지역의 환(煥) 사용 실태와 메커니즘 - 박약국(朴藥局) 장부를 중심으로 -」 『역사학연구』 79, 호남사학회, 2020

12) 주희춘, 앞의 논문, 2017, 192쪽

영의 존재가 꼽힌다. 병영성은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곳이므로 그곳의 장시도 자연스럽게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에서도 한강변 용산·마포·서강 지역들이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주요 창고들이 위치하였고 전국에서 실어오는 세곡이나 여타 물자들이 하역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¹³⁾ 즉 군사시설로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 현상은 그 자체로 인근 지역의 상업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상업과 군사제도의 관계성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송파장의 성장 배경으로서 그 군사적 입지조건을 주요하게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송파나루가 수어청에 소속되며 군영의 특별한 관리 대상이 되었던 사정을 주목하며, 인근 나루[津渡]·진선(津船)·둔전(屯田)에 대한 군영의 관리 체계, 송파나루에 위치했던 진사(鎭事)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남한산성의 군량창고로 설치되었던 송파창(松坡倉)과 갑사창(甲士倉) 등의 존재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 성과들에서는, 수어청·광주유수부·남한산성의 재정 운영에 대한 연구에서도,¹⁴⁾ 송파장에 대한 상업사 관련 논문에서도 ‘송파창’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편이었다.¹⁵⁾ 그러나 당시 사료에서는 송파창에 대한 기록을 빈번히 찾아볼 수 있으므로, 관련 사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 입지조건과 운영상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13) 고동환, 앞의 책, 1998 참조.

14) 차문섭, 『朝鮮時代 軍事關係 研究』,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 조낙영, 「19세기 광주유수부의 남한산성 재정운영 -稅入항목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6, 2011

15) 송파창에 대한 언급은 송파구의 ‘지역사’ 복원 차원의 저술들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서일수 외, 『서울 洞의 역사 : 송파구』 제2권, 서울역사편찬원, 2019, 17쪽에서 ‘송파나루 인근의 송파창’의 존재를 언급한 바 있다. 또 김미성, 『조선후기 송파나루와 송파장』, 송파문화원, 2019에서도 송파창의 존재와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한다. 4장에서는 송파장 개설의 기본 취지, 그리고 혁파 주장에도 불구하고 송파장이 유지·번성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 그 군사적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송파나루의 군사적 입지 조건

조선후기 한강변의 나루들은 해로·수로를 통해 운반되는 물류의 집산지로 기존 상업사 연구들에서 주목되었다. 한강 최상류에 위치했던 광나루·삼전나루·송파나루 등은 도성 인근을 흐르는 이른바 ‘경강(京江)’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북한강과 남한강의 합류지점과 경강을 잇는 입구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들 광나루·삼전나루·송파나루 등은 국방상의 이유로도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이곳은 조선시대 도성과 남한산성을 잇는 통로였기 때문이다.

남한산성이 현재의 모습으로 지어진 것은 1624년(인조 2)이었지만, 그 이전 신라 때부터 같은 곳에 ‘주장성’이 있었고,¹⁶⁾ 이후로도 ‘광주 산성’¹⁷⁾ ‘일장산성’¹⁸⁾ 등의 명칭으로 불리던 산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곳은 고려시기 몽고군의 침입 때 항전을 하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경기도 광주 지역의 국방상 중요성은 조선시대 때에도 계속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목은 한양의 거진(巨鎭) 중 하나로 지정되었고, 선조 때 광주목이 광주부로 승격되었

1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남한산성 발굴조사에서 8세기 중반에 조성된 성벽과 건물터 등이 확인되어 신라 주장성(書長城)의 옛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심광주, 「남한산성 출토 銘文瓦에 대한 일고찰」, 『목간과 문자』 1, 한국목간학회, 2008)

17) 『고려사』 권39, 세가 39, 공민왕 10년 11월

18)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목

다.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는 광주부의 국방상 중요성이 더 높게 인식되어 우수부로의 승격이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었고, 1795년(정조 19) 최종적으로 우수부로 승격되었다.¹⁹⁾

우수부는 옛 도읍지, 국왕의 행궁이 있는 곳, 군사적 요충지 등에 설정하는 특수 행정구역으로, 특히 서울의 외곽 방어를 맡는 군사적 기능이 두드러졌다. 광주우수부는 다른 우수부들 중에서도 도성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였으며, 비상시 서울에 필요할 물자를 저장하는 기능도 하고 있었다.

이렇듯 군사상 요충지였던 경기도 광주 지역과 한성을 오가는 길목이었던 광나루·삼전나루·송파나루 등도 일찍부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조선 초에는 광나루의 위상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광나루는 삼국시대 때부터 고구려 아차산성과 백제의 토성들과 관련한 주요 교통로로 알려져 있다. 조선 1414년(태종 14)에는 광나루에 도승(渡丞)이 배정되었다.²⁰⁾

한편, 삼전나루가 도(渡)의 지위로 1439년(세종 21)에 개설되고,²¹⁾ 삼전도승(三田渡丞)이 광나루까지 관장하게 되면서²²⁾ 삼전도의 위상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삼전도는 헌릉(獻陵)이나 선정릉(宣靖陵)으로 가는 능행 때 노량진의 대안 경로로 선택되기도 했다.²³⁾ 이때 군병들이 인근의 송파나루를 건너게 되는 것이 편리하고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곧 송파나루가 삼전도보다 중요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송파진은 삼전도와 광진보다 앞서 기재되고 있으며, “(송파진이) 삼전도와 무동도(舞童島)를 주관한

19) 그 이전에도 인조 때와 영조 때 두 차례 광주부가 우수부로 승격된 적이 있었으나 몇 년 만에 다시 부로 개편되었다.

20)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1414) 12월 3일

21)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1439) 7월 7일

22) 『세조실록』 권12, 세조 4년(1458) 3월 24일

23) 『현종실록』 권8, 현종 5년(1664) 2월 29일

다.”라고 하였다. 또 삼전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도승(渡丞)이 있었는데, 송파로 옮겼다.”라고 하였다.²⁴⁾ 삼전도가 병자호란 이후 치욕의 장소로 기피되어 통행량이 줄게 되면서, 송파나루가 삼전도를 대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동국여도』 「경강부임진도(京江附臨津圖)」에서는 삼전도는 ‘삼전도비(三田渡碑)’로만 표시되었고 그 옆의 송파나루가 주요 나루로 표시되었다.²⁵⁾ 지도상에서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교통로 역시 송파나루를 지나서 남한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속대전』에서도 이미 송파별장이 광진·삼전도·신천을 겸하여 관장한다고 하였다.²⁶⁾

<그림 1> 『동국여도』 「경강부임진도(京江附臨津圖)」의 송파나루 부분 확대



2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6, 京畿 廣州牧

25) 『東國輿圖』 「京江附臨津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大4790-50)

26) 『속대전』 권6, 工典 舟車

각 나루에 배치된 관선(官船)도 광진과 삼전도에 비해 송파가 두 배 이상 많았다. 다음 <표 1>는 조선후기 한강 나루들에 배정된 진선(津船)들의 수를 법령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송파나루에는 17세기 말 관선이 6척 배치되었다가 18세기 중반 9척으로 늘어났다. 이 수는 한강진과 노량진에 비해서는 적은 수였으나, 송파나루의 관할로 되어 있었던 광진과 삼전도, 또 신천의 관선까지 합하면 한강진·노량진의 관선 수를 능가하였다.

<표 1> 한강변 각 나루의 관선(官船) 배치 변화

	『수교집록』 工典 雜令 (1682) 『전록통고』 工典 雜令 (1682)	『속대전』(1746) 권6, 工典 舟車
광진(廣津)	4척	4척
송파(松坡)	6척	9척
삼전도(三田渡)	3척	3척
신천(新川)	-	2척
한강(漢江)	15척	15척
노량(露梁)	15척	15척
양화도(楊花渡)	2척	9척
공암(孔巖)	5척	5척
철곶(鐵串)	1척	1척
엄지산(奄之山)	5척 (신설)	-

각 나루에 배치된 진선 즉 ‘나룻배’는 단순히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기능만 하지는 않았다. 이 진선들은 군사적 기능을 하며 나라에서 엄격히 관리되었고, 병조에서 관장하였다. 1728년(영조 4)의 기록에 따르면, “나루[津]마다 각각 별선재무(別選才武) 한 사람을 보내 별장(別將)과 함께 엄수하게 하고, 나룻배를 모두 북쪽 물가

언덕에 모아 두고서 행인이 모이게 되면 상세히 검열하여 건너 보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속대전』에서는 “각 나루[津]의 관선(官船)은 정액을 기록해두고 여러 군문(軍門)에 나누어 소속시키며, 별장(別將)을 차정하여 검찰한다.”라고 규정하였다.²⁷⁾

이렇듯 조선후기 별장이 각 나루의 관선들의 관리를 맡게 된 것은, 조선전기 도승(渡丞)이 이 일을 관장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각 별장들은 군영에 소속되는 군관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표 2>은 『속대전』과 『만기요람』에 정리된 ‘4진(四津)’ 별장들의 관할 구역과 소속 군영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듯 한강 상·중·하류의 각 진선들을 각 군영에 소속시켜 관리하게 한 것은 1710년(경인년) 민진후의 건의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²⁸⁾

<표 2> 『속대전』·『만기요람』에 기록된 한강 ‘4진(四津)’ 별장들의 소속 군영과 관할 구역

	『속대전』 권6, 工典 舟車		『만기요람』 재용편3, 海稅	
	소속 군영	겸하여 관장하는 곳	소속 군영	관할구역[字内]
송파 별장	수어청	광진, 삼전도, 신천	수어청 (지금은 광주에 부속)	광주, 동잠실, 광진, 독음
한강 별장	훈련도감		훈련도감	압구정, 두모포, 독도(독섬), 몽재정, 한강, 서빙고
노량 별장	금위영		금위영	과천, 신촌리, 사촌리, 광계, 형제정계, 마포
양화 별장	어영청	공암, 철곶	어영청	옥정리, 응리상하계, 현석리, 울도(밤섬), 다인리, 하중리, 합정리, 수일리, 망원정1·2계, 시흥, 신정리

표에서 보듯이, 송파는 조선후기 군영 소속의 별장이 관장하는 4개

27) 『속대전』 권6, 工典 舟車

28) 『비변사등록』 109책, 영조 17년(1741) 12월 12일

나루 중 하나에 속했다. 1708년(숙종 34) “송파는 남한(산성)에 있어 가장 긴요한 곳”으로 여겨졌으며 좌의정 이유의 건의로 송파는 수어청에 소속되었고, 수어청의 장교가 송파 진도별장(津渡別將)을 겸직하게 되었다.²⁹⁾ 이렇게 수어청에 소속된 송파 나루는 어영청의 양화진, 금위영의 노량진, 훈련도감의 한강진 등과 함께 한강변 나루 중 군사상의 요충지로 꼽히게 되었다. 총융청 관할이었던 북한산성까지 포함하면, 5군영의 주요 거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수어청은 인조 때 남한산성을 수축하면서 그 일대의 방어 즉 수도 외곽의 방어를 위해서 설치된 군영이었다. 또한 남한산성이 속해 있던 광주는 우수부로 승격되면서, 〈그림 2〉와 같이 개성·강화·수원 등과 함께 조선후기 우수부체제 또는 도성방위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이었다. 수어청과 남한산성이 차지하는 군사상의 위상을 감안하고, 또 남한산성과 수어청의 운영에서 송파나루가 차지했던 그 ‘긴요함’을 고려한다면 송파나루의 국방상 역할은 더욱 선명해진다.

29)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1708) 8월 21일

〈그림 2〉 도성 외곽을 방어하는 유수부 4개의 유수부



* 출처 :『동국여도』 「기전도(畿甸圖)」

다음은 송파나루와 그곳의 진선(津船)들이 지나는 국방상의 중요성을 드러내주는 자료들이다.

(병조판서)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변란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강화도나 남한산성을 돌아가는 곳으로 삼는데, 만일 양화도(楊花渡)·갑곶진(甲串津)·삼전도(三田渡)·송파진(松坡津)에 배가 없으면 건너 갈 수가 없습니다. (후략)”³⁰⁾

공조판서 김시형(金始炯)이 아뢰기를, “(중략) 각 진선은 합하여 63척입니다. 비단 행인을 건네줄 뿐만 아니라 또 이는 남한산성과 강화도[江都]의 변란에 대비(待變)하기 위

30) 『숙종실록』 권37, 숙종 28년(1702) 10월 5일

한 기계(器械)이므로 그 관계의 긴요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중략) 엇그제 수어사 민응수(閔應洙)의 아뢰므로 인하여 광진·송파·삼전도의 배를 수어청에 속하게 하였습니다. (후략)”³¹⁾

공조판서 김시형(金始炯)이 아뢰기를, “송파 이상의 진선은 남한(산성)의 대변선(待變船)이고 노량 이하의 진선은 강화도의 대변선입니다. 그러므로 경인년(1710)에 정탈(定奪)할 때에 각 군문으로 하여금 진별장(津別將)을 차출하여 선척을 관검(管檢)하게 하고 선부(船夫)도 별장으로 하여금 단속하게 하였습니다. 즉 선척은 각 군문에 분속(分屬)되어 있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후략)”³²⁾

수어청에서 아뢰기를, “송파·광진·신천(新川) 등의 진선(津船)은 기한이 차는 대로 본청(수어청)에서 담당하여 개조하기로 임술년(1742)에 연중(筵中)에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3진의 진선 3척은 금년이 개조할 연차(年次)여서 거기에 들어가는 선재(船材) 60그루를 현재 강원도 홍천에서 사들여야 합니다. 전례대로 반출을 금하지 말라고 묘당에서 관문을 보내서 그 도에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³³⁾

(광주유수 이기진이) 또 아뢰기를, “병조판서도 진선(津船)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송파(松坡)와 삼전(三田) 두 나루는 가장 긴요한 곳입니다. 비단 평시에 불통을 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긴박한 일이 있을 때에 그 관할하는 곳의 사용이 어떠합니까? (중략) 앞으로는 군문에서 맡은 선재(船

31) 『비변사등록』 109책, 영조 17년(1741) 12월 12일

32) 『비변사등록』 110책, 영조 18년(1742) 4월 12일

33) 『비변사등록』 118책, 영조 23년(1747) 7월 7일

材)는 특별히 금송(禁松)하지 말라고 거행조건(舉行條件)에 내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가 말하기를, “(중략) 대체로 광주의 진선은 다른 나무에 견주어 매우 중합니다. 옛날 인묘(人廟, 인조)께서 창황히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실 때에도 이 나무를 거치셨으니 그 중함은 이러합니다. 나무마다 모두 주관하는 군문이 있고 이 나무는 수어청이 주관합니다. (후략)”³⁴⁾

위와 같이 송파나무의 진선은 변란이 일어났을 때 남한산성으로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대변선(待變船)’으로 중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송파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다.³⁵⁾ 1728년(영조 4) 한강변의 나무가 대거 통폐합되었을 때에도, 송파나무와 광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주변의 작은 나무들을 예속하기도 하였다.³⁶⁾ 송파 일대의 진선들은 수어청에 배속되어 관리되었고, 그 진선을 개조할 때 필요한 목재는 강원도 금송령(禁松令)에서도 예외가 적용되는 관문이 발급되었다.

송파는 진사(鎭舍)가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조선의 진관체제(鎭管體制) 아래 경기도에는 한성을 주진(主鎭)으로 하는 5개의 거진(巨鎭)이 있었는데 그 중 광주가 속해 있었다. 이 광주의 진사 건물은 송파나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 3〉은 1872년의 「광주전도」에 표시된 진사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³⁷⁾ 이 지도에는 삼전도와 송파진도 표시되어 있고, 진사는 그 사이에 그려져 있다. 겸재 정선의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에

34) 『비변사등록』 123책, 영조 27년(1751) 9월 1일

35) 위에 인용한 사료에서도 송파와 삼전이 ‘다른 나무에 견주어 매우 중합니다.’라고 하였고, 그 이전의 사료에서도 “송파둔(松坡屯)과 삼전도(三田渡)는 다른 나무와 다름이 있습니다.”라고 한 바 있었다[『숙종실록』 권65, 숙종 46년(1720) 1월 25일].

36)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3월 21일

37) 「廣州全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357, 1872 지방지도)

있는 「송파진(松坡津)」 그림에서도 진사로 추정되는 건물이 송파나루에 그려져 있다.³⁸⁾ 그 서쪽에 삼전도비각과 남쪽 멀리 검단산 능선의 남한산성이 그려진 것도 <그림 1>의 표시와 상호 일치된다.

문헌사료에서도 ‘송파진(松坡鎭)’ 또는 ‘송파진사(松坡鎭舍)’라는 표현이 나온다.³⁹⁾ 정조 17년(1793) 초 전년도에 장마 때 송파 일대가 수해를 입었고 이때 무너진 진사를 고쳐짓는 일에 대해 논의되었던 것이었다. 진사는 진장(鎭將)이 주둔하는 곳으로 국방상 긴요한 곳이었으므로 그 수리·보수 또는 이설(移設)의 일은 시급한 사안으로 논의되었다.

<그림 3> 「광주전도」(1872년 지방지도)에 표시된 송파나루와 진사(鎭舍)



이렇듯 군사상 요충지였던 송파에는 군대와 둔전(屯田)도 편성해두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713년(숙종 39)의 기록에 따르면, 송파나루의 군대 1초(哨)와 갑사둔(甲士屯)을 수어청의 천

38) 겸재 정선의 「송파진」 그림은 서울역사박물관,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서울역사박물관, 2019, 112쪽에서 참조.

39)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1793) 3월 20일

총(千總) 아래 속하게 한다고 하였다. 천총은 수어청의 3영(營) 2부(部) 체제에서 한 부(部)의 지휘를 맡은 직책이었다. 이 군대는 얼음이 얼 때 모아서 점검하고 사열(點閱)하도록 하였으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그중에서 수첩군관(守堞軍官)⁴⁰⁾을 가려 뽑기도 하였다.⁴¹⁾ 이 군대는 본래 나무의 사공이었던 진부(津夫)들의 자손들과 강변 거주민들을 모집하여 편성하였던 것이었는데, 뱃일(水業)을 하지 않는 농업 종사자들도 더 모집하여 인원을 보충하려 하였다.⁴²⁾

갑사둔은 송파 근처에 있었으며 ‘송파둔(松坡屯)’으로 일컬어 지기도 했다.⁴³⁾ 이 갑사둔에도 별도로 1초(哨)의 군대가 있었고 진부들도 모두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였다.⁴⁴⁾ 매년 봄이 지나면 수어청 천총이 나무 앞에 나와 이 군대의 점검과 사열(點閱)을 진행하였고 수첩군관들도 함께 참여시켰다고 하였다. 한편, 이곳에 있었던 둔전은 이곳의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토지로 운영되었다. 수어사를 지냈던 이유(李濡)가 1704년(숙종 30)에 한 말에 따르면, 둔전을 곳곳에 설치해두고 별장을 보내 경작민들에게서 세를 받아 군수에 보태는 것이 원칙인데, 별장이 자기 호주머니로 빼돌리는 폐단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

40) 수첩군관에 대해서는 김준형, 「조선후기 수첩군관(守堞軍官)의 신분적 지위와 경제적 처지 - 진주의 수첩군관(守堞軍官)과 성정군(城丁軍)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 『역사교육논집』 64, 2017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41) 『숙종실록』 권54, 숙종 39년(1713) 11월 20일 ; 『비변사등록』 66책, 숙종 39년(1713) 11월 21일

42) 『비변사등록』 66책, 숙종 39년(1713) 11월 21일

43) 1847년(헌종 13)의 사찬읍지인 『증정남한지(重訂南漢志)』에도 당시 남한산성 수어청의 둔전 현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송파둔’이 기재되어 있다(『증정 남한지』 권5, 둔전조 ; 김윤희 외, 『서울 洞의 역사 : 송파구』 제1권, 서울역사편찬원, 2019, 244쪽 참고). 다음 3장에서 다루게 될 송파창이 『여지도』에서 ‘수어둔창(守禦屯倉)’으로 불린 사례도 보이는데, 이 역시 송파에 수어청 관할의 둔전이 있었던 사실을 간접적으로 재확인시켜준다.

44) 『숙종실록』 권65, 숙종 46년(1720) 1월 25일

결하기 위해 둔전을 산성 아래로 옮겨 설치하고 성내의 백성들에게 성을 나들며 농사짓게 하고 광주부가 검칙을 하도록 하라고 제안하였다.⁴⁵⁾

한편, 강변에 사는 백성들은 나루의 방수군(防守軍)으로도 징발되었다. 1728년(영조 4) 송파에서 공암(孔巖)에 이르는 구간에 세울 방수군이 부족하자 강변 백성들을 ‘좌경(坐更)의 예’에 따라 징발하도록 하였다. 특히 송파진과 한강진 사이에 촌락이 드물어 배열해 세울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여 징발에 더욱 신경을 썼다.⁴⁶⁾ 이때 양주 목사의 보고에 따르면 송파나루에는 50명의 군병이 배치되었다고 하며,⁴⁷⁾ 금위영의 말에 따르면 송파나루에 별도의 장교 1명과 향군 12명을 각별히 뽑아 보내 윤번으로 지킨다고 하였다.⁴⁸⁾

나루에 배치된 방수군은 말은 구역을 파수(把守)하며 “황당한 사람이 배를 타고 넘어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들 나루의 방수군들은 행인의 통행을 단순히 금지시켰던 것은 아니었고 행인들을 살피고 수색하여 건너 보내주고 밤에 배가 건너는 것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장계(狀啓)의 경우 밤낮을 막론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행인들에게서 돈이나 물건, 뇌물을 요구하여 받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였다.⁴⁹⁾

1735년(영조 10) 양역(良役)의 수를 감축하던 때의 기록에 따르면, 수어청 소관의 송파나루에는 군관 135명과 진군(津軍) 129명이 정액 이외에 새로 창설되었다고 하면서도 이곳의 ‘방수(防

45) 『비변사등록』 55책, 숙종 30년(1704) 6월 10일

46) 『영조실록』 권16, 영조 4년(1728) 3월 26일 ;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3월 26일

47)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3월 30일

48) 『영조실록』 권17, 영조 4년(1728) 4월 4일

49)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3월 26일 ;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3월 30일

守)가 진요'하다는 이유로 감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⁵⁰⁾ 『신보 수교집록(新補受教輯錄)』(1739)에서는 수어청 소속의 송파진군관이 200명, 진군(津軍)이 125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당수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이 지역의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군대로 차출되어야 하는 인원이 많다는 것이 곧 안정적 인구 확보의 필요성을 높이게 된다. 4장에서 후술하듯이, 안정적인 인구 모집을 위해 송파장을 설치하였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3. 송파창(松坡倉)의 설치와 남한산성의 창고 운영

앞의 <표 2>에서 정리한 '4진(津)', 즉 군영에 소속되고 별장이 파견되었던 송파·한강·노량·양화 나무들은 <그림 4>의 『동국여도』 「경강부임진도」에서 깃발과 붉은 색 건물로 표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무들과 차별성을 갖는다.⁵¹⁾ 이때 그려진 건물들은 진사(鎭舍)를 표현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도에서는 서강·마포·용산 일대에도 같은 형태의 건물들을 표시해두었는데, 충용창, 광흥창, 사복창, 군자감, 만리창 등이 그것이다.⁵²⁾ 이들은 모두 중앙재정과 관련된 주요 창고들이었고, 광흥창과 선혜청의 별창(別倉)이었던 만리창을 제외하고는 군수 물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창고들이었다. 이들 창고들은 수로를 통한 물자 운반의 용이성을 이유로 한강변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4진'에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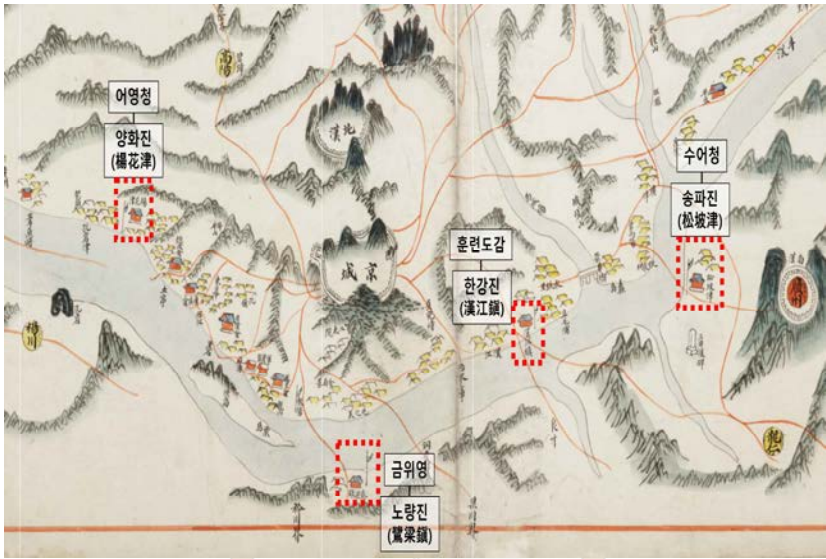
50) 『비변사등록』 96책, 영조 10년(1735) 9월 5일

51) 『東國輿圖』 「京江附臨津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大4790-50)

52) 김미성, 「조선 후기 서울지역 고군의 분포와 집단행동」, 『조선 후기 서울 상업 공간과 참여층』, 서울역사편찬원, 2021, 113쪽 참조.

표시된 건물들도 단순히 진사 건물로만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참고 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4〉 『동국여도』 「경강부임진도」에 그려진 군영 소속의 ‘4진(津)’



특히 송파나루에는 송파창(松坡倉)이라는 남한산성의 군량창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5〉의 『동국여도』 「남한산성도」에서는 송파나루에 그려진 건물에 ‘송파창’이라고 기재해두었다.⁵³⁾ 「경강부임진도」에 그려진 송파나루의 건물과 위치상 크게 다르지 않다. 남한산성을 위주로 그린 「남한산성도」이기에 다른 부분들은 과감히 생략하였고 남한산성에서 나오는 길이 송파창을 지나 송파나루[松坡津]를 건너 도성[京城]으로 곧장 연결되도록 묘사하였다.

53) 『東國輿圖』 「南漢山城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大4790-50)

〈그림 5〉 『동국여도』 「남한산성도」의 부분 확대



송파창은 진사와 함께 위치했을 가능성도 있다. 1708년(숙종 34) 민진후는 송파의 진도별장이 거처할 관사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어청 송파 별감(別監)에게 진도별장을 겸하게 하고 창사(倉舍)에 들어가도록 하고 창감(倉監)도 겸직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⁵⁴⁾ 장마로 파손된 송파 진사를 복구·이설하는 것을 논의하였던 1793년(정조 17)에도 근처 민가 50여 칸을 사서 진사로 고쳐 쓰고 다시 몇 십 칸의 창고를 세우는 계획을 세웠다.⁵⁵⁾ 이러한 언급들을 토대로 볼 때, 진사와 창사는 위치상 큰 구분이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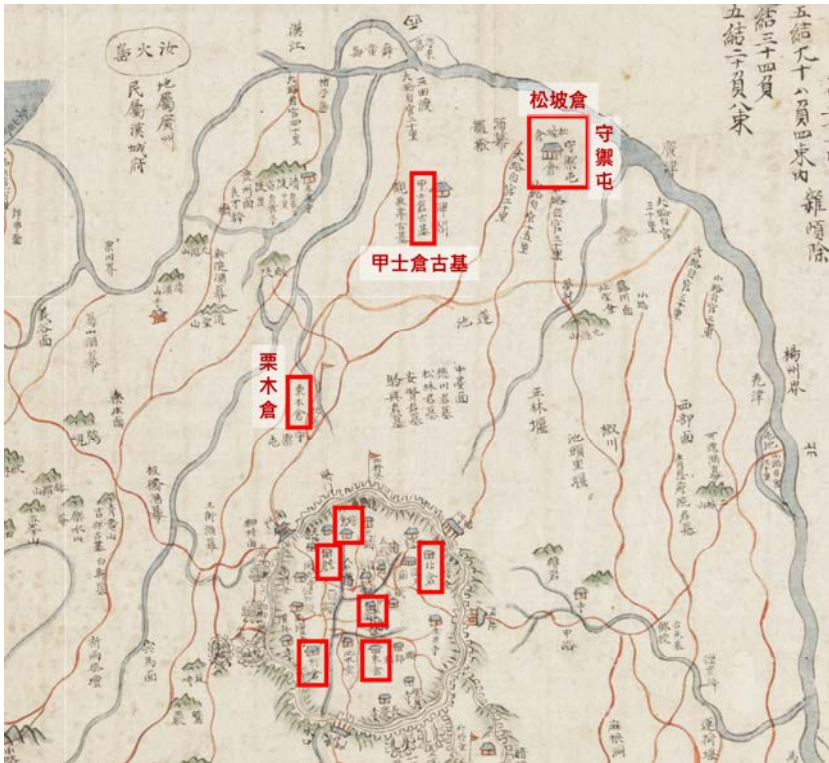
남한산성에 딸린 창고가 송파창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남한산성도」에서 송파창을 부각하여 그린 것도 주목된다. 〈그림 6〉의 『해동지도』를 보면, 남한산성에 딸린 여러 창고들의 위치를 확인할

54)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1708) 8월 21일

55)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1793) 3월 20일

수 있다.⁵⁶⁾ 그 중 성 밖에 위치한 창고로는 갑사창, 송파창, 울목창의 명칭이 확인된다.

〈그림 6〉 『해동지도』에 표시된 남한산성 성내외의 창고들



갑사창의 경우에는 지도상에 ‘고터[古基]’라는 표현이 붙어있고 따로 건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 작성 당시에는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말 기록에 해당되는 『수어청등록』에는 갑사창과 송파창이 각각 따로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며⁵⁷⁾ 1702년(숙종 28) 기록에서도 두 창고가 모두 확인되는

56) 『海東地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大4709-41-v.1-8)

데,⁵⁸⁾ 18세기 중반의 『해동지도』에는 감사창이 ‘고터’로 적힌 것을 볼 때 그 사이 기간에 감사창이 폐지되고 송파창만 남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1704년(숙종 30년)의 기록에서 송파창을 울목정으로 옮긴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⁵⁹⁾ 이후에도 울목창과 송파창은 각각 따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7〉 『여지도』에 표시된 남한산성 밖 창고들



감사창 터가 삼전도에 위치하였던 반면, 송파창은 송파나루에 인

57) 『수어청등록』 45면, 기사년(1689) 9월 11일 ; 『수어청등록』 97면, 신미년(1691) 3월 28일

58)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1702) 윤6월 27일

59) 『비변사등록』 55책, 숙종 30년(1704) 6월 10일

접해 있었다. 송파창은 ‘수어둔(守禦屯)’과도 인접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근처에 둔전이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의 『여지도』에서는 송파창이 아예 ‘수어둔창(守禦屯倉)’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⁶⁰⁾

이들 산성 밖의 창고, 특히 강변의 창고는 한강을 통해 운송되는 곡식과 물자들을 운반하여 저장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험준한 산성 안에 위치한 다른 창고들에 비해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었다. 1702년(숙종 28) 기록에 따르면, 경상도·전라도·충청도[三南]에서 한강 하류를 거쳐 남한산성으로 보내지는 쌀 1만 석과 한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충청도[湖西]의 쌀 8천 석이 일차로 송파창에 운반된다고 하였다.⁶¹⁾ 이것을 최종 목적지인 남한산성까지 운반하려면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류에서 오는 선박이 몸체가 커서 상류로 올라가기 어려우므로 경강(京江)에서 정박한 후 다른 배를 빌려 실어 보내야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문제는 선박과 수로를 통해 운반된 물자를 험준한 산성까지 운송하는 어려움이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나라에서는 선가(船價)와 마가(馬價)를 이중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송파창은 두 번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강변 나루에 정식 창고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하역된 곡식을 임시적·항시적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배에서 하역된 곡식을 곧바로 급히 산성까지 옮겨야 하는 부담을 덜다는 뜻이었다. 앞선 1702년의 기록에서도 상류에서 운반된 8천 석의 호서미는 송파창에 직접 납부하게 하였고,⁶²⁾ 하류에서 온 1만 석만

60) 『輿地圖』(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68-v.1-6)

61)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1702) 1월 18일

62) 『수어청등록』에서도 송파창이 호서곡의 종착지로 종종 거론되나 『수어청등록』 61면, 경오년(1690) 2월 25일 ; 63면, 경오년(1690) 3월 초8일.

곧장 산성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송파창이 한강변에 있어서 배로 운반하기 편리”하다는 인식은 자주 보인다.⁶³⁾

수로를 통해서 운반되는 물자의 경우만 송파창이 유리했던 것은 아니었고, 광주 일대 각지의 백성들이 납부해야 하는 물자들도 높은 산성보다는 평지의 송파창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했다. 특히 성 북쪽 아홉 면(面)에 사는 백성들은 산성에 납부하는 것보다 송파창에 납부하는 것이 편리했다.⁶⁴⁾ 군인들이 급료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송파창에 두었던 호서곡은 그곳의 군대[哨]에게도 지급되었기 때문이다.⁶⁵⁾ 남한산성의 이전곡(移轉穀)을 갚을 때에도, 포천(抱川)·양근(楊根) 등지는 송파창에 납부하도록 하여 성에 올라야 하는 폐단을 없애자고 하였다.⁶⁶⁾

송파창의 곡식을 산성으로 옮겨야 할 때에도, 정부는 그 운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환곡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과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봄에 백성들에게 환곡미를 나누어줄 때는 송파창에서 받아가게 하고, 가을에 갚을 때는 산성으로 바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⁶⁷⁾

이러한 방법은 1702년에 공조참판 이인엽(李寅燁)과 병조판서 김구(金構), 호조판서 김창집(金昌集) 등에 의해 논의되었다. 『수어청등록』의 1689년 기록에서도 감사창과 송파창의 곡식으로 조적(糶糶)을 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빈번히 나오는 것을 볼 때,⁶⁸⁾ 관련 논의는 일찍부터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구는 산성이 높

63) 『비변사등록』 158책, 정조 1년(1777) 10월 22일

64)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1793) 5월 13일

65) 『수어청등록』 45면, 기사년(1689) 9월 11일

66) 『영조실록』 권87, 영조 32년(1756) 3월 17일

67)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1702) 1월 18일 ;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1702) 3월 1일 ;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1702) 윤6월 27일

68) 『수어청등록』 45면, 기사년(1689) 9월 11일 ; 46면, 기사년(1689) 9월 13일 ; 48면, 기사년(1689) 9월 23일 ;

고 험한 것에 비해 광주는 땅이 넓어 백성들이 환곡을 받을 때에도 강창(江倉)으로의 접근성이 좋다고 보았다. 한편, 1774년(영조 50) 무렵에는 송파창에 군량미를 보관해두는 것이 운반하는 백성에게도, 호조에서 가져다가 쓸 때에도 편리하다고 하였다.⁶⁹⁾

이러한 방식은 이후에도 지속되었고⁷⁰⁾ 북한산성에도 적용되어 북한산성의 환곡은 평창(平倉)에 바치고 남한산성의 환곡은 송파창에 바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⁷¹⁾ 산성으로의 수납이 제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도,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송파창을 매개로 하는 환곡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⁷²⁾

한편, 강변 송파창이 수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도 창고 물자를 산성으로 급히 옮기기보다는 도성의 공물주인(貢物主人)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택했다. 1702년 장마 때 감사창은 겨우 물난리를 피했으나 송파창은 물이 문까지 들어와 광주부윤이 급히 배를 구해와 쌀을 꺼내 실어두었다고 하였다. 장마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를 창고로 다시 옮길 수도, 오랫동안 배에 실어 둘 수도 없었으므로, 전 수어사였던 김진귀(金鎭龜)는 그 대부분을 선혜청으로 옮기고 공물하인(貢物下人)들에게 나누어 주고서 봄에 수어청에 반납하도록 하자고 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았다.⁷³⁾ 1708년(숙종 34)에도 송파창의 군량을 수해 때 도성 공물주인들에게 주었다가 상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거론되었다.⁷⁴⁾

송파창은 한강 상류에서 목재를 운반해오는 상인에게서 세를 징수하는 권한도 지니고 있었다. 1728년(영조 4)의 기록에 따르면, 송

69) 『비변사등록』 156책, 영조 50년(1774) 8월 19일

70) 『비변사등록』 167책, 정조 8년(1784) 10월 6일

71) 『비변사등록』 156책, 영조 50년(1774) 8월 19일 ; 『비변사등록』 225책, 헌종 3년(1837) 11월 11일

72) 『비변사등록』 134책, 영조 34(1758) 1월 15일

73) 『비변사등록』 52책, 숙종 28년(1702) 윤 6월 27일

74) 『비변사등록』 59책, 숙종 34년(1708) 2월 10일

파창은 남한산성 군향고(軍餉庫) 바닥에 까는 송판[鋪板]을 조달하기 위해 한강 상류 판자상[板商]들로부터 세를 받아냈다고 하였다. 그런데 1722년(임인년)에 호조의 물력이 부족한 문제로 송파창의 수세권을 없애버렸고, 대신 매년 200립(立)의 판자를 호조에서 송파창에 떼어주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728년 당시까지 호조가 판자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아서, 송파창의 군량미가 축축한 땅에 방치되어 썩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시 송파창의 수세권을 복구하여 매년 200립씩의 판자를 세로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⁵⁾ 이때 강원도 금산(禁山)에서 도벌(盜伐)되었다가 강원감사에게 속공(屬公)된 송판 1,000여 립을 호조와 송파창이 각각 절반씩 나누어 써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결국 그것은 모두 호조에 귀속되었고 200립에 대한 송파창의 수세권만 복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⁷⁶⁾ 이러한 송파창 판자 수세권 복구 결정은 『탁지지(度支志)』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⁷⁷⁾

당시 중앙에서 필요한 관수용 목재들은 대체로 강원도에서 수로를 통해 운반되어 왔다. 강원도에서 보내는 뗏목들이 일차로 집하되는 곳은 독섬 등 한강 상류 지역이었다.⁷⁸⁾ 송파나루도 한강 상류의 나루였으므로, 송파창은 떠내려오는 목재를 바로 취득하기에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송파창 또는 남한산성에서 필요한 목재를 따로 도성에서 분급 받을 필요 없이, 수로로 운반 중인 목재상들에게 일정한 수의 목재를 세(稅)의 명목으로 거두어 쓰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진선을 제작할 때에도 목재가 필요하였고 이때의 선재들은 강원도 금송령에서도 예외조항이 적용되었다. 남한

75)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1월 29일

76)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2월 3일

77) 『度支志』 外篇 권8, 版籍司 財用部 雜稅事實

78) 독섬이 목재 집하지였던 점은 고동환, 앞의 책, 250~251쪽 등에서 설명된 바 있다.

산성은 ‘보장(保障)의 중지(重地)’였으므로,⁷⁹⁾ 여기에서 쓰이는 목재의 조달 과정에서는 우선권을 보장받았던 것이다. 18세기 중반에는 진선의 제작·수리·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별도의 도고별장(都庫別將)을 차출하여 진선 제작을 맡기고 값을 지불하기도 하였다.⁸⁰⁾

송파창은 도성에서 쓰일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 1720년(경종 즉위) 국장도감(國葬都監) 때 필요했던 참나무[眞木] 68그루를 서울에서 마련하기가 어려워지자 남한산성에서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남한산성 안의 승군(僧軍)으로 하여금 목재를 송파창으로 운반[曳下]하게 한 후 배로 실어 나를 계획을 세웠다.⁸¹⁾

이상과 같이 남한산성의 외창(外倉)으로서 송파나루 강변에 위치 하였던 송파창은 전국 각지에서 수로를 통해 운송되는 군량미들과 목재들을 효율적으로 집산하는 역할을 하는 창고였다. 송파창은 남한산성의 재정 운영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백성들의 세납과 환곡에서도, 또 강원도를 오가는 목재상들에게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창고였다. 이러한 송파창의 군사상 중요성은 곧 이곳으로 물자가 집결되는 입지 조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물자 집결지로서의 성격은 송파창의 운영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다. 공공물자의 집산(集散) 거점이자 통로였던 이곳은 교통상의 이점과 맞물리면서 공인(貢人) 또는 민간 상인의 통로로서도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79)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1728) 2월 3일

80) 『비변사등록』 109책, 영조 17년 12월 12일

81) 『비변사등록』 73책, 경종 즉위년(1720) 6월 23일

4. 송파장(松坡場)의 설치와 광주유수의 보호

송파 지역은 군사상 요충지였으므로, 이곳은 안정적인 인구의 유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주지하듯이 국방상 요충지나 변방 지역에는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필요가 있었고, 강제적인 사민(徙民) 정책이 취해지기도 하였다. 새로 궁을 짓거나 또는 군사시설을 설치한 이후 그곳의 방어를 위해서 민가를 모집하는 것 즉 ‘모민(募民)’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일이었다.⁸²⁾

송파나루에 장시를 처음 개설할 때에도 이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파는 국방상[堡障] 중요한 나루[要津]이었기 때문에 진(鎭)과 창고를 설치하였으나, 본래는 진군(鎭軍)과 모민들이 매우 빈천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진후가 수어사로 있을 때 ‘장시를 창설하여 백성들을 가려 모여 살게 하였다’고 하였다.⁸³⁾ 송파장은 본래 남한산성 가까이에 설치되었는데 18세기 중반 무렵 송파로 옮겨서 설치되었다.⁸⁴⁾

송파 장시 개설의 효과는 좋았다. 이 지역은 교통상의 요지이기도 했으므로, 송파장은 크게 번성하였다. 19세기 초 『만기요람』에서는 전국의 향시(鄕市) 중 15개의 대장시를 꼽았는데 여기에 송파장이 포함되었다.⁸⁵⁾ 민진후가 수어사로서 송파장의 개설을 추진

82) 사도세자의 사당으로 지어졌던 경모궁 인근의 모민(募民)에 대해서는 김동철, 「18세기 말 景慕宮 募民과 그들의 상업활동」, 『지역과 역사』 8, 2011 논문이 참고된다. 서울 지역 주요 창고 근처의 ‘창저모민(倉底募民)’에 대해서는 김미성, 앞의 논문, 2021, 113~115쪽을 참고할 수 있다.

83) 『비변사등록』 134책, 영조 34년(1758) 4월 18일

84) 『비변사등록』 134책, 영조 34년(1758) 4월 8일

85) 『만기요람』 재용편5, 各廩 附 鄕市

한 시점이 18세기 초였고, 남한산성쪽에서 송파쪽으로 옮겨진 것이 18세기 중반이라고 한다면,⁸⁶⁾ 송파장은 개설된 지 백 년도 되지 않아 전국적인 대장시로 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송파나루는 국방상의 위치로서 뿐만 아니라 유통로상에서도 교통의 요지였다. 수로의 측면에서도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되어 경강으로 흘러가는 입구에 위치하여 강원도·경상도 물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육로의 측면에서도 송파나루는 도성과 광주를 잇는 길목에 있었고 이 길은 충주로 뻗어나가 ‘봉화대로’와 ‘동래대로’ 불리는 조선시대 서울-지방간 대로와 연결되었다.⁸⁷⁾ 이러한 교통상 요지에 개설된 장시였으므로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기 쉬웠고, ‘임금님 꿀단지도 송파를 거친다’라는 이야기가 생겨날 정도였다.⁸⁸⁾

국방상 요지인데도 사람이 적은 것을 걱정하던 송파 지역은 어느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18세기 중반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기록된 경기도 광주 중대면의 호구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3>와 같다. 중대면에 속한 여러 동리 중에서 송파동의 호구수가 가장 많아 다른 동리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며, 인근 삼전도리의 호구수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송파동의 호구수는 중대면 전체 호구수의 30% 이상이었고, 삼전도 호구수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었다. 즉 이 지역의 인구는 주로 나루 근처에 모여 살았다고 할 수 있다. 1789년의 『호구총수(戶口總數)』에서는 같은 중대면의 호구수가 총 726호와 3,044명으로 나와⁸⁹⁾ 『여지도서』의 기록보다 호수 70호, 인구 200명 정도 더 많이 기록되고 있다. 이들 호구 기록을

86) 1755년의 기록에 “송파에 장시가 설치된지는 오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비변사등록』 128책, 영조 31년(1755) 1월 16일].

87) 송파나루가 수로·육로 교통의 중심지로서 지나는 특징은 김미성, 앞의 책, 2019에서 정리된 바 있다.

88) 최완기, 1994, 앞의 책, 270쪽.

89) 『戶口總數』 2책, 京畿 廣州

신뢰할 수 있다면, 18세기 후반 30년 사이에 이곳의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18세기 중반 경기도 광주 중대면(中臺面)의 호구수

	관문 (官門) 에서의 거리	편호 (編戶)수	남자 수	여자 수	총 인구수	중대면 전체 인구 중 비율
거여미동(巨味洞余)	20리	62호	107명	178명	285명	10.00%
오금리(梧琴里)	20리	38호	87명	114명	201명	7.05%
장지리(長旨里)	15리	27호	70명	98명	168명	5.89%
문정동(文井洞)	10리	36호	75명	101명	176명	6.18%
가락동(可樂洞)	15리	61호	117명	252명	369명	12.95%
송파동(松坡洞)	20리	241호	436명	496명	932명	32.70%
삼전도리(三田渡里)	25리	119호	207명	245명	452명	15.86%
이동내(二洞內)	20리	71호	111명	156명	267명	9.37%
합계		655호	1,210명	1,640명	2,850명	100.00%

* 출처 : 『여지도서』 상, 경기도 광주 중대면의 자료를 정리

송파 지역의 인구 증가는 송파장의 번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이것은 국방상의 이유로 송파장을 개설하였던 정부측의 취지가 성공을 거두었음을 뜻한다. 1755년(영조 31) 무렵 김성응(金聖應)은 남한산성을 순시하며 송파를 들렀을 때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이 많았다고 하였으며 이곳에는 장시가 있어야 한다고 한 바 있었다.⁹⁰⁾ 송파장에서 ‘송파산대놀이’라는 큰 놀이판을 벌였던 것에서도 송파장이 얼마나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

90) 『비변사등록』 128책, 영조 31년(1755) 1월 16일

다.⁹¹⁾ 또 당시 송파장에는 여각과 객주 270여 개가 운영되고 있었다고 한다.⁹²⁾ 이를 통해,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이곳을 오가는 유동 인구도 많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송파장이 대장시로 꼽히게 된 것은 주변 오일장들의 장시망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도농장(1,6)–사평장(2,7)–안양장(3,8)–과천장((4,9)–송파장(5,10)으로 순환하는 장시망과 낙생장(1,6)–성내장(2,7)–경안장(3,8)–우천장(4,9)–송파장(5,10)으로 순환하는 장시망 등 인근 장시들은 모두 송파장을 접점으로 하고 있었다. 오일장이라는 것도 “오늘은 이곳에 서고 내일은 이웃 고을에 서며 또 그 다음날에는 다른 고을에 서서 한달 30일 동안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다.”⁹³⁾라고 할 정도로 전업상인의 등장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여전히 개별 장시는 5일에 한번만 열린다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나 송파장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오일장이었지만 현실상에서는 상설시장으로까지 여겨질 정도였다. 18세기 중엽의 기록에 이미 송파장이 “명목은 비록 한 달에 여섯 차례 선다고 하지만 실체는 각 시전들의 물종을 중촌(中村)에 쌓아 두고 매일 매매”한다고 표현되었다.⁹⁴⁾

송파장이 잘 됨에 따라 이곳에서는 부유한 상인들의 사례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삼전도에 살던 손도강(孫道康)이라는 상인이 광주와 양주의 부민(富民)들로부터 수천만 금을 출자 받아 강원도 원산에서 어물(魚物)을 배 째로 도매하

91) 송파산대놀이는 다른 사례와는 달리 타 지역 상인들의 방문을 위해 연희시간을 저녁 시간에서 낮 시간으로 앞당기고, 타 지역 사람들과 무관한 마을 행사인 '길놀이'를 약화시키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국립민속박물관)의 '송파 산대놀이' 항목 참조]. 이러한 특징은 송파장에 타 지역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대규모의 연희가 활용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92) 서일수 외, 앞의 책, 2019, 19쪽

93) 『선조실록』 권212, 선조 40년(1607) 6월 24일

94) 『비변사등록』 128책, 영조 31년(1755) 1월 16일

여 도성의 어물전 상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를 들 수 있다.⁹⁵⁾ 송파장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던 대장시였던 만큼 이곳에서 활동하던 상인들도 다른 지역 상인들과 연계하고 원거리를 오가며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 1793년(정조 17) 장마로 송파 진사 건물이 무너졌을 때, 진사 건물로 쓸 수 있는 민가 50여 칸과 약간의 전토(田土)를 1,500냥에 팔려는 사람이 있었다.⁹⁶⁾ 이때 수어청의 재력이 충분치 못하여 문제가 되었는데,⁹⁷⁾ 이 민가 건물을 진사로 전용하는 방안과 전토를 둔전에 소속시키는 방안은 경제적인 방책으로 여겨졌다. 이 사례는, 이 지역 부민의 존재를 재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송파장의 변영이 정부측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송파장은 앞선 언급처럼 오일장을 너머 매일 거래가 이루어질 만큼 번성하였다. 송파장은 도성에서 20리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성저십리에서는 비껴나 있어 시전의 금난전권(禁亂廛權)은 미치지 못했다. 즉 당시 최대 소비시장이었던 한성과 인접하다는 지리적 이점은 누리면서 시전상인의 통제권에서는 벗어나 있는 곳이었던 셈이었다. 따라서 송파 상인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전국의 상품을 대량으로 매점매석하며 한성의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1754년(영조 30) 평시서제조 홍상한(洪象漢)의 말에 따르면, 송파장에는 삼남지방과 동북지방의 상인들이 모여들고 이곳의 상인들은 ‘서울[京中]의 간세(奸細)한 무리들과 체결 작당’한다고 하였다.⁹⁸⁾ 이러한 송파장은 “시전상인[市民]의 본업(本業)을 빼앗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95) 고동환, 앞의 책, 1998, 426~428쪽 참고.

96)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1793) 3월 20일

97)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1793) 2월 20일

98) 『비변사등록』 127책, 영조 30년(1754) 11월 28일

이렇듯 송파장이 도성 상권까지도 위협하게 되자 송파장을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평시서제조였던 홍상한은 서울 시전 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광주 송파장의 혁파를 주장했던 대표적 인물이었다. 1754년에는 홍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로 혁파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⁹⁹⁾

그러나 송파장은 처음부터 군사상의 중요한 목적 하에 개설된 장시였으므로, 쉽게 혁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광주유수였던 서명빈(徐命彬)은 혁파 명령에 순응하지 않았고, 장계를 올려 송파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서명빈은 송파가 국방상 요지라는 것을 강조하며, “선뜻 송파진의 장시를 혁파한다면 오합(烏合)의 거민(居民)은 모두 흩어질 염려”가 있다고 하였다.¹⁰⁰⁾ 이러한 광주유수의 입장에 좌의정 김상로(金尙魯)도 동의하였고, 이 사안에 대해 여러 재상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¹⁰¹⁾

1755년 송파장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한 평시서제조 홍상한, 한성판윤 이창의(李昌誼), 우참찬 조영국(趙榮國) 등은 대체로 ‘서울 시전(京市)이 이익을 잃는 것’ ‘난전(亂塵)의 무리가 이익을 독점(權利)하는 현상 심화’ ‘이미 내려진 혁파 명령을 바꾸기 어려운 점’ 등을 혁파의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송파장 혁파에 대한 반대한 광주유수와 좌의정 김상로, 행사직(行司直) 김성응(金聖應), 사직(司直) 한익모(韓翼謨), 우승지 김치인(金致仁) 등은 ‘송파는 국방상 요충지라는 점’, ‘서울이나 지방이나 모두 같은 백성이라는 점’, ‘경시(京

99) 『비변사등록』 127책, 영조 30년(1754) 11월 28일 ; 『영조실록』 권83, 영조 31년(1755) 1월 12일

100) 『비변사등록』 128책, 영조 31년(1755) 1월 16일

101) 송파장의 혁파를 둘러싼 이러한 영조대의 찬반 논쟁은 당대의 『비변사등록』과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후대 현종 때 홍경모가 편찬한 사찬읍지인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에도 정리되어 있다(오성, 김세민 역, 『중정 남한지』, 하남역사박물관, 2005 참조).

市)가 이익을 잃는다고 향시(鄕市)를 혁파하면 그 백성들이 생업을 잃는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¹⁰²⁾ 이때 영조는 결국 김상로의 말을 받아들여 송파장을 혁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¹⁰³⁾

1758년(영조 34)에는 송파장을 남한산성 근처로 다시 이설(移設)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¹⁰⁴⁾ 이때 광주유수 이철보(李喆輔)는 역시 송파가 군사상의 요충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전의 장시 혁파 논의 때에도 송파의 중요성이 인정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장시를 옮기게 되면 송파의 백성들이 이익을 얻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하였고, 그렇게 되면 ‘겨우 이곳에 모여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이때 좌의정 김상로도 송파에 “당초 장시를 설치할 때 이미 진(鎭)의 창고가 되었던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다.”라고 하며, 송파장을 그대로 두자고 하였다. 송파장은 이후에도 존속되었으며, 19세기 후반 『육전조례(六典條例)』에서는 송파장의 장세(場稅)가 사복시 등의 세원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⁵⁾

결국 송파장은 그 군사상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혁파·이설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장이 열릴 수 있었다. 장시를 개설하여 송파 지역에 인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본래의 취지는 성공을 거두었고, 이렇게 모집된 인구가 흩어지는 것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 방어 체계에서 우려스러운 일이었다. 즉 송파장을 보호하는 것은 곧 이곳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곧 남한산성과 광주유수부 나아가 수도 외곽

102) 『비변사등록』 128책, 영조 31년(1755) 1월 16일 ; 『비변사등록』 128책, 영조 31년(1755) 1월 24일

103) 『비변사등록』 128책, 영조 31년(1755) 1월 24일

104) 『비변사등록』 134책, 영조 34년(1758) 4월 18일

105) 『六典條例』 권8, 兵典 司僕寺 應入 ; 『六典條例』 권4, 戶典 宣惠廳 均役廳 外 劃給代

방어의 기반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 송파라는 지역은 남한산성, 수어청, 광주유수부 등 수도 방어를 담당하는 군사적 기관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곳이었다. 이곳에 송파장이라는 전국적 규모의 대장시가 형성되었던 것도 단순히 교통상·상업상의 이점만을 배경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장시의 시작과 변형 과정에는 군사적 목적과 기능이 관통하고 있었다.

첫째, 송파나루는 조선후기 군영 소속의 별장이 관장하는 4개 나루 중 하나에 속했다. 송파별장은 수어청에 소속되어 광진·삼전도·신천 등의 인근 나루들도 함께 관할하였다. 송파나루에는 한성 주진(主鎭)에 딸린 광주 거진(巨鎭)의 진사(鎭舍)가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수어청에 소속된 군대 1초(哨)와 갑사둔, 송파둔 등으로 불리던 둔전(屯田)들도 편성해두었다. 강이 얼었을 때 수어청 군관의 지휘 아래 군대 훈련이 진행되었던 기록도 확인되며, 이곳에서 수첩군관(守堞軍官)을 뽑았던 정황도 확인되었다. 송파나루에 사는 백성들은 나루의 방수군(防守軍)으로도 징발되어 강을 건너는 행인들을 통제·관리하였다. 유사시 필수적인 이동수단으로 여겨졌던 진선(津船)들도 병조와 공조의 협동 속에서 철저히 관리되었다. 이러한 송파나루는 일찍부터 ‘남한(산성)에 있어 가장 긴요한 곳’ ‘보장(保障)의 중지(重地)’ 등으로 여겨지며 중시되었다.

둘째, 송파나루에 설치된 진사와 함께 설치되었던 송파창은 남한산성의 핵심적 군량 창고로서 기능하였다. 남한산성은 성 안에도 여

러 개의 창고를 두었지만, 성 밖에도 갑사창·송파창·율목창 등의 창고를 두었다. 특히 갑사창과 송파창은 강변에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18세기 초 이후 갑사창이 없어지면서 송파창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파창은 한강 상류와 하류를 통해 전국에서 남한산성을 향해 실려 오는 군량미들과 진선 제작용 목재 및 창고 바닥용 판자목들이 일차로 집하되는 곳이었다. 특히 강원도에서 수로를 통해 운송되는 목재와 그 목재상에 대해서는 송파창이 수세권을 지니기도 하였다. 높고 험준한 산성까지의 곡물 운송에 앞서 일차적으로 하역하고 보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창고로서 송파창의 역할은 컸다. 송파창의 곡물들은 봄에 인근 백성들에게 환곡으로 분급되었고 가을에 환곡을 갚을 때에는 남한산성에 납부하게 하였다. 정부로서도 환곡의 운영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송파창의 곡물이 남한산성으로 절로 운반되는 방안을 꾀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산성에도 적용되어 북한산성의 평창과 남한산성의 송파창은 두 산성의 핵심적 군량 창고로서 짝으로 거론되었다. 군수 물자가 집산되는 창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물류 유통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셋째, 송파장은 군사상 요충지에 충분한 인구를 모집하기 위해, 또 그 모민(募民)들과 진군(鎭軍)의 안정적인 생업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18세기 초 수어사 민진후의 제안에 따라 개설되었다. 처음에는 남한산성 근처에 있던 것을 송파나루쪽으로 옮겼으며, 개설과 이설 이후 송파장은 빠르게 성장하여 19세기 초에는 전국 15대 장시로 꼽히기에 이르렀다. 이미 18세기 중엽부터 송파장은 한성의 시전상인들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이 때문에 평시서나 한성부쪽에서는 시전상인의 보호를 위해 송파장의 혁파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주유수를 비롯하여 남한산성 일대의 국방을 강조하였던 신료들은 송파장의 필요성

을 주장하였고, 결국 혁파 명령은 철회되었다. 장시를 옮기자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그 역시 송파나루쪽 인구의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송파 지역 사례에서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장시가 개설·이전·성장·유지되었다. 이 사례는 조선후기 상업사 연구에서 군사적 요인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장시와 상업의 활성화에 군사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은 비단 송파장만의 사례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군문·군병들의 상업활동이나 ‘병영상인’의 사례 등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중요한 군사기관이 있는 곳에는 국방상의 이유로 인구가 안정적으로 모집·정착되어야 하고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하여 물류의 유통도 원활해야 한다. 처음부터 그런 지점에 군사적 거점도 위치하게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 생김으로써 인적·물적 자원의 유입과 유통이 더욱 촉진될 수 있었다. 송파나루와 남한산성도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국방상·상업상의 요지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관련 사례로, 북한산성 밖 연용대 일대의 상업활동 연구도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추가적인 관련 사례 연구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며, 본고는 조선후기 상업과 군사시설의 관계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수어청등록』,
『수교집록』, 『전록통고』, 『속대전』, 『만기요람』, 『六典條例』,
『度支志』, 『신증동국여지승람』
『중정 남한지』(오성, 김세민 역, 하남역사박물관, 2005)
『東國輿圖』 『海東地圖』 『輿地圖』 『廣州全圖』(『1872년 지방지도』)
『한국민속대백과사전』(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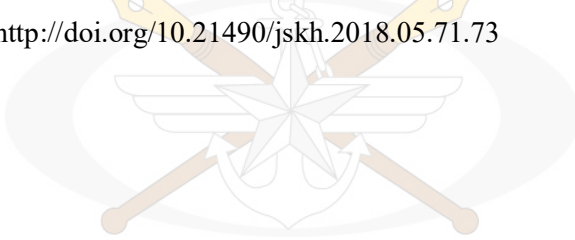
2. 논저

- 고동환, 「18·19세기 外方浦口의 商品流通 발달」 『한국사론』
13, 1985,
<http://uci.or.kr//G901:A-0000005629@N2M>
_____,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1998,
<http://uci.or.kr//G901:A-0008471509@N2M>
김대길, 『朝鮮後期 場市研究』, 국학자료원, 1997,
<http://uci.or.kr//G901:A-0008475501@N2M>
김덕진, 「19세기말 康津 朴氏家の 兵營 진출과 藥局 경영」,
『역사학연구』 52, 호남사학회, 2013,
<http://uci.or.kr//G901:A-0003325123@N2M>
_____, 「19세기말 朴藥局의 고객관리와 경영전략」,
『남도문화연구』 38,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19,
<http://doi.org/10.31929/namdo.2019.38.213>

- 김덕진, 「19세기말 전라도 강진 병영 박약국의 약재매입 실태」, 『역사와 경계』 103, 부산경남사학회, 2017, <http://uci.or.kr/I410-ECN-0101-2018-911-001055577@N2M>
- _____, 「19세기말~20세기초 전라도 강진 병영지역의 환(煥) 사용 실태와 메커니즘 - 박약국(朴藥局) 장부를 중심으로 -」, 『역사학연구』 79, 호남사학회, 2020, <http://uci.or.kr/I410-ECN-0102-2021-900-001026218@N2M>
- 김동철, 「18세기 말 景慕宮 募民과 그들의 상업활동」, 『지역과 역사』 8, 2011, <http://uci.or.kr/G901:A-0001560092@N2M>
- 김미성, 「조선후기 서울지역 고군의 분포와 집단행동」, 『조선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 서울역사편찬원, 2021
- _____, 『조선후기 송파나루와 송파장』, 송파문화원, 2019
- 김윤희 외, 『서울 洞의 역사 : 송파구』 제1권, 서울역사편찬원, 2019
- 김준형, 「조선후기 수첩군관(守堞軍官)의 신분적 지위와 경제적 처지 - 진주의 수첩군관(守堞軍官)과 성정군(城丁軍)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 『역사교육논집』 64, 2017, <http://uci.or.kr/I410-ECN-0102-2018-300-000738218@N2M>
- 노영구 외, 『조선후기 중앙 군영과 한양의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http://uci.or.kr/G901:A-0009273001@N2M>
- 백승철, 「조선후기 서울 관청과 군문의 상업 활동」 『조선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 서울역사편찬원, 2021

- 백승철, 「朝鮮後期 官廳의 商業活動과 그 構造」,
『한국사연구』 106, 1999,
<http://uci.or.kr/I410-ECN-0100-2009-911-018285313@N2M>
- _____, 『朝鮮後期 商業史研究 : 商業論·商業政策』,
한국연구원, 2000,
<http://uci.or.kr/G701:B-00118426789@N2M>
- 변광석, 『朝鮮後期 市廛商人 研究』, 혜안, 2001,
<http://uci.or.kr/G701:B-00106935048@N2M>
- 서울역사박물관,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서울역사박물관, 2019,
<http://uci.or.kr/G500:1310377-02012051345807@N2M>
- 서일수 외, 『서울 洞의 역사 : 송파구』 제2권,
서울역사편찬원, 2019
- 손정목, 「李朝後期 서울周邊에 形成된 衛星都市研究(上)」,
『도시문제』 1975년 11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5,
<http://uci.or.kr/G706+NLKF02-F.oaiInfo.CNTS-00046270893@N2M>
- 심광주, 「남한산성 출토 銘文瓦에 대한 일고찰」, 『목간과 문자』 1, 한국목간학회, 2008,
<http://uci.or.kr/G901:A-0004134137@N2M>
- 조낙영, 「19세기 광주유수부의 남한산성 재정운영 -稅入항목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6, 2011,
<http://uci.or.kr/G901:A-0003035681@N2M>
- 주희춘, 「병영상인 박세정의 기업경영과 상인정신」, 『다산과 현대』 10,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7,
<http://uci.or.kr/I410-ECN-0101-2018-151-001661917@N2M>

- 주희춘, 『병영상인, 경영을 말하다』, 남양미디어, 2017
- 차문섭, 『朝鮮時代 軍事關係 研究』,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http://uci.or.kr//G901:A-0008469966@N2M>
- 최완기,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서울학교양총서 1)』,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4,
<http://uci.or.kr//G901:A-0008428454@N2M>
- _____, 「朝鮮後期 松坡商의 都賈活動」, 『도시행정연구』 8,
1993,
<http://uci.or.kr//G901:A-0000972727@N2M>
- 최주희, 「18세기 중후반 훈련도감의 立役 범위 확대와 도감군
의 상업활동」 『한국사학보』 71, 고려사학회, 2018,
<http://doi.org/10.21490/jskh.2018.05.71.73>



(Abstract)

The Military Impli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Market at the Song-pa(松坡) located in the Area of Han River during the period of late Joseon Dynasty

Kim, Mi-sung

This paper aims to reveal a case show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mmerce and military facilities by demonstrating that Song-pa area was a strategic point for the military defense of the capital city, Seoul. This point served as an important background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Song-pa area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military purpose and function of Songpa Market were penetrating the process of beginning and prospering of it.

First, the river port of Song-pa was one of 'the four ports' among the Han River, which were selected as the special ports controlled by each military camp since 18th century. This was also the place where Gwang-ju(廣州)'s military office(鎭舍), garrison farms(屯田), and military troops were located.

Second, the warehouse of Song-pa functioned as a key military storage for Nam-han-san-seong(南漢山城). It was the primary collection point for the rice used by military purpose, timber, or pine boards transported through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the Han River before moving them to the mountain fortress. The grains of the warehouse were distributed to the civilian nearby in the spring, and they repaid them to Nam-han-san-seong in the fall.

Third, Song-pa Market was opened due to the suggestion of a military commander in the early 18th century to recruit a sufficient population to a strategic military location and to ensure a stable livelihood for them. It

was opened nearby Nam-han-san-seong but moved to Song-pa port. Song-pa Market grew rapidly, and in the early 19th century, it was counted as one of the 15 largest market place in the country. Even when it was argued that Song-pa Market should be demolished in the name of protecting Shi-jeon(市廛) merchants, it could be remained due to its military function.

As such, in the case of Songpa, the local market was opened, relocated, grown, and maintained according to military necessity. This case shows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military facilities in the study of commercial histo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 the river port of Song-pa, the warehouse of Song-pa, the local market of Song-pa, military camps, Su-eo-cheong(守禦廳), Nam-han-san-seong(南漢山城), Gwang-ju(廣州), population recruitment(募民)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161-203
<https://doi.org/10.29212/mh.2022..122.16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 초기 大關의 정립과 진법훈련의 변화*

허대영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목 차

1. 머리말
2. 세종대 대열의 진법훈련 정비와 진법서의 편찬
3. 『(오위)진법』의 편찬과 진법훈련 변화
4. 맺음말

초 록 조선 초기 진법훈련은 ‘大關’이란 이름의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립되었고, 군사훈련과 군사의례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군사훈련의례의 군사훈련 혹은 군사의례라는 한 측면만 주목해왔다. 본 논문은 조선 초기 국가의례의 하나로서 정립된 대열 절차 중 진법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변화를 검토하여,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1107)

그 군사적 함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선 초기 진법훈련은 태종대부터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대열의 의례 절차는 『개원례』를 따랐지만, 진법훈련의 절차는 『진도법』의 진법론에 의거하였다. 『진도법』의 훈련절차는 『주례』의 제도를 지향하였던 정도전의 진법론을 따른 것이었다. 세종대 군사훈련의례로서 大閱儀 정립의 과제는 唐의 의례제도와 『주례』의 훈련 형식을 결합하는 일이었다. 세종대 편찬된 진법서인 『계축진설』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었다. 『계축진설』의 편찬으로 조선의 이상적인 진법훈련의례로서 대열의를 정립할 수 있었다.

이후 조선의 군사훈련의례 대열의 훈련법은 문종대 이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념적이고 형식적인 훈련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閱武, 習陣 등을 통해서 새로운 훈련을 시도하였고, 『(오위)진법』의 편찬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이전의 진법서는 중국 병학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는 수준이었다면, 『(오위)진법』의 단계에서는 독자적인 진법훈련 방식을 창안하였다. 『(오위)진법』 「대열의주」에 정리된 6가지 훈련형은 이념적이고 형식적인 훈련으로부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으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군사훈련의례, 대열, 진법훈련, 『진도법』, 『계축진설』, 『진법』, 습진, 병학

(원고투고일 : 2022. 1. 3,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머리말

조선 초기 유교적 의례제도를 정비하면서 군사훈련을 ‘講武’와 ‘大關’이란 이름의 군사훈련의례¹⁾로서 정립하였다. 이때 강무는 사냥 훈련, 대열은 진법훈련을 각각 지칭하였다. 이 두 군사훈련 의례는 당연하게도 군사훈련이자 군사의례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자에 따라서 ‘군사훈련의례’의 ‘군사훈련’ 혹은 ‘군사의례’ 둘 중 한 가지 특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이어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초기 진법훈련 의례인 대열이 정립되는 과정을 검토하여, 진법훈련을 의례이자 훈련으로서 정립하는 과정과 각 시기 진법훈련과 관련된 주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대열은 조선의 군사훈련에 대한 검토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하나로서 정리되었다. 때문에 당연하게도 군사훈련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였고, 제도사적인 관점에서 건국 초기 군사제도 정비의 결과물로서 이해되었다.²⁾ 대열을 군사적 관점으로만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조선에서 상정하고 있는 전술과 진법을 구현하기에

1) 유교적 국가의례 체계인 오례 중 군례는 親征, 命將, 露布, 受降, 講武, 田獵, 大射(射禮), 救日蝕儀 및 儺禮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楊志剛, 『中國禮儀制度研究』,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0, 421-460쪽) 중국의 경우 국왕이 주관한 사냥을 전례로, 훈련장에서 시행된 열병이나 진법훈련은 강무라 하여 의례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군례의 경우 실제 군사력 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4례와는 달리 군사제도나 兵學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한 군사훈련의례는 전시를 대비하여 평시에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예제와 군제 그리고 병학 등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군례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2) 대표적으로 육군군사연구소에서 편찬한 『한국군사사』에서 조선 전기 대열, 진법훈련, 강무 등의 군사훈련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6 - 조선전기Ⅱ』, 육군본부, 2012).

대열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관심을 집중하였다.³⁾ 이러한 관점에서 대열 정립 이전 조선의 군사훈련은 정예기병의 양성을 위해 강무의 형식이었고, 보병 및 동원된 병력으로 인해 대규모화된 군대를 정예화하고 기병과 함께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열의 정립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다.⁴⁾

군사훈련 제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대열, 閱武 등 특정한 훈련에 집중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백기인은 대열, 강무, 열무 등 군사훈련의 시행 횟수의 변화의 추이를 검토하여 조선 초기에는 강무, 대열과 같은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는 군사훈련이 정립되고 시행되었으나, 정치적으로 안정된 성종대 이후에는 실질적인 군사점검을 위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열무 위주의 군사훈련이 진행되었음을 보였다.⁵⁾ 노영구는 조선 후기 정조대 한성에서 시행된 대열의 사례를 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선 전기 대열 시행의 추이와 군사사적 함의를 함께 정리하였다.⁶⁾ 조선 전기 대외적인 위협과 군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열의 제도가 변화하는 추이를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군사훈련으로서 대열이 갖는 정치·군사적 함의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군사의례로서 대열을 다루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에는 조선의 군사의례를 조선 전 시기에 걸쳐 검토하여, 조선 왕조에 있어서 군례는 왕권강화나 군사적 기능보다는 국가의 유지하

3) 조선 초기 진법훈련과 진법서에 대한 연구들은 진법서의 내용과 훈련법이 가지는 기능적인 측면에 주목해왔다(河且大, 「朝鮮初期 軍事政策과 兵法書의 發展」, 『軍史』 제19호, 1989; 김광수, 「鄭道傳의 『陣法』에 대한 고찰」, 『陸士論文集』 50, 1996; 윤훈표,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軍史』 제81호, 2011; 광성훈, 「조선 초기 진법서의 편찬 배경과 활용」, 『역사와현실』 97, 2015).

4) 김동경, 「조선 초기의 군사전통 변화와 진법훈련」, 『군사』 74, 2010.

5) 백기인, 「조선후기 국왕의 열무 시행과 그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 2007.

6) 노영구, 「조선후기 漢城에서의 閱武시행과 그 의미-大閱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2008.

게 하는 의례로서 기능하였다는 점을 부각한 연구가 제출되었다.⁷⁾ 본고에서 다루는 대열과 관련한 주요한 성과로는 대열의주의 변화를 검토하고, 그 변화가 갖는 의례적 의미를 추적한 연구가 제출되었다.⁸⁾ 다만 진법훈련과 관련된 내용은 의주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열의 의례적 절차와 그 행위가 갖는 의례적 상징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상의 대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군사훈련의례로서의 대열 중 군사훈련 혹은 군사의례라는 한 가지 측면에만 주목해왔다. 본 논문은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립된 대열 절차 중 진법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변화를 검토하여 그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선 초기 진법훈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태종 후반부터 조선 초기 진법에 관한 내용을 집대성한 『(오위)진법』이 편찬되었던 시기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주로 『조선왕조실록』과 『세종실록』 「오례의」의 기록을 통해 각 시기별 진법훈련에 대한 논의의 중점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편찬되었던 일련의 진법서들의 역할과 병학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의 군사훈련은 군사들의 전투 기술을 단련하고,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일만은 아니었으며,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를 구성원들에게 각인시키는 국가의례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문치사회로 규정된 조선 사회에서 兵學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이왕무, 『조선왕실의 군사의례』, 세창출판사, 2019.

8) 소순규, 「조선초 대열의의 의례 구조와 정치적 의미」, 『사총』 75, 2012.

2. 세종대 대열의 진법훈련 정비와 진법서의 편찬

가. 『진도법』과 「대열의주」 훈련법의 상충

조선 건국 초 군사훈련 제도의 정비를 주도하였던 정도전은 보병 중심의 군사훈련을 지향하여, 의례이자 훈련으로서 진법훈련을 시행하고자 하였다.⁹⁾ 정도전은 『주례』의 제도에 따라 진법훈련, 사냥, 제사가 결합된 군사훈련의례를 구상하였다. 훈련관을 설치하여 병서 및 진법 교육을 전담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법훈련을 지방까지 확대하고자 시도했었다. 하지만 이는 무장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왕자의 난으로 태종 이방원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로는 한동안 진법훈련은 시행되지 않았다.

진법훈련이 다시 시행된 것은 1409년(태종 9) 3월의 일이었다.¹⁰⁾ 당시 태종은 田甫를 虎勇侍衛司 大護軍에 임명하고 陣圖訓導官으로 삼아 군사들을 훈련하게 하였다. 정도전이 진법훈련을 했을 때 전보가 司馬로서 보좌했기 때문에 훈련을 담당하게 한 것이었다. 이는 조선 초기 진법훈련이 훈련관 등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전승되어 국가의 공식적인 훈련법으로 정착되지 못하였고, 다만 ‘정도전이 시행했던 훈련법’ 정도로 기억되었던 당시 현실을 보여준다.

그 다음 날 柳觀, 李行, 鄭以吾를 兵書習讀提調에 임명하고,¹¹⁾ 전

9) 허대영, 「정도전의 「陣法」에 보이는 병학사상에 대한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92, 2020, 27-33쪽.

10) 『태조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21일 갑자.

11) 이들은 태종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인물들로 특히 『태조실록』 편찬과 관련하여 태종의 뜻에 따라 편찬에 참여하였다. 당시 과거 역사 편찬은 모두 3대가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태조의 舊臣들이 실록을 편찬하면 공정성을 의심할 것이라며 대간과 史官들은 『태조실록』의 편찬에 반대하였다. 태종대 『태조실록』의

보와 堅椽, 李恪을 진도훈도관으로 삼았다.¹²⁾ 다시 3일 후에는 趙大臨 등 여러 掌軍摠制들을 兵書講討摠制에 임명하여 兵書와 陣圖를 익히도록 하였다.¹³⁾ 당시 진도훈도관으로 임명된 인물들은 그 이전까지 특별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데, 전보와 마찬가지로 ‘정도전이 시행했던 훈련법’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1409년 4월 ‘처음으로 陣圖를 연습하였다[始習陣圖]’¹⁴⁾는 기록에서 처음이라는 것은 새롭게 규정한 훈련법에 따라 처음 시행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해 4월에도 東郊에서 習陣을 실시하였다. 당시 훈련을 담당할 장군 총제 중 한 명이었던 李天祐는 진법훈련이 잘 되었으니 태종에게 친림할 것을 요청하고, 외방 시위군도 매월 번상할 때 습진하는 곳[習陣所]에서 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¹⁵⁾ 이를 통해 1409년 이후 최소한 중앙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진법훈련을 시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1410년부터는 외방 시위군까지 확대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 도절제사에 의해 독자적인 훈련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세종 즉위 후어나 가능했다. 1420년에 전라도 도절제사가 陣圖와 陣說을 내려보내서 전라도 각 鎭에서 훈련할 수 있게 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을 보면,¹⁶⁾ 이때까지 지방에서의 자체적인 훈련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지방의 군사훈련을 시작하고 그 규정을 만들어, 이듬해 7월에는 「諸道陣法訓導事目」이 정해져 시행되었다.¹⁷⁾

편찬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이정주, 「鄭以諤의 交遊 관계와 정치활동」, 『한국 인물사연구』 제12호, 2009, 89-95쪽 참조.

12)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22일 을축.

13)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25일 무진.

14)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13일 을유.

15)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4월 26일 임신.

16)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3월 17일 을유.

17)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28일 무자.

1410년 이후로도 정례적으로 진법훈련을 시행하였는지는 명확하게 전하지 않지만 그 이후 병서 및 진법 교육이 강화되는 정황을 통해 진법훈련도 지속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진법훈련을 재개하기 전까지 태종대 병서 교육 제도는 주로 무신 관료를 대상으로 막연하게 兵書의 강습을 장려할 뿐이었다.¹⁸⁾ 진법훈련을 실시한 뒤로 그해 11월부터는 의흥부 총제 이하 관원들은 매일 병서를 講하고 승지를 보내 이를 참고하게 하였으며,¹⁹⁾ 훈련관에서 주관하여 무과 입격자를 대상으로 武經을 강습하고 이를 연말에 결산하여 1등을 서용하는 규정도 정하였다.²⁰⁾ 또, 1417년(태종 17) 5월에는 병조에서 입직한 상·대호군, 삼군 鎭撫 등을 대상으로 馬兒를 가지고 진도를 익히게 하였다.²¹⁾ 이처럼 진법훈련은 태종 후반 동안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법의 훈련법이 정비되고 정기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국가의례의 하나로 정립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이는 세종이 즉위하고 태종이 상왕으로 있던 세종 초에 大閱의 정립으로 귀결되었다. 대열은 본래 『주례』 사시강무 중 겨울철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지칭한다. 조선에서는 진법훈련 형식의 군사훈련의례를 정립하면서 그 명칭을 차용하였다.²²⁾ 대열이 하나의 군사훈련의례로 정립되기 이전 대열이라는 말은 특정한 훈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의 훈련을 설명하는 용도로 활용되었

18) 윤훈표, 「朝鮮初期 武經講習制」, 『역사와실학』 32, 2007, 390-392쪽.

19)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1월 29일 정유.

20) 『태종실록』 권22, 태종 11년 12월 21일 정미.

21)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5월 7일 임진.

22) 이는 원래 「武事를 講習하다」라는 의미의 「강무」라는 말을 조선에서는 사냥형식의 군사훈련의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태종대 이후 정립된 「국왕에 의해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사냥형식의 군사훈련」을 「강무」라고 하였다.

다. 1419년(세종 1) 10월 병조에서는 그해 11월에 사냥훈련의 레인 강무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강무는 나라의 큰 법이고, 사계절의 사냥은 법전에 실려 있으니 본래 폐해서는 안 됩니다. (중략) (강무를:필자) 거행하지 않은지 3년이나 되었고, 올 가을에도 거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미 喪제도 끝났으니, 옛날 仲冬에 大閱한다(강조:필자)는 전거에 따라 옛 제도를 준수하기를 바랍니다.²³⁾

사실 강무를 3년동안 시행하지 않았다는 병조의 말은 사실과는 다르다.²⁴⁾ 병조에서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정종이 위독하여 정지하였던 그해 가을 강무를 다시 시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²⁵⁾ 병조에서는 평소보다 다소 늦은 11월에 강무를 시행하는 근거로서 『주례』 겨울 훈련인 대열을 언급한 것이다.

대규모 열병과 진법훈련을 겸한 의례를 지칭하는 ‘대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1421년(세종 3)이었다.²⁶⁾ 1421년 4월, 향후 대열의 시행을 위해 미리 한성부의 衙門과 백관을 中衛의 5所에 어떻게 분속시킬지 논의한 후 진법 연습을 시행하였다.²⁷⁾ 그런데 당시 진법연습에 대해 ‘이때 진도 연습을 시작하였다(時始習陳[陣圖])’라고 기록하고 있다. 진법훈련은 이미 1409년에 재개되었음은 앞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23)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10월 29일 경자.

24) 태종 후반 강무시행 사례에 대해서는 허대영,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와 병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95-96쪽, <표 2-2> 참조.

25)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9월 21일 계해 ; 10월 28일 기해 ; 10월 29일 경자.

26) 조선에서 대열과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이 등장한 것에는 기본적으로 당시 명과 몽골 지역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동과 그 여파로 인해 여진세력의 동향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영구, 앞의 논문, 7-8쪽.

27)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 4월 14일 병오.

이때 처음 연습하였다는 ‘陣圖’는 무엇일까? 이는 태종의 명을 받아 卞季良이 저술한 진법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변계량이 저술한 『진도법』은 1421년 7월에 완성되었다고 전하는데,²⁸⁾ 『진도법』 초안은 그 해 5월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²⁹⁾

1421년 5월 처음 대열을 시행한 이후 변계량의 진법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도, 당시 대열이 변계량의 진법서에 따라 시행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때 세종은 변계량의 진법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변계량은 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여러 병학의 진법론에 의거한 것이라며 반대하였다.³⁰⁾ 이에 세종은 자신의 의견과 변계량의 의견을 모두 정리하여 태종에게 보고하였다. 진법과 의례제도를 보완하여 그 해 6월 예조에서 大闕儀注를 정하였고, 이어서 7월에는 수정·보완한 『진도법』을 ‘다시’ 완성하였다.³¹⁾ 『진도법』은 진법훈련의 시행과 그 방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1421년 군사훈련의례로서 大闕이 처음 시행되었다.

그런데 당시 예조에서 정한 대열의주는 唐의 전례서인 『개원례』 ‘皇帝講武’³²⁾의 절차에 따라 군을 左廂과 右廂으로 나누어

28)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29) 1421년 5월 18일에 낙천정에서 대열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실록 기사에 태종이 이보다 앞서 변계량에게 명하여 진법서를 만들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해 4월 대열을 준비할 때 도성의 아문과 백관들을 5衛-5所로 편제하였는데, 衛라는 편제명은 변계량이 사용한 것이었다. 변계량의 『陳說問答』에 따르면 그가 『진도법』을 작성할 때 참고하였던 이제현, 정도전, 하륜 등의 진법서에는 모두 衛가 아닌 軍이라는 편제명을 사용하였고, 변계량이 저술한 진서만 衛라고 칭하였다. 즉, 1421년 4월 초에 이미 『진도법』의 초본이 완성되어 이를 바탕으로 衛-所로 군을 편제하였고, 『陣圖』 연습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30)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5월 20일 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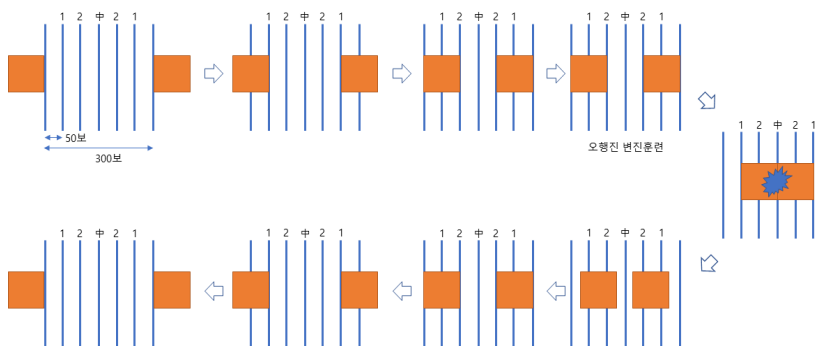
31)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6월 1일 임신 ; 7월 9일 기사.

32) 『개원례』 군례에서 講武는 진법훈련을 지칭하였고, 사냥 훈련은 ‘皇帝田狩’라 하였다.

서로 대항하는 형식인 반면, 『진도법』의 훈련법은 『주례』의 대열 절차인 ‘四表進退坐作’ 훈련³³⁾과 같이 全軍이 함께 신호에 따라 坐作進退하는 형식이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각각의 훈련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먼저 『개원례』 황제강무의 훈련과정은 교장의 양쪽에 위치하였던 左廂과 右廂의 군사들은 신호에 따라 서로를 향해 전진하다가, 계획된 두 번째 위치[表]에 이르면 정지한다. 양군은 두 번째 위치에서 각각 오형상승지법에 따라 변진하고, 각각 변진할 때마다 양군에서는 50명씩 내보내서 교전한다. 이때 전투의 양상은 미리 계획된 형식인 勇怯, 敵均, 勝敗의 형상으로 시행하였다. 양군이 결진하고 대결하는 절차가 끝나면 전군이 교장의 ‘가운데 표[中表]’로 달려나가 전투하는 ‘모의전투’를 실시한 후 훈련 전 위치로 퇴진하면 훈련절차가 마무리된다. 세종 초 대열의주는 이러한 절차는 그대로 따랐다. 아래의 그림은 『개원례』 황제강무의 절차를 간략히 도식화한 것이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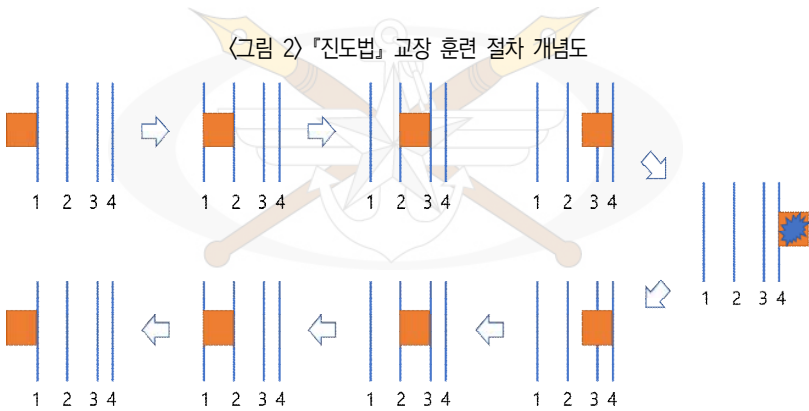
〈그림 1〉 『대당개원례』 皇帝講武 훈련 절차 개념도



33) 『진도법』의 저술한 변계량은 정도전의 진법론을 중심으로 다른 이론을 수용하였다. 정도전은 『주례』의 군사훈련을 이상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진도법』의 훈련법 역시 『주례』의 방식을 따랐다. 『주례』의 ‘四表進退坐作’ 훈련 방식에 대해서는 허대영, 앞의 논문, 2020, 29-30쪽 참조.

34) 『通典』 卷132, 禮92 「開元禮纂類」 27 軍1 ‘皇帝講武’.

다음으로 『진도법』 훈련은 『주례』의 방식과 유사하여, 훈련장에 4개의 표식을 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표식까지 나가면서 坐作하고, 4표에서는 군사들은 3차례 공격하는 동작으로 보병과 기병이 각각 旋鬪·旋馳한다. 이후 정지신호에 정지하고 퇴진신호에 따라 네 번째에서 첫 번째 표식까지 되돌아온다. 『주례』와의 차이는 車兵이 아닌 騎兵을 운용한다는 점이다. 『개원례』, 즉 대열의주와의 차이는 군을 둘로 나누어 모의전투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부대로 운용하는 훈련이라는 점이다. 『주례』의 훈련방식으로 채용한 『진도법』 훈련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421년 최초의 대열 이후 훈련 방식을 『주례』의 방식에서 唐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대열의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열의주가 만들어지고 한 달이 지난 후 『진도법』을 공포하였음에도 『진도법』에는 여전히 『주례』의 방식을 수록하였던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군사훈련의례인 대열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예조에서 작성한 의주가 관장하는 영역과 진법서에서 관장하는 영역이 달랐기 때문이라 생

각된다. 즉, 예조는 대열의 의례 절차를 정비하여 의주를 작성하였는데, 『개원례』 ‘황제강무’에서 관직과 관서의 명칭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정도였다. 대열의례를 시행할 때 의장과 전반적인 의례 절차는 의주를 따랐으나 구체적인 진법훈련의 내용과 절차는 진법서에 따라 시행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세종대 대열의주에는 『개원례』 ‘황제강무’에서 구체적인 훈련방법을 설명한 부분들은 생략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먼저 대열 하루 전에는 장수들이 미리 군사들을 교육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조선의 경우 다만 깃발과 金鼓의 신호를 교육한다고 하였다. 반면 『개원례』의 경우 진법을 편성하는 규정에 대해서 ‘긴 사람은 궁시를 잡고, 짧은 사람은 戈矛를 잡으며, 힘이 있는 자는 旌旗를 잡고, 용맹한 자는 鉦鼓를 잡는다.’, ‘칼과 방패가 前行이 되고, 창 잡은 자가 그 다음, 활이 後行이 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³⁵⁾ 이는 진의 편성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긴 사람은 궁시를 잡고’ 등의 내용은 무경칠서 중 하나인 『吳子』 「治兵」 ‘教戰之令’의 내용이다. 고전적인 내용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었다. 또 병종별 배치에 관한 내용도 조선의 경우 火燭手와 騎兵 등의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군사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예조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주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오행변진 훈련의 경우 『개원례』는 좌군과 우군이 서로 번갈아가며 오행의 속성에 相生, 相剋하는 진형으로 변진하는 방식이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35) 『通典』 卷132 禮92 「開元禮纂類」 27 軍1 ‘皇帝講武’ “前一日(중략) 凡教爲陣 少者在前 長者在後 其還則長者在前 少者在後 長者持弓矢 短者持戈矛 力者持旌旗 勇者持鉦鼓 刀楯爲前行 持稍者次之 弓箭爲後行 將帥先教士衆 習見旌旗指麾之蹤 旗臥即跪 旗舉即起 金鼓動止之節 聲鼓即進 鳴金即止”.

『개원례』 황제강무 중 五行變陣 절차³⁶⁾

- 東軍이 북을 치고 靑旗를 들어 直陣이 되면, 西軍은 북을 치고 白旗를 들어 方陣이 되어 응한다.
- 서군이 북을 치고 赤旗를 들어 銳陣이 되면, 동군은 북을 치고 黑旗를 들어 曲陣이 되어 응한다.
- 동군이 북을 치고 黃旗를 들어 圓陣이 되면, 서군은 북을 치고 靑旗를 들어 直陣이 되어 응한다.
- 서군이 북을 치고 白旗를 들어 方陣이 되면, 동군은 북을 치고 赤旗를 들어 銳陣이 되어 응한다.
- 동군이 북을 치고 黑旗를 들어 曲陣이 되면, 서군은 북을 치고 黃旗를 들어 圓陣이 되어 응한다.

양군은 서로 主客을 바꾸어가며 진형을 바꾸는데, 먼저 진을 형성하는 쪽이 主가 되고 응하는 쪽인 客이 된다. 主軍의 진형의 순서는 기본 진형인 木性의 直陣으로 시작하여 木火土金水의 오행 상생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客軍은 이에 응하여 主軍의 속성에 상극하는 진형으로 변진하였다. 이러한 오행변진은 오행론에 따른 이념적이고 형식적인 훈련이기도 했지만, 매번 진형을 바꿀 때마다 기본 진형인 直陣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변진하였으므로 양군이 총 10여 회 진형을 변경하여 번거로웠다. 이러한 내용이 의주에 실리지 않았던 것 역시 구체적인 훈련법이기 때문에 예조에서 다룰 영역이 아니기도 했고, 『진도법』의 훈련 방식과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도법』 結陣 항목의 오행진 변진을 살펴 보자.

36) 『通典』 卷132 禮92 「開元禮纂類」 27 軍1 ‘皇帝講武’ “東軍 一鼓舉靑旗 爲直陣 西軍 亦鼓而舉白旗 爲方陣 以應之 次南 西軍 一鼓而舉赤旗 爲銳陣 北 東軍 亦鼓而舉黑旗 爲曲陣 以應之 次東軍 鼓而舉黃旗 爲圓陣 西軍 亦鼓而舉靑旗 爲直陣 以應之 次西軍 鼓而舉白旗 爲方陣 東軍 亦鼓而舉赤旗 爲銳陣 以應之 次東軍 鼓而舉黑旗 爲曲陣 西軍 亦鼓而舉黃旗 爲圓陣 以應之”.

『진도법』 結陣³⁷⁾

- 中衛를 중심으로 사방에 각 위가 위치하여 방위에 따라 진을 형성(中衛는 圓陣, 左衛는 直陣, 前衛는 銳陣, 右衛는 方陣, 後衛는 曲陣).
- 中衛의 5개의 기를 모두 눕히고[俱臥], 북을 치고 白旗를 點하면, 5위 모두 方陣으로 變陣.
- 中衛의 5개의 기를 합치고, 북을 치고 白旗를 點하면, 4위를 中衛에 합하여 방진을 이룬.
- 中衛에서 黑旗를 點하고 북을 치면, 曲陣으로 변진.
- (中衛에서) 靑旗를 點하고 북을 치면, 直陣으로 변진.
- (中衛에서) 赤旗를 點하고 북을 치면, 銳陣으로 변진.
- (中衛에서) 黃旗를 點하고 북을 치면, 圓陣으로 변진.
- (中衛에서) 白旗를 點하고 북을 치면, 方陣으로 변진.

위와 같이 『진도법』의 오행변진은 전군이 하나로 合陣하여 진을 이룬 후 方陣부터 圓陣까지 다섯 가지 진형을 오행상생의 차례로 변진하여 마무리하였다. 조선의 방식이 唐의 방식에 비하여 간략하다. 이런 정황을 보면 예조에서는 구체적인 군사훈련 방법을 다룬 부분은 제외하고, 의식 절차와 관련된 부분만 다루었던 것이며, 훈련절차는 병조의 업무로서 그 내용은 진법서에서 다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⁸⁾

이는 1431년(세종 13) 세종은 許稠와 대열 중 국왕과 시위하는 신료들의 복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대열의 제도는 오로지 宋의 제도를 취하였다.”고 말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⁹⁾ 세

37)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38) 후대이지만 『國朝五禮儀』 ‘大閱儀’에 구체적인 의주를 기록하지 않고 다만 “병전과 『진법』을 보라(見兵典 及陣法)”고 설명한 것도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39)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 10월 15일 병오.

중은 대열의 제도는 宋制를 따랐다고 하였으나 전체적인 훈련절차는 唐制를 따르고 있었다. 宋代 闕武의 훈련 절차는 唐의 '황제강무'와는 전혀 달랐다.⁴⁰⁾ 세종대 대열의주에서 宋의 제도를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크게 2가지인데, 대열할 때 국왕은 金甲을 착용하고 문무백관은 갑주를 갖추는 것과 대열 훈련을 마친 후 茶床을 받고 의례에 참여한 인원들과 飲酒하고 賜恩하는 예를 행하는 것이 송의 제도를 따른 것이었다.⁴¹⁾ 그러므로 세종이 대열의 제도는 오로지 宋制를 따랐다고 말한 것은 훈련 과정이 아닌 사전·사후 의례 절차에 한정된 것이다. 이는 당시 大闕儀의 의례 절차와 훈련 절차를 구분하여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결국 조선 초기 대열의 진법훈련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편찬된 진법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진법훈련의 변화와 『계축진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나. 진법서와 의주의 훈련 방식 융합, 『계축진설』의 편찬

최초 대열 시행 이후 진법훈련은 모의전투 형식으로 변화해나갔으며, 이는 1433년(세종 15) 『癸丑陣說』에 반영되었다. 『계축진설』은 1433년(세종 15) 4월 파저강 정벌 직후인 그해 7월에 편찬되었다.⁴²⁾ 기존 연구에서는 『계축진설』은 파저강 정벌의 실전 경험을 통해 실용적인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평가하였다.⁴³⁾ 이러한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법훈련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이미 1424년

40) 송대 闕武 절차에 대해서는 허대영, 앞의 논문, 2021, 28쪽 참조.

41) 세종대 대열의주에 의하면 대열 의례를 마친 후 국왕은 小次에서 갑옷을 벗어놓고, 大次로 나아가서 茶床을 올렸다. 唐 『개원례』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었으나, 宋의 제도에는 훈련 이후 신료들과 술을 주고받는 의례를 동반하였다(『宋史』 卷121, 禮志24).

42)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4일 을묘.

43) 하차대, 앞의 논문, 122-134쪽, 윤훈표, 앞의 논문, 2011, 94-105쪽.

부터 훈련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축진설』의 편찬은 『진도법』과 대열의주의 훈련법을 적절히 조합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1424년 9월 대열을 준비하면서 左·右廂에서 사용할 깃발을 제작하였던 것을 보면,⁴⁴⁾ 이때 이미 ‘四表坐作進退’의 훈련이 아닌 좌·우상의 모의전투 형식을 차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⁵⁾ 1426년(세종 8) 대열에서도 군을 둘로 나누어 진형을 변진하는 훈련을 5차례 시행하고, 변진할 때 마다 서로 모의전투를 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⁴⁶⁾ 하지만 이는 단순히 『진도법』의 방식을 대열의주의 방식으로 바꾼 것이 아니었다. 본래 의주대로라면 모의전투는 서로 칼날을 부딪치지 않고 싸우는 척[擬擊]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대열에서는 격한 전투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화포를 사용하여 인마가 상하기도 하였다.⁴⁷⁾

당시 대간들은 훈련을 의주대로 시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일과 또 양군이 결투하여 이긴 측이 상대편 군사들을 포로로 잡아 마치 수급을 바치듯이 국왕에게 보고하였던 일 등이 국왕을 공경하는 예의가 아니라며 대열 때 군사들을 지휘한 崔潤德 등을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세종은 이러한 훈련 방식 자체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다만 훈련 중 복을 치면 진군하고 징을 치면 정지하는 신호체계에 따른 움직임이 절도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할 뿐이었다.⁴⁸⁾ 때문에 대열 당시 지휘한 장

44)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9월 10일 임오.

45) 반면에 의례의 절차는 1421년 처음 정해진 후 1424년에 왕세자 관련한 의례 절차를 추가하고, 국왕에 대한 拜禮를 변경하였을 뿐 그 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최종적으로 『세종실록』 오례에 정리되었는데, 이때에도 훈련과정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사전과 사후의례의 출궁 및 환궁 절차를 경복궁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을 뿐이다.

46) 『세종실록』 권33, 세종 8년 9월 24일 갑인.

47)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0월 1일 신유 ; 10월 3일 계해.

48) 『세종실록』 권33, 세종 8년 9월 24일 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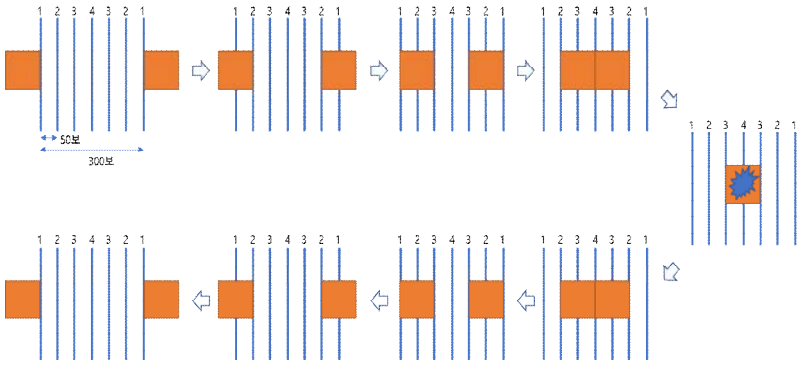
수들의 처벌은 윤택하지 않았고, 직접 훈련을 담당하였던 사람만 처벌하였다. 즉, 대열의 전체적인 질서는 모의 전투 형식으로 변화하였지만, 구체적인 훈련의 방식은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용되었던 것이다.

『계축진설』에서는 변화된 훈련 방식을 반영하여 모의전투 형식으로 정리하되, 『주례』를 따른 『진도법』과 唐制를 따른 의주를 결합하였다. 『계축진설』 教場條에서는 먼저 한 면이 1,200步인 방형의 교장을 교장의 규격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唐 군사훈련의 교장 규격이었다. 1,200步라는 교장의 크기는 唐의 군사훈련 때 左廂과 右廂의 군대를 각각 3군으로 편성하여, 총 6군을 훈련하기 위해 정해진 크기였다. 양군은 300보 거리를 두고 배치되었고, 그 사이에는 50보 간격으로 총 5개의 표가 만들어졌다. 훈련장의 규격이나 모의전투라는 전반적인 틀은 唐制를 따랐다면, 그 안에서 진퇴좌작하는 방식은 『주례』 방식을 적용하였다.

『계축진설』에서 양측의 부대는 첫 번째 표식에서 네 번째 표식까지 3차례 전진한다. 그런데 양쪽 부대가 50보씩 3차례 전진하면 아래의 개념도처럼 가운데 지점에서 양군이 이미 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달려나가서 전투하는 의미가 없게 된다. 앞서 살펴본 당의 제도는 양쪽에서 2차례만 전진하고 나서 100보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가운데 지점으로 달려나가 전투하였다.⁴⁹⁾ 『계축진설』 교장의 훈련 절차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9) 『通典』卷132 禮92 『開元禮纂類』卷27 軍1 ‘皇帝講武’.

〈그림 3〉 『계축진설』 교장 훈련 절차 개념도



1421년과 1424년 예조에서 제출한 대열의주는 이미 당 『개원례』의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양군이 2차례만 전진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의주대로 시행해왔다면 1433년 『계축진설』을 만들 때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군사훈련으로서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자면, 의주의 훈련법이 더 낫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축진설』에서 위와 같은 훈련법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도법』과 대열의주의 훈련법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주례』의 제도와 唐制를 이상적으로 조합하는 일이었다.

의주 훈련법의 핵심이 좌우상으로 나누어 모의전투하는 것에 있다면, 『주례』의 핵심은 ‘4표좌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주에서는 300보 사이에 50보마다 5개의 표를 두고 1표와 2표 그리고 中表의 3표를 좌작하였지만, 『계축진설』에서는 300보 떨어진 최초의 위치를 1표라 하고 가운데 위치한 中表를 4표로 보아 ‘4표좌작’의 훈련법을 실현한 것이다. 즉, 『계축진설』의 훈련법은 실전적인 방식에 대한 고려보다는 『계축진설』은 조선

초 이래 조선의 전통적인 군사훈련 방식과 『개원례』의 의주를 결합하여 진법훈련의례의 제도를 정립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 훈련에서는 1424년이나 1426년의 훈련처럼 실전과 같이 격렬한 훈련을 시행할지라도 진법서의 훈련법은 이론적으로 완결성을 갖추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古典 진법이라고 할 수 있는 五行陣과 五陣체제를 군사훈련에 및 실제 군사편제에 적용하고자 했던 일관적인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계축진설』 편찬 이후 훈련뿐 아니라 실제 군 편제에서도 五陣체제를 적용하고자 했지만 실제 현장에 이를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1434년(세종 16) 함길도 감사와 도절제사는 『계축진설』의 진법체제를 실전에 적용하는 일의 문제를 제기하였다.⁵⁰⁾ 그들은 “野人들은 특정한 진형을 이루지 않고 새처럼 흩어지고 구름처럼 움직이는데, 적이 많을 경우 이들을 포위할 수가 없고, 적이 적은 경우 흩어진 상태로 나무와 돌에 의지해 강궁을 쏘기 때문에 벌떼처럼 진을 치고 모여있는 아군은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고 하였다. 즉, 실제 상황에서 진법을 이루어서 전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을 상대하는 데에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축진설』의 5인 1伍 체제가 아니라 3인 1伍의 체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진 세력과 마찬가지로 군사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산개하여 전투를 수행하자는 것으로, 이전까지 북방 지역에서의 전투 양상이 대체로 이와 같았을 것이다.

조선 초기 양계지역은 軍翼道마다 중·좌·우의 3翼을 두는 3인 체제였으며, 그 아래도 중·좌·우의 3所를 두는 3진법의 체제로 편제가 이루어졌다.⁵¹⁾ 翼의 군사는 千戶와 百戶가 파악하고 지

50)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26일 계유.

51) 조선 초 양계지역의 군익도체제와 익군의 편성에 대해서는 오종록, 『여말선초 지방군제연구』 국학자료원, 2014, 177-188쪽 ; 351-377쪽 참조.

휘하였는데, 이들은 戶首와 奉足的 구분 없이 각각 軍丁 1,000명을 천호가, 100명을 백호가 지휘했다. 正軍만을 고려하면 천호가 160~240명, 백호가 20명을 지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계축진설』 이전의 양계지역의 군 편제는 소규모로 이루어졌었고,⁵²⁾ 1434년 함길도 감사와 도절제사의 문제 제기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세종은 전투 때에만 3인을 오로 하는 것은 평상시 훈련제도와 통일되지 않아서 오히려 불편할 것이니 結陣과 行陣시의 운용방법도 고려하여 다시 아뢰도록 한다.⁵³⁾ 세종은 오진체제와 5인을 단위로 하는 군 편제를 정합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듬해에 세종의 의지대로 5인으로 伍를 만드는 것으로 수정하되, 그 중 1명은 전투할 때 伍의 군사들이 말에서 내리면, 그들의 戰馬를 관리하는 인원으로 정하였다.⁵⁴⁾ 즉, 전투시 편제를 4인 1伍로 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필요에 따라 장수가 전마를 관리하는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였던 것을 보면, 사실상 3인을 기본 편제로 정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5인 단위의 군 편제를 형성하되, 실전에서는 장수의 운용에 따라 소규모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계축진설』이 실전 경험을 훈련에 적용하기 위한 병서라기보다는 이상적인 진법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52) 세종대 남부지역 시위패는 50명 단위의 總牌와 25명 단위의 小牌로 구성되었는데, 1438년(세종 20) 함길도에서 隣保法을 실시하여 총패[100호]-두목[50호]-통주[10호]의 조직을 갖추었다. 즉, 총패는 백호와 같은 크기의 단위로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세종 후반 5진법 체제로 군 편제를 갖추기 이전 백호가 20명 정도의 正軍을 지휘하였던 것을 보면 『계축진설』의 편제와 비교하여 절반 이하의 소규모 단위로 군사를 운용하였던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판단된다.

53)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26일 계유.

54)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16일 병진.

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계축진설』은 파저강 정벌 직후에 작성되었다는 점과 파저강 정벌에 참여한 武臣이었던 하경복이 편찬작업에 참여했다는 정황을 통해 전투 경험을 반영한 병서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편찬작업에 참여한 인물 중 하경복을 제외한 鄭招, 鄭欽之, 皇甫仁 등은 文臣이었으며, 정초와 정흠지는 曆法 전문가이기도 하였다. 역법 전문가들이 병서 편찬과정에 참여하였던 것은 조선 초기에는 天文과 관련된 지식도 병학의 하나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초에 『太一算』을 병학의 하나로서 중시하여, 武學의 교재로서 활용하기도 하였다.⁵⁵⁾ 게다가 세종은 兵學에 있어서 天時와 地利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陰陽·術數를 폐할 수는 없다고 여겼다.⁵⁶⁾ 정초와 정흠지는 진법서 개정작업에서 용병이나 전술과 같은 내용보다는 五行의 이론을 진법에 적용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종대 편찬한 『(오위)진법』의 경우 진법 훈련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할 경험이 많은 金孝誠, 黃守身, 趙由禮, 金有銑 등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陰陽이나 曆學과 관련한 인물은 보이지 않는 점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3. 『(오위)진법』의 편찬과 진법훈련 변화

가. 진법훈련 개선 논의와 『(오위)진법』 편찬

세종대 『진도법』, 『계축진설』의 편찬을 통해 군사훈련의례인 대열

55)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12월 10일 을해 ;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3월 18일 무오.

56)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7월 12일 경자.

의 진법훈련 절차가 정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진법의 운용 원리와 훈련법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진법훈련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군사훈련 형식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문종 즉위 이후부터이다. 문종은 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재위기간 동안 군사방면으로 다양한 업적을 남겼던 국왕으로 알려져 있다. 문종은 이미 세자시절부터 강무를 代行하거나, 모의 전투 형식의 수군 훈련을 실시하였다.⁵⁷⁾ 그리고 총통군의 火器 운용을 시험하는 등 軍務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⁵⁸⁾ 문종은 일찍이 수양대군과 군사훈련에 대해 논하면서 대열의 훈련 제도가 너무 간략하다는 수양대군의 비판에 동조하며 마치 장난[幻戲] 같다고 평하기도 하였다.⁵⁹⁾ 문종은 당시 진법과 대열 등의 훈련제도에 만족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종은 기존의 진법 및 훈련제도의 개선을 위해 黃守身에게 진법훈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명하였다.⁶⁰⁾ 그로부터 약 한달 후 황수신은 기존 진법훈련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습진할 때 오직 遊軍과 敵의 공격을 받는 면의 군졸만이 움직여 나아가 싸우고 물러나 지키는 형상을 하고, 그 나머지 사졸들은 陣列을 지키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들이 생각하기를, 진법의 싸우고 지키는 방법은 다만 이와 같다고 여기며, 行軍의 緩急과 나아가고 물러나며 모이고 흩어지는 법은 전혀 익히지 않으니 심히 불가합니다. 지금부터는 매번 습진 하는 날에 ㉠진을 과하고 돌아올 때 行陣을 이루어 기휘금고의 신호에

57)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10월 20일 을축 ; 권107, 세종 27년 3월 2일 을해.

58) 『세종실록』 권108, 세종 27년 5월 25일 무술 ; 6월 3일 을사.

59) 『세조실록』 권1, 충서.

60) 『문종실록』 권3, 문종 즉위년 8월 12일 계미.

따라 전진하고 퇴각하는 절도를 익히는 것을 恒式으로 삼고, 그 25變陣은 매월 초2일, 12일, 22일에 돌아가면서 연습하도록 하되, 병조, 도진무, 훈련 제조는 장부에 기록하고 서명하여 후일의 근거로 삼게 하소서.⁶¹⁾

황수신은 현행 진법훈련의 문제점으로 훈련할 때 遊軍과 적의 공격을 받는 면의 군사만 전투 훈련을 수행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 이외 대부분의 군사들은 진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 실제 전투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진법훈련이 정해진 대열의 절차에 의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세종 초 대열에서는 오히려 儀注에 따르지 않은 실전과 같은 훈련이 문제였던 것⁶²⁾과는 반대로 의주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훈련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즉, 훈련의 방식이 너무 단순하여 실전에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左·右廂의 군사들이 좌작하며 중표까지 나아가서 오행진의 변진훈련을 한 뒤, 勇怯, 敵均, 勝敗 등의 형식에 따라 모의전투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때 의주대로라면 좌·우상에서 각 50명의 선발된 군사들만 모의 전투에 참여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서로 싸우는 시늉[擬擊]만 할 뿐이었다. 나머지 군사들은 다만 처음에 전군이 坐作進退할 때 잠시 움직일 뿐 그 외의 훈련이 진행될 때에는 단지 隊伍를 갖춘 채 서있기만 했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열의 절차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지만, 세종대 정립된 의주를 가볍게 바꿀 수는 없었다. 황수신이 진법훈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수정 방안을 제시하

61) 『문종실록』 권3, 문종 즉위년 9월 19일 경신.

62)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 10월 1일 신유.

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은 황수신이 제시한 진법훈련 개선방안인데, 習陣을 마치고 돌아올 때 旗麾金鼓에 따라 진퇴의 절도를 익히게 하자는 것과 매월 3회씩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25변진의 훈련을 실시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신호에 따라 좌작진퇴하는 훈련이란 『주례』에 나오는 군사훈련의 기본적인 이념이고, 25변진의 훈련은 기존에 해오던 오행진의 변진훈련을 뜻하는 것이었다. 황수신은 진법훈련과 관련한 원론적인 내용을 말하였을 뿐 구체적인 군사훈련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진법훈련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 같다. 그 해 10월 황수신은 다시 기존 진법서를 검토하여, 적을 상대할 때 槍과 長劍을 사용하는 보병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보병이 적으니 步卒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⁶³⁾ 또 평상시 습진할 때 기병에게 보병의 훈련을 시켜서 유사시에 보병으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진법 이론에서 병종에 따라 역할이 고정되어 있던 것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치였다. 문종은 보병의 중요성에 대한 황수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防牌軍과 攝六十을 보병으로 더하게 하였지만, 기병에게 보병 훈련을 시키는 일은 시행하지 않았다. 1450년(문종 즉위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진법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문종대 습진, 親閱 등의 군사훈련에 적용되었다. 1450년 11월 東郊에서 2,500명의 마병과 보병을 동원하여 親閱을 하였다.⁶⁴⁾ 그 다음해에도 진법훈련에 대한 문종의 관심은 계속되었다.

63)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0월 21일 신묘.

64)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1월 20일 경신.

특히 1451년(문종 1) 1월 오이라트 에센[也先]의 군세가 변방지역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요동을 통해 전달되어 대외적 긴장이 고조되었다.⁶⁵⁾ 서몽골 지역을 장악한 에센은 1436년 경 부터 동몽골로 세력을 확장하였고, 1449년에는 명과 말무역 문제를 계기로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섬서, 산서, 요동 일대를 침공하였다.⁶⁶⁾ 명 영종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親征을 나섰다가 패배하고, 토목보에서 포로가 되었다. 명 황제가 포로가 된 초유의 사태는 명 중심 국제질서에 동조하고 있던 여러 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 조선에서는 이 사건의 여파가 조선에 미쳐 전란에 휩싸일 것을 염려하였고, 방어전략 및 군사제도를 정비하였다.⁶⁷⁾

문종은 대외적인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진법훈련 시행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해 1월 16일 모화관에서 습진에 친림하였는데, 당시 습진에서는 군사 700여명을 左·右廂으로 나누어 ‘勝敗之狀’을 이루었다.⁶⁸⁾ ‘승패지상’은 대열의에서 행하는 모의 전투 양식 중 하나이다. 문종대 습진은 그 규모는 작았지만 국왕이 친림하였고 그 내용도 대열의 훈련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대열과 유사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문종은 공식적인 의례로서 강무나 대열을 대신하여 습진을 통해 대열의의 절차에 따른 군사훈련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문종 초 진법훈련 개선을 위한 일련의 노력은 1451년 『(오위)진법』의 초본이라 할 수 있는 『新陣法』의 완성으로 결실을 맺었다.⁶⁹⁾ 편찬 작업에는 문종 초부터 진법훈련의 개선작업

65) 『문종실록』 권5, 문종 1년 1월 4일 갑진.

66) 에센의 세력 확장과정은 박원호, 「15세기 東아시아 정세」 『明初期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2002 250-253쪽 참조.

67) 오이라트의 위협과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에 대해서는 임용한, 「오이라트의 위협과 조선의 방어전략 -진관체제 성립의 역사적 배경-」 『역사와실학』 46, 2011, 43-49쪽 참조.

68) 『문종실록』 권5, 문종 1년 1월 16일 병진.

을 이끈 황수신을 비롯해서 『계축진설』의 편찬 과정에 참여하였던 鄭麟趾가 참여하였다.⁷⁰⁾ 그 외에 편찬 작업에 참여한 인물 중에는 金孝誠, 趙由禮, 金有銑 등 여러 무신들도 참여하였는데, 그 중 김효성은 세종대에 『太公兵法』에 근거하여 兵車를 활용하지는 의견을 제시하였고,⁷¹⁾ 문종 즉위 후에도 여진 방비를 위한 대책을 상소할 때 여러 병서를 인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특히 병학에 밝았던 것 같다.⁷²⁾

『(오위)진법』은 조선 전기 진법서를 집대성한 병서로 그 내용의 발전뿐 아니라 독립적인 병서로서 체계를 갖추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도법』과 『계축진설』은 대열의의 훈련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훈련의 절차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인 군사 편제, 신호체계 등을 따로 편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오위)진법』은 分數, 形名, 結陣式, 用兵, 軍令, 章標, 大閱儀注로 편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오위)진법』의 대열의주는 전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으로 구성되었다. 『(오위)진법』 「대열의주」는 禮書의 의주와는 그 성격이 달라 대열의 중 군사훈련과 관련된 절차만 다루고 있다. 즉, 진법서로서 의주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대 대열의와 『(오위)진법』 「대열의주」의 차이를 중심으로 『(오위)진법』 훈련법의 특징을 살펴보자.

세종대 대열의의 군사훈련절차는 ‘蜚 - 전진 - 결진 - 모의전투 - 퇴진’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나, 『(오위)진법』 대열의는 ‘蜚 - 용겁·승패 형식 훈련’으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인 변화내용

69) 『문종실록』 권5, 문종 1년 1월 20일 경신 ; 권8, 문종 1년 6월 19일 병술.

70) 『진법』序.

71) 『세종실록』권99, 세종 25년 2월 14일 경자.

72) 『문종실록』 권2, 문종 즉위년 7월 18일 경신.

을 대열의 진행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군사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행하는 깃는 『(오위)진법』 대열의에서도 시행하였다. 하지만 세종대 대열의는 좌군과 우군의 大將이 諸將에게 誓辭⁷³⁾를 전달하면, 그 아래 군사들에게는 좌군과 우군의 伺候 각각 2명이 전파하였다. 이에 반해 『(오위)진법』에서는 ‘대장 - 위장 - 부장·遊軍將 - 통장·領將 - 이하 부대’로 하위부대까지 각급 지휘관이 그 위계에 따라 하급지휘관에게 직접 誓辭를 전파했다. 『(오위)진법』의 誓辭 전파방식은 세종대의 그것과 비교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명령할 상급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의례적으로도 대장으로부터 하급부대까지 지휘계통을 명확히 보여주어, 군의 위엄을 세우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세종대 대열의에서는 깃를 행한 후 오행진 변진 훈련을 하였다. 이 오행진 변진 훈련은 형식적·의례적 성격이 강했고, 실질적인 훈련 효과는 적은 편이었다. 『(오위)진법』 「대열의주」에서는 이 절차는 생략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오위)진법』 「五衛連陣」에 “五陣의 相生·相克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으나 그러나 교습하기가 참으로 어려우므로, 이제 權道로 간편함을 좇아서 方陣만을 연습하는 것이 옳다.”⁷⁴⁾라고 한 것이 참고가 된다. 앞서 세종대 진법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唐의 오행변진과 비교하여 조선에서의 오행변진 훈련은 비교적 간략하였다. 그럼에도 교습이 어렵다고 한 것은 오행의 속성에 따른 진형의 승패는 실질적인 전투에서 승리와 패배를 의미하기 보다는 이념적인 것

73) 깃는 출정하는 장수들은 군주에게 군사를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후 출군 전에 군법을 공표하는 의례이다. 깃는 시행은 군사들에게 앞으로는 일상적인 법이 아닌 군법에 의해서 일이 처리될 것이며, 그 책임자가 장수임을 각인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將帥에 의한 깃는 반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최상기, 『新羅 將軍制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119-142쪽 참조.

74) 「진법」 「五衛連陣」.

이기 때문에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나. 『(오위)진법』 대열의주의 훈련 방식

『(오위)진법』 「대열의주」에서는 활 이후 모의전투 훈련을 시행하였다. 모의전투는 勇怯之勢 3가지와 勝敗之形 3가지로 총 6가지 형식이 있었다.⁷⁵⁾ 『(오위)진법』에서는 용겁과 승패의 구분은 모의전투의 결과 상대측 군사를 축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는 ‘용겁지세’, 상대측 군사를 완전히 섬멸하여 승패를 맺는 과정을 포함한 경우는 ‘승패지형’이라 하여 구분한 것 같다. 그 훈련 방식을 살펴보면, ‘용겁지세 1’과 ‘용겁지세 2’, ‘용겁지세 3’과 ‘승패지형 1’, ‘승패지형 2’와 ‘승패지형 3’으로 각각 짝을 지을 수 있다. 그럼 각각의 훈련 절차의 내용을 검토해보자.

〈표 1〉 『(오위)진법』 大閱儀注 ‘용겁지세 1’·‘용겁지세 2’의 절차

용겁지세 1	용겁지세 2
○ 結陣 좌·우군 300보 거리를 두고 마주보며 결진	○ 결진 좌·우군 300보 거리를 두고 마주보며 결진
○ 전진 좌·우군 前衛 5部の 騎·步戰統과 遊軍 3領, 좌작진퇴 하면 1~2표까지 전진 후 정립	○ 전진 좌·우군 前衛 5部の 騎·步戰統과 遊軍 3領, 좌작진퇴 하면 1~2표까지 전진 후 정립
○ 合戰 전투신호에 따라 騎·步戰統 合戰 遊軍 대기하며 소리로 勢를 도움 매 합전마다 6,7회 접전, 총 3회 합전	○ 합전 전투신호에 따라 騎·步戰統 合戰 遊軍 대기하며 소리로 勢를 도움 매 합전마다 6,7회 접전, 총 3회 합전

75) 『문종실록』 권8, 문종 1년 6월 19일 병술; 『陣法』 「大閱儀注」.

용검지세 1	용검지세 2
<p>○ 퇴진 양군이 신호에 따라 함께 물러남 매 퇴진 마다 20보씩 물러나 賈勇의 형세를 보임, 총 3회 퇴진과 賈勇 대기 중인 遊軍과 합류하여 본진으로 복귀 유군은 본진 복귀시 후방을 경계</p>	<p>○ 퇴진 패배하는 부대[負軍]가 물러나기 시작하면, 負軍의 遊軍이 나아가 구원 負軍 유군에 대응하여 勝軍 유군도 나아가 합진 負軍은 방어하며 퇴각 勝軍은 負軍 본진 앞에서 賈勇의 형세를 보임 勝軍 20보씩 물러나며 고용의 형세를 보이고, 본진으로 들어감 (물러날 때 양군 유군은 후방을 경계)</p>

위의 <표 1>은 『(오위)진법』 「대열의주」의 용검지세 1과 2의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⁷⁶⁾ ‘용검지세 1’과 ‘용검지세 2’는 기존 세종대 대열의 군사훈련 절차를 변용한 훈련 방식이다. 다시 말해 『개원례』 ‘황제강무’ 절차를 기본으로 양군이 좌우에서 진을 치고 신호에 따라 좌작하며 전진하여 훈련장 가운데에서 접전을 하는 훈련이다. 두 훈련의 차이는 ‘용검지세 1’은 양군이 3회 합전한 뒤 승패를 가리지 않고 신호에 따라 본진으로 복귀하고, ‘용검지세 2’는 양군이 처음 진을 펼쳤을 때 양측 진형의 오행상승 원리에 따라 승패를 미리 정해놓고, 합전 후 패배하여 물러나는 군대를 승리하는 군대가 추격하였다가 돌아오는 점이였다.

‘용검지세 1’의 전체적인 절차는 세종대 대열의주의 훈련 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세종대의 훈련 규정에는 양군은 전투를 하는 척[擬擊]만 했다면, 『(오위)진법』에서는 실제 6~7차례

76) 결진, 전진 등 각 절차의 제목은 필자가 훈련 내용에 따라 구분을 위해 정한 것이다. 이하 <표 2>와 <표 3>도 동일하다.

정도 접전할 것을 명시하였다. ‘용겹지세 2’는 양군이 합전하는 단계까지는 동일하게 시행한 후 미리 정해진 승패에 따라 한쪽은 퇴각하고, 다른 한쪽은 추격하였다. 이때 패배하기로 한부대가 퇴각을 시작하면, 뒤에서 대기하던 遊軍이 나와서 본대의 후방을 지원한다. 이에 대응해서 승리하는 부대의 유군도 나와 본대와 함께 전투하여 패군의 본진 앞까지 추격한다. 이처럼 유군은 부대의 후미에서 전체적인 전황을 살피다가, 유사시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주요한 변화는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다. 세종대 대열의주에서는 전군이 좌작진퇴 한 후 전투 훈련은 선발된 50명만 참여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양군은 300보 거리를 두고 결전한 후에 양군의 前衛에 속한 騎·步戰統과 遊軍 3領의 군사들이 동원되었다. 統의 편제가 隊 혹은 旅임에 따라 합전에 참여하는 인원은 각각 약 380명, 1,895명 정도가 된다.⁷⁷⁾ 전투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군사 중 일부라는 점은 변화가 없지만 그 인원수가 상당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정규군이 퇴각할 때에 遊軍은 정규군의 후위에서 움직이며,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용겹지세 2’에서 패배하는 군대가 퇴각할 때에 遊軍은 군의 후방으로 이동하여 捍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용겹지세 1’과 ‘용겹지세 2’는 『주례』의 좌작진퇴 훈련과 唐代 皇帝講武 형식을 융합하였던, 조선의 大關儀의 형식을 변형하고 응용한 것이다. 이어서 ‘용겹지세 3’과 ‘승패지형 1’을 함께 살펴보자.

77) 『진법』 「分數」에 의하면 統을 1隊로 편성할 경우 遊軍 1領은 약 42-3명이 되고, 1旅로 편성할 경우에는 214-5명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표 2〉 『(오위)진법』 大閱儀注 ‘용겹지세 3’ · ‘승패지형 1’의 절차

용겹지세 3	승패지형 1
<p>○ 客軍의 主軍 도발 客軍의 前·左·右 3衛의 戰統과 遊軍이 主軍의 진영 앞에서 함성을 지르며 도발 主軍은 동요하지 않고 진영을 수비</p>	<p>○ 합전 중 主軍의 거짓 패배 좌·우군의 전·좌·우 3衛의 戰統과 遊軍이 합전 主軍이 거짓으로 패배하여 본진으로 회군 客軍이 승세를 타고 主軍의 陣營 공격 主軍은 전·좌·우 3위 戰統과 駐統 동원하여 방어</p>
<p>○ 客軍 퇴각과 主軍 반격 客軍은 主軍의 반응이 없자 퇴각 客軍이 퇴각하면 主軍의 전·좌·우 3위 遊軍이 출진하여 客軍의 후미를 공격 客軍이 응하여 반격하며, 主軍의 遊軍은 다시 진영으로 회군 客軍이 다시 퇴각하면, 主軍 遊軍이 客軍 후미 공격하기를 3회 반복</p>	<p>○ 主軍 遊軍 출격, 客軍 공격부대 파산 客軍이 主軍의 진영을 함락 위해 깊이 진입 主軍은 전·좌·우 遊軍을 출진하여 客軍을 가로질러 遊軍과 분군 사이를 차단 깊이 들어온 客軍 부대 사방으로 흩어짐</p>
<p>○ 主軍의 총공격(奇兵 운용) 客軍이 3회째 퇴각할 때, 주군은 奇兵을 출동 주군의 中衛와 後衛의 군사를 각각 左·右 翼으로 편성하여 客軍의 퇴로를 차단 奇兵인 좌·우익의 공격에 맞춰서 방어하던 전·좌·우위의 군도 출진하여 공격 客軍이 敗散하여 본진으로 회군하면, 主軍의 兩翼과 3衛 군사들은 客軍의 左右前面을 포위하고 賈勇한 후 회군</p>	<p>○ 主軍 총공격과 客軍의 敗散 主軍 5위 戰統 모두 출격 遊軍과 함께 客軍의 본진 공격 진형을 유지하던 5위 駐統도 모두 출격 客軍의 전·좌·우위가 무너지자 중·후위도 퇴각 主軍은 客軍을 추격하여 쫓아내고 행군하여 개선</p>

『(오위)진법』 「대열의주」의 ‘용겹지세 3’과 ‘승패지형 1’ 두 훈련 절차는 용겹과 승패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만, 주로 훈련에 동원되는 군사가 前·左·右 3개 衛의 군사들이라는 점과 主軍이 客軍에 의해 본진을 공격을 받다가 遊軍을 출격하여 전황을 극복하는 동일한 양상의 훈련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 함께 분

석하였다. 그리고 따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두 훈련 양식은 『계축진설』 단계에서 제시한 奇兵운용 원칙인 ‘傍出突擊’을 응용한 훈련으로 판단된다.

‘용겹지세 3’은 전·좌·우 3면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後衛와 中衛의 군사들이 각각 진영의 좌·우측으로 나아가 左翼과 右翼이 되어 적군을 공격하였다. ‘승패지형 1’의 경우 방어를 하고 있던 전·좌·우 3衛의 유군을 둘로 나누어 좌·우익을 형성하여 반격을 시도한다. 이때 두 훈련에서 奇兵으로 편성되는 군사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용겹지세 3’의 경우 후위의 遊軍과 기전통을 좌익으로 중위의 遊軍과 기전통을 우익으로 편성하였고, ‘승패지형 1’에서는 전·좌·우 3衛의 유군 중 좌위와 우위의 유군은 각각 좌익과 우익이 되고, 전위의 遊軍 중 前·右·中領은 우익, 左·後領은 좌익이 되었다. 즉, 奇兵으로 편제되는 부대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전황에 따라 적을 상대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군사들을 중 일부를 奇兵으로 운용하였던 것이다.

이는 정병과 기병의 운용을 미리 정하거나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수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오위)진법』의 기정 운용 원칙과도 합치한다. 때문에 『(오위)진법』에서는 이전 세종대 진법서와 같이 ‘正兵當敵’이나 ‘傍出突擊’ 등의 기정에 따른 교전 원칙을 설정하고 있진 않다. 대열의 훈련 절차는 기병 운용 방법 중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두 절차와 비교하여 前·左·右 3개 衛의 군사들이 훈련에 참여하여 훈련의 규모가 커졌다. 이는 문종 초 기존 진법 훈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적을 상대하는 면의 군사들만 훈련에 참여하였던 점을 개선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승패지형 2’와 ‘승패지형 3’은 전군을 동원하여 적군을 포위 섬멸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훈련의 절차를 살펴보자.

(표 3) 『(오위)진법』 大閱儀注 ‘승패지형 2’ · ‘승패지형 3’의 절차

승패지형 2	승패지형 3
<p>○ 客軍이 主軍 포위 공격 客軍 中衛 제외한 4衛가 鳥雲陣으로 主軍 方陣의 4면을 포위 主軍은 遊軍까지 총 동원하여 방어</p>	<p>○ 양군 행군하여 접근 主軍은 길목마다 伏兵을 설치 客軍은 길목에서 점검만 하고 지나침</p>
<p>○ 客軍 본진 2표까지 전진 客軍 中衛는 신호에 따라 2표까지 전진 中衛의 군사는 疑兵이 되고, 遊軍을 몰래 伏兵으로 설치</p>	<p>○ 主軍 却月陣 vs 客軍 長蛇陣 主軍 客軍을 발견하고 却月陣 형성 客軍 長蛇陣 형성하여 主軍의 중앙을 공격</p>
<p>○ 主軍 長蛇陣 vs 客軍 鶴翼陣 客軍 거짓 퇴각, 疑兵도 퇴각 主軍은 이를 쫓지 않고, 진형을 지킴 主軍이 반응하지 않자, 客軍은 5衛를 횡으로 배치한 鶴翼陣 형성 主軍은 이에 대응하여 5衛를 종으로 배치한 도열한 長蛇陣 형성</p>	<p>○ 主軍 거짓매배 후 客軍 대장 포위 主軍은 부대를 일부러 양분하고 방어함 客軍이 主軍을 양분하여 통과할 때 主軍은 역공하여 客軍의 長蛇陣을 절단하고 長蛇陣의 앞부분을 포위 客軍 후미는 포위된 대장을 구하고자 力戰</p>
<p>○ 主軍이 客軍 포위, 客軍 패산 主軍이 客軍의 중앙으로 돌격하여 各군을 양분하고, 대장이 있는 쪽을 파악하여 포위 客軍 대장이 항복하면 외부의 客軍은 패산</p>	<p>○ 客軍의 패산 主軍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며 내부를 압박 主軍 포위를 유지한 채 客軍을 伏兵 설치 지점까지 유인 伏兵과 함께 客軍을 공격하여 客軍 대장이 항복하면 客軍은 패산</p>

<표 3>에 보이는 ‘승패지형 2’와 ‘승패지형 3’는 훈련은 대열에 참여한 양군이 전군을 기동하여 각각 長蛇陣과 鶴翼陣 등의 진형을 상대편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사진과 학익진 혹은 却月陣⁷⁸⁾의 운용 방식은 두 훈련 방식이 쌍을 이루는데, ‘승

78) 각월진은 ‘∩’ 혹은 ‘∧’ 형태로 부대를 배열한 진법이다. 조선 후기 병서인 『演機新篇』에 4統의 부대로 장사진, 학익진, 각월진, 연월진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기신편』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柳在城, 「安命老의 생애와 『演機

패지형 2'에서는 학익진을 이룬 상대방을 장사진으로 격파하는 상황을 설정하였고, '승패지형 3'는 반대로 상대방이 장사진으로 아군의 각월진을 돌파하고자 하였을 때 이를 역이용하여 적을 격파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학익진으로 橫으로 벌여선 적군을 상대할 때, '승패지형 2'는 縱으로 늘어선 장사진으로 학익진을 둘로 나눈다. 그 후 둘로 나누어진 학익진 중 적장이 있는 부분을 포위하여 섬멸하였다. '승패지형 3'의 경우는 '승패지형 2'와 반대로 적군이 아군의 진형을 장사진으로 돌파하고자 하면, 거짓으로 패배해 부대를 둘로 나누었다가 아군을 지나치는 적장을 포위하였다.

장사진, 학익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부대를 포위하기 전에는 客軍의 4衛가 主軍의 진영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상황과 양군이 행군하다가 서로를 맞닥뜨리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훈련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승패지형 2'와 '승패지형 3'에서는 戰統과 駐統의 구분 없이 전체 군사가 동원되어 대열의 훈련 형식 중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또 유군을 복병으로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등의 훈련도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오위)진법』 「대열의주」에 보이는 6가지 훈련절차를 살펴보면, 군대의 일부만 동원하여 전투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戰統과 駐統의 구분 없이 진영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하여 공격하기도 한다. 이는 훈련시 일부 군사만을 동원하였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훈련의 형식도 다양해져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진법 이론을 실전 상황에 적용하는 방안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오위)진법』의 대열은 세종대 『주례』와 唐制의 제도에 따른 이상형(Ideal type)으로부터 벗

어나 실질적인(actual) 훈련 형식을 만들 수 있었다.

『(오위)진법』의 규정과 내용은 마치 전법과 같이 인식되기 보다는 다양한 훈련 방식과 진법 이론을 형상화한 하나의 사례로서 인식되었다. 『(오위)진법』 「대열의주」에서는 “전투[兵]에는 일정한 형상이 없으나, 한때의 의주로 이와 같이 훈련[敎閱]할 뿐이다.”고 하였다.⁷⁹⁾ 이러한 훈련 절차에 대한 유연한 인식인 『(오위)진법』의 병학에서 보이는 측正을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경향과도 일치한다.

이는 1453년(단종 2) 지방에서는 군사수가 부족하므로 『(오위)진법』에 규정된 5위-5부-4통의 편제가 아닌, 2위-2부-2통으로 편제의 규모를 축소한 『略少陣書』를 간행하여 지방에 보내도록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⁸⁰⁾ 『(오위)진법』의 단계에서 4통 편제를 기본으로 하여, 통에 소속한 군사 수를 줄이더라도 4통 편제는 유지하여야 한다고 했던 것을 고려하면, 『약초진서』의 2통 편제는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였던 것은 진법과 진법 이론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면서, 진법 운용의 핵심은 편제의 숫자 혹은 형식 등이 아니라 그 운용 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실제 진법 훈련의 사례를 검토하면, 『(오위)진법』의 편찬 직후에는 『(오위)진법』에서 규정한 6가지 형식에 따라 훈련을 하다가 점차 정해진 형식을 따르기 보다는 규모와 형식 등에 다양한 변용을 가하여 시행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문종 대에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대열은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위)진법』의 간행을 통해 정해진 새로운 형식의 군사훈련은 親閱, 閱武, 習陣 등을 통해서 시행되었다. 『(오위)

79) 『진법』 「大閱儀註」 ‘兵無常形 而一時儀註 則如此敎閱耳’.

80) 『단종실록』 권10, 단종 2년 3월 10일 신유.

진법』이 완성되고 2개월 후 『(오위)진법』 편찬에 참여한 金宗瑞를 비롯해 병조 관원들과 도진무 金孝誠 등에게 명하여 새로 정한 진법에 따라 2일간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⁸¹⁾ 며칠 후 친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위)진법』의 훈련을 시행하였다.⁸²⁾ 그 해 10월 친열 때 ‘6가지 형식’을 모두 거행하기 어려우니 그때마다 임의로 정하여 시행하겠다고 한 일과 11월에 당번 군사들을 동원하여 파죽도에서 친열할 때 ‘6變의 법’을 연습하였다는 기록에서도 『(오위)진법』 대열의주에 따라 훈련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³⁾

『(오위)진법』의 편찬은 중국의 병학을 단순히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조선의 현실에 맞게 변용하였다는 병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문종대 『(오위)진법』으로 상징되는 병학의 발전은 當代에도 높이 평가되었다. 李承召는 ‘東郊習陣’을 통해 “八陣을 孔明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六花陣이 당나라에서 전해진 것도 아니구나. 이 진법은 문종조에 처음 만들었으니 신묘하고 밝은 계책이 깊고 또 장대하다.”라 하여 문종대에 정비한 진법체계를 새로 창제한 것과 같이 이해하였으며 諸葛亮의 八陣이나 李靖의 六花陣과 비교하여 못지않다는 자신감을 표출하였다.

4. 맺음말

이상 조선 초기 진법훈련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군사훈련의례인

81) 『문종실록』 권9, 문종 1년 8월 20일 을유.

82) 『문종실록』 권9, 문종 1년 8월 28일 계사.

83) 『문종실록』 권10, 문종 1년 10월 16일 신사 ; 11월 8일 임인 ; 11월 10일 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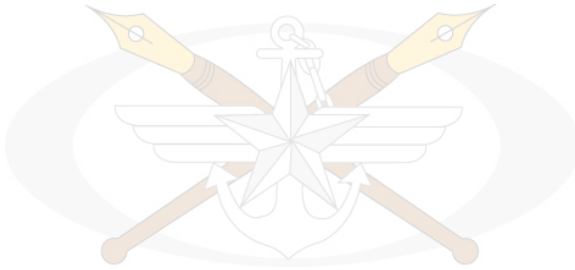
大閱 절차 중 구체적인 훈련방식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주례』, 『개원례』의 훈련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로부터 두 가지를 융합하는 단계로, 최종적으로는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훈련 방식을 창안하는 단계로 변화해나갔음을 확인하였다.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 대열은 군사훈련으로서의 기능 못지 않게 의례로서 완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동안 세종대 편찬되었던 『진도법』, 『계축진설』 등의 진법서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변화점이 갖는 군사적인 의미에만 집중해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대열의 정립과정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두 병서는 『주례』와 『개원례』의 훈련 방식을 통합하여 진법훈련의 새로운 이상형을 정립하였다는 병학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법 운용의 원리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진행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종대에는 진법훈련의 내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오위)진법』 대열의주에 정리된 6가지 형식의 대열 훈련안은 조선 초기부터 지속된 군사훈련의례로서 대열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었다. 이는 세종대까지 『주례』 혹은 『개원례』의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고민을 넘어서 조선에서 수용하고 이해한 兵學 지식을 바탕으로 훈련방안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진법훈련 방식의 군사사적, 병학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도법』, 『계축진설』, 『(오위)진법』 등의 병서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오위)진법』의 편찬 이후로도 『兵政』, 『國朝五禮儀』 등의 편찬과 관련하여 진법훈련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야 본고에서 『(오위)진법』 단계까지의 진법훈련 변화가 갖는 역사적 의미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세

조 재위기에는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이 행해졌다. 오위체제의 정립과 대열 편제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세조대 이후의 대열 및 진법훈련의 변화가 갖는 군사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이처럼 군사훈련의례라는 관점에서 대열을 검토하는 일은 그동안 軍事 혹은 의례의 관점에서 대열을 바라보았을 때와 비교하여 조선 전기 군사훈련과 군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文治主義로 규정된 조선에서 軍事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조선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줄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國朝五禮儀』, 『宋史』, 『陣法』, 『朝鮮王朝實錄』, 『通典』

2. 단행본 및 논문

곽성훈, “조선 초기 진법서의 편찬 배경과 활용”, 『역사와 현실』 97(2015):193-232,

<http://uci.or.kr/I804:11006-200000066917@N2M>

김동경, “조선 초기의 군사전통 변화와 진법훈련”, 『군사』 74(2010):105-138,

<http://doi.org/10.29212/mh.2010..74.105>

노영구, “조선후기 漢城에서의 閱武시행과 그 의미-大閱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2008):,

<http://uci.or.kr/G704-001254.2008..32.005@N2M>

박원호, 『明初期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2002

백기인, “조선후기 국왕의 열무 시행과 그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2007):33-62,

<http://uci.or.kr/G704-001329.2006.27.2.015@N2M>

소순규, “조선초 대열의의 의례 구조와 정치적 의미”, 『사총』 75(2012):43-81,

<http://doi.org/10.16957/sa..75.201201.43>

오종록, 『여말선초 지방군제연구』, 국학자료원(2014),

<http://uci.or.kr/G701:C-00086379789@N2M>

- 柳在城, “安命老의 생애와 『演機新篇』에 대하여”, 『軍史』 75(2010): 257-293,
<http://doi.org/10.29212/mh.2010..75.257>
- 윤훈표,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군사』 81(2011):75-113,
<http://doi.org/10.29212/mh.2011..81.75>
- _____, “조선전기 진법훈련 체계의 변화-이른바 오위진법과 진관체제의 성립을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46(2011):5-40,
<http://uci.or.kr/G704-002032.2011..46.002@N2M>
- 이왕무, 『조선왕실의 군사의례』, 세창출판사, 2019
- 임용한, “오이라트의 위협과 조선의 방어전략”, 『역사와실학』 46(2011):41-70,
<http://uci.or.kr/G704-002032.2011..46.003@N2M>
- 정해은, 『한국 전통 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4),
<http://uci.or.kr/G901:A-0006067456@N2M>
- 최상기, “新羅 將軍制 연구”(서울대학교 국사학과박사학위논문, 2020), <http://uci.or.kr/I804:11032-000000159606@N2M>
- 하차대, “조선초기 군사정책과 병학서의 발전”, 『군사』 제 19호(1989):100-155,
<http://uci.or.kr/I410-ECN-0101-2016-390-001818144@N2M>
- 허대영, “정도전의 「陣法」에 보이는 병학사상에 대한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92(2020):7-39,
<http://doi.org/10.21568/CDHA.2020.03.92.7>
- _____,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와 병학”(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http://uci.or.kr/I804:11032-000000167939>

(Abstract)

The Changes in battle formation trai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Daeyeul' in early Chosŏn dynasty

Heo, Dae-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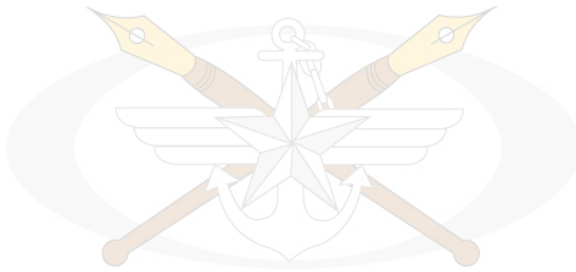
During the period of the early Chosŏn Dynasty, the battle formation training was established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 called 'Daeyeul', and had two characteristics: military training and military ritual. In previous studies, one only aspect of military training rituals has been focused on military training or military rituals. This thesis aims to reveal the military historical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changes of battle formation training of Daeyeul established as military training rituals in the early Chosŏn.

The Battle formation training in the early Chosŏn was organized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 from the King Taejong's regime. At that time, the ritual process of Daeyeul followed *Kaiyuan Rites*, but training process was based on *Jindobeop*. The *Jindobeop* followed Jeong Do-jeon's military theory, which was succeeded *Rites of Zhou*. The task of establishing the Daeyeul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 at the Sejong's regime was to unify the ritual process of *Kaiyuan Rites* with the *Rites of Zhou*. For the purpose, *Gyechukjinseol* was published and it was possible to establish Daeyeul as the ideal training ritual in Chosŏn.

After that, the training methods of the military training rituals of Chosŏn began to change. Ideological and the formal training methods were problems and tried to improve it. New training methods were attempted through *Yeulmu*, *Sŭbjin*. At first Military books of Chosŏn was just reorganizing the contents of Chinese military studies, but *OwiJinbeop*, an independent military training methods were created. The training types in *OwiJinbeop* was practical and concrete training that changed from

ideological and formal training.

Keywords : military trainig rituals, Daeyeul, battle formation training, Jindobeop, Gyechukjinseol, Jinbeop, Süb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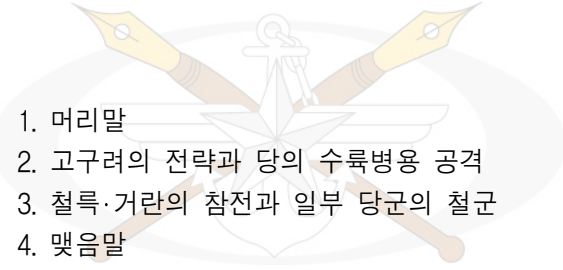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205-248
<https://doi.org/10.29212/mh.2022..122.20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61년 고구려-당 전쟁의 전황

이민수 |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목 차

- 
1. 머리말
 2. 고구려의 전략과 당의 수륙병용 공격
 3. 철릭·거란의 참전과 일부 당군의 철군
 4. 맺음말

초 록 본 논문은 661년 고구려-당 전쟁의 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661년 당은 35만 명의 대군으로 고구려를 요동·압록수·평양 세 방면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대한 고구려의 방어 전략은 1. 요동방어망과 평양성에서 수성전을 전개, 2. 압록수에서 당군의 보급로를 차단, 3. 거란 등의 서북방에 소재한 유목세력들과 연계하여 당을 압박, 4. 당군이 군량 부족과 추위로 인해 지쳤을 때를 기다리다가 공세로 전환, 5. 퇴각하는 당군을 추격 및 섬멸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요동 방면에서는 정명진군이 신성 일대를 공략하였으나, 고구려군은 신성을 사수하여 당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압록수 방면에서는 글필하력군 등이 압록수 이북에 보급기지를 확보

하고자 하였으나, 압록수 이남에 배치된 남생군에게 저지되었다. 그러나 압록수가 결빙되자, 글필하력군은 압록수를 건너 남생군을 격파하였다. 평양 방면에서는 소정방군 등의 수군이 패강으로 진입하여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 포위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소정방군 등은 보급을 맡았던 글필하력군이 남생군에게 저지되고 있는 사이 보급이 끊기면서 고구려군의 저항에 고전하였다. 소정방은 이를 타개하고자, 신라에 보급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초원의 유목세력인 철록이 당의 변경을 공격하고, 고구려에 포섭된 거란이 참전하였다. 결국 요동 방면을 공격하던 아사나총·소사업군과 압록수 방면을 공격하던 글필하력군이 철록·거란 전선으로 철군하게 되었다. 이에 요동 방면의 고구려군은 공세로 전환하여 요동에 잔류한 정명진군을 공격하였다. 평양 방면에서도 고구려군의 반격은 더욱 거세져 당의 진지 2개를 빼앗고 왜에 사신을 보내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소정방군은 한파 속에서 고구려군의 반격을 방어하면서 신라의 보급을 기다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제어 : 고구려, 당, 철록, 거란, 신라, 요동, 압록수, 평양

(원고투고일 : 2022. 1. 10,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머리말

최근 660년대 전반기에 전개된 이른 바, 2차 고구려-당 전쟁¹⁾은 645년에 이어 고구려와 당의 두 번째 전면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2차 고구려-당 전쟁을 단독 주제로 한 선행 연구로는 김용만(2004), 김병곤(2013), 장창은(201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그간 삼국통일 전쟁의 과정으로만 언급된 이 전쟁에 대해 전반적인 양상을 다루면서 의의와 중요성을 환기시켰다.²⁾ 그리고 李玟洙(2021)는 묘지 등의 사료를 참고하여 당시 당의 고구려 공격로와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규명을 시도하였다.³⁾ 이외에 2차 고구려-당 전쟁에 대한 단독 주제는 아니지만, 이상훈의 연구도 주목된다. 그는 고구려 마음산의 위치(이상훈, 2017)와 사수의 위치(이상훈, 2021)에 대해 고지도 등을 활용하면서 심도 있는 고찰을 하였다.⁴⁾

-
- 1) 閔德植은 이 전쟁을 2차 麗唐戰爭으로 불렀으며, (閔德植, 「唐柴將軍精舍草堂碑에 대한 檢討」, 『百濟文化』 31(2002): 175-176) 김용만은 고구려와 당의 전면전을 645년은 1차, 661~662년은 2차, 666~668년은 3차로 규정하면서 다른 국지전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용만, 「2次 高句麗-唐 戰爭(661-662)의 進行 過程과 意義」, 『민족문화』 27(2004): 160-161) 이후 鄭媛朱도 이 전쟁을 2차 高唐 전쟁으로 명명하였다. (鄭媛朱, 「高句麗 滅亡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博士學位論文(2013): 251) 최근 이영재, 장창은, 李玟洙도 661~662년 전쟁을 2차 고구려-당 전쟁으로 규정하였다(이영재, 「660년대 고구려의 대남방 전략」, 『大丘史學』 130(2018): 3; 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新羅史學報』 37(2016): 68; 李玟洙, 「660~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군 편성과 水軍 운용 전략」, 『한국고대사탐구』 38(2021): 130).
 - 2) 김용만, 위의 논문(2004): 159-205; 김병곤, “661~662년 당 수군의 평양 직공제의 전략과 한계”, 『韓國史學報』 50호(2013): 43-75; 장창은, 위의 논문(2016): 68.
 - 3) 李玟洙, 앞의 논문(2021).
 - 4) 이상훈, 「삼국통일기 고구려 마음산의 위치와 군사적 위상」, 『군사』 104(2017); 이상훈, 「신라군의 사수 전투와 평양성 전투」, 『신라의 통일전쟁』, 민속원, 2021.

이처럼 2차 고구려-당 전쟁 연구는 전쟁의 전반적인 양상과 의의, 주요 전장 비정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당군은 요동, 압록수, 평양 세 방향으로 공격하였는데, 이러한 당군을 상대하는 고구려의 방어 전략과 각 방면의 개별적인 전투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2차 고구려-당 전쟁에서 철록거란의 참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이와 연동된 고구려군의 반격과 신라군의 역할 변동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II장에서는 고구려의 방어 전략과 요동압록수평양 방면에서 전개된 전투 양상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고구려의 방어 전략에 대해서는 당시의 국제 정세와 각 전장에 배치된 고구려군의 군사 활동을 통해 추론해보고자 한다. 요동 방면의 전투는 사료 부족으로 인해 복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묘지 사료를 활용하면서 그 양상에 대해 조금이나마 접근해보고자 한다. 압록수 방면의 전투는 글필하력군의 목적과 이에 대응하는 남생군의 임무를 고찰하면서 전투 양상을 복원하고자 한다. 평양 방면의 전투는 압록수 전투와 연계하여 평양성을 포위한 당군이 이른 시기부터 고전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철록거란의 참전이 661년 전황에 미친 파급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철록거란의 참전으로 인해 일부 당군이 철군한 이후 전개된 고구려의 반격과 신라군의 역할 변동에 대해 『삼국사기』, 『일본서기』, 당대 묘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2차 고구려-당 전쟁은 661년부터 662년까지 전개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신라의 본격적인 참전 이전인 661년 12월 전황까지만 다루고자 한다.

2. 고구려의 전략과 당의 수륙병용 공격

가. 고구려의 방어전략

당은 661년 5월 16일 고구려 공격군 편성을 완성하여 35개 행군(35만 명)으로 요동, 압록수, 평양 세 방면에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하였다.⁵⁾

〈표 1〉 661~662년 당군의 공격로와 전장

행군명	주요 지휘관	공격로	주요 전장	전거사료
平壤道	蘇定方	평양 방면	장안성(평양성)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遼東道	契苾何力	압록수 방면	압록수 일대	『契苾嵩墓誌』, 『婁敬墓誌』,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涓江道	任雅相	평양 방면	장안성(평양성)	『仵欽墓誌』
長岑道	阿史那忠	요동 방면	부여성	『阿史那忠碑』, 『阿史那忠墓誌』
鏤方道	程名振	요동 방면	신성 일대	『新唐書』
沃沮道	龐孝泰	평양 방면	장안성(평양성)	『新唐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讀史方輿紀要』
扶餘道	蕭嗣業	요동 방면	부여성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含資道	柴哲威	평양 방면	장안성(평양성)	『唐柴將軍精舍草堂碑』
	劉德敏	평양 방면	장안성(평양성)	『三國史記』

5) 평양 방면으로 진군한 평양도행군대총관 소정방, 패강대행군대총관 임아상, 옥저도행군총관 방효태, 요동 방면으로 진군한 장잠도행군대총관 아사나충, 부여도행군총관 소사업, 누방도행군총관 정명진, 압록수 방면으로 진군한 요동도행군대총관 글필할력은 압록도, 낙랑도, 함자도 등 예하에 복수 행군을 거느렸다(李玟洙, 위의 논문(2021): 139-157.).

행군명	주요 지휘관	공격로	주요 전장	전거사료
鴨綠道	張脛	압록수 방면	압록수 일대	『張脛墓誌』
樂浪道	미상	요동 방면	미상	『南郭生墓誌』
미상	薛仁貴	요동 방면	요동성	『集神州三寶感通錄』
이외 25개 행군명 미상				

당의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공격에 대응을 해야 했던 고구려의 태대대로(太大大對廬)이자,⁶⁾ 군통수권자인 연개소문⁷⁾의 전략은 기록의 부재로 인해 알 수 없다. 다만, 전장을 통해 추론을 해보자면, 연개소문은 이러한 당군의 공격로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당 수군의 평양성 직공은 612년 평양성 전투는 물론 당의 꾸준한 함선 건조와 660년 당 수군의 백제 사비성 직공 전례를 고려했을 때⁸⁾ 연개소문으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연개소문이 대령강과 청천강으로 진입하는 요충지인 위도(葦島)⁹⁾에 수군을 배치한 것¹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당 수

6) 『泉男生墓誌』에서 남생이 661년에 막리지에 취임했던 것으로 보아 연개소문은 661년에 태대대로에 취임했을 가능성이 높다(李文基, 「高句麗 滅亡期 政治運營의 變化와 滅亡의 內因」, 『한국고대사연구』 50(2008): 63-67.). 구체적으로는 남생이 본격적인 전쟁 직전에 막리지에 취임했으므로(이정빈, 「「천남생 묘지」에 보이는 將軍과 7세기 고구려의 군사 운용」, 『韓國古代史探究』 22(2016): 83-85) 연개소문도 전쟁 직전에 태대대로에 취임했을 것이다.

7) 연개소문은 스스로 “兵”을 잘 안다고 자임하였으며(『李衛公問對』 上卷, “靖曰探知蓋蘇文自恃知兵, 謂中國無能討, 故違命, 臣請師三萬, 擒之.”), 645년 당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으며, 왜에서도 당대의 준걸로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다(『藤氏家傳』 謙足傳, “時謂侍臣曰, 傳聞大唐有魏徵, 高麗有侍蓋金, 百齊有善仲, 新羅有庾淳, 各守一方, 名振万里. 此皆當土俊傑, 智略過人. 以此數子, 比朕內臣, 當出跨下. 何得抗衡.”).

8) 李玟洙, 앞의 논문(2021): 158-162.

9) 장창은, 앞의 논문(2016): 86-87.

10) 『舊唐書』 卷4 本紀4 高宗上 龍朔 2년 3월.

군의 평양성 포위를 저지하기 위해 위도로 유인하여 전장의 범위를 안주성¹¹⁾ 일대로 제한 혹은 평양성 진입을 지연하려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연개소문은 당 수군의 패강 진입과 평양성 포위도 대비하였다. 이는 고구려가 패강(대동강)과 마음산에서 방어전을 전개하고,¹²⁾ 평양성 수성전이 7개월에 걸친 장기전이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연개소문은 압록수에 당군이 오기 전에 이미 남생에게 수만 명의 정예군을 주어 압록수 이남에 배치하였다.¹³⁾ 남생은 661년에 막리지겸 삼군대장군(莫離支兼三軍大將軍)에 취임하였다.¹⁴⁾ 661년 전쟁은 평양, 요동, 압록수에서 전투가 전개되었는데, 이 가운데 남생은 압록수 방어전의 야전군 사령관을 맡은 것은 것이다.¹⁵⁾ 남생의 군대 구성은 연개소문이 파견했다는 점에서 볼 때 중앙군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이다.¹⁶⁾ 연개소문은 648년에 대행성(大行城)·박작성(泊灼城)이 위기에 처했던 전례를¹⁷⁾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남생

11) 안주성은 안주읍 동쪽 가두산을 배경으로 청천강을 자연 해자로 하여 안주읍내를 둘러막은 평산성으로 고구려 때부터 청천강 일대를 수비하는 서북지역 중심성의 하나였다.(이상훈, 「고구려 영류산의 위치와 나당연합군의 진군로」, 『한국고대사탐구』 34(2020): 192)

12) 『册府元龜』 卷986 外臣部31 征討5,

13) 『舊唐書』 卷109, 列傳59, 契苾何力; 『新唐書』 卷110, 列傳35 諸夷蕃將 契苾何力; 『資治通鑑』 卷200, 唐紀16 高宗 龍朔 元年 9월.

14) 「泉男生墓誌」, “卅八任莫離支兼授三軍大將軍, 卅二加太莫離支, 摠錄軍國, 阿衡元首.”

15) 이정빈, 「천남생 묘지」에 보이는 將軍과 7세기 고구려의 군사 운용, 『韓國古代史探究』 22(2016): 87-88. 연개소문은 수도인 평양성 방어를 맡았을 것이다.

16) 이문기, 「7세기 高句麗의 軍事編制와 運用」, 『고구려발해연구』 27(2007): 171-172.

17) 『舊唐書』 卷69, 列傳19 薛萬徹; 『新唐書』 卷94, 列傳19, 薛萬徹; 『册府元龜』 卷985, 外臣部30 征討4. 648년 설만철군이 압록수 이북을 공격할 당시 박작성의 구원군은 오골성, 안지성(안시성)에서 차출한 요동의 군대였다. 이는 당시 압록수 이남에 배치된 고구려군이 상당히 부족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대행성과 박작성은 요동의 구원군이 올 때까지 자력으로 당군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설만철군은 비록 박작성 함락에 실패하고, 퇴각하였지만, 만일 훗날 당군이

을 압록수 이남에 배치하여 당군의 압록수 이북 보급기지 확보를 저지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요동 방면은 당이 659년까지 간헐적으로 공격했던 만큼 방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동방어망의 주요 성들은 수성전을 전개하면서 당군이 추위와 군량부족으로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요격하는 임무를 맡았을 것이다.¹⁸⁾

신라를 위시한 남부전선은 645년 당시 신라가 당을 도와 고구려의 수구성을 공함¹⁹⁾했던 적이 있던 만큼 신라의 공격은 충분히 예상 범위에 있었을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당의 고구려 공격군 출병이 고종의 친정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동안²⁰⁾ 661년 5월경 신라의 예봉을 꺾기 위해 술천성(述川城)과 북한산성(北漢山城)을 공격하였지만,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하였다.²¹⁾ 고구려군의 퇴각 원

박작성을 확보한다면 압록수 이남의 의주가 위협에 노출되어 당군의 의주대로를 경유한 평양성 진격을 허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연개소문은 압록수 이남에 대군을 배치하여 압록수를 해자로 삼아 압록수 이남에서부터 즉각적으로 당 수군의 압록수 이북 상륙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18) 『舊唐書』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賊中有對盧, 年老習事, 謂延壽曰 吾聞中國大亂, 英雄並起. 秦王神武, 所向無敵, 遂平天下, 南面爲帝, 北夷請服, 西戎獻款. 今者傾國而至, 猛將銳卒, 悉萃於此, 其鋒不可當也. 今爲計者, 莫若頓兵不戰, 曠日持久, 分遣驍雄, 斷其饋運, 不過旬日, 軍糧必盡, 求戰不得, 欲歸無路, 此不戰而取勝也.” 이러한 전략은 645년 뿐만 아니라 좌원전투, 고구려-수 전쟁 등에서도 운용했던 만큼 고구려에게 익숙한 전략이었다.

19) 『舊唐書』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新羅.

20) 당은 661년 4월 16일에 고구려 공격군 조서를 발표하였으나, 고종의 친정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인해 결국 4월 29일에 고종이 친정을 포기하고, 5월 16일에 친정군을 제외한 고구려 공격군 조서를 발표하였다(李玖洙, 앞의 논문(2021): 138-139). 고구려는 이러한 당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다가 5월 초에 신라를 우선적으로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21)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8년 5월 ; 『三國遺事』卷1 紀異1 太宗春秋公. 고구려는 북한산성을 함락할 경우 신라의 대당교섭을 차단하고(이영재, 앞의 논문(2018): 24-25) 한강 이북 지역에서 신라의 군사적 움직임에 큰 제약을 주고 한강 이남의 신라군과의 군사적인 연계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전력을 투입하였다.(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漢山州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2021): 67-75) 이러한 고구려의 신라 공격은 죽령 이북의 고토 회

인은 신라군의 선전²²⁾과 한창 북한산성을 공격 중이던 5월 16일에 당이 최종 고구려 공격군 조서를 발표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³⁾ 결국 고구려는 신라 전선에서 퇴각하고, 대신에 백제 부흥군과 이를 지원하는 왜가 신라를 견제해주길 기대하며 대외교섭을 추진하였다.²⁴⁾ 연개소문은 서북방에 소재한 유목세력에게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A-1. 顯慶 5년 조서를 내려 (아사나층을) 使持節 長岑道行軍大摠管으로 삼았다. 辰韓이 소란스럽게 하자, 旆를 따라 잔당을 없애고, 契丹이 縱毒하자, 戈을 돌려 亂으로부터 구원하였다. 玄奘의 遊魂을 끊고, 黃龍의 큰 재앙을 전복시켜, 모두 없애 그침에 이르렀다.²⁵⁾

A-2. 얼마 후 遼碣에서 군사를 일으킴으로써, 公을 使持節 長岑道行軍大摠管으로 삼았다. 元戎(兵車)이 먼 곳까지 달려가자, 하늘의 위엄이 멀리 뻗어서, 三山이 이로 인해 흔들리니, 九種은 이로써 두려워 놀랐다. 契丹은 白狼의 동쪽에 있으면서, 黃龍의 오른쪽에 있었는데, 가까이는 卉服을 침략하고, 밖으로는 鳥夷와 결탁하였다. 公은 군사를 돌려 誅翦하고, 應機하여 殄滅시켜 노획한 것이 萬計였다.²⁶⁾

복 인식에 대한 반영인 측면도 있었다(윤성환, 「6세기 말~7세기 고구려 지배세력의 대외인식과 대외정책」, 『民族文化』 37(2011): 155-168.).

- 22) 신라의 북한산성 전투 승전 요인은 소수의 투석기 부대 파견(이상훈, 「661년 북한산성 전투와 김유신의 대응」, 『국학연구』 31(2014))과 지방관을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가 효율적인 수성전을 전개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고창민, 앞의 논문(2021)).
- 23) 당군의 고구려 공격 계획이 고구려군의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이상훈, 위의 논문(2014): 337 각주 74).
- 24) 당시 고구려의 대외교섭 정도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지원 요청했을 것이라는 견해(徐榮教, 「倭의 百濟 援助와 蘇定方の 平壤城 撤軍」, 『大丘史學』 117(2014))와 신라를 간접 견제해주는 정도만 바랐다는 견해(이영재, 앞의 논문(2018))로 나뉜다.
- 25) 「阿史那忠碑」, “顯慶五年, 詔爲使持節長岑道行軍大摠管. 辰韓倣擾. 從旆除殘. 契丹縱毒. 迴戈拯亂. 剿玄奘之遊魂, 覆黃龍之巨孽, 亦既至止.”
- 26) 「阿史那忠墓誌」, “屬興師遼碣, 以公爲使持節長岑道行軍大摠管. 元戎長驅, 天威遐暢, 三山因之而波蕩, 九種以之而震驚. 契丹在白狼之東, 居黃龍之右, 近侵卉服, 外結鳥夷. 公, 迴師誅翦, 應機殄滅, 虜獲萬計.”

A-1, 2에 의하면 660년대 초반 고구려와 거란(契丹)의 연계가 확인되기 때문에²⁷⁾ 연개소문이 당에게 제압되었던 거란을 포섭하려는 외교 전략도 병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²⁸⁾ 거란과의 연계는 고구려가 거란의 서쪽에 소재한 철록제부(鐵勒諸部)와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²⁹⁾ 요컨대 고구려의 전략은 1. 요동방어망과 평양성에서 수성전을 전개, 2. 압록수에서 당군의 보급로를 차단, 3. 거란 등의 서북방에 소재한 유목세력들과 연계하여 당을 압박, 4. 당군이 군량 부족과 추위로 인해 지쳤을 때를 기다리다가 공세로 전환, 5. 퇴각하는 당군을 추격하여 섬멸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7) 『阿史那忠墓誌』에 기재된 「鳥夷」는 고구려를 의미한다(윤용구,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 遠征 - 裴矩의 「郡縣回復論」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5(2005): 58 ; 최진열, 「唐代 高句麗 표기 기괴현상 - 隋唐 墓誌銘의 國名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2012): 232). 『斛斯正則墓誌』에 기술된 태종의 고구려 공격 기사에서도 고구려를 鳥夷로 표기하였다(『斛斯正則墓誌』, “(貞觀)十八年, 從幸洛陽宮, 仍屬鳥夷恃險, 狼顧不賓. 卽從龍鷹, 恭聞狩略.”). 고구려의 거란 포섭 성사는 철록의 당 공격 시점인 661년 10월 전후로 여겨진다.

28) 徐榮教, 「唐高宗 百濟撤軍 勅書의 背景」, 『東國史學』 57(2014): 330-332.

29) 645년에 연개소문은 말갈을 매개로 실연타와 연대를 시도한 바 있다(『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太宗 貞觀 19年 8월.)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서영교(徐榮教, 「고구려의 대당전쟁(大唐戰爭)과 내륙아시아 제민족-安市城 전투와 薛延陀」, 『軍史』 49(2003): 220-221 ; 서영교, 「연개소문의 對실연타 공작과 당태종의 안시성 撤軍 - 『資治通鑑』 권198, 貞觀 19年 8·12월조 『考異』의 『實錄』 자료와 관련하여」, 『동북아역사논총』 44(2014)), 김용만(김용만, 「고구려 후기 고구려, 수·당 북방제국의 대립관계」, 『高句麗研究』 29(2007): 274-275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104-107), 김지영(김지영, 「7세기 고구려와 북방 제민족의 관계 변화」, 『만주연구』 8(2008): 79-80 ; 김지영, 「7세기 중반 거란의 동향 변화와 고구려-660년 거란의 이반을 기점으로」, 『만주연구』 12(2011): 88-89), 이성제(李成制, 「高句麗와 투르크계 北方勢力의 관계-이해의 방향과 연구방법에 대한 모색-」, 『高句麗渤海研究』 52(2015): 159-162 ; 이성제, 「650년대 전반기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동향과 고구려 - 고구려 사절이 아프리카시업 궁정벽화에 그려진 배경에 대한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65(2019): 247-249)의 연구가 참고 된다.

나. 당의 수륙병용 공격

1) 요동 방면

661년 5월 16일 직후에 출병한 당의 육군이 요동 방면에 이르렀을 시점은 대략 9월 중순경으로 여겨진다.³⁰⁾

B-1. 唐 龍朔(661~663) 중에 遼左에 전쟁이 있어 軍將 薛仁貴를 가게 하였다. (설인귀는) 隋主가 토벌했던 遼東의 옛 땅에 이르러 산의 불상을 보았는데 텅 비어서 쓸쓸하고 사람의 왕래가 끊겨 있었다. 옛 노인에게 물으니, ‘이것은 선대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였고 곧 그림으로 베껴 경사로 돌아왔다.³¹⁾

B-2. 공은 겨우 15세 나이에 벼슬길에 나아가 邦官을 받았다. 중리소형의 관등을 받아 貴端道史의 직을 맡았다. 大唐 龍朔 원년(661)에 이르러, 고종 황제가 칙을 내려 의로운 군대를 발하여 遼左의 죄를 문책하시니, 공은 군대를 이끌고 (황제의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사로잡혔다. 황제는 저항한 허물을 묻지 않고 歸降의 예를 허락하였다.³²⁾

B-3. 龍朔 원년(661), 遼東의 죄를 문는데, 鏤方道總管 程名振이 (황제에게) 공을 行軍兵曹를 담당하게 할 것을 아뢰었다. (楊師善은) 軍謀와 戰策으로 많은 곳에서 승리하였다.³³⁾

30) 644년 11월 24일 낙양으로부터 출병한 요동도행군은(『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太宗 貞觀 18년 11월 甲午.) 645년 4월 5일에 신성을 공격하였고(『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太宗 貞觀 19년 4월 壬寅.), 645년 2월 12일 낙양으로부터 출병한(『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太宗 貞觀 19년 2월 庚戌.) 태종의 6군은 5월 10일에 요수를 건넜다(『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太宗 貞觀 19년 5월 丁丑.). 이로 보아 낙양으로부터 요수까지 행군하는 데 있어 대략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31) 『集神州三寶感通錄』 中, “五十唐龍朔中. 有事遼左行軍將薛仁貴. 行至隋主討遼古地. 乃見山像空曠蕭條絕於行往. 訪問古老云. 是先代所現. 便圖寫傳本京師云云.”

32) 『高乙德墓誌』, “公率纒立志, 仕被邦官, 中裏小兒, 任貴端道史. 暨乎大唐龍朔元年, 皇大帝 勅發義軍, 問罪遼左, 公率兵敵戰, 遂被生擒.”

33) 『楊師善墓誌』, “龍朔元年, 問罪遼東, 鏤方道總管程名振奏公充行軍兵曹. 軍謀戰策, 多所決勝.”

우선 B-1에 의하면 설인귀군은 요동성으로 진군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얼마 안 있어 귀국한 것으로 여겨진다. 661년 10월 경 고종, 정인태와 함께 낙양에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³⁴⁾ 그리고 B-2에 의하면 귀단도사(貴端道史) 고을덕은 661년 전투에서 생포되었다고 한다. 귀단성은 현재 신성(新城: 현 撫順市 高爾山城)의 이칭으로 파악한 견해³⁵⁾를 기반으로 신성이 옥살(褥薩)급 대성이었을 것이라는 견해³⁶⁾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³⁷⁾ 주지하듯이 고구려 서변의 중진(重鎭)인 신성은 요동성에 이어 안동도호부의 치소가 되었을 정도로 그 위상이 남달랐다. 따라서 귀단성=신성설을 기반으로 신성이 처려근지(處閭近支)급 성이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에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다. 또한 연개소문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고을덕³⁸⁾이 고구려 서변 방어의 핵심인 신성의 성주라는 것도 다소 부자연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귀단성=신성설의 논거인 650년대의 전투를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657년 전투를 살펴보자. 『구당서(舊唐書)』 설인귀전에 의하면 당군은 고구려군을 귀단성에서 격파하였다고 한다.³⁹⁾ 그리고 『책부원구(冊府元龜)』에 의하면 당군은 고구

34) 『新唐書』卷111, 列傳36, 薛仁貴. 李玟洙, 앞의 논문(2021): 109. 당시 설인귀군 자체가 철군한 것으로 여길만한 원인은 보이지 않으므로, 주요 지휘관만 교체된 것으로 여겨진다.

35) 池內宏,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滿鮮史研究』上世第二冊, 吉川弘文館(1960): 308-309 ; 田中俊明·東潮,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1994, 340.

36)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228-257 ;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367.

37) 李成制,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새로 발견된 <高乙德墓誌>에 대한 譯註와 분석-」, 『중국고증세사연구』 38(2015): 202 ; 이성제, 「褥薩의 大城·王都 5部 駐在와 그 職任」, 『한국고대사연구』 92(2018): 170-172.

38) 李成制, 위의 논문(2015): 202-203.

39) 『舊唐書』卷83 列傳33 薛仁貴, “顯慶二年, 詔仁貴副程名振於遼東經略, 破高麗於貴端城, 斬首三千級.”

려군을 귀단수에서 격파 후 신성을 불태우자, 살획한 무리가 많았다고 한다.⁴⁰⁾ 두 기사를 비교해보면 일견 귀단성=신성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설인귀전에는 귀단성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한 내용만 전하는 반면에 『책부원구』는 당군이 귀단수(설인귀전의 귀단성)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한 후 신성을 불태운 추가적인 군사 활동도 전하고 있다. 두 사료가 일치하는 부분은 귀단수(=귀단성)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한 내용뿐이다. 즉, 귀단성이 귀단수 인근에 소재한 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신성의 이칭으로 단정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책부원구』에서 귀단수와 신성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설인귀전의 귀단성은 신성과 서로 다른 곳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655년 신성 전투를 살펴보자. 『구당서』 고려전에 의하면 당군은 신성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신성의 외곽(外郭)과 허락(墟落)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⁴¹⁾ 『책부원구』에 의하면 고구려군이 당군의 규모가 작은 까닭에 6개 성의 문을 열고 출병하였으나, 귀단수에서 패배하고 당군은 나곽(羅郭)과 촌락(村落)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⁴²⁾ 이를 조합해보면 신성의 고구려군이 신성 권역의 귀단수 주변 6성과 연계하여 당군과 전투를 벌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설인귀전의 귀단성은 신성 권역의 6개 성 중 한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다.⁴³⁾ 655년과 657년 전투 모두 공통적으로 귀단수(귀단성)에

40) 『册府元龜』 卷358 將帥部19 立功11, “程名振, 爲營州都督兼東夷都護. 顯慶二年, 率兵破高麗於貴端水. 焚其新城, 殺獲甚衆.”

41)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永徽)六年, … 有詔營州都督程名振·左衛中郎將蘇定方率師討之, 至新城. 敗高麗兵, 火外郭及墟落, 引還.”

42) 『册府元龜』 卷986 外臣部31 征討, “(永徽)六年, … 五月, 程名振率兵, 渡遼水至高麗. 以名振兵少, 乃開六城門出兵, 渡貴端水與名振合戰. 賊徒大敗, 奔走過水, 欲入城不得, 殺獲千餘人. 名振縱兵, 焚其羅郭及村落而還.”

43) 주지하듯이 신성은 주성인 東城을 주축으로 西城, 南衛城, 北衛城 그리고 동남쪽의 環形 小城 3개로 총 7개의 성으로 구성된 복곽식 산성이다. 『册府元龜』에 기재된 신성 권역 6개의 성은 신성의 이러한 특이한 구조를 반영한 기록으로 귀단

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한 후 신성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아 귀단성은 당군의 수월한 신성 공략을 위해 선결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다.⁴⁴⁾ 661년 당군이 귀단성 도사인 고을덕을 생포하게 된 정황도 신성 공략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⁴⁵⁾

신성 일대에서 전투를 벌인 것으로 추측되는 정명진군⁴⁶⁾은 귀단성 도사 고을덕을 생포한⁴⁷⁾ 사안과 B-3에서 정명진군의 병조(兵曹) 양사선이 뛰어난 계책으로 많은 곳에서 승리하였다고 한 것⁴⁸⁾

성은 신성을 구성하는 위성 중 하나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신성 羅郭에 불을 질렀다는 기사는 남위성 수문에서 불에 탄 배나무 말뚝이 출토된 것과 일견 부합한다(徐家園·孫力, 『遼寧撫順高爾山城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1987-2(1987): 45.). 그러나 귀단성은 도사가 주재하는 처려근지급의 성이다. 이 위성들은 처려근지급의 성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의문이 있다. 귀단성의 구체적인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기대한다.

- 44) 참고로 『張素墓誌』에 의하면 龍朔年中에 玄菟를 깨뜨렸다고 한다(『張素墓誌』, “去龍朔年中, 屬三韓作梗, 憑凌鯤海之隅, 九種孤恩, 旅拒狼河之外. 君乃負霜戈而報國, 直下朝鮮, 帶月羽以從軍, 先摧玄菟.”). 여기서 말하는 玄菟가 고구려를 관념상이 아닌 실제 현도성 공격을 의미한다면(李玟洙, 앞의 논문(2021): 154-155 각주 116.), 그것은 신성 공략을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정원주, 『男生의 失脚 배경과 그의 行步』, 『한국고대사연구』 75(2014), 324-325.).
- 45) 이에 대해 고을덕이 도사로 있던 귀단성의 병력을 빼내 압록수 전투에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李成制, 앞의 논문(2015): 202), 당은 645년 신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서돌궐 흉방 전후(647-655-657년)로 신성 일대를 공격하였다. 당은 신성 공략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성을 공격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정황에 고을덕이 선불리 압록수 이남의 남생 예하에서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李玟洙, 앞의 논문(2021): 154-155).
- 46) 정명진은 영주도독겸 동이도호로서 655-657년 신성 일대, 658년 적봉진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 경험이 있다. 그는 661년 당시 요동의 지세를 가장 잘 아는 요동 공격에 가장 적합한 주요 인사였다고 할 수 있다(李玟洙, 위의 논문(2021): 156-157.).
- 47) 귀단성이 함락되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을덕은 외곽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정명진군과 전투를 벌였다가 생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648년 박작성 외곽 전투에서도 박작성주 소부손이 당군에게 참수 당하였으나, 박작성은 당군으로부터 끝까지 성을 사수한 바 있다(『冊府元龜』 卷985 外臣部 30 征討4.).
- 48) 『楊師善墓誌』, “龍朔元年, 問罪遼東, 鑿方道總管程名振奏公充行軍兵曹. 軍謀戰策, 多所決勝.” 물론 묘지 특성상 다소의 과장된 기술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양사선이 신성 일대에서 어느 정도 활약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 보아 초전에 승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명진군이 귀단성, 신성을 함락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성 권역의 고구려군은 초전에 고전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신성을 사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2) 압록수 방면

661년 5월 16일 직후에 내주로부터 출병한 글필하력군은 9월 말에 압록수 북쪽에 상륙하였다.⁴⁹⁾ 글필하력군은 압록수에서 고구려군과 큰 전투를 벌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자.

C-1. 龍朔 元年(661) 조서를 내려 (글필하력을) 遼東道行軍大總管으로 삼고 9월에 수륙양군을 平壤에서 모이게 하였다. 군사들이 鴨綠(水)에 이르자, 파도가 광대하고 거칠어 배로 건널 수 없었다. 王期를 잃을까 두려워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충성스러운 뜻을 갖추어 아뢰자, 찬바람이 네 번 불고 얼음물들이 합쳐졌다. (요동도행)군의 무리들이 겨우 건너자 얼음이 뒤따라 녹으니, 高麗가 신기하게 여겼다.⁵⁰⁾

C-2. 龍朔 원년(661), 다시 遼東道行軍大總管이 되어 9월, 鴨綠수에 이르렀는데, 그 곳은 곧 高麗의 險阻로, 莫離支 男生이 精兵 수만 명으로써 그곳

49) 글필하력군은 육로가 아닌 해로로 압록수 방면으로 진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645년 이후 보강축조 된 요동방어망을 아무런 피해 없이 육로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김용만, 앞의 논문(2004): 189~190). 2. 글필하력군의 진군과 회군 당시 요동을 통과하였다는 기록의 부재(우석훈, 「遼河 유역의 高句麗 千里長城」, 『軍史』 92(2014): 114). 3. 압록도행군부총관에 제수된 설만비가 출정을 위해 당 수군의 출항지인 내주로 향함. 4. 「契苾嵩墓誌」에 의하면 글필하력군은 배를 운용, 이상의 4가지 이유로 볼 때 글필하력군은 해로를 경유하는 수군으로 편성되었을 것이다(李玟洙, 앞의 논문(2021): 145~151). 글필하력군의 도착시점은 648년에 설만철군이 1월 말에 출병하여(『資治通鑑』 卷198 唐紀 14 太宗 貞觀 22년 정월). 6월경 압록수에 상륙한 것(『冊府元龜』 卷985 外臣部 30 征討4.)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다.

50) 「契苾嵩墓誌」, “龍朔元年, 詔爲遼東道行軍大總管, 於時九月, 水陸兩軍, 大會平壤. 兵至鴨綠, 波濤浩瀚, 無舟可濟. 恐失王期, 仰天而罵, 具申忠志. 寒風四起 流漸立合. 軍衆纜渡 冰隨後銷, 高麗謂神.”

을 지키고 있어서 무리가 (압록수를) 건널 수 없었다. (글필)何力이 비로소 (압록수에) 이르자, (압록수가) 때마침 겹겹으로 얼어 크게 합쳐지자, 군사들이 빠르게 곧장 (압록수를) 건너 북을 치며 나아가니, 賊이 드디어 크게 무너졌다. 수십 리를 추격하여 3만 급을 참수하였고, 나머지 무리는 모두 항복하였다. 男生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 때마침 군대를 돌아오라는 조서가 있어 이에 돌아왔다.⁵¹⁾

당시 압록수 이북에는 글필하력의 본진을 제외한 여러 행군이 상륙해있었고,⁵²⁾ 그 이남에는 수만 명의 남생군이 배치돼 있었다. 현재 남생군이 배치된 곳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누경묘지(婁敬墓誌)」에 의하면 남생군을 격파한 글필하력군은 철산진(鐵山陣)에 이르렀다고 한다.⁵³⁾ 철산진은 현재 지명의 유사성과 거리로 보았을 때 평안북도 철산군으로 여겨진다.⁵⁴⁾ 압록수 이북에서 철산에 이르려면 박작성-의주-용천을 거쳐야 한다.⁵⁵⁾ 이를 역순으로 추적해보았을 때

51) 『舊唐書』 卷109, 列傳59, 契苾何力.

52) 李玟洙, 앞의 논문(2021): 148 각주 94, 95.

53) 「婁敬墓誌」, “至龍朔元年, 從總管契苾將軍遼東道行除檢校果毅, 至平壤城鐵山陣.”

54) 義州에서 鐵山까지 56리~79리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53, 平安道 義州牧·鐵山郡). 이는 남생군을 격파한 글필하력군이 수십리를 추격했다는 것과 일견 부합한다. 「婁敬墓誌」에서 “至平壤城鐵山陣.” 라고 하여 인듯 글필하력군이 남생군을 추격한 곳인 철산진이 평양성 인근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압록수에서 육이성(안주)까지의 거리가 200리로(『資治通鑑』 卷201 唐紀17 高宗總章 원년 9월, “勣既克大行城, 諸軍出他道者皆與勣會, 進至鴨綠柵, 高麗發兵拒戰, 勣等奮擊, 大破之, 追奔二百餘里, 拔遼東城, 諸城遁逃及降者相繼.”), 육이성 이남에 소재한 평양성은 압록수와 200리 이상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다수 기록에서 언급한 글필하력군이 남생군을 추격한 거리인 수십 리와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舊唐書』 李勣傳에서는 이적군이 압록수에서 200리를 추격한 것을 두고 평양성에 이르렀다고 한 바 있다(『舊唐書』 卷67 列傳17 李勣, “總章元年, 命勣爲遼東道行軍總管, 率兵二萬略地至鴨綠水. 賊遣其弟來拒戰, 勣縱兵擊敗之, 追奔二百里, 至於平壤城.”). 이는 마치 이적군이 평양성까지 진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資治通鑑』에 의하면 압록수 이남 2백리는 육이성으로 평양성이 아니다. 「婁敬墓誌」에서 철산진이 평양성 인근에 소재한 것처럼 기술한 것은 『舊唐書』 李勣傳과 유사한 과장된 형태의 기술로 이해된다.

남생군은 의주나 신의주 인근에 주둔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기록상 남생군이 성에 의지해서 방어전을 전개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⁵⁶⁾ C-2에서 남생의 주둔지를 ‘험저(險阻)’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남생군은 자연지형에 의지해서 글필하력군의 도하를 저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글필하력군의 압록수 이북 상륙 목적은 648년 설만철군의 압록수 이북 공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종은 설만철군의 압록수 이북 공격 직후 해로로 군량을 운반하고자, 대규모 선박을 건조하여 내수에 가게 하고, 보급물자를 오호도(烏胡島)에 축적하게 하였다. 이는 압록수 이북에 보급기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648년 압록수 이북 공격은 649년에 재개될 고구려 공격의 예행연습이었던 것이다.⁵⁷⁾

글필하력군의 본래 목적도 설만철군처럼 압록수 이북에 소재한 대행성과 박작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661년 압록수 이북에 상륙한 글필하력군은 설만철군과 유사한 군사 활동 흔적은 보이지 않고, 압록수를 사이에 두고 남생군과 대치하였다. 이는 글필하력군이 압록수 수로를 거슬러 올라가던 중 압록수 이북의 대행성, 박작성에 도달하기도 전에 난항을 겪었음을 의미한다. 남생군은 글필하력군의 진군을 중도에서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

글필하력군이 요동과 평양의 연계를 차단하고, 보급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록수를 건너 배후를 위협하는 남생군을 격파해야 했다. 남생군이 압록수 이남에 있는 한 글필하력군이 평양성을 포위

55) 양시은, 「평양도읍기 고구려의 성곽방어체제」, 『고고학』 12-3(2013): 134.

56) 현재 이들 지역에 소재한 고구려 성 유적으로는 서린동고성(신의주시), 임천성(의주군 춘산리), 대산동고성(의주군)등이 있다(徐日範尹根一, 「北韓 内の 高句麗 城 分布와 研究現況」, 『高句麗研究』 8(1999): 115.).

57) 李玟洙, 앞의 논문(2021): 150-151. 특히 압록강 하구에 소재한 대행성은 수로가 닿는 다른 고구려 戰線의 唐軍에게 재보급을 해줄 수 있는 중간물류기지의 역할도 할 수 있었다(徐榮教, 「唐의 고구려 內戰介入과 新城·大行城 점령」, 『中國史研究』 131(2021): 67-69.).

한 당군에게 보급을 조달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글필하력군은 임시로 모처에 상륙 후 남생군부터 제압하고자 하였으나, 남생군은 요해지에서 글필하력군의 도하를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⁵⁸⁾

C-1에 의하면 글필하력군은 압록수의 거친 파도로 인해 배로 건널 수 없었다고 한다.⁵⁹⁾ 당시 당의 전함은 길이 100척, 너비 50척의 대형 선박이었다.⁶⁰⁾ 압록강 하구는 여러 섬으로 인해 강폭이 줄어들어 다수의 대형 전함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으며,⁶¹⁾ 조수간만의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⁶²⁾ 압록수 도하 횡수도 1일 2회로 제약이 있었다.⁶³⁾ 즉, 남생군은 압록수의 기상현상과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방어전을 전개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글필하력군의 본진이 압록수 이북에 상륙한 시점에 압록수가 결빙되었다. C-1에 의하면 남생군은 압록수가 결빙되고 글필하력군이 도하하자, 놀랐다고 한다.⁶⁴⁾ 9월 말경의 압록수 결빙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기상현상이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봉천통지(奉天通志)』에 의하면 압록강은 매년 겨울 12월에서 다음 해 3, 4월까지 결빙되므로 선박이 통행할 수 없다고 한다.⁶⁵⁾ 압록수는 일반적으로 12월경 결빙이 되

58) 압록강은 도강을 감행하더라도 강을 건너는 가운데 대오가 흐트러질 우려와 이로 인한 공격에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다(허인옥, 「유목사회의 특성과 고려-거란 전쟁」, 『한국중세사연구』 60(2020): 56).

59) 1933년 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압록강의 파도는 정박 중이던 범선 12척을 침몰시켰을 정도였다(「狂風暴雨襲來 工場이 倒壞되어 三名即死, 三名重傷 鴨綠江 일어 十二隻沈沒 停電으로 市街暗黒化」 『東亞日報』 1933년 11월 7일).

60) 『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 貞觀 22년 6월.

61) 신범규, 「8세기 전반 발해의 해양 교통로와 제해권 범위」, 『한국고대사탐구』 38(2021): 180-181.

62) 安周燮, 『高麗-契丹 戰爭史 研究』, 明知大學校博士學位論文(2001): 146~147쪽.

63) 許仁旭, 『高麗·契丹의 압록강 지역 영토분쟁 연구』, 高麗大學校博士學位論文(2012): 71쪽.

64) 『新唐書』 契苾何力에도 글필하력군의 결빙된 압록수 도하에 고구려군이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新唐書』 卷110, 列傳35 諸夷蕃將 契苾何力).

65) 『奉天通志』 券163, 交通3 航路下, “每年冬季十二月至翌年三月凡四月爲凍氷時期船

기 때문에 이보다 이른 압록수 결빙은 남생군에게 있어 예상하기 어려운 악재였을 것이다.⁶⁶⁾

반면에 글필하력군에게 있어 압록수 결빙은 압록수를 도하하여 남생군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⁶⁷⁾ 글필하력군은 압록수를 건너 수만 명의 남생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철산진까지 추격하여 3만 명을 죽이고 나머지를 생포하였다.

글필하력군이 남생군을 수십리까지 추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인 요동-평양 등의 고구려군이 당군과 전투 중이므로 군대의 이동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글필하력군은 압록수 전투의 승전으로 인해 큰 제약 없이 해상보급 활동 외에도 철산-선천-정주-안주를 경유한 평양 방면⁶⁸⁾까지의 폭이 넓은 군사 작전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반면에 글필하력군을 저지하는 데 실패한 고구려는 당군의 보급을 저지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했다.

船不能通行.”

66) 물론 압록강은 이르면 음력 8월에도 결빙되기도 하지만(신범규, 앞의 논문(2021): 190쪽 각주 43 참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67) 압록강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수량이 적은 갈수기나 얼음이 어는 결빙기를 택해야 했다(허인욱, 앞의 논문(2020): 55.).

68) 양시은, 앞의 논문(2013): 134.

〈그림 1〉 압록수 전투 전황 추정도



* 출처 : Google 지도 활용

3) 평양 방면

661년 5월 16일 직후에 내주로부터 출병한 소정방군(평양도행군), 임아상군(패강도행군), 방효태군(옥저도행군) 등은 8월 9일에 패강 수로에 진입하였다.⁶⁹⁾ 다수의 사료에서는 소정방군의 군사 활동만 기록되어 있지만,⁷⁰⁾ 임아상군과 방효태군도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다.

D-1. 龍朔 2年 3月 …… 癸丑, 幸同州. 蘇定方이 高麗를 葦島에서 격파하고, 다시 나아가 平壤城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⁷¹⁾

D-2. 龍朔元年(661) 8月, 蘇定方이 高麗의 무리를 溟江에서 격파하고, 잇단 전투에서 모두 이겨, 그 馬邑山을 빼앗아, 산에 의지해營을 설치했다, 드디어 平壤城을 포위하였다.⁷²⁾

D-3. 龍朔 원년 溟江道(行軍)가 하늘의 도리를 받들고 위엄으로 죄를 묻자,君은 배에 무기를 감추고 星樓에서 홀로 (적을) 굽어보고 분주히 달렸다. 배를 타고(浮龍) 수로를 따라 공격하니(水劍), 月峽에서 앞서기를 다투며 명성을 날렸다.⁷³⁾

69) 『新唐書』 卷3 本紀3 高宗 龍朔 원년 8월, “甲戌, 蘇定方及高麗戰于溟江, 敗之.” 『資治通鑑』의 7월(『資治通鑑』 卷200 唐紀16 高宗 龍朔元年 7월 甲戌.)은 8월의 오기로 여겨진다. 후술할 『三國史記』에 의하면 9월 27일 이후 소정방은 신라에게 배를 해안가에 댄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소정방이 8월 즈음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정방의 도착한 달은 8월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70) 『舊唐書』 卷4 本紀4 高宗上 龍朔 2년 3월 ; 『新唐書』 卷111 列傳36 蘇定方 ;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31 征討5.

71) 『舊唐書』 卷4 本紀4 高宗上 龍朔 2년 3월.

72)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31 征討5,

73) 「倭欽墓誌」, “龍朔元年, 溟江道敬奉天規, 承威問罪, 君沉戈畫鷁, 瞻獨驚於星樓, 水劍浮龍競先 鳴於月峽.”

D-4. 龐孝泰는 左驍衛將軍이 되어 高宗이 高麗를 정벌할 때 보내고자, 孝泰를 沃沮道總管으로 삼았다. 이때 孝泰는 令南의 수군(水戰之士)을 거느리고, 蛇水에서 군영을 세웠다.⁷⁴⁾

D-5. 蛇水는 平壤의 서쪽 경계에 있다. 唐 龍朔 초에 龐孝恭 등이 高麗를 공격할 때 嶺南의 군사로써 蛇水에 壁을 쌓았다.⁷⁵⁾

D-3을 보면 임아상군이 수로를 따라 고구려 수군과 전투를 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⁷⁶⁾ D-4에서도 방효태가 수군을 거느리고 평양성 인근의 사수에 진영을 구축하였다고 한다.⁷⁷⁾ 이들은 소정방군과 함께 군사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D-1에 의하면 고구려 수군과 당 수군(소정방, 임아상, 방효태군)의 첫 번째 격전지는 청천강과 대령강 하구에 소재한 위도였다.⁷⁸⁾ 앞서 언급했듯이 고구려 수군은 위도에서 당 수군의 평양성 포위를 저지하고자, 안주성 일대로 유인하거나 평양성 진입을 지연시키고자 하였다.⁷⁹⁾ 그러나 당 수군은 위도에서 승리한 후 안주성 일대로 진군

74) 『冊府元龜』卷373 將帥部34 忠4. 龐孝泰，爲左驍衛將軍。高宗遣將征高麗，孝泰爲沃沮道總管。時孝泰率令南水戰之士，軍於蛇水之上

75) 『讀史方輿紀要』卷38, 山東9, 外國附考. “蛇水在平壤西境，唐龍朔初，龐孝恭等擊高麗，以嶺南兵壁於蛇水。”

76) 「作欽墓誌」，“龍朔元年，溟江道敬奉天規，承威問罪，君沉戈畫鷁，瞻獨鷺於星樓，水劍浮龍競先 鳴於月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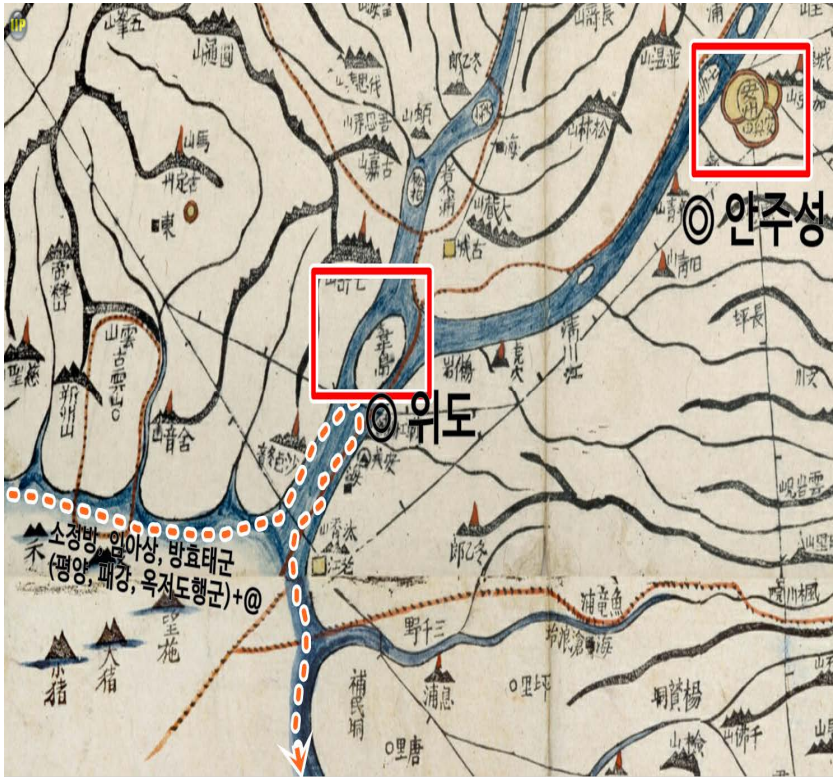
77) 『冊府元龜』卷373 將帥部34 忠4. 龐孝泰，爲左驍衛將軍。高宗遣將征高麗，孝泰爲沃沮道總管。時孝泰率令南水戰之士，軍於蛇水之上。

78) 『舊唐書』卷4 本紀4 高宗上 龍朔 2년 3월, “蘇定方破高麗于葦島，又進攻平壤城，不克而還。” 『舊唐書』 고종 본기는 소정방의 위도 전투 승전과 평양성 공격과 귀환을 모두 3월에 일괄적으로 기재하였다.(장창은, 앞의 논문(2016): 90) 위도 전투는 패강 전투보다 이전이며, 3월은 소정방이 귀환한 시점일 뿐이다(김용만, 앞의 논문(2004): 181 각주 57).

79) 물론 고구려의 유인이나 지연 전술이 아닌 서해 연안항로를 따라 평양을 직공하는 당 수군이 사전에 배후의 위협요소를 확인하는 위력정찰 과정에서 위도에 배치된 고구려 수군을 공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 않았다. 당 수군이 위도를 점거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시 연안을 따라 곧장 남진하여 패강 하구에 진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 위도 전투(김정호, 『大東輿地圖』, 1861.)



이후 고구려 수군은 패강에서(於湏江) 당 수군과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패배하여 상륙을 저지하지 못하고, 마읍산을 빼앗겼다.⁸⁰⁾ 마읍산의 소재지는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60리 떨어져 있고, 대동강 북안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병력과 군수물자를 집적하기

80) 『冊府元龜』卷986 外臣部31 征討5,

수월한 수륙 교통의 결절지가 되는 서학산 일대로 비정된다.⁸¹⁾

고구려군의 마음산 상실은 패강 이서의 통제권을 당 수군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⁸²⁾ 당 수군에게 점거된 마음산은 압록수 방면으로부터 조달될 보급의 기착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평양성으로 진격한 당 수군은 위도, 패강, 마음산 전투에서 연승하면서 압록수 방면으로부터 이어지는 해상 보급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평양성을 포위할 여건을 마련하였다.

당 수군은 마음산을 보급기착지로 확보한 이후 소정방군, 임아상군, 방효태군으로 나뉘어 각자의 진영을 구축한 것으로 여겨진다. 평양성을 포위하려면 서남쪽의 서산, 서북쪽의 봉화산, 동북쪽의 모란봉 혹은 청암리토성을 통제해야 한다.⁸³⁾ 소정방군은 훗날 김유신군과 연결된 것으로 보아 평양성 서남쪽의 서산에 주둔한 것으로 여겨진다. 방효태군의 주둔지인 사수는 D-5에 의하면 평양성 서북에 소재한 강으로 보통강으로 비정된다.⁸⁴⁾ 임아상군의 주둔지는 기록에 전해지지 않으나, 소정방군, 방효태군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평양성을 포위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평양성 동북방의 모란봉 주변으로 여겨진다.

81) 마음산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이상훈의 연구가 참고(이상훈, 앞의 논문(2017): 292-306).

82) 이상훈, 위의 논문(2017): 311-312.

83) 이상훈, 앞의 책(2021): 287-292.

84) 손영중,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원, 2000, 147 ; 김용만, 앞의 논문(2004), 185 각주 67 ; 특히 이상훈은 『讀史方輿紀要』의 ‘蛇水가 평양에 서북쪽에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여 종래의 蛇水=합장강설을 비판하고, 蛇水=보통강설을 보완하였다(이상훈, 앞의 책(2021): 279-282.). 蛇水の 위치 비정에 대한 연구사 동향은 이상훈의 저서 참조.

〈그림 3〉 당 수군의 평양성 포위



* 출처 : Google 지도 활용

당시 서해~대동강 연안로에는 황룡산성 뿐 만이 아니라 우산성, 동진성, 늑명산성, 보산성 등의 평양성 방어체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⁸⁵⁾ 당시 평양성을 포위한 당군의 규모는 최소한 15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산된다.⁸⁶⁾ 또한 고구

85) 이러한 원인은 진대택의 고구려 내정탐색은 물론 연안로의 방어성들이 병력 면에서 열세였던 점이 적극적인 요격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적의 진출을 가로막지 못한 것이다(李成制, 『龍岡 黃龍山城과 黃海~大同江沿岸路- 고구려 후기 王都 방어체제의 一例-』, 『高句麗渤海研究』 41(2011): 179~183.).

86) 662년 김유신이 평양성에 주둔한 당군에게 조달한 26,250석의 군량은 15만 명의 군대가 15일, 5만 명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다(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2012): 102). 이 군량은 소정방군 뿐만 아니라 임아상, 방효태군도 감안한 군량이었을 것이다. 662년 사수 전투에서 전몰한 방효태군의 규모도 수만 명에 달하였다(『冊府元龜』 卷373 將帥部34 忠4.).

려가 주력군을 요동전선에 파견했기 때문에 평양성이 쉽게 포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⁸⁷⁾

고구려는 당군의 공격로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군대를 배치하고, 외교적인 대비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분산되어서 당군을 방어해야 했기 때문에 고전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요동전선은 당군의 주력부대가 약하다고 해도 요해지역을 장악한 당군으로 인해 쉽게 병력을 빼서 평양 전선에 투입하기 어려웠다.⁸⁸⁾ 결국 당 수군은 평양성 포위에 성공하였지만, 당군의 승세는 두 달이 채 가지 못하였다. 아래의 『삼국사기』 기사들을 살펴보자.

E-1. 대왕이 앞서 대감(大監) 문천(文泉)을 보내 소(정방)장군에게 서신을 전하였는데, 이때 돌아와 복명(復命)하고는 드디어 (소)정방의 말을 전하였다. “저는 (황제: 고종의) 명을 받고 1만 리나 되는 넓은 바다를 건너 적(고구려)을 토벌하고자 해안에 배를 댄 지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왕의 군사는 도착하지 않고 군량을 주고받는 길마저 이어지지 않아 그 위태로움이 심합니다. 왕께서는 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⁸⁹⁾

E-2 황제가 邢國公 蘇定方を 요동도행군대총관으로 삼아 6군으로써 만 리 길을 달려가게 하였다. 고구려군을 溟江에서 만나 그것을 격파하였다. 마침내 평양을 포위하였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굳게 지켰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 군사와 말이 죽고 부상을 당한 것이 많았으며 식량을 조달하는 길도 끊겼다.⁹⁰⁾

E-1은 신라가 웅산성을 함락한 9월 27일 이후 소정방의 사자가 문무왕에게 전황을 전하는 기사이다. 신라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

87) 김용만, 앞의 논문(2004): 181 ; 김병곤, 앞의 논문(2013): 53-54 ; 장창은 앞의 논문(2016): 88.

88) 鄭媛朱, 앞의 논문(2013): 255

89) 『三國史記』 卷42, 列傳2 金庾信 中.

90) 『三國史記』 卷44, 列傳4 金仁問.

은 7월 17일에 출병한 신라의 고구려 공격군⁹¹⁾이 9월이 다가도록 백제 부흥군과의 전투로 인해 오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⁹²⁾ 소정방의 사자는 소정방군이 평양 해안에 배를 댈지 한 달이 지난 시점 즉, 9월경부터 보급로가 끊어진 정황도 함께 전하고 있다. E-2에서도 평양성 내 고구려군의 수비로 인해 소정방군의 사상자가 많았고 보급로가 차단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이는 보급로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은 글필하력군이 9월 말경 압록수에서 남생군에게 고전하던 시기와의 맞물린다. 이처럼 남생은 당군으로부터 압록수 일대를 사수하여 당군의 보급이 압록수로부터 평양으로 조달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정방은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고자, 단독으로 문무왕에게 군량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입아상, 방효태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던 당군의 고전 원인은 첫째, 평양성 수비의 견고함과 포위망을 뚫으려는 고구려군의 반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이 압록수 방면에서 남생이 지휘하는 수만 명의 고구려군이 글필하력군을 상대로 9월 말까지 압록수 일대를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평양 방면 당군의 보급을 차단하고 있던 상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91)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원년 7월. 당시 신라의 고구려 공격군 규모는 군 편제상 약 5만 여명에 달하는 대군으로 추산된다(이상훈, “백제부흥군의 웅산성 주둔과 신라군의 대응”, 『역사교육논집』57호(2015): 129).

92) 실제로는 고구려 공격에 나서고 싶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신라는 백제지역이 완전히 진압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이다(이상훈, 위의 논문(2015): 137-138). 당시 신라에게 급한 것은 고구려 공격이 아니라 백제고지를 차지하는 것이었다(김용만, 앞의 논문(2004): 181).

3. 철록·거란의 참전과 일부 당군의 철군

글필하려군은 수만 명의 남생군을 격파하고 철산진까지 추격하여 평양 방면까지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나, 본국으로부터 귀국 명령이 떨어져 철군하였다. 당시 글필하려군은 해상 보급로를 확보하고, 평양에 주둔한 당 수군과도 조기에 합류할 수 있었음에도 철군하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이다. 이를 파악하기에 앞서 요동 방면으로 진격한 아사나총, 소사업의 행적부터 살펴보자.

고종은 10월 5일에 사냥을 나갔다가 10월 11일에 궁궐에 도착한 직후에 철록 공격 조서를 발표한 것⁹³⁾으로 보아 사냥 도중에 철록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보고를 접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철록이 군사를 일으킨 시점은 이르면 9월 말경으로 볼 수 있다. 당은 주력군 대부분이 고구려 전선에 있는 상황에서 철록이 기습적으로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 당의 철록 공격군 편성에 고구려를 공격 중이던 아사나총과 소사업이 포함되었는데,⁹⁴⁾ 고종은 이들을 차출하여 철록 전선에 투입하였다.

이때 소사업이 이끄는 부여도행군 전체가 선악도행군으로 변경이 되어 철록 전선에 차출된 것으로 파악된다.⁹⁵⁾ 아사나총은 행군명의 변경 없이 장잠도행군대총관으로서 철록 전선으로 차출되었다. 이는 당이 철록 전선을 고구려 공격의 연장으로 인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93) 『資治通鑑』卷200 唐紀16 高宗 龍朔元年 10月.

94) 『新唐書』卷3 高宗 龍朔 원년 10월 ; 『資治通鑑』卷200 唐紀16 高宗 龍朔元年 10月.

95) 김용만, 앞의 논문(2004), 187-188.

당시 당의 문서 조달 속도는 평균 하루 평균 100리를 간다고 하며, 주요 간선도로를 낀 주요도시의 경우 최대 하루에 최대 500리를 간다고 한다.⁹⁶⁾ 낙양에서 요동 일대까지는 약 4,100리이므로 아사나충, 소사업군은 10월 말경 고종의 조서를 받고, 철록 방면으로 진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필하력군의 철군도 철록이 당을 공격한 것과 관련이 있다.⁹⁷⁾ 그렇다면 글필하력의 철군 시점은 언제일까? 『구당서』 글필하력전과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는 글필하력군의 압록수 도하 실패부터 철군까지 모두 9월 말에 연이어 소급하여 기술하였으나, 이 모든 전황이 9월 말에 발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남생군과 글필하력군의 대치 기간, 압록수의 결빙, 전투가 벌어진 시간, 추격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종이 10월 11일 이후에 철록 공격군 편성 조서를 발표했으므로 글필하력의 철군 조서도 10월 11일 이후여야 한다. 낙양에서 등주까지의 거리는 2,140리이다.⁹⁸⁾ 그렇다면 글필하력이 조서를 받고 철군한 시점은 대략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글필하력군은 9월 말 압록수 이북 상륙부터 10월 말 혹은 11월 초 철군 조서를 받기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고구려에 주둔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확인된 글필하력군의 군사 활동은 압록수 이북 상륙, 남생군과의 대치, 남생군 격파, 철산진까지 추격으로 주둔한 기간에 비해 군사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왜냐하면 글필하력의 압록수 결빙부터 철산진까지의 진격은 속전속결에 의한 기동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96) 中村裕一, “赦書日行五百里”, 『武庫川女子大學校學部 史學研究室報告』7호(1988)

97) 『舊唐書』卷109, 列傳59 契苾何力.; 『新唐書』卷110, 列傳35 諸夷蕃將 契苾何力.

98) 劉希爲, 『隋唐交通』, 新文豐出版公司, 1992, 69.

이 기간 동안 글필하력군의 평양성 진격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인데,⁹⁹⁾ 철륵이 군사를 일으켰다고 해서 평양성 진격을 포기하고 철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의 입장에서 645년부터 공들인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함락이 철륵을 격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전략적인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¹⁰⁰⁾ 기록에는 전하지 않지만, 글필하력군도 예상치 못한 고구려군의 반격에¹⁰¹⁾ 의해 평양성까지 진격하지 못하고 패퇴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었으나, 고종의 조서를 받고 철군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¹⁰²⁾

고구려 입장에서는 당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철륵을 설득하여 당과 싸우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고구려에게 유리하게 전개된 서북방의 정세변화가 의도된 상황인지 여부는 기록에 전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

99)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어렵지만, 고려-거란 전쟁 당시 거란군의 진군 일정과 병자호란 당시 청 우익군의 진군 일정이 참고 된다. 거란은 11월 16일에 홍화진을 공격하고 11월 24일에 통주를 공격하고, 12월 6일 광주를 함락, 12월 8일에 청수강에 이르고, 12월 9일에 서경에 이르렀다(『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원년 11월 辛卯己亥;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원년 12월 庚戌壬子癸丑). 청 우익군의 진군 속도는 더욱 빨랐다. 12월 10일 압록강을 도하하고, 11일부터 14일에 이르기까지 鐵山-郭山-定州-嘉山등의 경로로 이동하고, 15일에 안주에 주둔하였다. 그리고 18일과 19일에는 각각 肅川과 巡安을 지났고 20일 평양에 도착했다(장정수, 「병자호란시 조선 勤王軍의 남한산성 집결 시도와 활동」, 『韓國史研究』 173(2016): 168~170) 거란군은 의주로부터 불과 21일만에 서경까지 이르렀고, 청 우익군은 압록강 도하 직후 11일만에 평양에 이르렀다. 이들의 진군 속도는 9월 말경 압록수를 도하한 글필하력군이 한 달 여 기간 동안 불과 철산진까지 진군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신속하게 평양까지 이르렀음은 분명하다.

100) 글필하력이 철륵과의 전쟁에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일부 군대의 철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구려 공격에 전력을 다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김용만, 앞의 논문(2004), 195).

101) 648년 고구려는 오골성, 안지성(안시성)의 군사 3만 명으로 압록수 이북의 박작성을 공격하던 설만철군에게 반격을 전개한 바 있다(『舊唐書』 卷69 列傳19 薛萬徹).

102) 김용만, 앞의 논문(2004), 195.

다.¹⁰³⁾ 다만, 정황상 철륵이 당에 저항하도록 연개소문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도 추론해 볼 수 있다.¹⁰⁴⁾

앞서 아사나총군의 행군명을 통해 당이 철륵 전선을 고구려와의 전쟁의 연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철륵의 반란이 고구려와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구려가 철륵에 사신을 보내려면 거란을 통과해야 하는데, 고구려의 거란 포섭과 관련하여 아사나총군의 행보가 주목된다.

A-1에 의하면 아사나총은 철륵 방면으로 철군을 하는 도중에 거란의 공격을 받았다. A-2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거란이 고구려와 결탁하였다고 한다. 거란이 고구려와 결탁하여 철륵 방면으로 철군하는 아사나총군을 공격했다는 것은 고구려의 거란 포섭이 성공하였음을 알려준다.

거란이 660년 이후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당의 대외공격에 동원된 흔적이 없다는 사실¹⁰⁵⁾도 거란이 고구려와 결탁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¹⁰⁶⁾ 비록 거란은 660년에 당의 지나친 병력 징발로 인해 반기를 들었다가 진압되었으나,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고구려와 결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⁷⁾ 이처럼 요동 방면을 공격하던 아사나총군과 소사업군과 압록수 방면을 공격하던 글필하력군이 철군하자, 요동 방면에는 정명진군만 남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F를 살펴보자.

F. 龍朔 원년(661), 遼東의 죄를 묻는데, 鑿方道總管 程名振이 (황제에게) 公을 行軍兵曹를 담당하게 할 것을 아뢰었다. (楊師善은) 軍謀와 戰策으로 많은

103) 徐榮教, 앞의 논문(2003): 224-225.

104) 김용만, 앞의 논문(2004): 193 ; 이재성, 『고구려와 유목민족의 관계사 연구』, 소나무, 2018, 92-93.

105) 김지영, 앞의 논문(2011): 85-96.

106) 徐榮教, 앞의 논문(2014): 330-333.

107) 李在成, 「麗唐戰爭과 契丹·奚」, 『中國古中世史研究』 26(2011): 203-204.

곳에서 승리하였다. 大鵬이 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하늘을 드리웠던 날개가 떨어지고, 巨魚가 자유롭게, 물의 흐름을 쫓았는데, 햇볕에 쬐어 비늘이 말랐다. 어찌하여 저 푸른 하늘은 玉樹를 꺾었는가. 춘추 58세에 그해 10월 26일에 軍에서 죽었다.¹⁰⁸⁾

상기한 F를 살펴보면 누방도행군병모 양사선의 사망에 대해 고구려군의 군사 활동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대봉(大鵬)의 추락과 거어(巨魚)의 비늘이 햇볕에 쬐인 불길한 정황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하였다. 이는 양사선의 사망이 예사롭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양사선의 사망 시기인 661년 10월 26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란과 철록의 참전으로 인해 일부 당군이 철군한 시기와 부합한다.

일부 당군의 철군으로 인해 군사적인 부담을 덜게 된 신성의 고구려군이 정명진군에게 반격을 가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F에서 기술한 양사선 사망 기록의 실상은 고구려군의 반격으로 누방도행군이 위기에 처하고, 양사선이 전사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명진군은 아사나충군과 소사업군이 고구려군의 반격으로부터 무사히 철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08) 「楊師善墓誌」, “龍朔元年, 問罪遼東, 鑿方道總管程名振奏公充行軍兵曹. 軍謀戰策, 多所決勝. 大鵬始竄, 垂天墜羽, 巨魚方縱, 窮波暴鱗. 如何彼蒼. 摧殘玉樹. 春秋五十有八, 以其年十月十六日, 卒於軍所.”

〈그림 4〉 거란·철릭의 참전과 일부 당군의 철군



* 출처 : Google 지도 활용

소정방군은 이미 글필하력군의 철군 이전인 9월경부터 보급 문제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에 사자를 보내어 군량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당시 소정방은 자신의 요청만으로는 신라로부터 신속하게 군량을 조달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10월 말경 소정방군 예하의 함자도총관 유덕민은 신라에게 평양 방향의 당군에게 보급을 하라는 고종의 칙지(勅旨)를 전하였다.¹⁰⁹⁾

9월경 소정방은 신라에 사자를 보내는 동시에 고종에게도 사자를 보내어 신라에게 보급 임무를 부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

109)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원년 10월.

다.¹¹⁰⁾ 9월경 소정방의 사자가 고종에게 도착했을 무렵에는 보급기지 확보 임무를 맡았던 글필하력군의 철군이 결정된 시점이었을 것이다. 고종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라에게 평양 방면의 당군에게 보급하라는 칙지를 전달한 것으로 여겨진다.¹¹¹⁾ 보급이 끊긴 채 평양성을 포위 중이던 당군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12월경에도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었다.

평양성의 고구려군은 운차(雲車)·충봉(衝棚)으로 공성전을 전개하던 당군에게 반격을 가하여 진지 두개를 빼앗고 남은 진지 두개도 빼앗고자 하였으나, 힘이 모자라 더 이상의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지 못하고 있었다.¹¹²⁾ 이때 고구려군으로부터 진지를 빼앗긴 당군이 소정방군, 임아상군, 방효태군 중 어느 행군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¹¹³⁾ 다만, 고구려가 왜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군의 반격이 평양성 포위를 뚫는 데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당군은 신라의 보급¹¹⁴⁾이 도착할 때까지 한파라는 악재 속에서 고구려군의 반격을 방어해야 하는 최

110) 661년 7월 신라의 출병에 대해 당군에 대한 보급부대로 파악한 견해가 있지만(徐榮教, 앞의 논문(2014a): 16), 이 당시 고종이 문무왕에게 보급 임무를 부여했다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고종이 신라에게 공식적으로 보급을 요청한 것은 661년 10월이며, 당은 글필하력을 통한 자체적인 보급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라에게 보급 임무를 맡길 필요가 없었다. 신라의 7월 출병은 군사적인 지원이 목적이었으나, 10월 칙지로 인해 보급 임무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장창은, 위의 논문(2016): 103).

111) 소정방은 '勅旨'라는 고종의 권위를 통해 신라에게 보급을 독촉한 것으로 보인다.

112)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7년 12월.

113) 당시 당군은 고구려군의 공격에 많은 병력을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마저 겹치면서 사기도 저하되었다(鄭媛朱, 앞의 논문(2013): 256).

114) 신라본기에는 662년 1월에 문무왕이 김유신에게 군량을 갖고 평양으로 나아가게 하였으나(『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2년), 김유신전에는 661년 12월 10일에 김유신이 고구려 경내에 진입하였다고 한다(『三國史記』 卷42, 列傳2 金庾信 中). 이를 절충하자면 661년 12월 10일은 문무왕이 최초 명령을 내린 시점이고, 662년 1월은 출병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5. 맺음말

661년 당은 35만 명의 대군으로 고구려를 요동·압록수·평양 세 방면으로 공격하였다. 당군의 전략은 1. 아사나총·정명진·소사업군이 육로를 통해 요동 방면으로 진군, 2. 소정방·임아상·방효태군이 해로를 통해 평양 방면으로 진군, 3. 글필하력이 해로를 통해 요동과 평양의 중간지대인 압록수 이북에 상륙하여 보급기지를 확보, 4. 요동과 평양의 고구려군이 서로 연계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고구려의 방어 전략은 1. 요동방어망과 평양성에서 수성전을 전개, 2. 압록수에서 당군의 보급로를 차단, 3. 거란 등의 서북방에 소재한 유목세력들과 연계하여 당을 압박, 4. 당군이 군량 부족과 추위로 인해 지쳤을 때를 기다리다가 공세로 전환, 5. 퇴각하는 당군을 추격하여 섬멸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요동 방면으로는 정명진군 등이 신성 일대, 설인귀군 등이 요동성 일대, 소사업군과 아사나총군 등이 부여성 일대로 진군하였다. 그러나 요동 방면의 전투는 관련 사료가 전무한 탓에 정명진군 외에는 그 양상을 복원하기 어렵다. 「고을덕묘지」와 「양사선묘지」에 의하면 정명진군은 신성 일대에서 초전에 승리하였으나, 신성의 고구려군은 결과적으로 신성을 사수하였다.

압록수 방면으로는 글필하력군이 진군하여 압록수 이북에 보급기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압록수 이남에 미리 배치된 수만 명의 남생군에게 저지되었다. 이때 글필하력의 본진이 압록수 이북에 도착했을 시점에 압록수가 결빙되자, 글필하력군은 압록수를 도하하여 남생군을 격파하고 철산진까지 추격하였다.

평양 방면으로는 소정방군, 임아상군, 방효태군이 중심이 된 당군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평양 방면의 당군은 보급을 맡았던 글필하력군이 남생군에게 저지되고 있는 사이 보급이 끊겨서 고구려군의 반격에 고전하게 되었다. 소정방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자, 신라에 보급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초원의 유목세력인 철륵과 고구려와 연계된 거란이 참전하면서 당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요동 방면을 공격하던 아사나총소사업군과 압록수 방면을 공격하던 글필하력군이 철륵 거란 전선으로 철군하면서 당군의 전황은 더욱 불리해졌다. 요동 방면의 고구려군은 공세로 전환하여 요동 전선에 잔류한 정명진군을 공격하였다. 평양 방면에서도 고구려군의 반격은 더욱 거세져 당의 진지 2개를 빼앗고 왜에 사신을 보내는 등 당군의 포위망을 뚫는데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당군은 한파 속에서 고구려군의 반격을 방어하며, 신라의 보급을 기다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輿地圖』, 『集神州三寶感通錄』, 『舊唐書』, 『新唐書』, 『冊府元龜』, 『資治通鑑』, 『李衛公問對』, 『日本書紀』, 『藤氏家傳』, 『讀史方輿紀要』, 『奉天通志』, 「泉男生墓誌」, 「契苾嵩墓誌」, 「高乙德墓誌」, 「斛斯正則墓誌」, 「南郭生墓誌」, 「婁敬墓誌」, 「阿史那忠碑」, 「阿史那忠墓誌」, 「楊師善墓誌」, 「仵欽墓誌」, 「張素墓誌」, 『東亞日報』

2. 연구서

-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http://uci.or.kr/G901:A-0006089371>
-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http://www.uci.or.kr/G701:B-00060576971>
- _____,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http://uci.or.kr/G701:C-00073917052>
- 劉希爲, 『隋唐交通』, 新文豐出版公司, 1992.
- 손영중, 『고구려의 제문제』, 사회과학원, 2000.
<http://uci.or.kr/G901:A-0006128535>
- 이상훈, 『신라의 통일전쟁』, 민속원, 2021.
- 이재성, 『고구려와 유목민족의 관계사 연구』, 소나무, 2018.
- 田中俊明·東潮,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1994,
<http://uci.or.kr/G901:A-0008401389>

池内宏,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滿鮮史研究』
上世第二冊, 吉川弘文館, 1960.

3. 논문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漢山州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2021)

<http://doi.org/10.22827/seoul.2021..109.002>

김병곤, 「661~662년 당 수군의 평양 직공책의 전략과 한계」, 『韓國史學報』 50(2013)

<http://uci.or.kr/G704-000690.2013..50.002>

김용만, 「2次 高句麗-唐 戰爭(661-662)의 進行 過程과 意義」, 『민족문화』 27(2004)

<http://uci.or.kr/I410-ECN-0101-2013-829-001179586>

_____, 「고구려 후기 고구려, 수 · 당 북방제국의 대립관계」, 『高句麗研究』 29(2007)

<http://uci.or.kr/G704-001250.2007.29..008>

김지영, 「7세기 고구려와 북방 제민족의 관계 변화」, 『만주연구』 8(2008)

<http://uci.or.kr/I410-ECN-0102-2010-951-001029926>

_____, 「7세기 중반 거란의 동향 변화와 고구려-660년 거란의 이반을 기점으로」, 『만주연구』 12(2011)

<https://doi.org/10.22888/mcsa..12.201112.75>

中村裕一, 「赦書日行五百里」, 『武庫川女子大學校學部 史學研究室報告』 7(1988)

- 閔德植, 「唐柴將軍精舍草堂碑에 대한 檢討」, 『百濟文化』 31(2002)
- 徐家國·孫力, 「遼寧撫順高爾山城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1987-2(1987)
- 徐榮教, 「고구려의 대당전쟁(大唐戰爭)과 내륙아시아 제민족-安市城 전투와 薛延陀」, 『軍史』 49(2003)
<http://uci.or.kr/G704-001528.2003..49.005>
- _____, 「연개소문의 對鮮연타 공작과 당태종의 안시성 撤軍 - 『資治通鑑』 권198, 貞觀 19년 8·12월조 『考異』의 「實錄」자료와 관련하여」, 『동북아역사논총』 44(2014)
<http://uci.or.kr/G704-002002.2014..44.004>
- _____, 「倭의 百濟 援助와 蘇定方の 平壤城 撤軍」, 『大丘史學』 117(2014)
<http://uci.or.kr/I410-ECN-0102-2015-900-002245718>
- _____, 「唐高宗 百濟撤軍 勅書의 背景」, 『東國史學』 57(2015)
- _____, 「唐의 고구려 內戰介入과 新城·大行城 점령」, 『中國史研究』 131(2021)
- 徐日範·尹根一, 「北韓 內의 高句麗 城 分布와 研究現況」, 『高句麗研究』 8(1999)
- 신범규, 「8세기 전반 발해의 해양 교통로와 제해권 범위」, 『한국고대사탐구』 38(2021)
- 安周燮, 『高麗-契丹 戰爭史 研究』, 明知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1)
<http://uci.or.kr/G701:B-00092111686>
- 양시은, 「평양도읍기 고구려의 성곽방어체제」, 『고고학』 12-3(2013)

- 우석훈, 「遼河 유역의 高句麗 千里長城」, 『軍史』 92(2014)
<https://doi.org/10.29212/mh.2014..92.103>
- 윤성환, 「6세기 말~7세기 고구려 지배세력의 대외인식과 대외정책」, 『民族文化』 37(2011)
<https://doi.org/10.15752/itkc.37.37.201106.149>
- 윤용구,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 遠征 -裴矩의 ‘郡縣回復論’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5(2005)
<http://uci.or.kr//G901:A-0002068436>
- 이문기, 「7세기 高句麗의 軍事編制와 運用」, 『고구려발해연구』 27(2007)
<http://uci.or.kr//G704-001250.2007.27..004>
- _____, 「高句麗 滅亡期 政治運營의 變化와 滅亡의 內因」, 『한국고대사연구』 50(2008)
<http://uci.or.kr//G704-000848.2008..50.008>
- 李玟洙, 「660~661년 당의 고구려 공격군 편성과 水軍 운용 전략」, 『한국고대사탐구』 38(2021)
- 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2012)
<https://doi.org/10.23011/jnds.2012.55.3.005>
- _____, 「661년 북한산성 전투와 김유신의 대응」, 『국학연구』 31(2014)
<https://doi.org/10.36093/ks.2016..31.007>
- _____, 「백제부흥군의 웅산성 주둔과 신라군의 대응」, 『역사교육논집』 57(2015)
<https://doi.org/10.17999/SOHE.2015.57.04>
- _____, 「삼국통일기 고구려 마음산의 위치와 군사적 위상」, 『군사』 104(2017)
<https://doi.org/10.29212/mh.2017..104.291>

- 이상훈, 「고구려 영류산의 위치와 나당연합군의 진군로」, 『한국고대사탐구』 34(2020)
<https://doi.org/10.35160/sjekh.2020.04.34.181>
- 李成制, 「龍岡 黃龍山城과 黃海~大同江沿岸路- 고구려 후기 王都 방어체제의 一例-」, 『高句麗渤海研究』 41(2011)
<http://uci.or.kr//G704-001250.2011.41..004>
- _____, 「高句麗와 투르크계 北方勢力의 관계-이해의 방향과 연구방법에 대한 모색-」, 『高句麗渤海研究』 52(2015)
<http://uci.or.kr//G704-001250.2015.52..002>
- _____,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새로 발견된 <高乙德墓誌>에 대한 譯註와 분석-」, 『중국고중세사 연구』 38(2015)
<https://doi.org/10.15840/amch.2015..38.005>
- _____, 「褥薩의 大城·王都 5部 駐在와 그 職任」, 『한국고대사 연구』 92(2018)
<https://doi.org/10.37331/JKAH.2018.12.92.165>
- _____, 「650년대 전반기 투르크계 북방세력의 동향과 고구려 - 고구려 사절이 아프리카시압 궁정벽화에 그려진 배경에 대한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65(2019)
<https://doi.org/10.23037/dyn.2019..65.006>
- 이영재, 「660년대 고구려의 대남방 전략」, 『大丘史學』 130(2018)
<https://doi.org/10.17751/DHR.130.27>
- 이정빈, 「천남생 묘지」에 보이는 將軍과 7세기 고구려의 군사 운용」, 『韓國古代史探究』 22(2016)
<https://doi.org/10.35160/sjekh.2016.04.22.77>

- 李在成, 「麗唐戰爭과 契丹·奚」, 『中國古中世史研究』 26(2011)
<http://uci.or.kr/I410-ECN-0101-2013-912-000751519>
- 장정수, 「병자호란시 조선 勤王軍의 남한산성 집결 시도와 활동」, 『韓國史研究』 173(2016)
<http://uci.or.kr/G704-000361.2016..173.002>
- 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新羅史學報』 38(2016)
<http://uci.or.kr/G704-002006.2016..38.006>
- 鄭媛朱, 『高句麗滅亡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博士學位論文 (2013)
- _____, 「男生の 失脚 배경과 그의 行步」, 『한국고대사연구』 75(2014)
<http://uci.or.kr/G704-000848.2014..75.008>
- 최진열, 「唐代 高句麗 표기 기피현상 - 隋唐 墓誌銘의 國名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2012)
<http://uci.or.kr/G704-002002.2012..38.007>
- 許仁旭, 『高麗·契丹의 압록강 지역 영토분쟁 연구』, 高麗大學校博士學位論文(2012)
<http://uci.or.kr/G901:A-0005714854>
- 허인욱, 「유목사회의 특성과 고려-거란 전쟁」, 『한국중세사연구』 60(2020)
<https://doi.org/10.35863/JKMH.60.2>

(Abstract)

The War Situation of the Goguryeo-Táng War in 661

Lee, Min-su

This paper analyzes the battle situation of the Goguryeo-Táng War in 661. In 661, 350,000 Táng troops attacked Liaodong, Yalu River, and Pyongyang. Goguryeo's defense strategies were to block the supply routes of the Yalu River while guarding the castle with a Liaodong defense net, press the party in connection with nomadic forces in the northwest, wait for the party's lack of food, and turning into an offensive phase.

On the Liaodong front, Chéngmíngzhèn's army(Nubang attacking army) fought against Go Eul-deok's army outside and captured Go Eul-deok, but Goguryeo's army succeeded in protecting the divinity and stopping the party's advance. On the Yalu River front, Qì bì hé lì's army(Liáodōng attacking army) tried to secure a supply base north of the Yalu River, but was previously blocked by tens of thousands of Namsaeng's army troops deployed south of the Yalu River. However, when the Yalu River suddenly froze, Qì bì hé lì's army crossed the Yalu River, defeated Namsaeng's army, and chased Cheolsan. On the Pyongyang front, party naval forces led by Sūdingfāng(Pyongyang attacking army), Rèn yǎ xiāng(Paegang attacking army), and Páng xiàotài(Okjeo attacking army) defeated Goguryeo naval forces at the mouth of the Pae River and succeeded in siege Pyongyang. However, while Sūdingfāng's army in charge of Pyongyang supplies were blocked by Namsaeng's army, the supplies were cut off and failed to maintain the momentum and struggled with Goguryeo's resistance. In addition, the Silla army, which was advancing to Goguryeo, was unable to advance to Goguryeo due to the Baekje Revival Army. Sūdingfāng asked Silla to supply it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In this situation, Qìdān, which was linked to the nomadic forces of the meadow, Tōles and Goguryeo, rebelled against the party. As a result, the Ā shǐ nà zhōng and Xiāosiyè forces that attacked the fluctuation and the Qì bì hé lì forces that attacked the Yalu River retreated toward Tōles, making the party more disadvantageous. When the Táng army began to withdraw to the Tōles front, the Liaodong Goguryeo army switched to an offensive and launched a counterattack, and in the process, Chéngmíngzhèn, who remained in Liaodong, lost. In Pyongyang, Goguryeo's counterattack intensified, and it achieved certain results in stealing two military bases of the party and sending envoys to Japan to break through the party's siege. On the other hand, the party faced the worst situation of having to wait for the supply of Silla while defending Goguryeo's counterattack in cold weather.



Keywords : Goguryeo, Táng, Tōles, Qìdān, Silla, Liaodong, Yalu River, Pyongyang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249-285
<https://doi.org/10.29212/mh.2022..122.24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연·진과 고조선의 전쟁

윤병모 |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목 차

1. 머리말
2. 제·연·산용과 고조선의 관계
3. 연과 제의 상호공격
4. 연의 동호와 고조선 공격
5. 진과 고조선의 전쟁
6. 맺음말

초 록 연과 제 그리고 산용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이 산용의 공격을 받자 제가 연을 통해 산용을 공격하거나 산용이 연을 통해 제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연은 산용과 제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였다. 연을 괴롭힌 산용은 춘추시대 중 말기에 사라지고 대신 동호가 등장한다. 연과 제는 상호 견제 또는 직접 전쟁을 통해 상대를 공격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한다. 『전국책』에 의하면 당시 연의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었다. 이중에 호타와 역수의 기재 순서는 趙가 燕을 공격하는 방향에 따라 기록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으로 종족명과 지명인 조선과 요동도 그 순서대로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의 동호와 고조선에 대한 침략은 연이 제를 정벌한 이후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과 가장 근접해 있던 국가는 조선으로 인정된다. 『사기』 [조선열전에는 연의 전성기 때 위만이 진번을 복속시킨 사실이 나온다. 『사기』 조선열전에서 나오는 진번은 연의 장성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 『사기』에는 한나라 군이 상곡 12현, 우북평 16현, 요서와 요동 29현, 어양 22현을 평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사마천이 당대의 사실을 마치 옛일처럼 소급해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요동의 위치가 난하 유역에서 대릉하 지역으로 옮겨 간 시점은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이후라고 생각된다. 요동외요는 요동의 밖에 있는 요를 지칭하며 진 장성은 요하 북쪽 곧 지금의 서요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은 진한교체기의 혼란한 시기를 틈타 연의 동쪽을 빼앗는다. 곧 조선을 기준으로 보면 요동외요 안쪽인 곧 서쪽을 조선이 점령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조선, 연, 산융, 제, 진, 진번, 동호, 요동, 요서, 양평

(원고투고일 : 2022. 1. 10,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머리말

위만조선과 한의 전쟁에 대한 연구는 『사기』 조선열전을 기본자료로 할 수 있지만 燕秦과 고조선의 전쟁은 그렇지 못하다. 연·진과 고조선의 전쟁에 대한 연구에서 사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각종 선진문헌이나 기타 문헌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 본다면 어느 정도 윤곽은 알아 볼 수 있다. 연·진과 고조선의 전쟁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자.

먼저 연이 연의 동북방에 있던 예맥·조선·진번이 무역관계를 통해 이득을 얻었으며 굳이 적대관계를 이루지 않았다는 주장¹⁾과 연은 동호와 조선의 정치 경제 부문에서 공생관계를 유지하였다며 이들에 대한 공격은 연이 제를 공격한 이후에나 이루어졌다는 견해²⁾가 있다. 연이 동호와 조선을 정벌한 다음 5군을 두고 군현제를 실시하였다는 견해³⁾, 연이 동호를 격파하고 조선을 침략하여 천산산맥 일대까지 영역을 확보하였다는 견해⁴⁾와 진개의 침입으로 요서의 조선후국은 멸망하여 연에 포함되었다는 연구⁵⁾가 있다. 진개가 침공한 지역은 조선의 서방인 동요하 지역이라는 주장⁶⁾과 연의 전성기에 연이 조선을 친 첫 상대는

1) 배진영, 「春秋時期 燕國 對外關係의 變化」, 『中國史研究』17, 2002, 18쪽.

2) 배진영, 「燕昭王의 政策과 ‘巨燕’의 成立」, 『中國史研究』25, 2003, 23~25쪽.

3) 金南中, 「燕秦의 遼東統治의 限界와 古朝鮮의 遼東 回復」, 『白山學報』62, 2002, 54쪽.

4) 오현수, 「사기 조선열전 기재 ‘秦故空地上下郡’에 대한 검토」, 『韓國史學報』70, 2018, 68쪽.

5) 오현수, 「魏略 기재 朝鮮侯와 ‘取地二千餘里’의 검토」, 『韓國史學報』61, 2015, 48쪽.

6) 박대재, 「고조선 이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총』55, 2017, 55쪽.

요서지역에 위치한 진번이라는 견해⁷⁾도 있다. 진번의 실체와 요동의 범위 문제에 주목하며 고조선이 요서지역에 연맹을 형성하여 연과 대립한 것으로 보아 연소왕대 연과 고조선은 만변한을 경계로 삼았다는 연구⁸⁾도 있다. 고조선과 진의 대외관계를 살펴 보며 전쟁의 원인 및 경계 변화에 주목해 진이 고조선을 침공한 이유는 연의 전성기 때 영토였던 요동을 수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⁹⁾도 있다. 연이 동호와 고조선을 공격하기 이전에 제를 공격했으며 연의 고조선 공격을 기원전 282년으로 보는 견해¹⁰⁾도 있지만 연이 동호를 공격한 시점이 연소왕 이전인 기원전 323년 이전에 일어난 일로 보는 주장¹¹⁾도 있다. 그렇지만 연 진개의 북벌은 제에 대한 공격을 마무리한 기원전 282~ 280년 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현재 다수를 이룬다.¹²⁾ 한편 통사적 입장에서 연과 고조선의 전쟁을 다룬 경우¹³⁾도 있다. 북한학계에서는 전쟁사와 관계사 입장에서 연구된 것¹⁴⁾과 중국학계는 묘위가 중심이 되어 위만조선 이전 시기를 다룬 연구¹⁵⁾가

7) 윤병모, 「건강 동대장자유적과 고조선」, 『유라시아문화』4, 유라시아문화학회, 2021, 73쪽.

8) 조원진, 「고조선과 燕나라의 전쟁과 요동」, 『先史와 古代』62, 2020, 35쪽.

9) 조원진, 「고조선과 秦나라의 대외관계 연구」, 『사학연구』129, 2018, 198쪽.

10) 박준형,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 『사학연구』108, 2012, 18쪽.

11) 이광명, 「전국 시기 연의 요동 진출 연구」, 부경대 박사학위논문, 2019, 102쪽.

12) 陳平, 『燕史紀事編年會按』下冊, 北京大學出版社, 1995, 213쪽; 배진영, 「燕國의 五郡 설치와 그 의미」, 『中國史研究』36, 2005, 36쪽; 박대재,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2006, 66쪽; 배진영, 「고대 北京과 燕文化」, 한국학술정보, 2009, 325쪽; 宋眞, 「戰國秦漢時期 遼東郡」과 그 경계」, 『한국고대사연구』76, 2014, 62쪽.

13) 서인한, 「한국고대 군사전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33~45쪽.

14) 전준현, 「조선민민의 반침략투쟁사(고조선-발해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9~18쪽; 전대준, 최인철,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156~161쪽.

15) 苗威, 『古朝鮮研究』, 香港亞洲出版社, 2006, 129~143쪽; 苗威, 『箕子朝鮮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9, 28~31쪽.

있다.

이처럼 연과 고조선 또는 진과 고조선의 전쟁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 대부분 동호와의 관계 속에서 연과 고조선의 전쟁이나 교섭을 다루거나 연과 제의 교역 관계 속에서 연과 고조선의 전쟁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진의 경우도 대외 관계 속에 경계 변화나 전쟁을 다룬 경우에 그치고 있다. 결국 연과 진의 고조선에 대한 전쟁 연구는 교역이나 관계사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료부족으로 인해 나오는 결과인데 본고에서는 기왕의 연과 고조선의 관계 또 진과 고조선의 관계 연구를 참고하고 이를 한데 묶어 살펴보려는 데 있다. 곧 연과 진의 고조선에 대한 관계나 전쟁을 하나로 묶는 통괄적인 검토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도 역시 사료가 부족하다보니 상호관계나 인접국가에 대한 관계 또는 교역 등을 검토하며 전쟁사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연과 진의 고조선에 대한 전쟁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연·산융과 고조선의 관계

연과 고조선의 전쟁을 알아보기 이전에 연을 중심으로 연과 고조선의 관계 또 제와 고조선의 관계, 연과 제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조선을 중심축으로 놓고 연과 제 그리고 산융, 동호 등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고조선을 중심으로 하여야 할 사료가 없다. 때문에 연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들의 관계와 전쟁을 알아보아야 한다. 우선 조선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관자』를 중심으로 고조선과 제의 관계를 살펴보자.

A-①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내가 듣건데 해내에 옥폐가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듣기를 청한다.’ 관자가 대답하였다. ‘음산의 礪珉이 한 가지입니다. 燕 자산의 백금이 한 가지입니다. 發朝鮮의 文皮가 한 가지입니다.’¹⁶⁾

A-② 제나라는 渠展의 소금이 있고 연나라에는 요동의 구어 만든 소금이 있습니다.¹⁷⁾

A-③ ‘發朝鮮이 조공하지 않는 것은, 文皮와 絺服을 돈으로 생각하여 청하기 때문입니다. … 한 장의 문피에 적당한 가격을 쳐준다면 8천리 떨어진 發朝鮮이 조공해 올 것입니다.’¹⁸⁾

조선이라는 명칭이 중국문헌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은 『관자』라는 책이다. 『관자』는 기원전 7세기 춘추시대 중기의 사실이 전국시대에 와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진다. A-①과 A-③ 기사에서 나오는 발에 대해 이를 貂로 보고 발조선을 맥조선으로 보기도 한다.¹⁹⁾ 또 발이 맥족과 관련이 있다며 발조선은 예맥의 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²⁰⁾ 하지만 『관자』에 발조선이 나오고 『사기』에는 發息慎²¹⁾이 나오며 『일주서』 왕회해²²⁾에도 發人이 나와 발은 어느 특정한 종족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여기서 나오는 發에 대해서는 맥이나 예맥으로

16) 『管子』卷23, 揆度, “桓公問管子曰 吾聞海內玉幣有七筴 可得而聞乎 管子對曰 陰山之礪磬 一筴也 燕之紫山白金 一筴也 發朝鮮之文皮 一筴也”

17) 『管子』卷23 地數, “齊有渠展之鹽 燕有遼東之煮”

18) 『管子』卷24 輕重甲, “發朝鮮不朝 請文皮絺服而以爲幣乎 … 一豹之皮 容金而金也 然後八千里之發朝鮮可得而朝也”

19) 박대재, 「고조선과 제의 해상교류와 요동」, 『한국사학보』 2014, 16쪽.

20) 오현수, 「『管子』에 등장하는 ‘穢貉’과 ‘發朝鮮’의 역사적 실체」, 『사림』 43, 2012, 132쪽.

21) 『史記』卷1 五帝本紀, “北山戎 發息慎”

22) 『逸周書』卷7 王會解, “發人 麋麋者”

볼 것이 아니고 發을 勃 즉 渤海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發朝鮮은 발해 연안에 위치한 발해의 조선으로 볼 수 있다. 또 A-①과 A-③에서 발조선에 文皮가 난다며 이를 齊에서 수입한 사실도 찾아볼 수 있다. A-②에는 제에는 거전의 소금이 있고 연에는 요동의 구어 만든 소금이 있다. 원문에 ‘燕之’가 아니고 ‘燕有’인 이상 요동의 구어 만든 소금은 연이 요동에 있는 재지 세력에서 수입하여 연이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발해를 두고 남쪽의 제와 서쪽의 연 그리고 북쪽의 조선이 교역상 또는 상호 연결과 대립을 이루는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과 산용의 관계를 살펴보자.

춘추시대 연의 북방에는 산용과 동호가 있었다. 『사기』 흉노열전에는 동호가 먼저 나오고 산용이 나중에 출현하나 이중 산용은 춘추시기에 나타나고 동호는 전국시대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 진다. 춘추시기에 산용은 연에 자주 침범하여 연을 괴롭혔다. 이 당시 제는 제환공이 있어 패업을 이루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때 약소국인 연은 이웃나라인 제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산용이 연에 침입한 것은 기원전 664년이고 제환공이 산용을 공격한 것은 기원전 663년의 일이다.²³⁾ 다음의 사료를 보자.

A-④ 환공 23년에 산용이 燕을 벌하자 연이 齊에게 위급함을 알렸다. 제환공이 연을 구해 마침내 산용을 정벌하고 고죽에 이르고 나서야 돌아왔다.²⁴⁾

23) 배진영, 앞의 논문, 2002, 3쪽.

24)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桓公二十三年 山戎伐燕 燕告急于齊 齊桓公救燕 遂伐山戎 至于孤竹而還”

- A-⑤마침내 산용을 북벌하여 榑支를 공격하고 고죽을 친 후 남쪽으로 돌아왔다. 해빈의 제후가 감히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²⁵⁾
- A-⑥장공 30년 겨울에 魯濟에서 만나 산용 칠 것을 모의하였다. 이는 燕에게 病이 되기 때문이다.²⁶⁾
- A-⑦산용이 燕을 넘어서 齊를 정벌하였다. … 산용이 연을 정벌하자 제환공이 산용을 정벌하였고 산용은 도주하였다.²⁷⁾
- A-⑧대부가 말하기를 제환공은 燕을 넘어서 산용을 정벌하고, 고죽을 치고 榑支를 공격하였다.²⁸⁾

이상의 기사는 산용의 침입을 연이 자체적으로 막지 못하고 이웃나라인 제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나타낸다. 제는 산용 뿐 만 아니라 영지와 고죽을 함께 친 것으로 나온다. 산용은 연뿐만 아니라 제에도 침공하는데 이럴 경우 연을 통해 제에 갔으며 또한 제가 산용을 칠 때에도 연을 통해 정벌한다. 이처럼 연은 산용과 제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었다.²⁹⁾ A-⑥의 기사에서 북방 유목민족인 산용은 연에게는 병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연을 괴롭힌 산용은 춘추시대 중 말기에 사라지고³⁰⁾ 대신 동호가 등장하게 된다.

- A-⑨대개 燕은 勃海와 碣石 사이에 위치한 큰 도회지이다. 남쪽으로는 齊와 趙에 통하고 동북으로는 胡와 접해 있다. 上谷에서 요동까지는 땅은 멀고 인민이

25) 『國語』 齊語, “遂北伐山戎, 剗令支, 斬孤竹而南歸, 海濱諸侯莫敢不來服”

26) 『左傳』卷3 莊公三十年 “莊公三十年 冬 遇于魯濟 謀山戎也, 以其病燕故也”

27) 『史記』卷110 匈奴列傳, “山戎越燕而伐齊 … 山戎伐燕 齊桓公北伐山戎 山戎走”

28) 『鹽鐵論』 伐攻, “大夫曰 齊桓公越燕伐山戎 破孤竹 殘令支”

29) 『戰國策』卷29 燕策1, “燕王曰 寡人國小 西迫強秦 南近齊 趙 齊 趙 強國也”

30) 배진영, 앞의 책, 2009, 133쪽.

적었으며 자주 침입을 당하였다. 그들은 趙 및 代와 유사하고 백성들은 독수리처럼 사납고 사려가 얕았다. 이곳에서는 물고기와 소금, 대추, 밤 등이 많이 난다. 북쪽은 오환 부여와 접해 있고, 동쪽은 穢貉朝鮮 眞番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차지하였다.³¹⁾

연은 주변민족에게 침략당하기 좋은 위치에 있기도 했지만 반면에 이들과 무역하기도 좋은 위치에 있었다. 북방에 오환과 부여가 있고 동쪽에는 예맥조선·진번이 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연은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상곡 이동에 예맥조선이 접하였다는 것은 동호의 시기에도 나타난다.³²⁾ A-⑨의 상곡에서 요동까지는 땅은 넓으나 인구가 적었으며 대신에 물고기와 소금, 대추, 밤 등이 많이 산출되는 점으로 보아 연은 이곳에 거주하는 동북방 민족들과 교역을 통해 이익을 독차지하였다. 이는 B-②의 『사기』에서 기원전 284년인 연소왕 28년에 연국의 생활이 부유해졌다는 내용인 ‘燕國殷富’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소왕의 개혁정책이 성공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³³⁾

한편 남쪽의 제는 A-①과 A-③에서 보듯 산동반도와 요동반도를 통해 조선의 문피를 교역한 사실이 드러난다. 제가 동북방의 민족들과 거래를 하려면 연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연의 중개무역을 통해 입수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연과 제는 상호 견제 또는 직접 전쟁을 통해 상대를 공격하는 단

31) 『史記』卷129 貨殖列傳, “夫燕亦勃碣之間 一都會也 南通齊趙 東北邊胡 上谷至遼東地踔遠 人民希數被寇 大與趙代俗相類 而民雕悍少慮 有魚鹽棗栗之饒 北鄰烏桓夫餘 東綰穢貉朝鮮眞番之利”

32) 『史記』卷110 匈奴列傳, “然至冒頓而匈奴最彊大 盡服從北夷 而南與中國為敵國 其世傳國官號乃可得而記 … 諸左方王將居東方 直上谷以往者 東接穢貉朝鮮”

33) 배진영, 앞의 논문, 2003, 7쪽.

계로 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연과 제의 상호공격

기원전 3백년 대를 전후하여 중국 동북 지역에 연과 제라는 호적수가 존재한다. 연·진과 고조선의 대립과 전쟁관계를 알려면 연과 제의 관계를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립과 견제 혹은 교류를 통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연과 제의 뒤에는 조선이 자리하고 있다. 전국시대에 들어와 연은 이제 전국칠웅의 하나로 나타난다. 하지만 연왕 흘가 즉위한지 5년인 기원전 316년에 대규모 내란이 발생하여 연은 일대의 위기에 처해진다. 곧 연왕 쾌와 장군 市被가 내란 속에서 죽어갔다. 맹자가 제나라 湣王에게 이 기회에 연을 정벌하는 것은 주 문왕과 무왕이 상을 정벌한 것과 같은 호기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였다. 민왕이 제나라 장군인 장자에게 5도의 군사와 북방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연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연의 군인은 전투하지 않았고 성문도 닫지 않았으며 연왕 쾌가 죽자 제가 대승을 거둔다.³⁴⁾ 제는 연의 종묘를 파괴하거나 重器³⁵⁾와 보물을 싣고 돌아가는 등 연을 도륙내었다.³⁶⁾ 이 와중에 태자 평도 연왕 쾌와 함께 죽었는데 그것이 연 쾌왕 7년임으로 기원전 314년에 해당한다.³⁷⁾ 그 후로 여러 나라의 간섭으로 2년 뒤에 제는 연에서

34) 『史記』卷34 燕召公世家 燕噲, “孟軻謂齊王曰 今伐燕 此文武之時 不可實也 王因令章子將五都之兵以因北地之衆以伐燕 士卒不戰 城門不閉 燕君噲死 齊大勝”

35) 『孟子』梁惠王下, “毀其宗廟 遷其重器 如之何其可也 天下固畏齊之彊也”

36) 『新序』雜事3 “燕易王時 國大亂 齊閔王興師伐燕 屠燕國 載其寶器而歸”

37) 『史記』卷15 六國年表 燕王噲 7年, “君噲及太子相子之皆死”

철수하고 조 무령왕은 공자 職을 韓에서 맞아들여³⁸⁾ 연소왕으로 등장하게 된다.

B-①연소왕은 破燕 직후 즉위하였다. 몸을 낮추고 두둑한 재물로 현자를 초빙하였다. ... 이에 소왕은 괘외를 위해 궁을 개축하고 그를 스승으로 받들어 모셨다. 악의가 위로부터 달려왔고 추연이 제로부터 달려왔으며 극신이 조로부터 달려오는 등 많은 현사들이 앞을 다투어 연에 몰려왔다.³⁹⁾

연소왕은 『설원』에서 괘외의 질문에 대답하길 ‘연은 땅이 좁고 인구가 적으며 제가 8개성을 탈취해 갔다.’⁴⁰⁾고 하며 제에 대한 설욕을 준비한다. 여기서 연의 장수 진개가 동호를 습격한 시점을 연소왕 이전인 기원전 323년의 이전에 일어난 일로 보는 견해⁴¹⁾도 있지만 이상의 『설원』에서 괘외에 대한 연소왕의 답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곧 연소왕은 연이 ‘땅이 좁고 인구가 적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의 동호에 대한 공격은 기원전 284년인 연소왕 28년 이후 B-②의 ‘燕國殷富’의 시점일 것이다. ‘殷富’는 넉넉하고 풍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연소왕은 즉위 후에 각국에서 온 인재들을 중용하며 연국 개혁에 나선다. 즉위 후 부국강병을 추진하던 연소왕은 기원전 284년 드디어 제를 정벌한다. 재상 악의가 진, 한, 위, 조, 연 등 5개국 연합군을 이끌고 제나라를 공격하였다.⁴²⁾

38) 『史記』卷43 趙世家, “王召公子職於韓 立以為燕王 使樂池送之”

39) 『史記』卷34 燕召公世家, “燕昭王于破燕之後即位 卑身厚幣 以招賢者 … 于是昭王爲隗改築宮而師事之 樂毅自魏往 鄒衍自齊往 劇辛自趙往 士爭趨燕”

40) 『說苑』君道, “燕昭王問於郭隗曰 寡人地狹人寡 齊人削取八城”

41) 이광명, 앞의 논문, 2019, 102쪽.

42) 『史記』卷43, 趙世家, “惠文王十四年 相國樂毅將趙 秦 韓 魏 燕攻齊”

제가 패퇴하니 연은 단독으로 깊숙이 진공하여 제의 수도인 임치를 점령하였다.

B-②연소왕 28년에 연국은 부유해지고 사졸은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고 기꺼이 나아갔다. 그래서 악의를 상장군으로 임명하여 진, 초, 한, 위, 조 5국이 모의해서 제를 공격했다. 제 병사는 전쟁에 패해 뿔뿔이 흩어지고 민왕은 도성을 버리고 외지로 달아났다. 오직 연나라 병사들만은 패주하던 제병사를 쫓아가서 임치에 진입하여 제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보물들을 노획하였으며 궁실과 종묘를 불살랐다. 제나라의 여러 성중에 함락되지 않은 것은 오직 요, 거, 즉묵 밖에 없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연에 속하게 하였다. 그런 상태가 6년간이나 지속되었다.⁴³⁾

B-③창국군 악의가 연소왕을 위해 5국을 연합시켜 제를 공격하여 70여성을 빼앗아 그것을 모두 연나라 군현으로 삼았다. 아직 나머지 3개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을 때에 그만 연소왕이 죽고 말았다. … 제나라 전단은 마침내 새로 된 연의 장수 기겁을 속여 연의 군대를 대패시켜 버리고 빼앗겼던 70여 성을 도로 찾아 수복하였다.⁴⁴⁾

연의 공격에 제는 전쟁에서 패해 뿔뿔이 흩어지고 제 민왕은 도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5개 연합국 중에 오직 연만이 제의 도성인 임치에 단독 진입해 제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보물을 노획

43) 『史記』卷34 燕召公世家, “(燕昭王)二十八年 燕國殷富 士卒樂軼輕戰 於是遂以樂毅為上將軍 與秦·楚·三晉合謀以伐齊 齊兵敗 湣王 出亡於外 燕兵獨追北 入至臨淄 盡取齊寶 燒其宮室宗廟 齊城之不下者 獨唯聊·莒·即墨 其餘皆屬燕 六歲”

44) 『戰國策』卷30 燕策2, “昌國君樂毅為燕昭王合五國之兵而攻齊 下七十餘城 盡郡縣之以屬燕 三城未下 而燕昭王死 … 齊田單欺詐騎劫 卒敗燕軍 復收七十城以復齊”

하고 궁실과 종묘를 불살랐다. 제가 연에 침략해 저지른 일을 그대로 설욕했던 것이었다. 제의 여러 성중에 함락되지 않은 것은 오직 요, 거, 즉묵 등 3개성에 불과하였다. 다만 제의 3개성이 함락되지 않은 상태는 6년간이나 지속되어 연이 제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제는 다시 살아나고 연은 다시 약소국의 위치로 떨어진다.

곧 제의 3개성이 아직 함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소왕이 재위 33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인 연혜왕이 즉위한다. 혜왕이 태자로 있을 때에 악의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혜왕은 왕위에 오른 후에 악의를 신임하지 않아 기겁으로 하여금 악의가 맡고 있던 사령관직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악의는 조나라로 가버린다. 제의 전단은 즉묵에서 군사를 일으키어 연의 군사를 대패시키고 이어 연이 철수하자 제는 70여 성을 모두 되찾게 된다. 이 무렵 제의 민왕이 거성에서 죽자 그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가 바로 제양왕이고 연에서도 혜왕이 재위 7년 만에 죽자 무성왕이 즉위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연의 동쪽에 있던 조선은 연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4. 연의 동호와 고조선 공격

연의 동쪽에 조선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료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부터 먼저 해 보기로 한다. 곧 연과 조선의 전쟁 이전에 조선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료에서 살펴 볼 수 있다.

C-①소진이 장차 함중하고자 북쪽으로 연문후에게 유세하며 이르기를, ‘연은 동쪽으로 조선과 요동에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임호와 누번, 서쪽으로는 운중과 구원, 남쪽으로는 호타와 역수가 있습니다. 땅은 사방 2천 여리에 대잡은 수십만 명이며, 수레는 7백승에 기마는 6천 필 게다가 식량은 10년을 지탱할 만합니다.’⁴⁵⁾

C-①은 전국시대 대표적인 종횡가의 한 명인 소진이 연문후 28년 곧 기원전 334년에 유세한 내용이다. 당시 연의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연의 북쪽에는 동호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⁶⁾ 지리명칭의 순서는 병렬적 관계로 조선과 요동, 임호와 누번, 운중과 구원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하천명은 호타와 역수로 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고 북쪽에는 임호와 누번이 있으며 서쪽에는 운중과 구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호타와 역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중에 호타와 역수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주장⁴⁷⁾이 있다. 하지만 이상의 기사에서 운중과 구원이 두 번이나 순서가 바뀌지 않고 나와 있으며 임호와 누번도 『사기』 흉노열전에서 그 순서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⁴⁸⁾ 종족명은 연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하천은 바라보는 방향에서 그 순서를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趙가 燕을 공격하는 방향에 따라 호타와 역수의 순서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종족명과 지

45) 『戰國策』卷29 燕策1 蘇秦將為從 北說燕文侯, “蘇秦將為從 北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呼沱·易水 地方二千餘里 帶甲數十萬 車七百乘 騎六千匹 粟支十年”

46) 『史記』卷43 趙世家 武靈王 19年, “自常山以至代 上黨 東有燕 東胡之境”

47) 송호정, 「先秦文獻에 기록된 古朝鮮 사회와 주민집단」, 『역사와 담론』 61, 2012, 233쪽.

48) 『史記』卷110 匈奴列傳, “晉北有林胡樓煩之戎 燕北有東胡山戎”

명인 조선과 요동도 그 순서대로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조선은 연과 인접한 것으로 인정되며 다음의 사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C-② 동호는 대택에 있고 이인은 동호의 동쪽에 있다. 맥국은 한수의 동북쪽에 있고 땅이 연에 가까워 연이 이를 멸하였다.⁴⁹⁾
- C-③ 연은 갈석에 의해 塞를 이루고 사곡에 의해 끊기었으며 遼에 의해 둘러 싸여 있다.⁵⁰⁾
- C-④ 연은 물러서면 사막을 등지고 나아가면 역수에 닿으며 서쪽으로 군도에 이르고 동으로 遼에 이르렀다.⁵¹⁾
- C-⑤ 노관이 배반하니 연인 위만이 망명하여 무리 천여인을 모아 遼에 있으며 진고지에 거주하였다.⁵²⁾
- C-⑥ 처음 연나라는 전성기일 때 일찍이 진번 조선을 공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었으며 鄣塞를 쌓았다.⁵³⁾

위 C-②의 기사에서 동호의 동쪽에 夷인이 있고 맥국은 연에 가까워 연이 이를 멸망시키었다고 나와 있다. 동호는 흉노의 동쪽에 있어 동호라는 명칭이 붙었고 오환의 선조로 알려진 유목민족이었다.⁵⁴⁾ 흉노는 상곡군에서 동으로 예맥조선에 접해 있었다.⁵⁵⁾ 위 기사 C-②는 상곡 동쪽에 있는 맥국이 멸망한 것을 알려준다. C-③의 기사는 연이 갈석으로 塞를 이루고 사곡에 의

49) 『山海經』卷11 海內西經, “東胡在大澤 夷人東胡東 貊國在漢水東北 地近于燕滅之”
 50) 『鹽鐵論』卷9 險固, “燕塞碣石 絕邪谷 繞援遼”
 51) 『博物志』卷1, “燕 卻背沙漠 進臨易水 西至軍都 東至於遼”
 52) 『前漢紀』卷14, “盧縮之反也 燕人衛滿亡命 聚黨千餘人 在遼居秦故地”
 53) 『史記』卷115 朝鮮列傳,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54) 『史記』卷110 匈奴列傳, “東胡 其後爲鮮卑 烏丸 服虔曰 在匈奴東 故曰東胡”
 55) 『史記』卷110 匈奴列傳, “諸左方王將居東方 直上谷 以往者 東接穢貉朝鮮”

해 끊기었으며 遼에 의해 둘러싸인 정황을 보여 준다. 여기서 사곡은 갈석과 가까운 연산산맥으로 보여 지며 요는 연산산맥 넘어 요서와 요동 지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연이 요와 인접해 있다는 내용은 C-④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만이 망명하여 처음 간곳은 遼임이 C-⑤의 기사로도 확인된다. 연과 가장 근접해 있던 조선은 진번임이 위 C-⑥기사에서 알 수 있다. 또 C-⑥의 『사기』 조선열전에 의하면 연의 전성기 곧 ‘自始全燕時’에 연이 진번을 복속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진번을 요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⁵⁶⁾ 연의 전성기라면 기원전 311년부터 기원전 279년까지의 연소왕 시기에 해당한다. 다음의 사료를 보자.

C-⑦그 후 연에 현장 진개가 있어 胡에 인질로 삼았는데 胡는 깊이 그를 신임하였다. 진개가 돌아오자마자 동호를 습격해 깨트리자 동호는 천여 리나 퇴각하였다. … 연 역시 장성을 쌓았는데 조양에서 襄平에 이르며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을 두고 胡를 막았다.⁵⁷⁾

C-⑧위략에서 이르기를 ‘옛날에 기자 후손인 조선후는 周가 쇠퇴하자 燕이 스스로 왕을 칭하는 것을 보고 동쪽을 경략하려고 하였다. 조선후도 또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逆擊燕해서 주실을 받들고자 하였다. 그 대부 禮가 간하니 그만 두었다. 禮로 하여금 서쪽으로 연에 가서 유세하게 하니 연이 그만 두고 공격하지 않았다. 후에 자손이 점점 교학해져

56) 윤병모, 「건창 동대장자유적과 고조선」, 『유라시아문화』4, 유라시아문화학회, 2021, 72쪽.

57) 『史記』 卷110 匈奴列傳, “其後 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却千餘里 …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以拒胡”

연이 이에 장군 진개를 보내어 그 서방을 공격하여 2천여 리를 취하고 만반한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다. 조선이 드디어 약해졌다.⁵⁸⁾

C-⑨조 무령왕은 구주를 넘고 대와 상곡을 지나 임호, 누번을 경략해 멸하였다. 연나라는 동호를 습격하여 천 리의 땅을 넓혔으며 요동을 건너 조선을 침공했다.⁵⁹⁾

C-⑩‘북쪽으로 연의 요동을 유람하실 수 있고, 남쪽으로 월의 회계를 살펴보실 수 있으니 이것은 활을 쏘는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⁶⁰⁾

C-⑦의 기사에서 진개는 연소왕 때의 사람으로 그가 동호를 격파하고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을 두었다는 내용이다. 기원전 325년 진나라 혜문왕이 왕을 칭하면서 다른 제후들도 왕을 칭하였는데 연의 易王은 그 10년인 기원전 323년에 왕을 칭하였다. 그럼으로 진개가 조선에 침략한 것은 조 무령왕이 호북기사 제도를 도입한 기원전 307년 이후에 해당한다. 연의 고조선 침공을 기원전 300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⁶¹⁾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⑩의 『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281년인 초 경양왕 18년에 초왕이 북쪽으로 간다면 연의 요동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C-⑩의 기사를 고려한다면 연이 요동을 소유한 시점은 기원전 281년 이전의 일임을 알 수 있

58) 『三國志』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潘汗爲界 朝鮮遂弱”

59) 『鹽鐵論』卷8 伐功, “趙武靈王踰句注 過代谷 略滅林胡 樓煩 燕襲走東胡 辟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60) 『史記』卷40 楚世家, “北遊目於燕之遼東而南登望於越之會稽 此再發之樂也”

61) 서인한, 앞의 책, 2005, 39쪽.

다. 따라서 연의 동호 및 고조선 침공은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전 281년 사이의 일로 판단할 수 있다.

연의 조선 침공에 대해 그 시점을 연의 제에 대한 정벌 이전인 기원전 299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⁶²⁾ 반면에 연이 제를 공격한 기원전 284년 이후인 연 소왕 28년에서 33년 사이⁶³⁾로 기원전 282년부터 280년 때의 일⁶⁴⁾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진개의 조선 공격은 연이 제를 공격한 이듬해인 기원전 282년에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⁶⁵⁾ A-⑥의 『좌전』에서 연에게 산융은 병적인 존재라고 한 것을 보아 산융 뒤에 나타나는 연의 동호와 고조선에 대한 침략은 연이 제를 정벌한 이후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면한 눈앞의 구체적인 제를 정벌하지 않고 북방에 눈을 돌려 동호와 고조선을 침공한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원전 281년 이전에 조선은 연과 접해 있었고 C-⑦, C-⑧, C-⑨의 기사에서 보이는 대로 연의 조선 침략은 기원전 281년 이전의 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C-⑦의 기사에서 ‘其後’ 이후에 연도 장성을 쌓았는데 조양에서 襄平에 이르렀고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에 군을 두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양평은 『한서』 지리지 요동군 조에도 나오지만 C-⑦의 경우 양평은 장성의 끝자락으로 지금의 요하 서쪽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곧 襄平의 고칭은 纒坪으로 이 纒坪이 요동이 아닌 요서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⁶⁶⁾

진의 통일 후에 진은 조와 연의 장성을 연결하여 임조로부터 요동에 이르는 만리장성을 구축한다.⁶⁷⁾ 하지만 C-⑦의 기사에서

62) 이성재, 「고조선과 燕의 전쟁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16, 54쪽.

63) 배진영, 앞의 책, 2009, 325쪽.

64) 陳平, 앞의 책, 1995, 213쪽.

65) 박준형, 앞의 논문, 2012, 18쪽.

66) 陳平, 「燕文化」, 文物出版社, 2006, 197쪽.

67) 『史記』卷88 蒙恬列傳, “秦已并天下 乃使蒙恬將三十萬 … 築長城 因地形 用制險

연은 ‘築長城’이라며 장성을 구축한 반면에 『사기』 조선열전에 서는 ‘築鄣塞’로 나온다. 따라서 ‘築鄣塞’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사기』 조선열전에서 나오는 진번은 연의 장성 구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곧 연장성은 ‘拒胡’의 대상이었지 조선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연의 ‘拒胡’ 대상에 요서와 요동군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본다면 요동군을 포함한 연의 5군은 동호를 대상으로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연의 현장인 진개가 동호를 무찌르고 동호를 천여 리나 퇴각시키며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 등 5군을 두었다는 내용이다.

C-⑧의 기사에서 나오는 ‘逆擊燕’의 의미는 조선이 연의 공격을 받고 다시 반격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 C-⑧의 기사에서는 진개를 보내어 조선의 서방을 공격하여 2천여 리를 취하고 만반한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으며 조선이 드디어 약해졌음을 전하고 있다. C-⑨의 기사에서는 연이 동호를 습격하며 천 리의 땅을 넓히고 요동을 건너 조선을 침공했다는 사실이 나온다. 『사기』 흉노열전과 『염철론』 별공편에는 연이 동호를 무찌르며 천 여리를 넓혔다는 내용인데 비해 『위략』에서는 조선을 공략해 2천여 리를 넓혔다고 나온다. 따라서 요서에는 진번이 있고 요동에는 준왕의 조선이 있어 이를 포함하면 모두 2천여 리가 된다는 의미이다.⁶⁸⁾ 그럼으로 연이 동호를 친 것과 연이 조선을 친 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여 진다. C-⑨의 기사에서 ‘度遼東’을 ‘渡遼水’로 보는 경우가 있다.⁶⁹⁾ 하지만 ‘度遼東’은 ‘渡遼東’이 아닌 ‘度’임으로 이때의 요동은 요하가 될 수 없고 요동이라는 육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C-⑩의 기사에서 연이 요동을 확보한 것은 기원전 281년 이전의 일이다. 때문에 C-⑨의 기사의 ‘度遼東’의 요동은 지금의 요서를 지칭한

塞 起臨洮 至遼東 延袤萬餘里”

68) 오현수, 앞의 논문, 2015, 48쪽.

69) 노태돈,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1990, 45쪽.

다고 할 수 있다. 또 진의 통일 후에 요동까지 장성을 쌓았다는 내용도 지금의 요서 동쪽 끝임을 인정할 수 있다.

C-⑪이 사건으로 진왕은 크게 노하여 더욱 병력을 증가하여 조에 보내고 왕진의 군대에게 조서를 내려 연을 치게 하였다. 열 달 만에 계성이 함락되자 연왕 희와 태자 단은 모두 정병을 이끌고 동쪽 요동으로 도망쳤다. … 진은 다시 군사를 몰아 연을 치고 5년이 지난 후에 진이 마침내 연을 멸망시켜 연왕 희를 사로잡았다.⁷⁰⁾

C-⑫연왕 한광을 遼東王으로 옮기게 하고 燕將 장도는 초를 따라 조나라를 구원했고 관중에 들 때 함께 따라오므로 장도를 연왕으로 세우고 계에 도움을 하게 하였다.⁷¹⁾

C-⑬연의 장수 장도를 연왕으로 삼아서 계현에 도움을 하도록 했다. 예전의 연왕이던 한광을 요동으로 옮기게 하여 그곳의 왕이 되게 하였으나 한광이 복종하지 않자 장도가 공략하여 무종에서 그를 죽였다.⁷²⁾

C-⑭연왕 장도가 모반하자 대 땅을 공략하여 함락시켰다. 고조는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여 연왕 장도를 사로잡았으며 태위 노관을 세워서 연왕으로 삼았다.⁷³⁾

70) 『史記』卷86 刺客列傳, “於是秦王大怒 益發兵詣趙 詔王翦軍以伐燕 十月而拔薊城 燕王喜 太子丹等盡率其精兵東保於遼東 … 秦復進兵攻之 後五年 秦卒滅燕 虜燕王喜”

71) 『史記』卷7 項羽本紀, “徙燕王韓廣爲遼東王 燕將臧荼從楚救趙 因從入關 故立荼爲燕王 都薊”

72) 『史記』卷8 高祖本紀, “燕將臧荼爲燕王 都薊 故燕王韓廣徙王遼東 廣不聽 臧荼攻殺之無終”

73) 『史記』卷8 高祖本紀, “燕王臧荼反 攻下代地 高祖自將擊之 得燕王臧荼 卽立太尉盧綰爲燕王”

C-⑪은 진시황 암살 사건이 실패하자 진이 연을 공격하여 연의 도성인 계성이 함락하자 연왕과 태자가 요동으로 도망치고 이후 5년이 지난 후에 진이 연을 멸망시키는 사건을 보여 준다. C-⑫의 기사는 기원전 207년의 일로 연왕 한광을 요동왕에 봉하고 이어 장도를 연왕에 삼아 도움을 계에 정한 것을 알려 준다.⁷⁴⁾ C-⑬의 내용은 기원전 206년 한고조 원년에 연 장수 장도를 연왕으로 삼아 계현에 도움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연왕 장도가 요동왕 한광을 무종에서 죽인 것은 기원전 206년의 일이었다.⁷⁵⁾ C-⑭의 기사는 기원전 202년에 일어난 일로 연왕 장도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제압하고 노관을 연왕으로 삼은 내용이다.

정리하자면, 한광은 본래 농민반란군 陳勝의 부하였으나 연을 함락시킨 후에 스스로 연왕이 된다. 항우가 진을 멸망시킨 뒤에 연은 연과 요동으로 양분되어 연나라 장수인 장도를 연왕으로 삼아 계현에 도움하도록 하였다. 이전의 연왕이었던 한광을 요동왕에 봉하려 하자 한광이 복종하지 않자 장도가 한광을 무종에서 살해하고 연왕이 된다. 장도는 본래 한광의 부하였으나 항우를 따라서 관중에 들어갔다가 한고조를 따른다. 연왕 장도가 기원전 202년인 한고조 5년에 반란을 일으켜 代 땅을 함락시킨다. 한고조는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여 연왕 장도를 사로잡았으며 한고조의 고향친구이며 태위였던 노관을 세워 연왕으로 삼는다. 또 기원전 195년에 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자 한은 노관을 공격하였다. 이어 한고조는 자신의 여덟 번째 아들인 劉建을 세워서 연왕으로 삼았다. 결국 연왕은 한광, 장도, 노관, 유건

74) 『史記』卷16 秦楚之際月表, “韓廣爲趙略地至薊 自立爲燕王始”

75) 『史記』卷16 秦楚之際月表, “燕分爲遼東 王韓廣始 故燕王 都無終 藏荼擊廣無終 滅之 屬燕”

등으로 왕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C-⑮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자 주발은 상국의 신분으로 변패를 대신하여 부대를 이끌고 계현을 함락시켰고 노관의 대장 지, 승상 언, 군수 경, 태위 약과 어사대부 시를 생포하고 渾都를 도륙하였다. 상란에서 노관의 군대를 대파하였고 또 저양에서 노관의 군대를 격파하고는 곧장 장성까지 추격하였다. 상국 12현, 우북평 16현, 요서요동 29현, 어양 22현을 평정하였다.⁷⁶⁾

C-⑮ 기사는 한고조12년인 기원전 195년에 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자 한은 변패와 주발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가 노관을 공격한 내용이다. 한나라 군은 장성까지 노관의 군대를 추격하나 그 이듬해에 한고조가 죽자 노관은 고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흉노로 망명한다. 노관은 흉노로 간 다음에도 상국 이동에 출몰하여 한을 괴롭힌다. 노관이 반란을 일으켜 흉노로 가자 위만도 그 무리 천여 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망명하였다.⁷⁷⁾ 이로 볼 때에 노관과 위만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여 진다. C-⑮ 기사에서 한나라 군이 노관을 추격하며 상국부터 요동까지 5개 군 79현을 평정하였다는 내용이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군현수와 비슷하다며 이 시기에 이미 한이 5개 군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이 있다.⁷⁸⁾ 그렇지만 연왕 희가 연의 도성

76) 『史記』卷57 絳侯周勃世家, “燕王盧綰反 勃以相國代樊噲將 擊下薊 得綰大將抵·丞相偃·守陘·太尉弱·御史大夫施 屠渾都 破綰軍上蘭 復擊破綰軍沮陽 追至長城 定上谷十二縣 右北平十六縣 遼西·遼東二十九縣 漁陽二十二縣”

77) 『史記』卷115 朝鮮列傳,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78) 구본희, 「戰國~秦漢代 遼東郡과 古朝鮮 西界의 변화」,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2017, 42쪽.

인 계현이 함락하자 요동으로 도망갔다는 사실과 연왕 한광을 요동왕으로 임명하려 한 것과 장도가 한광을 무종에서 죽인 사실을 보아 당시 요동은 지금의 요동이라 볼 수 없고 계현이 위치한 무종 일대라고 볼 수 있다. 계현은 지금 천진시에 소속된 지명으로 무종도 계현 동북 가까이에 있었다.⁷⁹⁾ C-⑤ 기사에서 요서와 요동이 29현으로 나오지만 『한서』 지리지에는 32개현이 나와 있어 3개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한서』 지리지의 기록은 기원후 2년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지 그 이전 시기를 기록한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⁸⁰⁾ 요동군이 동북지역으로 이전한 것은 흉노에 대한 대응 조치로 그 시기는 기원전 129~128년인 한무제 시기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⁸¹⁾ 앞서 한광을 요동왕으로 임명했던 요동국의 도읍은 무종으로 현재 천진시 계현이며 이것이 요하 이동으로 옮긴 것은 한무제 시기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⁸²⁾ 또 아래의 사료를 검토하여 보아도 연·진·한대 초기 요동을 지금의 요하 이동이라기보다는 요서를 지칭하는 사례가 많다. 그 실례를 들어보자.

D-①그 후 연왕 노관이 한을 배반하여 일당 수천 명을 거느리고 흉노에 투항한 다음 상곡 이동에 출동하여 주민을 괴롭혔다.⁸³⁾

D-②흉노가 날로 교만해져 해마다 변경지대를 침범해와 백성들과 가축을 죽이고 노략질한 것이 아주 많았는데 운중과 요동이 가장 심했다.⁸⁴⁾

79) 孫進己 王綿厚 主編, 『東北歷史地理1』,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314쪽.

80) 권오중,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출판부, 2012, 36쪽.

81) 권오중, 앞의 책, 2012, 37쪽.

82) 권오중, 「古代 遼東郡의 位置問題 試論」, 『吉玄益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6, 84쪽.

83) 『史記』卷110 匈奴列傳, “後燕王盧緄反 率其黨數千人降匈奴 往來苦上谷以東”

84) 『史記』卷110 匈奴列傳, “匈奴日已驕 歲入邊 殺略人民畜產甚多 雲中遼東最甚”

- D-③그 이듬해 가을 흉노의 기병 2만이 한에 들어와 요서 태수를 죽이고 2천여 명을 잡아갔다.⁸⁵⁾
- D-④상곡에서 요동까지는 땅은 멀고 인민이 적었으며 자주 침입을 당하였다.”⁸⁶⁾
- D-⑤상곡부터 요동에 이른 지역은 땅은 넓으나 인민은 적다.⁸⁷⁾
- D-⑥어양 이동은 본래 변새가 갖추어져 있지만 땅이 오랑개와 접해 있어 貢稅가 미약하다.⁸⁸⁾
- D-⑦유주 이북으로 부터 요수 2천여 리 사이에 州縣이 없다.⁸⁹⁾

연왕 노관이 흉노로 투항한 이후 상곡 이동은 늘 흉노의 침공에 노출된 것을 보여준다. D-②의 기사는 한문제와 경제의 시기 기사로 흉노의 침범이 운중과 요동이 특히 심하다고 전하고 있다. D-③의 기사는 한무제 재위 13년인 기원전 128년에 일어난 일로 한무제 초기에도 흉노가 요서를 공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D-④와 D-⑤의 기사에서 상곡에서 요동까지는 땅은 넓으나 인민이 적고 계속 흉노의 침입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 준다. D-⑥의 기사는 어양 동쪽부터 흉노와 접해 있어 세금이 적게 견함을 알리고 있다. 이처럼 燕과 代 지역은 늘 흉노의 침공으로 고통을 받았고⁹⁰⁾ 한은 연과 대에서 군사를 발진해 흉노를 공격하였다.⁹¹⁾ D-⑦의 기사는 비록 후대의 일이지만 전한대의 사실과 다름이 없다. 곧 645년 당태종의 고구려

85) 『史記』卷110 匈奴列傳, “其明年秋 匈奴二萬騎入漢 殺遼西太守 略二千人”

86) 『史記』卷129 貨殖列傳, “東北邊胡 上谷至遼東 地踔遠 人民希數被寇”

87) 『漢書』卷28 地理志 燕地, “上谷至遼東 地廣民希”

88) 『後漢書』卷26 列傳 伏湛子隆, “漁陽以東 本備邊塞 地接外虜 貢稅微弱”

89) 『舊唐書』卷77 列傳 韋挺, “謂挺曰 幽州以北 遼水二千餘里 無州縣”

90) 『漢書』卷94 匈奴傳, “冒頓既立 … 遂侵燕代”

91) 『史記』卷110 匈奴列傳, “會燕救至 匈奴乃去 … 李息出代郡 擊胡”

침공시 饋運使를 맡은 위정이 유주 이북에서 요하까지 주현이 없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C-⑮의 한나라 군에 의한 5군, 79현 평정 기사는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한 시점인 기원전 91년 즈음의 사실을 마치 옛날 일로 소급해서 기록한 것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上谷 동쪽에 예맥조선이 접하여 있다고 한 것을 거론할 수 있다.⁹²⁾ 이에 따라 요동의 위치가 난하 유역에서 대릉하 유역으로 옮긴 것은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이후라고 볼 수 있다.⁹³⁾

D-⑧당시 우연히 요동의 高廟가 불에 탔다.⁹⁴⁾

D-⑨무제 건원 6년 6월 정유에 요동의 高廟가 불에 탔다.⁹⁵⁾

또한 D-⑧과 D-⑨의 사료에서 나오는 고묘는 기원전 135년에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한고조 廟를 지칭한다. 고묘의 소재지는 대부분의 경우 郡의 치소에 두는 경우가 많다. 『한서』 지리지에는 고묘가 요서군 且慮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⁹⁶⁾ 이 차려는 지금 요서의 朝陽으로 비정됨으로⁹⁷⁾ 요동고묘는 당연히 요서에 있게 된다. 이러한 요동고묘에 대한 在요서설은 이미 북한학계에 의해 주장⁹⁸⁾되기도 했으며 본고도 이와 같은 입장에 있다. 따라서 적어도 한무제 이전 요동은 지금의 요서에 있었고 한의

92) 『史記』卷110 匈奴列傳, “直上谷以往者 東接穢貉朝鮮”

93) 李盛珪, 「遼東郡의 位置의 變遷」, 『古代文化』1994-2, 京都 古代學協會, 1994, 14~23쪽.

94) 『史記』卷121 儒林列傳, “是時遼東高廟災”

95) 『漢書』卷27 五行志, “武帝建元六年六月丁酉 遼東高廟災”

96) 『漢書』卷28 地理志 遼西郡, “遼西郡 秦置 … 縣十四 且慮 有高廟”

97) 稻葉岩吉, 「漢代の滿洲」, 『滿洲歷史地理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129~131쪽; 孫進己 王綿厚 主編, 「東北歷史地理1」,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300쪽.

98) 강인숙,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의 서변」, 『비파형당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195쪽.

본격적인 요동군 운영은 위만조선이 멸망한 후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5. 진과 고조선의 전쟁

진과 고조선의 전쟁 원인은 연 전성기 시절 연나라의 영토였던 요동지역을 수복하기 위한 것과 나라를 잃은 중원계 유이민이 조선 지역으로 망명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⁹⁹⁾ 결국 진의 對조선 전쟁은 진이 연과 제 등 전국 6웅을 격멸하고 통일을 이루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진이 천하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면 고조선은 연과 계속 대립과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대륙 내부 깊숙이 존재하던 전국 시절의 진은 점차 힘을 키워 중국을 통일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진의 천하통일 사업의 주역은 바로 진시황으로 진시황은 연과 제 등을 모두 멸망시키고 최초의 중국 황제로 등극하게 된다. 이러한 통일된 진은 주변의 이민족에게도 무언의 압박을 주었고 또 이미 전국 시절 연과 계속 대립과 갈등 관계를 가진 조선에게는 크나큰 압박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이제 진의 조선에 대한 관계의 서막을 연 진시황의 통일 사업에 대해 우선 알아보자.

기원전 230년인 진시황 17년에 진은 한을 공격해서 한왕 안을 사로잡고 멸망시켜어 군을 설치하였다. 기원전 228년인 진시황 19년에는 조를 멸망시키었으며 그 22년에는 위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기원전 223년인 진시황 24년에 진은 20만 대군으로 초를 공격하였으나 초의 명장 항연에게 격파당하자, 노장 왕

99) 조원진, 앞의 논문, 2018, 198쪽.

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나라의 총병력인 60만 대군으로 다시 공격해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진시황 25년인 기원전 222년에 진은 연의 요동을 공격하여 연왕 희를 사로잡아 연을 멸망시키고 이때 월의 군주가 항복해 그 땅에 회계군을 두었다. 진시황 26년인 기원전 221년에 진은 연의 남쪽을 따라서 제를 공격해 제왕 건을 사로잡아 제를 멸망시키었다. 이리하여 진시황은 정복사업을 시작한지 약 10년이 지난 재위 26년 만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진시황은 천하를 36군으로 나누고 동쪽으로는 요동에 이르러 조선과 접하게 되는 것이었다.

E-①(26년)천하를 나누어 36군으로 삼고 … 땅이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러 조선과 닿았다. … 북쪽으로는 황하를 근거지로 塞를 삼았고 음산을 끼고 요동에까지 이르게 하였다.¹⁰⁰⁾

E-②秦이 천하를 병합한 뒤에 몽염에게 장성을 쌓게 하여 요동에 이르렀다. 이때 조선왕부가 왕이 섰는데 진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진에 복속하였으나 조회는 하지 않았다.¹⁰¹⁾

E-③(秦이) 성을 쌓았는데 서쪽으로는 유사에 닿고 북쪽으로는 遼水에 이어지며 동쪽은 조선에 접한다.¹⁰²⁾

E-④진이 연을 멸하자 遼東外徼에 소속시켰다.¹⁰³⁾

E-⑤秦이 천하를 병합하고 동쪽으로 沛水를 건너 조선을 멸하였다.¹⁰⁴⁾

100) 『史記』卷6 秦始皇本紀第6, “分天下以爲三十六郡 … 地東至海暨朝鮮 … 北據河爲塞並陰山至遼東”

101) 『三國志』卷30 魏書烏丸鮮卑東夷傳第30 韓傳所引『魏略』, 口及秦并天下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102) 『淮南子』卷18 人間訓, “將築脩城西屬流沙 北擊遼水東結朝鮮”

103) 『史記』卷115 朝鮮列傳, “秦滅燕, 屬遼東外徼”

E-⑥남월과 조선은 秦나라 전성기에 신하로 內屬했다.¹⁰⁵⁾

E-⑦대부가 말하길 지난날 四夷가 모두 강성하여 다 같이 중국을 침범하였는데 조선은 徼를 넘어 燕의 동쪽 땅을 빼앗았다.¹⁰⁶⁾

기원전 221년 진의 통일후 진이 기원전 207년 멸망하기 까지 존속기간이 14년 밖에 되지 않아 진의 조선침공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그렇지만 몇몇 사료에서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우선 E-①과 E-②의 기사에서 진의 장성이 요동까지 이른 것을 보여준다. 또 조선이 진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조선이 진에 전략적으로 복속하였으나 조회에는 응하지 않았음을 알게 해 준다. E-③에서는 진의 장성이 북쪽으로 요하에 이어서 동쪽으로는 조선과 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원문에 ‘東擊遼水’가 아니고 ‘北擊遼水’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진 장성은 요하 북쪽의 지금 서요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¹⁰⁷⁾ 그럼으로 동쪽으로 조선과 접함은 서요하 동쪽에서 조선과 대치중임을 알려 준다.

그런데 E-④에서는 진이 연을 멸망시키고 그곳을 요동의외에 속하게 한다. 여기서 요는 목책이나 자연적 경계인 강을 뜻한다.¹⁰⁸⁾ 요동의외는 요동의 밖에 있는 요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외요는 진 행정력이 미약한 지역의 진과 조선 경계가 되는 곳에 설치된 것¹⁰⁹⁾으로 조선이 진의 변경 치안관리 범위에 속했

104) 『鹽鐵論』卷8 誅秦, “秦既并天下東絕沛水並滅朝鮮”

105) 『史記』卷25 律書, “南越朝鮮自全秦時內屬爲臣子”

106) 『鹽鐵論』卷7 備胡, “大夫曰 往者 四夷俱强 並爲寇虐 朝鮮踰徼 劫燕之東地”

107) 홍승현, 「전국시기 연의 장성 축조와 국가 성격」, 『중국 역대 장성의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4

108) 『史記索隱』卷117 司馬相如列傳, “徼塞也 以木柵水爲蠻夷界”

109) 오현수, 앞의 논문, 2018, 51쪽.

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¹¹⁰⁾ 곧 외요는 요의 밖에 있는 내속¹¹¹⁾ 지위에 있는 족속을 가리킨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내속은 정치적으로 복속되는 속국을 말하는 일반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¹¹²⁾ 또 내속은 중국의 관점에서 본 주관적 표현이란 주장도 있다.¹¹³⁾

E-⑤에서는 진이 천하를 통일하고 패수를 건너 조선을 멸망시켰다는 기사가 나와 있다. 이는 E-⑥과 E-⑦에서 조선이 그대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E-⑥은 한 효문제 즉위의 기사로 조선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내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은 당시 진에 신속된 이민족 국가를 말한다는 주장도 있다.¹¹⁴⁾ 이는 E-② 기사 ‘복속’의 의미와도 통한다. 그럼으로 E-⑤의 조선 멸망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⑦의 기사에서는 오히려 조선이 요 곧 요동외요를 넘어 연의 동쪽 땅을 빼앗은 점을 보여 준다. 조선이 진한교체기의 혼란한 시기를 틈타 연의 동쪽을 빼앗은 것이다. 이는 E-④ 기사에서 진이 연을 멸하자 그곳을 요동외요에 소속시켰다는 점에서 조선을 기준으로 보면 요동외요 안쪽인 서쪽을 조선이 점령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110) 宋眞, 앞의 논문, 2014, 56쪽.

111) 『後漢書』卷86 南蠻西南夷列傳, “延光元年 九眞徼外蠻獻內屬 三年 日南徼外蠻復來內屬”

112) 박준형, 앞의 논문, 2012, 27쪽.

113) 박대재, 「古朝鮮의 왕과 燕과의 전쟁」,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2006, 49쪽.

114) 金南中, 앞의 논문, 2002, 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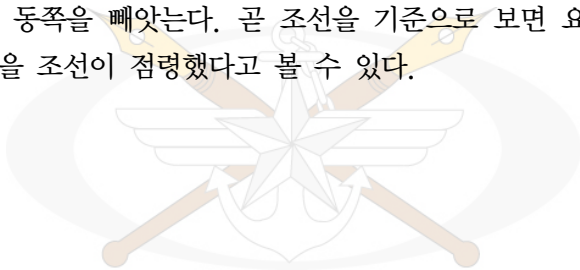
6. 맺음말

이상에서 연과 고조선의 전쟁 그리고 진과 고조선의 전쟁을 살펴보았다. 연·진과 고조선의 전쟁은 산융과 동호에 대한 문제와 제에 대한 문제도 함께 살펴보아야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연이 산융의 공격을 받아 제가 연을 통해 산융을 공격하거나 산융이 연을 통해 제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연은 산융과 제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었다. 연을 괴롭힌 산융은 춘추시대 중 말기에 사라지고 대신 동호가 등장한다. 곧 연과 제는 상호 견제 또는 직접 전쟁을 통해 상대를 공격하는 단계로 까지 발전하게 된다.

전국시대에 들어와 연은 전국칠웅의 하나로 나타난다. 『전국책』에 의하면 당시 연의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고 북쪽에는 임호와 누번이 있으며 서쪽에는 운중과 구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호타와 역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호타와 역수의 기재 순서는 趙가 燕을 공격하는 방향에 따라 그 순서를 기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 종족명과 지명인 조선과 요동도 그 순서대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좌전』에서 연에게 있어 산융은 병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아 산융 뒤에 나타나는 동호와 조선에 대한 연의 침략은 연이 제를 정벌한 이후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과 가장 근접해 있던 조선은 진번으로 『사기』 조선열전에 연의 전성기에 위만이 진번을 복속시킨 사실이 나온다. 또 『사기』 조선열전에서 나오는 진번은 연의 장성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연장성은 ‘拒胡’의 대상이었지 조선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기』에는 한나라 군이 상곡 12현, 우북평 16현,

요서와 요동 29현, 어양 22현을 평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사기』 저자인 사마천 당대의 사실을 마치 옛일처럼 소급 적용해 기록한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동의 위치가 난하 유역에서 대릉하 유역으로 옮겨 간 것은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또 진이 연을 멸망시키며 그 지역을 遼東外徼에 속하게 한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여기서 徼는 목책이나 자연경계인 강을 뜻하며 요동외요는 요동의 밖에 있는 요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회남자』에서 ‘東擊遼水’가 아니고 ‘北擊遼水’로 나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 장성은 요하 북쪽의 지금 서요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진한교체기의 혼란한 시기를 틈타 연의 동쪽을 빼앗는다. 곧 조선을 기준으로 보면 요동외요 안쪽인 서쪽을 조선이 점령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 『舊唐書』 中華書局 1982
『史記』 中華書局 1982
『三國志』 中華書局 1982
『漢書』 中華書局 1982
『後漢書』 中華書局 1982
『管子』 上海古籍出版社 2015
『山海經』 天地出版社 2019
『鹽鐵論』 上海人民出版社 1974
『逸周書』 中華書局 1980
『戰國策』 中華書局 2016
『前漢紀』 吉林出版集團 2005
『淮南子』 上海古籍出版社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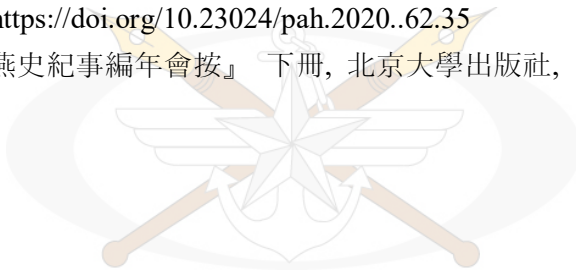
2. 논문 및 단행본

- 강인숙,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의 서변」,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2_1423@N2M
- 권오중, 「古代 遼東郡의 位置問題 試論」, 『吉玄益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1996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7_0606@N2M

- 권오중,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출판부, 2012
<http://uci.or.kr//G901:A-0006409995@N2M>
- 金南中, 「燕·秦의 遼東統治의 限界와 古朝鮮의 遼東 回復」,
 『白山學報』 62, 2002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7_0665@N2M
- 노태돈,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1990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7_0942@N2M
- 박대재,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2006
<http://uci.or.kr//G701:B-00099030662@N2M>
- _____, 「고조선과 제의 해상교류와 요동」, 『한국사학보』
 2014
- _____, 「고조선 이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
 총』 55, 2017
<https://doi.org/10.23037/dyn.2017..55.002>
- 박준형,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
 『사학연구』 108, 2012
<http://uci.or.kr//G704-001261.2012..108.009>
- 배진영, 「春秋時期 燕國 對外關係의 變化」, 『中國史研究』 17,
 2002
<http://uci.or.kr//G704-000580.2002.17..006>
- _____, 「燕昭王의 政策과 ‘巨燕’의 成立」, 『中國史研究』 25,
 2003
<http://uci.or.kr//G704-000580.2003.25..004>

- 배진영, 「燕國의 五郡 설치와 그 의미」, 『中國史研究』 36, 2005
- _____, 『고대 北京과 燕文化』, 한국학술정보, 2009
- 서인환, 『한국고대 군사전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http://uci.or.kr/G901:A-0006103117@N2M>
- 송호정, 「先秦文獻에 기록된 古朝鮮 사회와 주민집단」, 『역사와 담론』 61, 2012
<http://uci.or.kr/G704-001545.2012..61.004>
- 宋眞, 「戰國·秦·漢時期 遼東郡」과 그 경계」, 『한국고대사연구』 76, 2014
<http://uci.or.kr/G704-000848.2014..76.002>
- 오현수, 「『管子』에 등장하는 ‘穢貉’과 ‘發朝鮮’의 역사적 실체」, 『사람』 43, 2012
<http://uci.or.kr/G704-001587.2012..43.004>
- _____, 「魏略 기재 朝鮮侯와 ‘取地二千餘里’의 검토」, 『韓國史學報』 61, 2015
<http://uci.or.kr/G704-000690.2015..61.008>
- _____, 「사기 조선열전 기재 ‘秦故空地上下鄣’에 대한 검토」, 『韓國史學報』 70, 2018
<https://doi.org/10.21490/jskh.2018.02.70.45>
- 윤병모, 「건창 동대장자유적과 고조선」, 『유라시아문화』 4, 유라시아문화학회, 2021
- 이광명, 「전국 시기 연의 요동 진출 연구」, 부경대 박사학위 논문, 2019
<http://uci.or.kr/I804:21031-200000177661@N2M>
- 李盛珪, 「遼東郡の位置の變遷」, 『古代文化』 1994-2, 京都 古代學協會, 1994

- 전대준, 최인철,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전준현,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고조선-발해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조원진, 「고조선과 秦나라의 대외관계 연구」, 『사학연구』 129, 2018
<http://uci.or.kr/I410-ECN-0101-2018-911-001917505@N2M>
- _____, 「고조선과 燕나라의 전쟁과 요동」, 『先史와 古代』 62, 2020
<https://doi.org/10.23024/pah.2020..62.35>
- 陳平, 『燕史紀事編年會按』 下冊, 北京大學出版社, 1995



(Abstract)

The war between Yan, Qin and Kochosun
during the period of Ancient China and Korea

Yoon, Byoung-mo

The first document in which the name 'Choseon' appears is 『Guanzi』 . According to 『Guanzi』 , the name 'Choseon' already appeared in the middle of the 7th century BC. It is reasonable to view BalChoseon at this time as Bohai's Choseon, unlike the existing interpretation.

In some cases, when Yan was attacked by Shanrong, Qi attacks Shanrong through Yan, or Shanrong attacks Qi through Y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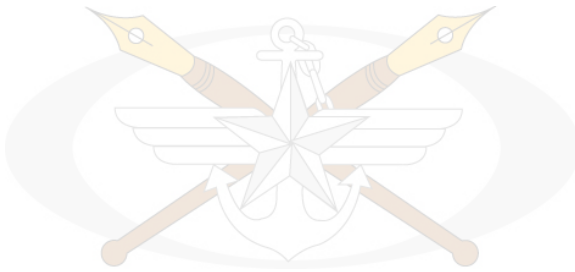
Shanrong, who tormented Yan, disappeared in the middle and end of the Chunqiu period, and Donghu appears instead. Yan and Qi developed into a stage where they attacked each other through mutual checks or direct wars. Yan was in a major civil war in 316 BC, and Yan was invaded by Qi. Yan, on the other hand, sets out to conquer Qi in 284 BC. Capture Renzi, the capital of Qi.

To the east of Yan at that time were Choseon and Liaodong. Among them, the order of Hutuo and Yishui was recorded in the direction of viewing. Therefore, the tribal names Choseon and Liaodong were also written in order. The invasion of Donghu and Choseon was after Yan conquered Qi.

There is a fact that Wiman subjugated Jinbeon in Yan's heyday. Therefore, Choseon, which Yan invaded and destroyed, should be regarded as Jinbeon. Jinbeon was not included in Yan's Great Wall.

Qin overthrew Yan and makes it belonged to Liaodongwaijiao. The Qin Great Wall reached now XiLiaohe north of Liaohe. Choseon took advantage of the chaotic period of the Qin-Han transition to usurp Yan's east. After Qin destroyed Yan, Choseon took over the interior of Liaodongwaijiao.

Keywords : Old Choseon, Yan, Sharrong, Qi, Qin, Jinbeon,
Donghu, Liaodong, Liaoxi, Xiangping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287-334
<https://doi.org/10.29212/mh.2022..122.28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990년 걸프전 시 미 해병대의 해상차단작전 분석

이표규 | 단국대학교 해병대군사학과 교수

목 차

1. 서론
2. 해군력 운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걸프전 시 해상차단작전
4. 분석 및 평가
5. 결론

초 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90년대 걸프전 당시 미 해병 제13해병원정부대와 제4해병원정여단이 수행한 해상차단작전을 해양전략가들의 이론을 이용 분석하여, 해상차단작전에서의 해병대의 가치를 평가하고, 한국군에 필요한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미 해병대가 수행한 다섯 차례에 걸친 대이라크 해상차단작전은 매우 유용하였다. 미 해병대는 작전절차 중 마지막 제5단계에 헬기이동 후 페스트로프 하강기술을 이용, 선박에 진입하여,

승무원과 엔진을 통제하였다. 그 이후 국제법강제집행팀, 군사경찰, 선박검사팀 등이 후속승선하여, 작전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작전들을 통해, 미 해병대는 이라크 군사력 축적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미 해병대는 다국적군의 승리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러한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전구 내 지휘통제 체계 내에서의 융통성 있는 지휘관계, 평시 및 작전 수행이전 수행한 실전 같은 완벽한 훈련 및 준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에 추가하여, 미 해병대, 미 해군, 그리고 타국 함대들이 제공한 다양한 작전요소를 들 수 있다.

적 함대, 상업 및 여객선에 대한 해상차단작전은 전구 내 해양통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적의 지속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의 해양 전략가 킬 교수는 이를 적의 중심으로 직접 접근하는 결정적 작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연안지역에서 수행하는 해상작전절차는 걸프전 초기단계에서 나타난 해상상황과 유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의 교훈을 수용하여, 해상차단작전의 개념과 정의를 정립하고, 관련 주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1990년 걸프전쟁, 해상차단작전, 제13해병원정부대,
제4해병원정여단, 해군력 견제

(원고투고일 : 2021. 3. 30,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서론

2020년 12월 17일 미 해군, 해병대, 연안경비대 등 3군은 21세기의 새로운 전략인 「바다에서의 이점: 통합된 전 영역 해군력을 이용한 지배(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간 통항의 자유 경쟁과 러시아와의 해양통제권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다.¹⁾ 이를 위해 해군, 해병대의 역량보다 연안경비대가 가진 해양법 집행, 어업보호, 해양안전, 그리고 해양안보 등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해양전략의 흐름이 해양통제와 거부중심에서 평시 해양이익 보호와 전시 상대국에 대한 해양에서의 견제 중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콜벳(Julian Corbett) 등의 해양 전략가들은 핵시대에는 고비용 전력인 해군력을 직접 사용하는 함대함 결전 회피가 당연하며, 제2차 세계대전 및 그 이전시대와 달리 강한 해군력을 사용한 힘의 대결만으로 어느 한 국가가 국제정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콜벳은 자신의 저서에서 군사력은 확고한 전략적 조합을 이루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승리는 함대함 결전보다는 분산을 통해 위험을 감수할 때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²⁾ 여기서 우리는 전략적 조합의 의미

1) An integrated US Navy, Marine Corps and Coast Guard Team, *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December 2020), pp.1~2.

2) Julian S.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918), p.134.

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현대전에서 합동전을 강조하지만, 각 군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가장 빛나는 주공으로 적 주력 분쇄, 목표 탈취 등의 피지원(Supported) 부대의 역할을 추구하지, 타군이나 부대의 승리를 위한 지원(Supporting)의 역할은 크게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합동성이 강조되는 미국군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1991년 1월 17일 시작된 ‘사막의 폭풍작전’ 시, 미 해병대의 신속한 기동으로 인해 이라크공화국 수비대가 조기에 철수함으로써, 슈워츠코프(Norman Schwarzkopf) 사령관이 설정한 최종목표 중 하나인 수비대 격멸에 실패한 것이다.³⁾ 여기에서 보듯이 공명심에 앞서 합동작전 시 각 군 혹은 부대의 임무를 잇는다면, 비록 승리하더라도 총합적 이익 달성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전시에는 적진으로 상륙돌격을 실시하고 평시에는 즉응대기태세를 유지, 다목적 신속 대응부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990년대 걸프전 시 미 해병대 제13해병원정부대(MEU)와 제4해병원정여단(MEB)⁴⁾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3) 당시 슈워츠코프 사령관이 설정한 목표는 첫째, 이라크의 정치 및 군사 리더십 타격, 둘째, 다국적군의 제공권 확보 및 유지, 셋째, 이라크 군 병참선 차단 및 차후 작전 지장 초래, 마지막으로 이라크군 주력인 공화국 수비대 파괴 등이었다. 미 해병대의 결정적 실수는 2월 24일 새벽 지상전이 개시되자 주공인 육군의 제7군단과 조공인 해병 2개 사단 간에 기동경쟁이 붙으면서 이라크 군에 대한 고착 및 견제에 실패하였다. 나중남, 「공화국 수비대는 격파되었는가?」, 『미국학 논집』, 제45권 2호 (2013), 100~112쪽.

4) 1990년대 미해병대 기동편성은 해병원정부대(Marine Expeditionary Unit: MEU)는 통상 1개 대대상륙단(BLT)과 1개 혼성비행대와 근무지원부대로 기동 편성, 대령 지휘관, 해병원정여단(Marine Expeditionary Brigade: MEB)는 1개 연대상륙단(RLT)과 1개의 임시 비행전대와 여단근무지원단으로 기동 편성, 준장 지휘관, 해병원정군(Marine Expeditionary Force: MEF)은 1개 보병 사단과 1개 비행 사단(또는 수 개의 보병 사단 및 비행 사단) 및 상륙군 근무 지원단으로 편성되며 통상 중장급 지휘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여기에 특수훈련 수행이 가능한 해병원정부대에는 특수작전수행기능(Special Operation Capable)을 명시하여, MEU(SOC)

기만을 통해 상륙돌격 가능성을 보여주어 이라크 군을 기만함으로써, 이라크-쿠웨이트 남쪽에서 이라크 군 3개 사단을 고착한 것이다. 둘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군과 함께 해상봉쇄작전에 참가하여, 적의 작전지속지원 역량 악화에 기여한 것이다. 이 중 두 번째 임무에 참가한 미 해병대의 활동은 전체적인 해상봉쇄작전의 성공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지만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해양전략의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제13해병원정부대와 제4해병원정여단이 1990년대 걸프전에서 수행한 해상차단작전을 분석함으로써, 전·평시 해양전제전략 수행부대로서의 해병대의 가치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한국군에 필요한 교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본 논문은 해양전략 이론을 이용하여 사례를 분석하는 평가연구방법을, 미 해병대 자체 발간 책자와 미 합참의 의회보고서 등 정부와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 기고문, 논평 등의 자료들을 분석 및 평가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해군력 운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전·평시 해군의 과업

해군력의 공격, 방어, 혹은 차단 등의 전시 사용보다 평화적 상업활동과 무역에 대한 기여, 즉 전략적 해상교통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는 해양전략 이론의 선구자인 마한(A. T.

Mahan)이다. 그는 자유로운 해상교통로 사용 보장이 해안에 투입된 군과 함대의 안전보다는 상업 활동이나 물자 및 장비의 해상수송을 통한 국가 전쟁지속능력 확보에 직결된다고 보았다.⁵⁾ 그의 이러한 사상은 해양전략을 해군력에 국한해서 논하지 않고, 국가 대전략의 한 수단으로 간주, 해군력 발전과 보유의 목표를 국가 번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마한의 사상은 콜벳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어, 해군력의 집중과 분산운용, 지상군과의 관계 측면에서 다소 상이하지만, ‘해양통제’,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개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⁶⁾ 이러한 해양전략의 본질적 특성은 냉전과 핵시대를 거치며 해군력을 이용한 전투보다는 정치적 역할, 국내적 기능, 외교적 수단 등 추상적인 분야로 발전되거나, 해군력이 약한 대륙세력과 강한 해양세력간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발전은 미약하였다.⁷⁾

역사적으로 보면, 1588년 7월의 영국 해군과 스페인 무적함대 아르마다 간 전투, 1905년 5월 러일전쟁 시 쓰시마 해협에서의 일본 해군과 러시아 발틱함대 간 전투, 1942년 6월 미·일 간의 미드웨이 해전 등 해군력 파괴 자체가 양국 간 균형을 무너뜨린 사례가 있었다. 이와 반대로 해전 역사상, 대부분의 해전은 함대 간 결전보다는 상대편 해군전투력 저하를 위해 견제나 무력화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나아가 현대 전쟁에서 해·공군이 중요하지

5) Allan Westcott (ed.), *Mahan on Naval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Rear Admiral Alfred T. Mahan*(Mineola, NY: Dover Publications, 1999), pp. 75~78.

6) Eric Grove, “Introduction for Julian S.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John B. Hattendorf & Wayne P. Hughes(eds.), *Classics of Sea Power*(Annapolis, ML: the US Naval Institute, 1988), pp. xi~xiv.

7)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Twenty-First Century”, Geoffrey Till(ed.), *Seapower: Theory and Practice*(Portland, Oregon: Frank Cass, 1994), pp.179~197.

만, 전쟁의 승패는 인류가 생활하고 있는 지상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피지원부대로서 전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지상군 지원역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전략을 논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위에서 언급한 콜벳이다. 그는 전쟁계획 수립 시 지상군과 해군의 상호관계 속에서 해양전략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⁸⁾ 그러나 그의 사고는 해양전략을 지상군과의 관계 속에 함대가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해군전략을 함대의 기동으로 정의함으로써, 요즘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전략과 작전술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냉전의 종식은 군사력의 미래 속성과 사용방법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해양 전략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탈냉전시대 군사력은 클라우제비츠 학파가 주장하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위정자나 군사지휘관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을 넘어, 21세기 안보위협요인인 반란, 전복, 테러리즘, 평화유지, 인도적 지원작전 등을 수행하여 적과 시설을 파괴하는 원초적 폭력과는 달리 소요를 관리하는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영국의 해양전략가 킬(Geoffrey Till)교수는 <표 1>과 같이 해군의 과업을 정의하였다.

우리는 <표 1>을 통해 강도측면에서 강한 적과의 전쟁부터 평시 수행하는 해양질서유지까지 과업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지만, 발생 빈도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과업 간의 경계선은 모호하며, 위협에 따라 해양에서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 이들 과업들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지속될 수 있다. 해군력은 해안에서의 상황이 아축에 우호적이면 방관

8) 그는 해군의 지상군 지원 역할을 강조하면서, 양 군 간의 임무나 역할 분담이 완료되거나 되기 이전에, 해군함대는 지상군과의 관계 정립에 필요한 기능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Julian S. Corbett(1918), p.12.

자가 될 수 있고, 적대적 혹은 갈등상황이 되면 검투사가 되어 적진으로 돌격하거나 증원하여야 한다.⁹⁾

〈표 1〉 해군의 수행과업 영역

구 분	주요 영역	강 도	빈 도
전쟁 수행	강한 주적과의 전쟁 약한 적과의 전쟁	↕ High	↕ Lo
해군력 외교	강압(안정위협세력 억제) 동맹구축 국제 해양지원(평화유지)	↕ Low	↕ High
해양 질서 유지			

* 출처: Geoffrey Till, *SeaPower: Theory and Practice*(Portland, Oregon: Frank Cass, 1994), p.180.

예를 들어, 틸 교수가 구분한 해군의 외교적 과업인 해양 강압의 경우 적에 대한 수출입 통제 등 경제적 제재는 전쟁 선포 이전 혹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며, 동맹구축 역시 전쟁 상황의 전개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동맹 혹은 적으로 전쟁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더 나아가 국제적 해양지원과업은 강압, 동맹구축 과업에 속하는 정전 혹은 통상금지 감시, 군사력 분산 유도, 기뢰제거 뿐만 아니라 상업용 선박 보호, 인도적 지원 촉진 및 방호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해군의 과업은 전·평시뿐만 아니라 안보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 작전술 차원에서 해군의 독자적인 작전보다 지상군과의 협력 혹은 지원 중시 사상의 연장선에서 정립된 것이 해군력을 이용한 적에 대한 견제(Containment)이다. 이러한 견제 작전은 적 함대가 너무 강하여 결정적 행동(결전)으로도 파괴할 수 없거나 아군의 함대가 특정 지역에 충분한 현시를 이루지 못

9) Geoffrey Till(1994), pp.180~181.

했을 때, 적 해군이나 연안에 배치된 지상군에 대해 실시될 수 있다. 미 해대원에서 작전학을 강의하고 있는 밀란 비고(Milan Vego)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적 해군력 사용제한에 목표를 두고 실시하는 적 해군력 견제방법을 크게 해군봉쇄(Naval Blockade), 결정적 지점/지역에 대한 위협(Posing a threat to critical positions/areas), 전략적 전환(Strategic Diversions)으로 나누고 있다(〈표 2〉 참조).¹⁰⁾

〈표 2〉 적 해군력 견제 영역별 방법, 형태, 조건

구분	목 표	방 법/형 태	유리한 조건
해군 봉쇄	적 해군력 사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 해군 고착 ◆ 적의 기지 ◆ 이탈 시 파괴 위험 - 대상: 해군기지/ 항구, 적 해안선 전체 - 형태: 원, 중, 근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 봉쇄/기지 점령 - 피 봉쇄군보다 25-33% 전력우세 필요 - 강자 수행
결정적 지점/지역위협	지역방어 전력전개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 ◆ 적 해군력 고착 ◆ 적 주력은 중요하지 않은 지역방어에 투입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 해안선에 대한 상륙기습 작전 실시 - 강자 혹은 약자 수행
전략적 전환	상대적 전투력 우세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을 중요하지 않은 전장에 전투력 집중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자가 수행 (강자도 가능)

* 출처: Milan Vego, *Maritime Strategy and Sea Control*(New York: Routledge, 2016), pp.156~179.

적에 대한 견제는 강자가 해양통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견제와 적에 대한 결정적 행동을 결합한다면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견제 방법 중 두 번째 결정적 지점 및 지역 위협은 해병대의 기능인 대규모 상륙돌격과 기습을 활

10) Milan Vego, *Maritime Strategy and Sea Control*(New York: Routledge, 2016), p.156.

용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해병대의 세력투사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 걸프전에서 미 해병대는 이뿐만 아니라 본 논문의 핵심주제인 해군봉쇄 작전의 한 형태인 상업적 봉쇄(Commercial blockade) 과업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론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해군력에 의한 봉쇄와 관련된 법적인 조치는 1856년 4월의 파리선언문에 이어, 1909년 런던회의에서 전함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전쟁과 무관한 상선들의 진출입 허용, 봉쇄 유효시간 및 지역 설정, 중립국 상선이탈 시간, 봉쇄책임기관 및 조직 등을 명시토록 하는 등 총 21개의 세부 조항으로 정의되어 있다.¹¹⁾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중립국들의 반대의견 등을 수용하여, 합법적 봉쇄를 위해 적절한 지역 설정, 정확한 경고, 효과적 집행, 공정성, 중립국의 권위 보장 등의 일반적 원칙으로 재정리되었다.¹²⁾ 이는 법적인 측면이고, 카스텍스(Raoul Castex)에 따르면 적 해군력에 대한 봉쇄와 전시 적의 상업적 해상운송 봉쇄와의 경계선은 둘 중 하나를 설정하면 그것은 다른 것의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며, 전시 상황에서는 거의 동시 병행적으로 수행된다고 한다.¹³⁾

대신 양자 간의 차이점은 목표에 있는데, 해군봉쇄가 해양통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인 반면에 상업적 봉쇄는 주어진 전역과 해양에서 적의 상업적 운송을 방해하고 차단함으로써 적의 경제적 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걸프전 당시 미 해병대가 참가한 상업적 봉쇄는 해군봉쇄를 위해 준비하고 정한 법, 원칙, 실행방법이 그대로 준용되었다. 이러한

11) Wolff Heintschel von Heinegg, "Naval Blockade", *International Law across the Spectrum of Conflict*(The US Naval War College, 2000), pp.208~209.

12) Michael G. Fraunces, "The International Law of Blockade: New Guiding Principles in Contemporary State Practice", *The Yale Law Journal*, Vol. 101, No. 4(January 1992), p.895.

13) Milan Vego(2016), p.157.

봉쇄작전 수행을 위해, 미 해군은 작전의 목적을 “적 영토로부터 혹은 영토 안으로 병력이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적 및 중립국 함정·항공기들의 이용을 거부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작전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 설치(establishment), 고지(notification), 효과성(effectiveness), 공정성(impartiality), 제한성(limitation) 등을 제시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작전수행 지침은 명확히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각 국가마다 대원칙은 유사하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개념은 냉전시대 이후 미국이 실시한 작전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쿠바 미사일 위기 시 소련 함정들의 쿠바 진입을 막는데 목적을 둔 작전은 봉쇄(Blockade)개념 보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확전을 피하려는 의지와 제한된 작전수행에 목적을 두고 해양차단(Maritime Quarantine)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¹⁵⁾ 반면에 이번 걸프전 시는 영어 사전의 의미에 어떤 특정 목적지로 향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중지시키거나 탈취하는 개념(the action of stopping and catching something

14) The US Department of Navy, *NWP 1-14M: The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July 2007), pp.7-9-7-10.

15) Herald-Sun, “1962: A Naval Quarantine of Cuba ordered by President John F. Kennedy,” *News Article*, October 24, 2013. 이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는 사용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해상봉쇄(Blockade)는 1856년 4월 16일의 파리선언문과 1909년 런던회의에서 정의되었으며, 전함을 대상으로 하되, 전쟁과 무관한 상선들의 진출입 허용, 봉쇄 유효시간 및 지역설정 등 총 21개 세부 조항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차단(Quarantine)은 쿠바 미사일 위기 시부터 사용된 용어로 로버트슨(John W. Robertson)은 이를 평화적 봉쇄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명시된 국가들의 선박이 봉쇄된 연안의 특정지역으로 출·입할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평시 해군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John W. Robertson, “Blockade to Quarantine in International Law”, *Jag Journal* (June 1963), p. 90. 이와 유사한 용어로 해상 저지(maritime stop)가 있는데, 이는 주로 PSI(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작전 시 사용되며, 전 평시 구분 없이 어떤 특정한 물자나 장비가 특정지역으로 입항 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or someone before that thing or person is able to reach a particular place)이 포함된 해상차단작전(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⁶⁾

이런 차단의 개념은 한국합동참모본부에서 발행한 군사용어사전에는 공군의 요격작전으로만 명시되어 있지 해군관련 작전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¹⁷⁾ 반면 한국 해군은 2010년 미 국방부 군사용어사전을 번역 배포하면서 이 개념을 유엔의 승인하게 실시하는 작전으로 명시하였다.¹⁸⁾ 이후 2017년에 해군·해병대군사용어 사전을 발행하면서 개념을 더욱 구체화시켜 “적성국가에 대하여 국제적 제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출입 선박에 대한 위치 확인, 식별 및 추적, 정선, 검색, 항로변경 또는 나포 등을 실시하는 작전”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⁹⁾ 이처럼 한국군 내 해상차단작전은 우리 군이 언젠가 실행 가능한 작전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미국 등에서 시행한 작전을 소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3. 걸프전 시 해상차단작전

가. 걸프전쟁 개요

걸프전쟁(The Gulf War)은 1990년 8월 2일부터 1991년 2월

16) Cambridge Dictionary, “Interception”, <https://dictionary.cambridge.org> (검색일: 2021. 8. 16).

17) 합동참모본부, 『군사용어사전』 <https://www.jcs.mil.kr> (검색일: 2021. 8. 16).

18) 해군본부, 『미국 전술도서 '09-17: 미국방부 군사용어사전 해군부록』 (국군인쇄창, 2010), p. 449.

19) 해군본부, 『해군 해병대 참고교범1: 해군·해병대군사용어사전』 (2017), pp. 101-102.

28일까지 이라크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Coalition Force)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8월 2일 01:00시에 이라크공화국수비대 예하 3개 사단, 특수작전부대(공정부대), 코만도 부대 등이 쿠웨이트 국경을 돌파, 쿠웨이트 시와 다스만(Dasman) 궁을 점령하였다. 이에 쿠웨이트 자베르 3세 국왕과 왕족, 행정부 수반들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였으며, 쿠웨이트 군은 이라크 군에 무기력하였다. 8월 6일까지 이라크군 11개 사단 20여만 명과, 전차 2,000 여대 등이 쿠웨이트 영토 내로 진입하였으며, 이틀 후인 8월 8일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지역으로 복속시켜 합병을 선언하였다.²⁰⁾

이에 부시 미국 대통령은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선포하고, 이라크군의 즉각적인 철수, 쿠웨이트 법적 정부 회복, 사우디아라비아와 페르시안 걸프 만의 안보와 안정, 해외 거주 미국인의 안전과 방호 등 4개항을 요구하였다.²¹⁾ 동시에 인디펜던스와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을 걸프지역으로 급파하는 등 군사력을 걸프지역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유엔안보리 역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응, 6·25전쟁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집단안보 조치를 발동하고, 8월 2일 쿠웨이트 침공을 비난하는 안보리 결의안(660호)부터 이라크 무역제재

20) 당시 자료를 보면, 쿠웨이트는 이라크 사담후세인의 7월 17일 연설(쿠웨이트가 석유 생산량 통제 미 준수 및 그로 인한 유가하락 조장)을 통해 침공가능성을 인지하고 최상의 경계태세로 상향하였으나 일주일 후 이라크와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태세를 완화시켰다고 한다. 또한 실제 이라크 군의 이동이 시작된 8월 1일 1600시에 쿠웨이트 국경경비대가 방어대응지침을 요청하자 정부는 “이라크를 자극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쿠웨이트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는 8월 1일 까지 쿠웨이트 황태자 사이드가 이라크와 가진 회담의 결과를 낙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정석 역, 『The Gulf War 걸프전쟁: 역사적 배경과 전쟁수행을 중심으로』 (서울: 연경문화사, 2002), 160~165쪽.

21) The US Defense of Department(DoD), *Final Report to Congress: Conduct of the Persian Gulf War*(April 1992), p.38.

결의안(661호), 무력 사용 결의안(687호) 등 13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미국의 동맹 및 다국적군의 군사행동을 지원하였다.²²⁾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미국, 동맹국 및 다국적군은 군사력 축적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막의 방패작전(Operation Desert Shield)’을 실시하다가, 11월 29일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678호에 의거²³⁾ 1991년 1월 16일부터 ‘사막의 폭풍작전(Operation Desert Storm)’으로 전환하여, 침공한 이라크 군을 몰아내고 쿠웨이트의 독립을 회복하였다.

나. 다국적군

미국과 다국적군에 의한 대 이라크 해상차단작전(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s)²⁴⁾은 1990년 8월 6일 발표된 유엔결의안 661호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었다. 안보리의 결의안 제3항은 이라크와 쿠웨이트 영토 내로 수입금지, 상품과 재화의 교역금지, 이라크 국적 선박에 의한 의료, 인도적 지원 목적을 제외한 무기 및 군사용 장비를 포함한 상품의 판매 및 공급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²⁵⁾ 미 중부사령관 슈워츠코프 대장은 유엔현장 제51조(개별 및 집단적 자위권)와 안보리 결의안 661호에 근거를 두고, 8월 17일부터 해상차단작전을 실시한다고 공표하였다. 하지만 유엔은 작전 실시를 위한 표준화된 작전수행절차(Standard Operating

22) 김성훈, “91년 걸프전과 달라진 점은,” 『문화일보』 (2003. 3. 21일 최종수정).

23) 1991년 1월 15일까지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회원국들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몰아낼 수 있도록 허용. UNSC, “Resolution 678”, <https://undocs.org/S/RES/678> (검색일: 2021. 2. 24).

24) 걸프전 당시는 냉전이 막 끝난 시점이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업용 선박에 대한 해양전략 차원의 이론적 정의가 없어, 미 국방성에서 구분한 해상차단작전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25) UNSC, “Resolution 661”, [https://undocs.org/S/RES/661\(1990\)](https://undocs.org/S/RES/661(1990)) (검색일: 2021. 2. 24).

Procedures:SOP)와 작전지역을 명시하지 않아, 중부사령관은 이라크와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요르단 항구로 진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차단작전을 실시하도록 명하였다. 이후 중부사령부 해군구성군사령부(Naval Forces Component, Central Command: NAVCENT)는 중동군사령관(Commander, Middle East Force: 이하 CMEF)에게 해상차단작전 계획, 협조, 실행을 지시하였다. 이에 CMEF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작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안보목표에 부합하게 역내 지역에서 이라크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교역로를 감시하기 위해 가용한 미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둘째, 최대한 국제해상 교역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수용된 법적 원칙에 기초하여 실시한다.²⁶⁾

이 작전에 군사력 사용 권한을 부여한 것은 1990년 8월 25일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665호로, 유엔안보리가 이라크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선박의 적재물품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걸프 만 배치 다국적군 해군에게 부여하였다.²⁷⁾ 이러한 유엔의 조치는 쿠웨이트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요청에 의거, 대이라크 경제제재를 위한 것으로 1990년 8월 2일부터 사막의 폭풍작전이 종료된 1991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였다.

쿠웨이트 침공 당시 이라크 상선대는 약 140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중 유조선(Tanker) 20척, 로로선(Role-on/roll off)

26) The US DoD(April 1992), p.62.

27) UNSC, "Resolution 665", [https://undocs.org/S/RES/665\(1990\)](https://undocs.org/S/RES/665(1990)) (검색일: 2021. 2. 24).

3척, 화물선 19척 등 총 42척 만이 원해 화물수송이 가능하였다.²⁸⁾ 또한 해운을 위한 주요 항구는 이라크의 움 카스르(Umm Qasr)와 주바이르(Khawar Az-Zubayr)와 요르단의 알 아카바(Al-Aqabah) 정도였다. 이중 아카바항에서는 이라크로 화물 육로 운송이 가능하였다. 쿠웨이트 침공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로 연결되는 송유관은 폐쇄되어, 이라크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항구는 걸프만 내 알 바크르(Al-Bakr)항이 유일하였다. 알 아카바항을 통한 해상운송과 항공 및 육로 운송이 가능한 아즈 자르카(Az-Zarqa) 요르단 자유무역지대로 인해 초기 해상 차단작전 실시 간 다소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²⁹⁾ 즉, 해상차단작전의 대상인 이라크 상선대와 항구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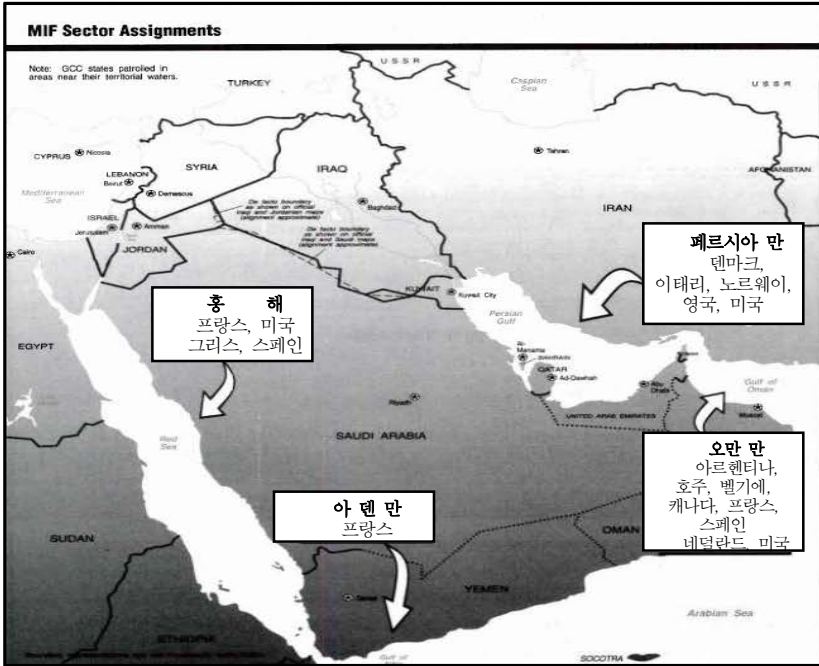
유엔 결의안 661호와 665호가 통과된 후, 중부사령관은 해군 구성군사령관에게 전체적인 해상차단작전 협조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해군구성군사령관은 작전에 참가한 각 국의 대표들과 주기적인 협조회의를 주관하게 되었다. 9월 5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 해군구성군사령관은 각국 해군들의 작전 영역을 할당하고, 각 영역에는 해안 사정에 밝은 걸프협력위원회(The 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 해군 선임장교와 최소 1개국 이상으로 구성된 해군 함정들을 배치하였다(〈그림 1〉 참조).³⁰⁾

28) The US DoD(April 1992), p.63.

29) 이런 자유무역지대는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제3세계 국가들의 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건설한 곳으로 법적으로 안전을 보장받는다. 그런데, 아즈 자르카 자유무역지대는 이라크로 향하는 화물들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제재의 대상인지가 불명확하였다. 논란 속에 이 지대를 거치는 선박들은 목적지와 적재물품 목록을 정확히 제시하도록 요구되었고, 적성으로 판명되지 않는 선박은 정상 운항되었다. The US DoD(April 1992), p.63.

30) The US DoD(April 1992), p.65.

〈그림 1〉 참가국별 해상차단작전구역도



이러한 작전계획에 의거, 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들은 해상 차단군을 회피하여 자국 연안으로 기동하는 상업용 선박 등을 감시함으로써, 검색을 받지 않은 선박들의 항해를 원천 차단하였다. 이들 회원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그리고 미국 등 총 13개국에서 함정을 파견하였으며, 사막의 방패 작전과 폭풍 작전 수행 기간 동안 총 22개국이 항모전투단부터 항구 군수시설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전력과 장비, 예산을 투입하여 해상차단작전에 참가하였다.³¹⁾

31) The US DoD(April 1992), pp.64~65.

작전수행절차는 아래와 같다.³²⁾ 먼저, 공해상이나 해당 작전지역에서 이라크 국적선박이나 이라크나 쿠웨이트 등으로 향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목적지, 출항지, 선적, 적재물품 등에 관한 구두 질의응답을 통해 유엔 제재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유엔 제재 대상 선박으로 의심되면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직접 확인한다. 이때 금지물품을 선적한 것이 확인되면, 선박의 목적지를 이라크 및 쿠웨이트 이외의 지역으로 전환시킨다. 만약 해당 선박에서 검색 요원 승선을 방해하면 경고사격을 실시하고, 저항하면 헬기 등을 이용해 전투력을 강제 진입시켜 선박을 장악 및 통제한다. 이와 같은 작전절차는 전술원칙이나 일반 선박 검색절차와 유사하다. 대신에 함정과 진입요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두 척 이상의 함정이 참가하여, 한 척의 검색요원이 승선하여 검색하는 동안, 다른 한 척은 인근에 대기하면서 비상상황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검색절차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획득,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역할을 수행한 부대는 미해군작전정보센터(The Naval Operational Intelligence Center)로, 이라크와 관련된 상업용 선박들의 제원과 검색 체크리스트를 검색 팀에 적시 제공함으로써, 작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³³⁾ 이와 더불어 미 연안경비대 법집행분견대(Law Enforcement Detachment)가 가진 마약 등 약물류 검색 경험과 선박 진입절차, 역량 그리고 다양한 지원 장비 등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연안경비대 법집행분견대는 잠재적 적대 선박으로의 승선절차, 소형화기 운용, 밀수꾼들이 숨기는 방법, 선박관련 서류와 해양법의 복잡성 등을 해군 검색요원들에게 교육하였다.³⁴⁾ 그러면서도 중부사 해군구성군사령관은 각국 함정의 함장들에게

32) The US DoD(April 1992), pp.66~67.

33) The US DoD(April 1992), p.67.

34) The US DoD(April 1992), pp.67~68.

독단적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해 주었다. 이는 이라크 선박들이 검색을 회피하고 물품을 속이기 위해 전혀 다른 잘못된 선박 제원과 적재목록을 제시하거나, 제재 물품을 상상하기 어려운 곳에 숨기기도 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독단적인 작전수행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³⁵⁾

걸프전쟁 기간 동안 19개국 165척의 함정이 적 상업용 선박에 대한 해상차단작전을 실시하여, 구두 검색 7,500척 이상³⁶⁾, 승선 육안 검색 964척, 사우디아라비아 항구 등 타 지역으로 전환 51척, 경고사격 11회, 저항 선박 강제진입 11회 등을 수행하였다. 작전 수행결과 100만 톤 이상의 화물이 이라크 및 쿠웨이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어 이라크의 잠재적 전쟁 수행 역량에 막대한 제한을 가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를 통해 연결된 송유관이 막힌 상태에서 타국 선박들을 이용한 이라크 원유 수출도 금지시킴으로써, 이라크 재정 수입을 전쟁 이전보다 95%감소시켜, 국가 신용도를 극도로 하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³⁷⁾

다. 미 해병대

전시 혹은 평화 시에 적이나 적성 국가를 지원하는 선박 차단

35) 작전수행절차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선박에 대하여 어떻게 질의하고, 또 획득된 제원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함, 헬기, 해상초계기, 전술항공기들은 상선의 제원(출항지, 기항지, 그리고 화물적재목록 등)을 무선으로 질의하였으며, 상선에서 응답된 내용들은 영상, 무선,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공식 적재기록 등과의 검토를 거쳐, 추가적인 협조된 대응방법을 결정하였다. The US DoD(April 1992), pp.67~72.

36) 특히 미국 해군의 P-3 Orion, 영국 해군의 Nimrod, 프랑스 해군의 Atlantique 등은 페르시아 걸프만과 홍해 등에 걸쳐 약 25만 평방마일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해상초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사막의 방패 작전기간 동안에만 6,300척 이상에 대한 차단작전실시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37) The US DoD(April 1992), pp.76~77.

작전을 통하여 적의 전력이나 전쟁 잠재력 약화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평화 시에는 다양한 국제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군 임무를, 전시에는 바다로부터 적 해안으로 돌격하여 상륙작전 혹은 강제진입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가 이러한 임무에 투입된다는 것은 해병대가 가진 존재가치, 역할, 기능과는 다소 부적합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군은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의 합동성 강화 필요성을 절감, 1947년에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1953년과 1958년에 국방재조직법(Defense Reorganization Act) 등을 입안하였으나, 각군의 자군 이기주의로 합동성 발휘가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조직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점을 인식한 미국은 1986년에 골드워터-니콜스법(Goldwater-Nichols Act)을 제정, 육·해·공군의 합동전투력 발휘를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군은 전·평시 활동에서 합동화된 최소의 전력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였다.³⁸⁾

이후 제정된 미 국방성 지시 문서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의 기능은 적 해군력 파괴 등 해군과 혹은 해병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 기능과 합동상륙작전이나 타 합동작전 수행 시 가능한 보조 기능, 적 군사력 차단 등 해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전력이 수행할 수 있는 추가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 해군과 해병대의 주 기능을 적 해군력 파괴, 적의 해상활동 억제(Suppress), 해상 우세권 획득 및 유지, 결정적 해양지역 통제, 해상교통로 보호, 지역적 우세 확보 및 유지, 해외 전진기지 방호, 해군 전역 추진에 필수적인 지상, 공중, 우주작전 수행으로 명시, 적의 해상활동 억제(상업활동 방해)가 주 기능 중 두 번째 순위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³⁹⁾ 그러나 2010년 개정

38) The 99th US Congress, *Public Law 99-433: An ACT*(October 1, 1986).

된 각 군별 기능에 의하면, 미 해군의 두 번째 기능순위에 적에 대한 명시는 없이 역량 차단(Interdiction)과 저지(Interception)가, 미 해병대 일곱 번째 기능에 해군 함정에 분견대와 부대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⁴⁰⁾

이를 기초로 보면, 2002년 합동성에 근거하여 각 군종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으나, 2010년에 이르러 유연하게 정의함으로써, 군별 기능에 융통성을 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적의 전투잠재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상업활동 차단은 해군의 주 임무이며, 이를 위해 미 해병대는 분견대 등을 파견, 해군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적 해상 상업활동 차단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근거가 미 국방성 지시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적의 해양상업 활동 차단 및 저지를 위한 법률이나 규정 제정은 늦었지만, 적 항구나 연안에 대한 병력 및 물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적 상선이나 함정에 대한 해상봉쇄 작전을 실시한 사례는 걸프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⁴¹⁾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추가 침공으로부터 아라비아 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승인하였다. 이에 8월 7일 당시 체니(Richard B. Cheney) 국방장관은 합참의장 파월(Colin L. Powell)을 통해 사막의 방패작전 개시를 명하였

39)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5100.1*(August 1, 2002), pp.19~20.

40)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5100.1*(December 21, 2010), p.37. 이후 미 국방성, 각 군, 정의 기능을 명시한 서류는 없으므로, 이 문서가 각 군의 기능을 정의한 최종 문서로 보임.

41) 걸프전 이후 실시된 해상차단작전으로는 유고슬라비아(1992-1996), 하이타이(1993-1996), 시에라리온(1997-2010), 레바논(2006~), 리비아(2011~2016) 등이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제1·2차 세계대전 시 독일이 U-보트를 활용한 연합군 상선 공격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Martin Fink, *Maritime Interception and the Law of Naval Operations: A Study of Legal Bases and Legal Regimes in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s*(Berlin, Acid-free paper, 2018), pp.33~56.

다. 이에 미 해병대사령관은 캘리포니아 제1원정군(1st MEF), 하와이 제1해병원정여단(1st MEB), 동부 해안 제4해병 원정여단(4th MEB),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Mojave Desert) 제7해병원정여단(7th MEB) 등에 출전준비를 명하였다.⁴²⁾ 동시에 서태평양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미 7함대 상륙준비단(Amphibious Ready Group) A, 제13해병원정부대(특수작전가능) [13th MEU (SOC)]에도 준비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대는 페르시아만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막의 방패작전 기간 중 최초로 수립된 사막의 방패 상륙작전 명령(Desert Shield Amphibious Operations Order) 90-1은 부대가 전개하기 이전인 8월 31일에 하달되었으며, 해상대기 상륙군인 제13해병원정부대와 제4해병원정여단은 작전지역으로 전개와 동시에 중부사령관 슈워츠코프 지시를 수행하는 전구예비로 지정되어, 이라크 군에 대한 시위(Demonstration)를 실시하는 것이었다.⁴³⁾ 그러나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거주하던 12,000 여명의 서방인들 이주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상륙군의 임무는 전통적인 상륙작전과 양동에 추가하여 기습, 비전투원후송작전(NEO), 소규모 부대에 의한 시위 등으로 확대되었고, 상륙작전 지역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그림 2> 참조).⁴⁴⁾ 이중 3구역(AREA III)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항

42) Ronald J. Brown, *Marines in the Persian Gulf, 1990-1991 with Marine Forces Afloat in Desert Shield and Desert Storm*(History and Museums Division HQs, USMC: Washington, D.C.: 1998), p.1.

43) 사막의 방패 작전 시인 9월 13일에 제13해병원정부대, 제4해병원정여단 외에도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위기대응해병공기동부대(Contingency MAGTF) 6-90과 태평양함대의 상륙준비단(Amphibious Ready Group) B로 구성된 제4연대상륙단(Regimental Landing Team: RLT)이 전개하여 제4해병원정여단과 연결하려던 초기 계획은 취소되고, 바로 중부사해병구성군사 예하로 편성되어 제1해병원정군(1MEF) 후방경계임무에 투입되었다. Ronald J. Brown(1998), p.39.

44) 1구역은 중립지대로 쿠웨이트 남부 Mina Saud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Ras Al

구와 연안 도시지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미 해병대에 의한 해상차단작전이 주로 실시된 지역이다.

〈그림 2〉 사막의 방패작전 시 상륙지역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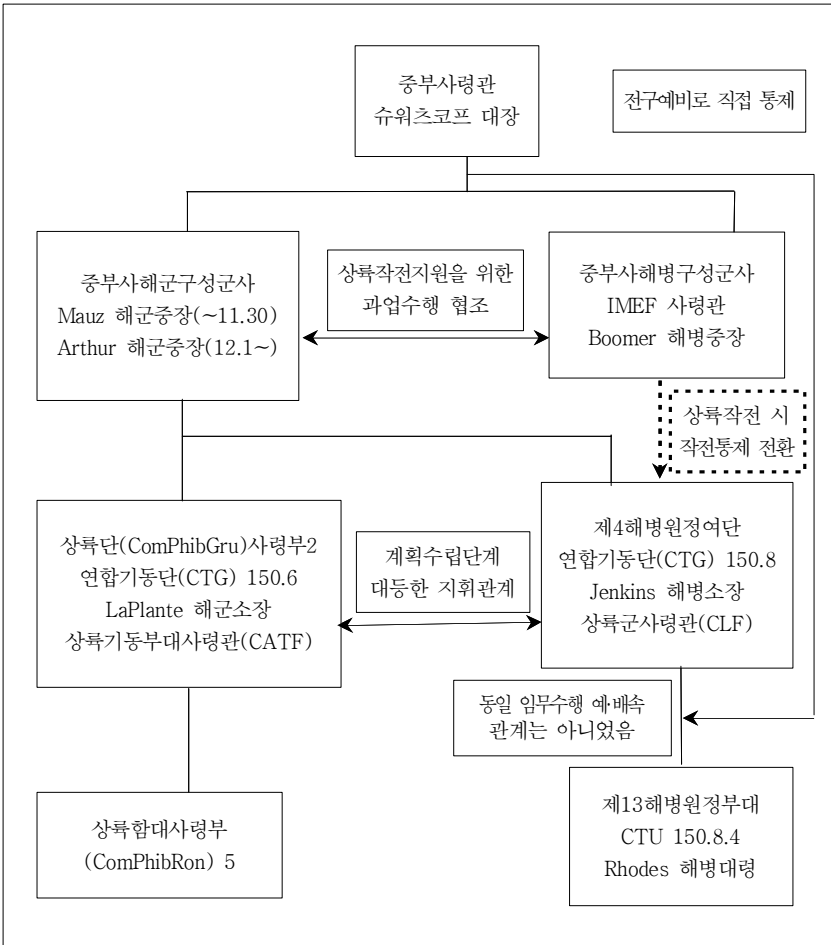
미 해병부대의 해상차단작전 참가는 1990년 10월 초 페르시아만에서 이라크 선박 *Al Wasitti*와 *Tadmur*가 다국적군 해군조사팀의 승선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함정을 통제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한 진입부대 투입이 필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 중부사해군구성군사령관 마우즈(Mauz)는 상륙기동부대사령관 라플란테(LaPlante) 해군소장과 상륙군사령관 젠킨스(Jenkins) 해병소장에게 MEU(SOC)의 헬기해상차단부대(Heliborne Maritime Interdiction Force: HMIF) 투입을 요청하였다.⁴⁵⁾ 그 결과 우선 제13해병원정부대가 즉시 작전에 투입되고, 그 후 제4해병원정여단이 대체 투입되었다. 당시 페르시아만에 투입된 부대 간 지휘관계와 이들 두 해

Mishab까지, 2구역은 전투지대로 Mishab부터 Manifah만까지, 3구역은 후방방어지대로 Manifah 만에서부터 Ad Dammam까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Ronald J. Brown(1998), pp.37~39.

45) Ronald J. Brown(1998), p.61.

병부대의 지휘계선 상 위치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⁴⁶⁾

<그림 3> 사막의 방패작전 시(1990.9~12월) 해상대기상륙부대 지휘계통도



46) Ronald J. Brown(1998), p.42를 참조하여 재정리함.

1) 제13해병원정부대

페르시아 해역으로의 이동 준비명령 수령 당시 제13해병원정부대는 서태평양 미 7함대 상륙준비단(ARG) 함정에 탑승하여 작전수행 중이었다. 특히 탈냉전 직후 필리핀에서 시작된 주둔미군철수운동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⁴⁷⁾ 7월 16일 수도 마닐라와 루손섬 전역을 강타한 리히터 지진계 8.4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⁴⁸⁾ 7월 18일부터 일부 요원들을 투입하여 재난구조작전을 실시하고, 미 참가요원들은 잠발레스(Zambales)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중이었다. 8월 7일 페르시아만 파병 준비명령을 접수하였지만, 계획된 일정인 홍콩 항 방문을 위해 8월 13일 수빅항을 출항하였으나 15일 페르시아만으로의 출동명령을 접수하였다. 이에 부대는 20일에 수빅항으로 귀항, 인원과 장비를 보충받고, 22일에 5척의 함정에 탑승하여, 9월 7일 북 아라비아 해에 도착, 중부 사해군구성군사로 작전통제 전환되어 중부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전구 예비로 지정되었다.⁴⁹⁾ 이 부대의 편성은 아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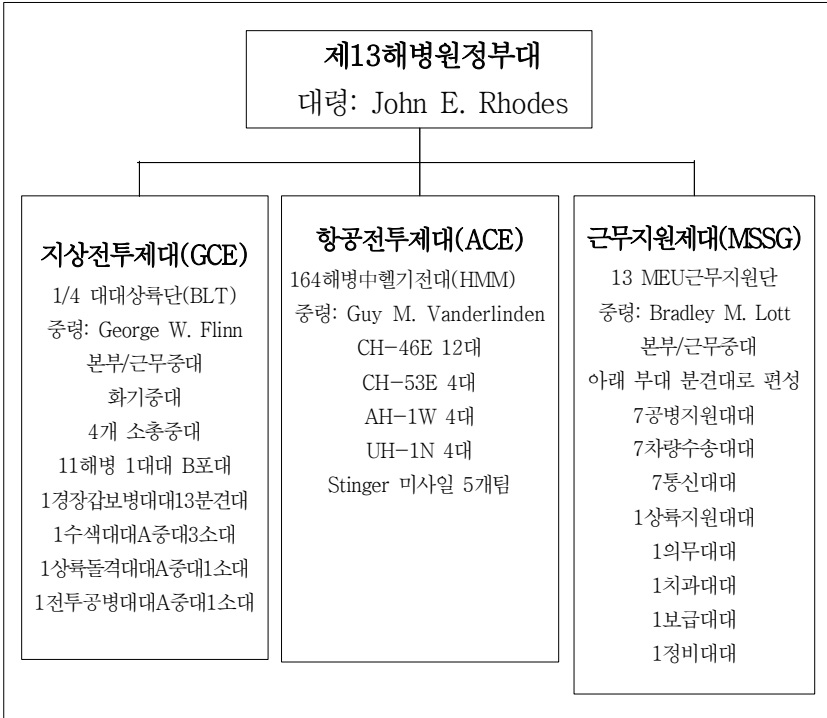
47) 필리핀인들은 탈냉전 후, 주필리핀 미군과 체결한 불평등한 동맹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집단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당시 대통령 아키노(Corazon C. Aquino)이 미국의 원조프로그램 등의 당근책을 내세워 수빅 해군기지에 미군이 10년 체류하도록 개정안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9월 16일 필리핀 상원은 거부하였다. 그 결과 1992년 12월 말 수빅 해군기지 미군은 철수하였음. 권오신, 「군사기지협정(MBA)에서 방문군협정(VFA)으로 미국-필리핀 군사관계의 변화(1945-2014)」, 『미국사연구』 제41호, 2015, 123~124쪽.

48) 연합뉴스, 「필리핀 강진으로 최소한 90명 사망」, 『연합뉴스』 1990년 7월 17일자.

49) Ronald J. Brown(1998), p.16.

50) Ronald J. Brown(1998), pp.13~15를 참고하여 필자가 도식화하였음.

〈그림 4〉 제13 MEU(SOC)의 부대 편성



지상전투제대는 기본 보병대대 편제에 포병, 수색, 공병, 상륙 돌격, 경장갑 등의 전투요소들을 추가 편성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항공전투제대는 항공정찰, 대공전, 돌격지원, 공세적 항공지원, 전자전, 항공기 통제 등 해병항공의 6가지 기능을, 근무지원단은 보급, 정비, 공병, 의료 및 치과, 재료 조작, 수송, 식량, 군사경찰, 재정, 인사근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전투부대의 임무수행 시 적시적인 근접지원이 가능하였다. 해병원정부대(특수임무수행가능)는 임무 수행 후

타 부대와 교대하여, 원부대로 복귀하면, 통상 2단계로 나누어 강도 높은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1단계는 10주 동안 개인 전술전기 및 소부대 훈련을, 2단계는 6주 동안 지휘소 및 합동군 연습 등 참모통합 훈련을 실시하였다.⁵¹⁾ 또한, 모든 해병원정부대(특수임무수행가능)는 약 50여 명의 해군/해병으로 구성된 수중특수임무팀이 편성되었다. 이들은 폭파, 은밀 침투, 감시 및 정찰, 기습, 인질구축, 신속전개, 결정적 행동이 가능하도록 소형함 전투, 스쿠버다이빙, 근접전투, 페스트로프 진입(선회헬기에서 30초 내 10명 레펠 가능) 등의 전투기술을 평소에 숙달하고 있다.⁵²⁾ 이렇게 훈련된 부대이지만, 특수작전부대로는 분류되지 않고, 타 부대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제 13해병원정부대(특수임무수행가능)는 추가 훈련 이수 없이, 다국적 해군이 수행하는 해상차단작전에 투입 가능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부사해군구성군사 사령관 요청에 의거 해상차단에 투입된 제13해병원정부대는 1990년 10월 13일 이라크 선박 *Al Mutanabbi*, 22일 *Al Sahil Al Arabi*, 28일 15,000천톤급 이라크 선박 *Amuriyah* 등 3번의 헬기해상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13일의 작전은 적 선박이 거부하자, 해군 조사를 위한 경계팀과 강제법집행팀을 타 선박으로부터 지원받아 구성된 헬기해상차단부

51) MEU(SOC) 관련 미해병대사령관의 지침은 MCO3120.9에 의거 하달되고 있으며, 부대의 임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Commandant of the Marine Corps, *Marine Corps Order 3120.9 C: Policy for MEU and MEU(SOC)*, HQs of the US Marine Corps (2009. 8. 4) 참고. 2001년 이후 MCO3120.9B에 의거 훈련은 3단계(1단계: 개인전술전기 및 리더십, 2단계: 재래식 및 부대훈련, 3단계: 사전전개훈련)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William Berris · Matthew Ellia · James Fallon · Raymond Kendoll · George Markert · Michael Prosser, "Marine Expeditionary Unit(Special Operation Capable) Relevancy in the Near Term", *Marine Corps University Report*(2005), pp. 62~65.

52) The Free Dictionary, "Marine expeditionary unit (special operations capable)", <https://www.thefreedictionary.com>(검색일: 2021. 3. 20).

대(Heliborne Maritime Interdiction Force: HMIF)가 신속히 페스트로프를 이용 진입하여, 함정의 통제를 획득한 간단한 작전이였다. 하지만, 두 번째 22일 작전은 미 구축함 USS *O'Brien*(DD 975)의 승선 팀과 회항을 약속한 이라크 *Al Sahil Al Arabi*호가 계속 항해하면서 발생하였다. 이에 DD 975에서 경고사격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항해하여 헬기해상차단부대가 미 상륙함 *Ogden*(LPD 5)으로부터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두 번째 진입은 다국적군 해상차단작전절차 정립모델이 되었다.⁵³⁾

세 번째 10월 28일 작전은 더 복잡하였는데, 아덴만에서 쿠웨이트 바스라(Basrah)항으로 향하던 이라크 선박을 오스트레일리아 호위함 HMAS *Darwin*(F 04)이 아라비아 해 오만 연안 마시라(Masirah) 섬에서 접촉하면서, 미 해군 호위함 *Reasoner*(FF 1063), 미 상륙함 *Ogden*과 영국 호위함 HMS *Brazen* (F91)이 합류하여 다국적군 해상차단작전으로 전개되었다. 미국 호위함 *Reasoner*가 *Amuriyah*에게 승선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15분 동안 이라크 선박으로부터 응답이 없어, *Darwin*와 *Reasoner*함이 선수를 향해 경고사격을 실시하였다. 이후 F-14와 F/A-18이 저공비행을 통해 이라크 선박의 정지를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선박이 계속 항해하자, HMLA-267 코브라 헬기가 이라크 선박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근접사격을 실시하였다. 이에 이라크 선박이 코브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HMM-164 소속 CH-46에 탑승한 헬기해상차단부대가 선박에 진입하여, 함교 및 기관 조정을 장악함으로써 다국적군 해군과 항공이 마무리하지 못한 이라크 선박 *Amuriyah* 호에 대한 차단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작전은 제4해병원정여단 사후검토(AAR)에서 “건전한 판단과 작전요소의 현명한 이용은 선원이나 승선요원의 희생 없이 성공적인 승선 및 차단이 이루어지

53) Ronald J. Brown(1998), pp.61~62.

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⁵⁴⁾

2) 제4해병원정여단

제4해병원정여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서유럽 북부 전선 나토군 방어임무에 투입되어 있었다. 걸프전 발발 후 1990년 8월 4일,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내전 상황⁵⁵⁾이 심각해지면서 여단예하 제22해병원정부대가 파병되었다. 따라서 8월 10일부 걸프지역 출동명령은 받은 제4해병원정여단은 자체 병력으로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단은 제2해병원정군으로부터 제2감시정찰정보단 등 지휘제대 보충요원 470여 명, 8월 11일부로 제4여단근무지원단(Brigade Service Support Group: BSSG), 8월 12일부로 제2해병상륙연대(RLT)와 제40해병항공단(Marine Aircraft Group: MAG-40) 등을 지원받아 부대편성을 완료한 후 미 해군 제2상륙단(Amphibious Group 2)의 3개 전환단(Transit 1, 2, 3)에 분산 탑승하여, 각각 8월 17일, 8월 20일, 8월 22일 켄터키 주 모어헤드(Morehead)를 출항, 9월 3일, 7일, 9일부로 중부사령부에 작전통제 전환되었다.⁵⁶⁾ 이를 통해 완성된 부대 편성은 아래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다.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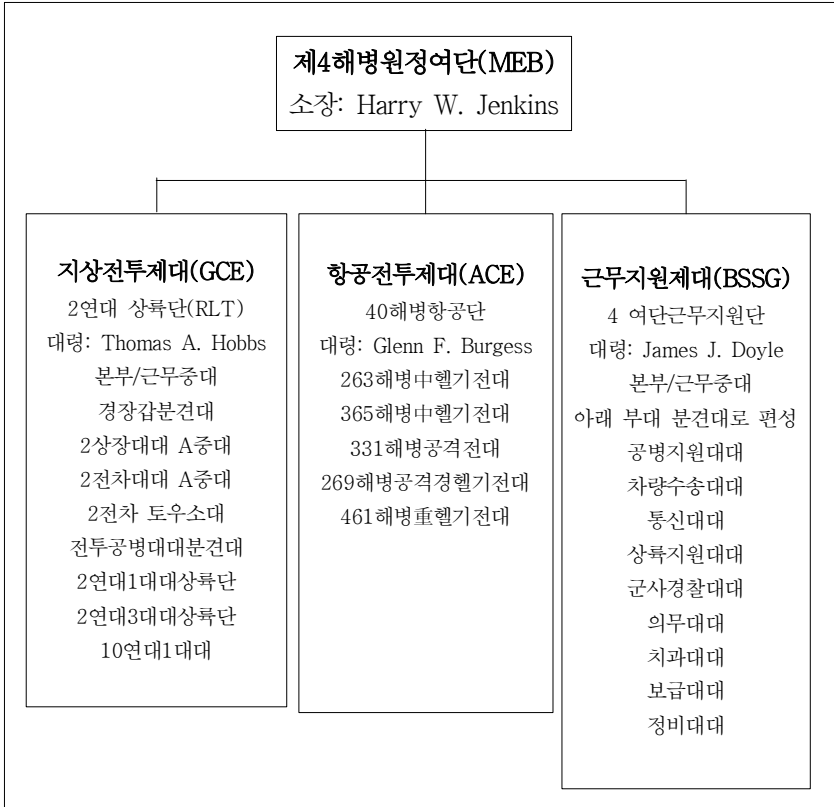
54) Ronald J. Brown(1998), p.62.

55) 라이베리아는 미국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라이베리아 인들이 이주한 후, 그들이 국가의 권력과 부를 독점하여, 원주민 라이베리아 인들을 억압하면서 1822년 1980년까지 지속되어 온 문제이다. 1980년 원주민 군인 출신인 사무엘 도 상사가 라이베리아국군(AFL)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 윌리엄 톨버트 대통령을 축출하여 원주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부정선거 등으로 민심을 잃으면서 미국계 라이베리아인인 찰스 테일러(Taylor)가 라이베리아 국민애국전선(NPEL)을 결성하여 도우정권을 공격하면서 내전이 격화되었다. 김광수, 「세계의 분쟁지역 선거로 정권 교체·경제 발전... 내전 겪은 아프리카 국가에 희망」,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 (검색일: 2021. 3. 17).

56) Ronald J. Brown(1998), pp.222~223.

57) Ronald J. Brown(1998), pp.213~217.

〈그림 5〉 제4해병원정여단의 부대 편성



제4해병원정여단 헬기해상차단부대(HMIF)는 제13해병원정부대가 *Al Mutanabbi* 승선진입 작전을 실시한 10월 15일 해병수색 분견대와 제2상륙단 해군특수작전팀(Sea Air and Land Teams: SEALs)에서 요원들을 차출 및 편성하여 *Trenton* 함에 배치하였으며,⁵⁸⁾ 제13해병원정부대 작전결과를 토대로 표준작전수행절차를 정

58) 이 부대들이 선택된 이유는 근접시가지전투, 페스트로프 등의 훈련을 이미 이수하였고, 진입에 필요한 특수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진입 시 수송을 위하여 CH-46 헬기가, 항공감시정찰, 전투지휘통제, 공중저격플랫폼

립하고 16일부터 훈련에 돌입하였다. 이들도 기초훈련은 숙달되어 있었으나 조직 용화와 해상 진입숙달을 위해 저격연습, 페스트로프 진입, 함 격실전투 수행 요령 등을 현지 실정에 맞게 재숙달한 후, 10월 24일에 상륙함 Durham을, 26일에는 미 해군 유류보급함인 *Andrew J. Higgins*(T-AO 190)를 대상으로 헬기해상차단작전을 연습하였다. 이들 함정들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최종연습에서는 아랍어에 능숙한 장교가 적 함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전 대상인 유조선과 유사한 유류 보급함을 이용함으로써 부대의 임무수행능력을 배가시켰다. 이후에도 제13해병원정부대의 작전 수행결과를 보면서,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해상차단진입훈련을 시행하였다. 예를 들면, 이라크 선박 *Amuriyah*에 대한 제13해병원정부대의 10월 28일 작전 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위함 *HMAS Adelaide*(F01), 미 해군 유도탄 호위함 *Curts*(FFG 38), 미 해군 구축함 *Oldendorf*(DD977) 등이 해상차단작전부대로, 미 해군 유류보급함 *Walter S. Diehl* (T-AO 193)이 적 선박역할을 하면서 실전과 동일하게 연습을 실시하였다.⁵⁹⁾

제4해병원정여단 헬기해상차단작전은 총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 중 첫 번째는 아랍여성연맹이 이라크 전함 *Ibn Khal doon*을 대여하여, 이라크 어린이들을 위한 음식과 약품을 운반하는 국제여성운동가들과 이들 중 일부는 어린이까지 대동·탑승하고 있어, 얼핏 보기에는 평화 선박(Peace Ship)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게다가 함정에는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외신기자들도 20여 명 탑승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선박은 국제적 관심을 받았으며, 다국적군 작전에 대응하여 세계적인 반전여론 조성을 꾀하고 있어, 이 작전은 사막의 방패작전 기간 중 해상차단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고비

제공을 위해서는 UH-1N 두 대가 고정적으로 배정되었다. Ronald J. Brown(1998), p.62.

59) Ronald J. Brown(1998), p.63.

였다.⁶⁰⁾ 해상차단작전부대 임무는 승무원 중 일부가 위장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작전의 중점은 승객 및 승무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선박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제4해병원정여단 헬기해상차단부대 지휘제대에 무선대대 요원 4명이 추가 파견되고, 제263中헬기대대로 부터 헬기 3대가 추가 할당 및 보강되었으며, 부대는 지속적인 정보 최신화 및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 추가적인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Ibn Khaldoon* 호에 대한 해상차단을 위해 미 함정 *Diehl*, *Trenton*, *Shreveport*, *Oldendorf*, 구축함 *Fife*(DD 991), 호주 호위함 *HMAS Sydney*(F03) 등이 작전에 참가하였다.⁶¹⁾ 12월 26일 0545분에 정선명령을 보내고, 예상대로 불응하자 06:15분에 헬기차단진입작전이 시작되어 함교와 엔진실을 확보하였다. 진입 후 비행갑판에 모여 있던 승무원들을 선루갑판으로 소개시키고, 간간히 발생하는 승무원들과 충돌은 경고사격 등을 통해 무마시키면서 06:40분에 선박통제권을 확보하였다. 제2군사경찰중대가 승선, 승객들을 통제하면서 헬기해상차단부대는 1200시까지 전원 철수하였다.⁶²⁾ 이후 제4해병원정여단 헬기해상차단부대는 12월 30일에 미국, 영국 군함들과 함께 이라크 유조선 *Ain Zallah*에 대한 강제진입차단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사막의 방패 작전뿐만 아니라 사막의 폭풍작전까지 포함하여 마지막으로 실시된 해상차단작전 사례이다.

60) Ronald J. Brown(1998), p.63.

61) Ronald J. Brown(1998), p.64.

62) Ronald J. Brown(1998), p.64.

4. 분석 및 평가

가. 해상차단활동 전반

1990년 걸프전 당시 유엔은 결의안 665호를 통해 이라크에 대한 해상봉쇄 권한을 다국적군에 부여하였다. 이에 전구 작전을 책임진 중부사령관과 예하 해군구성군사령관, 중동지역사령관 등은 결의안을 근거로 작전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시행 간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대이라크 해상차단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전결과에 대해 현 시대 해양전략 이론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의 킬 교수는 이라크의 대 쿠웨이트침공에 대응한 해상차단작전들을 이라크 군을 쿠웨이트로부터 철군시키는데 불필요한 시도가 아니었고, 중동 연안국과 국제사회가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군사행동으로, 사막의 폭풍작전 이전에 참가국가들 간에 정치적 동맹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하는 중심의 개념을 도입, 전체 걸프전쟁에서 군사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 결정적인 작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⁶³⁾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미국의 신 해양전략이 추구하는 평시 해양이익보호와 전시 상대국에 대한 해양 견제 중시와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다.

미 국방성의 의회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다국적 해상차단 작전사령부 편성은 비공식적이라 느슨하였다. 하지만 13개국이 함정 등 전투력을, 22개국이 작전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군수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것을 보면, 해상차단작전은 국제적 지지와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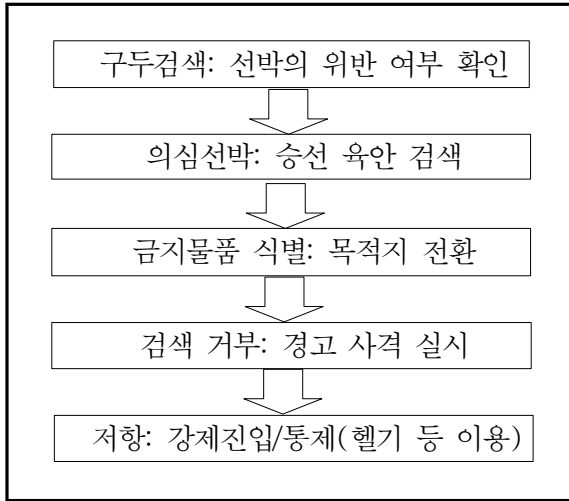
63) Geoffrey Till, *SeaPower: Theory and Practice*(Portland, Oregon: Frank Cass, 1994), p.191.

력을 이끌어 내었으며, 그에 따른 작전 효과 역시 성공적이었다. 유엔 결의안에 의거 제재를 실행할 때, 각 국 지휘관의 지휘 하에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여 작전 수행절차는 통일되지 않았지만, 동맹국 해군 간 협조체계는 국제적 노력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론적 검토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전 수행 초기, 해양봉쇄(차단)작전에 대한 법률 및 이론적 기초는 정립되어 있었지만,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실제 해군이 수행한 경험은 적었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프전쟁 기간 중 중동군사령관이 제시한 작전지침과 이행 간 검색 경험에 바탕을 두고 정립한 해상차단작전 절차는 아래 <그림 6>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절차는 모든 상황에 순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래로 가면 갈수록 발생 빈도는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 분명하며, 이는 일반적인 군사지식으로 보아도 당연한 것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현장의 급박한 상황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절차 수립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다. 이를 최소화시킨 요인은 작전에 참가한 각국 해군 대표자들이 참가한 회의, 대화, 현황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인지하고, 공유하며, 수행지침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면서, 작전 절차를 지속적으로 표준화시키고자 한 노력일 것이다.⁶⁴⁾

64) The US DoD(April 1992), p.66.

〈그림 6〉 의심/적성 선박 검색 절차



나. 미 해병대 작전

미 해병대의 제13해병원정부대와 제4해병원정여단 헬기해상차단부대는 〈그림 6〉 의심/적성선박검색절차 중 마지막 5단계인 저항 선박(강제진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작전에 참가하였다. 따라서 미 해병대는 사막의 방패 작전 기간 중 실시된 선박 강제진입 11회 중 5회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이라크 사담후세인의 정치적 의도를 좌절시키고, 이라크의 조직적인 전투력 축적을 방해함으로써, 사막의 폭풍작전의 성공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⁶⁵⁾ 이처럼 미 해병대가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65) 미 국방성의 걸프전쟁관련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해병원정부대와 여단이 5차례 밖에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동맹군 상륙작전준비 같은 추가적인 과업 때문이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걸프전쟁 시 불확실한 전구 상황으로 인해 제4해병원정여단에 하달된 우발계획에서 보는 것처럼, 미 해병대에 다양한 임무가 동시다발적으로 부여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The US DoD(April 1992), p.71.

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휘체계/부대편성 측면

작전기간 중 제13해병원정부대와 제4해병원정여단은 중부사해 병구성군사 예하가 아닌 중부사령부 전구예비 해상대기부대로 지정되어 해군구성군사의 지휘를 받음으로써, 사막의 폭풍작전 개시 이전에는 작전지역 특히 해상작전구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제4연대상륙단(RLT)처럼 해병구성군사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제1해병원정군(MEF) 예비로 경계임무를 부여 받았다면, 해상차단작전에 적시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초기 작전단계, 즉 중부사령부조차 상륙목표지역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였을 때에는, 전구 작전 예비인 제4해병원정여단에 총 10개의 상륙작전 및 양동, 기습 등의 우발계획이 하달되어 시행 준비 중이었다.⁶⁶⁾ 만일 이 계획이 실행되어 제13해병원정부대가 참가할 예정이었던 우발계획의 일부라도 시행되었더라면, 미 해병대가 해상차단작전에 참가할 기회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제13해병원정부대는 제4해병원정여단과 동일하게 전구 예비로 지정되어, 제4해병원정여단의 우발계획 중 다국적군이 충분한 전투력을 축적하기 이전(사막의 폭풍작전 시행이전)에 적을 혼란 혹은 특정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적 지역에 대한 해상 및 공중 돌격작전 등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66) 10개 우발계획은 ① 심각한 대공위협 인지 시 MEB급 상륙돌격, ② 대공방어 미약 시 적 중심으로의 공중돌격, ③ 제13해병원정부대 공중돌격 시 해상돌격으로 연결, ④ MEB급 해상 및 공중돌격, ⑤ 여단 예하 대대급 공중돌격(기습), ⑥ 기계화된 전투팀으로 구성, 여단급 기습, ⑦ 제4해병원정여단의 대대급을 증원받은 MEU의 기습, ⑧ 보·포병 화기를 이용한 화력투사, ⑨ MEUSOC의 18가지 전투기술 중 한 두 가지를 이용한 독립작전, ⑩ 여단의 해상 및 공중 돌격대대를 투입한 목표 탈취작전 등이다. Ronald J. Brown(1998), p.41.

하지만 <그림 4>에서 보듯이 제13해병원정부대는 제4해병원정여단의 지휘계선 상에 위치하면서도 예·배속 관계가 아니게 되면서, 중부사령관의 직접통제를 받은 전구예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래서 중부사해군구성군사령관이 해상차단작전에 부대 투입을 요청하자, 제13해병원정부대는 작전임무를 신속히 전환하여 참가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불확실한 전장상황에 대비하여, 전구 예비를 보유한 중부사령관이 지닌 전투력 운용의 유연성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런 전투력 운용의 유연성은 제13해병원정부대로 하여금 해군구성군사 예하에서 다국적군 해군과 함께 해상차단작전을 효율적으로 실시한 원동력이다. 게다가 제13해병원정부대는 제4해병원정여단의 지휘를 받으며 상륙작전 수행을 준비하는 해상 제대로 편성은 되어 있었지만 여단에 부여된 10가지 우발계획 중 단 한 가지도 실행되지 않았다. 그 결과 부대는 타 순환임무를 위해 작전지역을 이탈할 때까지 적 상업용 선박에 대한 해상차단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4해병원정여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제13해병원정부대가 작전지역을 이탈한 후 그 임무를 이어받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2) 사전 준비 측면

미 해병대는 미국방성 지시문서에 적의 해상활동 억제 임무를 명시함으로써 유사시 해상차단작전을 실시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게다가 미 해병대사령관 지침(3120.9)에 따르면, 해병원정부대특수임무가능은 사전훈련프로그램[Pre-deployment Training Program]에 의거, 6시간 전에 명령이 하달되면 어떠한 임무도 계획 및 수행할 수 있도록 상륙전대와 6개월 동안 함께 하며, 협조관계, 계획에 의한 역할수행(playbook), 표준작전수행절차 등을 구

축하도록 되어있었다.⁶⁷⁾ 1990년 제13해병원정여단은 이 지침에 의거 1990년 6월 20일까지 16주 동안 2단계로 나누어 특수작전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다양한 개인 전술전기, 부대 및 연합훈련까지 실시하여, 언제, 어디서, 어떠한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군의 SEAL팀과 혼성 편성하여 구성된 헬기해상차단부대는 저항선박 강제진입에 필요한 페스트로프 하강, 근접전투, 격실검색/제압 등을 추가적인 훈련 없이 수행 가능하였다.

이에 반해 제4해병원정여단은 나토방어군 임무에 투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하 제22해병원정부대가 라이베리아에 투입되면서 기타 잔류부대 각개병사의 특수전술전기 숙달은 다소 미흡하였다. 해군구성군사의 요청에 의거 제13해병원정부대가 헬기해상차단임무에 투입되자, 유사시 그 임무를 인계받기 위해 제4해병원정여단도 부대를 편성하고, 필요한 개인, 팀, 부대, 합동 훈련을 실전상황과 부합되게 수행하였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제4해병원정여단 헬기해상차단부대 훈련 준비 및 실시간 제13해병원정부대의 작전수행결과를 즉시즉시 반영하여, 해군함정과 연계하고, 아랍어에 능숙한 자를 상대편 함장으로, 훈련 대상도 이라크 유조선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함대 유류 보급함 등을 활용함으로써 훈련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두 부대 모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실시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미 해병대 헬기해상차단부대 작전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67) Christopher J. Papaj, "Can the MEU(SOC) still enable a Marine Expeditionary Brigade?," *USMC Command and Staff College Report*(2000), p.25.

3) 작전수행 측면

제13해병원정부대와 제4해병원정여단 헬기해상차단작전부대가 수행한 5차례의 해상차단작전을 보면, 처음과 마지막만 동일한 여건에서 실시되었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해군구성군사령관 주관 하에 각국 대표, 작전참가 요소별 대표자들이 참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 협조회의를 통해 상황전파, 공유, 새로운 환경 대처방법, 표준작전수행절차 정립 등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 작전수행 간 다양한 부대의 협조 및 지원은 해상차단작전 성공요인이다. 작전 실시 이전 해군 작전정보센터가 선박과 관련된 제원을 적시에 제공하고, 헬기해상차단부대가 선박에 강제 진입하여 함교와 엔진실 등을 장악하여 선박을 통제하면 후속 선박조사팀, 강제 범집행팀, 그리고 승무원 통제를 위한 군사경찰 등이 승선하여 작전을 인계받아 후속조치를 취한 점 등은 전체 작전의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다. 특히 미 해병대가 지상, 항공, 군수지원 제대로 통합 편성되어,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병, 군사경찰, 헬기 등의 작전요소와 장비 등은 작전부대 편성 소요의 핵심요소를 제공, 융통성을 가질 수 있었다.

미 해병대가 수행한 작전 중 제4해병원정여단이 이라크 전함 Ibn Khaldoon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전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 만일 실패하였다면 국제적인 반전 분위기가 조성되어, 다국적군 작전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이의 성공으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노리던 반전여론 조성 등의 선전활동은 실패하였으며, 헬기해상차단작전부대가 아무런 인명 피해를 내지 않고, 오히려 심장병에 시달리는 스웨덴 여성을 성공으로 구조하면서, 국제적인 여론은 후세인의 의도와는 달리 다국적군을 지지하게 되었다.⁶⁸⁾

5. 결론

이론적 검토를 통해, 우리는 해군의 과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그 경계선은 전·평시와 해당 해역의 안보상황에 따라 동일한 임무도 그 과업의 영역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 남북대치기 한국군의 정책 및 전략기획가들의 사고가 전시에는 작계에 명시된 해군력 간 결전, 세력투사(상륙군 및 함포 등을 이용한 화력투사) 등에, 평시에는 동맹구축, 국제적 해양지원, 강압, 해양질서 유지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사막의 방패 작전 기간 중 다국적군 해군과 미 해병 제13해병원정부대와 제4해병원정여단이 수행한 헬기해상차단작전은 냉전 종료 후 처음으로 발생한 1990년 걸프전쟁에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선전활동 의도를 분쇄하고, 이라크 전투력 축적을 방해하였으며, 이는 사막의 폭풍작전 조기 종결에 기여하였다. 해군에 의한 봉쇄, 특히 상업용 선박을 포함한 적성 선박에 대한 통제는 단순히 해상통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전쟁지속 능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향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북한과의 전쟁보다는 국제사회 즉 유엔안보리가 즉각적인 원상복구 등 시한을 두고 북한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전면적인 교전은 시차를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21년 현재 유엔안보리가 진행하고 있는 14개 제재이다. 이들 제재는 13개 국가와 1개 테러집단을 대상으로 발효되어 있으며, 모두는 자산동결(Assets Freeze), 무기수출입통제(Arms

68) Ronald J. Brown(1998),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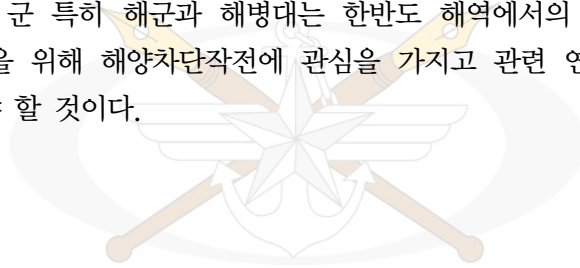
Embargo), 여행금지(Travel Van)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 등 분쟁중인 연안국에는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이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직접적인 분쟁이 없는 북한에 대해서는 금지물품을 운반할 가능성이 있는 선박들을 운행할 수 없도록 급유자체를 금지하고 있다.⁶⁹⁾

이를 토대로, 유엔주도하 현 국제질서 고려 시 미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1990년 걸프전과 마찬가지로 해상차단작전 수행은 필수적이며, 특히 적이 조기 점령한 지역에 한해서는 추가적인 진출을 저지, 고착시킨 후,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군사력을 지원받아 북한의 침공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걸프전 시와 동일하게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적의 상선이나 여객선에 대한 해상차단작전을 실시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군은 걸프전과 유사한 해상차단작전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사 작전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개념, 수행절차 및 방법, 관련 규정 정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당장 이것을 해군이나 해병대 임무, 역할, 기능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그런 유사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를 해야 한다.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부대가 수행한 공중기동, 페스트로프 하강, 도시지역/근접전투 등 기본전술전기는 숙달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차단작전 상황을 상정, 해군특수부대, 정보단, 항공, 수상함 전대 등과 합동으로 관련 절차를 시연해 본다면 유사시 작전수행에 애로는 없을 것이다.

최근 해양차단작전에 적용할 국제법을 연구한 네덜란드 해군 마틴 핑크(Martin Fink)에 따르면, 해양차단작전이란 용어는 각

69)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information>(검색일: 2021. 9. 26).

국의 군에서 사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⁷⁰⁾ 우리는 일반적으로 1982년에 합의된 유엔해양법을 신봉하여, 연안국 해양주권과 관련된 갈등과 공해 상 항해의 자유를 부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 섬 조성을 통해 영해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면, 유엔해양법이 그러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평시에도 불명확한 해양법이 전시에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생각해 보면, 전시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상봉쇄와 차단작전을 실시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핑크처럼 국제법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연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 특히 해군과 해병대는 한반도 해역에서의 평시 혹은 미래전쟁을 위해 해양차단작전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70) Martin Fink (2016), p. 30.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권오신. 「군사기지협정(MBA)에서 방문군협정(VFA)으로 미국-필리핀 군사관계의 변화(1945-2014)」, 『미국사연구』 제41호, 2015.

<http://uci.or.kr//G704-000538.2015.41..001>

김광수. 「세계의 분쟁지역] 선거로 정권 교체 · 경제 발전... 내전 겪은 아프리카 국가에 희망」,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 (검색일: 2021. 3. 17).

김성훈. “91년 걸프전과 달라진 점은”, 『문화일보』 (2003. 3. 21일 최종수정).

나종남. 「공화국 수비대는 격과되었는가?」, 『미국학 논집』 제45권 2호 (2013).

<http://uci.or.kr//G704-000559.2013.45.2.004>

연합뉴스. 「필리핀 강진으로 최소한 90명 사망」, 『연합뉴스』 1990년 7월 17일자.

오정석 역. 『The Gulf War 걸프전쟁: 역사적 배경과 전쟁수행을 중심으로』 서울: 연경문화사, 2002.

<http://uci.or.kr//G901:A-0006065559@N2M>

합동참모본부. 『군사용어사전』

<https://www.jcs.mil.kr> (검색일: 2021. 8. 16).

해군본부. 『미국 전술도서 '09-17: 미국방부 군사용어사전 해군부록』 (국군인쇄창, 2010).

_____. 『해군 해병대 참고교범1: 해군·해병대군사용어사전』 (2017).

2. 해외 자료

An integrated US Navy, Marine Corps and Coast Guard Team. *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 (December 2020).

Berris, William ·Ellia, Matthew·Fallon, James·Kendoll, Raymond·Markert, George·Prosser, Michael. “Marine Expeditionary Unit(Special Operation Capable) Relevancy in the Near Term”, *Marine Corps University Report*(2005).

Brown, Ronald J. *Marines in the Persian Gulf, 1990–1991 with Marine Forces Afloat in Desert Shield and Desert Storm*. History and Museums Division HQs, USMC: Washington, D.C.: 1998.

Cambridge Dictionary. “Interception”, <https://dictionary.cambridge.org> (검색일: 2021. 8. 16).

Commandant of the Marine Corps. *Marine Corps Order 3120.9 C: Policy for MEU and MEU(SOC)*. HQs of the US Marine Corps (2009. 8. 4).

Corbett, Julian S.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918. <http://www.uci.or.kr/G901:A-0006791351>

Fink, Martin. *Maritime Interception and the Law of Naval Operations: A Study of Legal Bases and Legal Regimes in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s*. Berlin, Acid-free paper, 2018.

<http://www.uci.or.kr/G901:A-0009285745>

- Fraunces, Michael G. “The International Law of Blockade: New Guiding Principles in Contemporary State Practice”, *The Yale Law Journal*, Vol. 101, No. 4(January 1992).
<https://doi.org/10.2307/796877>
- Hattendorf John B. & Hughes, Wayne P(eds.). *Classics of Sea Power*. Annapolis, ML: the US Naval Institute, 1988.
www.uci.or.kr/G901:A-0006791351
- Heinegg, Wolff Heintschel von. “Naval Blockade”, *International Law across the Spectrum of Conflict*. The US Naval War College, 2000.
- Herald-Sun. “1962: A Naval Quarantine of Cuba ordered by President John F. Kennedy”, *News Article*, October 24, 2013.
- Papaj, Christopher J. “Can the MEU(SOC) still enable a Marine Expeditionary Brigade?”, *USMC Command and Staff College Report*(2000).
- Robertson, John W. “Blockade to Quarantine in International Law”, *Jag Journal* (June 1963).
- The 99th US Congress. *Public Law 99-433: An ACT*(October 1, 1986).
- The Free Dictionary. “Marine expeditionary unit (special operations capable)”, <https://www.thefreedictionary.com>(검색일: 2021. 3. 20).
- The US Defense of Department(DoD). *Final Report to Congress: Conduct of the Persian Gulf War*(April 1992).

-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5100.1*(August 1, 2002).
-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5100.1*(December 21, 2010).
- The US Department of Navy. *NWP 1-14M: The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July 2007).
- Till, Geoffrey. *SeaPower: Theory and Practice*. Portland, Oregon: Frank Cass, 1994.
- UNSC. “Resolution 661”, [https://undocs.org/S/RES/661\(1990\)](https://undocs.org/S/RES/661(1990)) (검색일: 2021. 2. 24).
- _____. “Resolution 665”, [https://undocs.org/S/RES/665\(1990\)](https://undocs.org/S/RES/665(1990)) (검색일: 2021. 2. 24).
- _____. “Resolution 678”, <https://undocs.org/S/RES/678> (검색일: 2021. 2. 24).
- _____. “Sanctions,”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information> (검색일: 2021. 9. 26).
- Vego, Milan. *Maritime Strategy and Sea Control*. New York: Routledge, 2016.
- Westcott Allan(ed.). *Mahan on Naval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Rear Admiral Alfred T. Mahan*. Mineola, NY: Dover Publications, 1999.

(Abstract)

An Analysis and Lessons learned of the USMC's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s in the Persian Gulf War in 1990

Lee, Pyo-g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s conducted by the 13th MEU and 4th MEB during the Persian Gulf War in 1990 using the framework posited by the maritime strategists, and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Marine Corps in the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

Accor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ive interception operations conducted by the USMCs were very effective. They participated in the each operation at the last 5th stage: Forcible entry using Helicopter movement and fast rope insertion, and controled the crews and engines. After that the other teams such as the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military police, and ship inspection teams were board and ended the operations. With these operations, gave significant damages on the accumulations of Iraqi military power and raised positive respons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result, they ultimately contributed the victory of the multinational coalition forces. The factors that those operations were successful are found from the flexible commanding relationship of the theater command and control system, through preparedness in peacetime and before waging the operations like real war. In addition to this, the cooperations among the various operational elements provided by the USMC, US Navy and the other international fleets.

These kinds of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s against enemy fleet, commercial and passenger ships do not merely contribute to the maritime control in the theater, but also influence to the sustainment capabilities of the opponent. Consequently, the great maritime strategists, Geoffrey Till evaluate them as the decisive operations directly approaching the enemy's center of gravity. If a Korean war is occurred in the future, the procedures

of waging war in the coastal area would be very similar with those of the Persian Gulf War at the initial stage.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s and to continuously research the relevant subjects accepting the lessons of this study.

Keywords : The Persian Gulf War in 1990,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s, 13th MEU, 4th MEB, Naval Containment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335-374
<https://doi.org/10.29212/mh.2022..122.33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갈리아 전쟁기 로마군 병참술의 한계*

배은숙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 칼리지 조교수

목 차

1. 머리말
2. 현지 조달의 필요성
3. 군수물자 확보의 즉흥성과 위험성
4. 군수물자 수송과 병참 기지 선정의 위험성
5. 맺음말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카이사르가 병참 체계를 강조한 것처럼 실제 전장에서 병참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카이사르는 로마와 동맹관계에 있는 갈리아족의 군수물자 공급에 의존했다. 하지만 동맹군은 군수물자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반로마로 돌아서서 군수물자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 카이사르는 동맹군의 배신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다. 현지 주민의 식량이나 가축 떼를 약탈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약탈은 적대적인 갈리아족을 확

* 이 논문은 2020년 계명대학교 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산하므로 자제해야 하는 방법이었다. 곡식 수확 시기에 현지에서 수확하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이 또한 수확으로 인해 경계가 느슨하여 적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처럼 현지에서 확보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군수물자를 제때 확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군수물자 부족은 군수물자 확보를 위한 조급하면서도 즉흥적인 작전 변경을 유발했고, 이는 작전 실패로 이어졌다.

군수물자를 전장이나 다른 주둔지로 수송할 때 해로는 육로보다 수십 배 더 싼고, 수송 시간도 4배 덜 걸렸다. 하지만 카이사르 군대의 전장이 바다나 강과 떨어진 내륙이어서 해로의 유익성을 활용하기 쉽지 않았다. 게다가 수백 대의 군수물자 행렬은 적의 표적이 되기 쉬웠다. 이동을 적게 하면서 병참선을 연결하는 것이 병참 기지였다. 전장이 내륙이나 산, 숲, 늪지대를 병참 기지로 활용했는데, 이는 강이나 바다를 활용한 배후의 병참선과 연결되기 어려웠다. 또 수비나 보급의 편의성을 위해 군수물자를 한곳에 보관했는데, 이는 적군의 공격으로 군수물자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카이사르의 군수물자 수송이나 보관 방식, 병참 기지 선정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여 모든 전략과 전술, 지도력, 용병술, 병참술이 완벽했다고 볼 수 없다. 카이사르는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군수물자 부족 현상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그의 상황은 중앙집중식 병참 체계가 있었던 포에니 전쟁기나 상비군과 영구 주둔지 체제로 군수물자 수급이 일정했던 제정기에 비하면 열악했다. 따라서 공화정 후기는 이전이나 이후 시대와 비교하여 병참술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병참술, 현지 조달, 군수물자 수송 행렬, 병참 기지, 해로와 육로 수송

1. 머리말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갈리아 정복 과정을 기록한 『갈리아 전쟁기(Commentarii De Bello Gallico)』는 기원전 52-51년 사이에 출간되었다. 총 8권으로 되었는데, 7권까지는 카이사르가 직접 서술했고, 8권은 히르티우스(Aulus Hirtius)가 첨가한 것이다. 기원전 54년 카이사르 휘하의 군단장이었고 43년의 집정관이었던 히르티우스는 카이사르 암살 직후 그가 남겨놓은 단편적인 기록을 근거로 보충했다. 『갈리아 전쟁기』는 기원전 58-52년까지 갈리아 지역에서의 정복 활동을 담고 있다. 1권은 기원전 58년 갈리아 남동쪽의 헬베티이인(Helvetii)과 게르마니아인의 왕 아리오비스투스(Ariovistus)에 대항한 전쟁을 기록했다. 갈리아 전쟁은 헬베티이인이 로마의 갈리아 속주를 가로질러 대규모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¹⁾ 군대를 모은 카이사르는 헬베티이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들을 로마 영토에서 쫓아버렸다.²⁾ 이후 카이사르는 로마의 동맹군인 아이두이인(Aedui)을 공격하는 아리오비스투스와 세콰니인(Sequani)에 대항해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2권은 기원전 57년 북부의 벨가이인(Belgae)에 관한 것이다. 갈리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벨가이인이 로마의 갈리아 정복에 두려움을 느껴 주변 세력을 모으고 있었다. 이에 카이사르는 북쪽으로 이동하여 공성 장비들을 동원한 포위전으로 벨가이인과 네르비이인(Nervii)에 대해 승리하여 복종을 약속받았다.³⁾

1) Caesar, *Bellum Gallicum* 1.7.

2) Caesar, *Bellum Gallicum* 1.29.

3) Caesar, *Bellum Gallicum* 2.1-35.

3권은 기원전 56년 남서쪽의 베네티인과 아퀴타니아인(Aquitania)을 정복한 기록이다. 로마군 지휘관들을 인질로 잡은 베네티인을 응징하기 위한 전투는 적선을 포획함으로써 승리했고, 아퀴타니아인에 대해서는 포위 작전과 기병 추격 작전으로 승리했다.⁴⁾

4권은 기원전 55년 게르마니아인과 브리타니아 원정에 관한 기록이다. 카이사르는 갈리아로 넘어오려는 게르마니아인을 격퇴한 후 라인강 너머의 게르마니아인과 싸웠다. 이후 그는 갈리아의 나머지 지역을 평정하는 대신 갈리아에 원군을 파견했던 브리타니아를 응징하고자 원정을 감행했다.⁵⁾

5권은 기원전 54년 두 번째의 브리타니아 침공과 벨가이인의 반란을 기록했다. 카이사르는 브리타니아의 주도권 다툼에 개입하여 승리한 후 인질과 매년 공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고 대륙으로 건너왔다. 벨가이인이 로마의 군단을 파괴했고, 로마군은 네르비인과 트레베리인(Treveri)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

『갈리아 전쟁기』에서 분량이 가장 짧은 6권은 기원전 53년 갈리아 북부 지역의 반란으로 재차 라인강을 건너는 일을 기록했다. 수에비인이 자신들의 숲으로 후퇴해버리자 카이사르는 그들을 추격하지 않고, 갈리아로 돌아와 에부로네스인(Eburones)을 물리쳤다.

분량이 가장 많은 7권은 기원전 52년 카이사르가 갈리아 14개 부족의 반란을 어떻게 진압했는지를 기록했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적의 여러 요새를 점령했지만, 게르고비아(Gergovia)에서 패배했다. 베르킨게토릭스(Vercingetorix)의 지도하에 갈리아의 반란은 더욱 확산했다. 알레시아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에서 로마

4) Caesar, *Bellum Gallicum* 3,7-16, 3,20-27.

5) Caesar, *Bellum Gallicum* 4,1-19, 4,20-38.

군은 베르킨게토릭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반란을 종결지었다.

8권은 기원전 51년 갈리아가 정복된 후의 상황과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탈리아의 정세를 기록했다. 『갈리아 전쟁기』에서 카이사르는 6권을 제외하고 속주의 일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갈리아 지역의 혼란과 호전적인 부족의 성향을 강조함으로써 원로원의 승인 없이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변호했다.⁶⁾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기』에 군량 확보나 병참 기지에 대해 지속해서 강조했다. 고대 사가 중 병참 문제에 신경을 쓴 사람은 카이사르와 암미아누스(Ammianus Marcellinus)이고, 그 외의 사가들은 관심이 없거나 당연시했다.⁷⁾ 카이사르는 “군대가 단결하는 것은 병참을 적절히 유지해야 가능한 일이다”⁸⁾라고 했다. 그가 군수물자 확보에 신경을 썼기에 최소한 병참에 관한 한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1990년대 로마군의 병참에 관한 연구가 3권 잇달아 나왔다. 골즈워드(A. Goldsworth)는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통계 부족을 이유로 부록에서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에드캄프(P. Erdkamp)는 『갈리아 전쟁기』에서 카이사르가 군수물자 공급과 수송 시스템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로스(J. Roth)는 기원전 3세기 초에 로마군에게 병참 체계란 없었고, 공화정 말기 카이사르를 통해 복잡한 병참선(*commeatus*)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에서 병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병참 문제를 고심했던 카이사르를 긍정

6) F. Phillips, “A General's Self-Depiction: The Political Strategies of Gaius Julius Caesar as Seen in the *Commentarii de Bello Gallico*”, *Senior Honors Theses* 109, 2004, 6-14.

7) J. Serrati, “Review of *Hunger and the Sword: Warfare and Food Supply in Roman Republican Wars (264-30 BC)*”,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90, 2000, 222.

8) Dio, *Historia Romana* 42.49.5.

적으로 평가했다.⁹⁾

2000년대에도 병참에 관한 한 카이사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러펠(D. Ruppel)은 “병참, 특히 군량에 대한 카이사르의 지배력이 갈리아인을 패배시키는 데 성공한 원인”이라고 보았다. 존슨(K. Johnson)은 카이사르가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 병참 문제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정확했고, 군대의 규모나 지형의 조건을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블루아(L. de Blois) 또한 카이사르는 군대의 훈련과 복지가 군사적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 군수물자 확보를 통해 휘하의 병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로젠슈타인(N. Rosenstein)은 갈리아 전쟁 동안 2-4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잘 먹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카이사르는 이를 잘 수행했다고 했다. 카펜터(W. Carpenter)에 따르면, “카이사르는 병사들을 잘 먹여 건강하게 했고, 병사들에게 군량을 공급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¹⁰⁾

9) A. Goldsworth, *Roman Army at War: 100 BC-AD 200*, Oxford: Clarendon Press, 1998; P. Erdkamp, *Hunger and Sword. Warfare and food supply in Roman republican wars (264-30 BC)*, Amsterdam: J. C. Gieben, 1998; J. Roth,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264 B.C. - A.D. 235)*, Leiden: Brill, 1999; S. R. Matthews, “The Logistics of Feeding the Roman Army on the Lower Danube”, Ph.D. diss., University of London, 2018, 22-23.

10) D. Ruppel, “Caesar’s Corny Commentaries: Provisions as Power in *The Gallic War*”, *Hirundo: The McGill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7, 2008/2009, 106; Kyle P. Johnson, “Organization and Decision Making in Caesar’s ‘Bellum Gallicum’” Ph.D. diss., New York University, 2012; N. Rosenstein, “Military Logistics”, in J. Raaflaub, ed., *The Landmark Caesar*, New York: Anchor Books, 2017, 75-96; L. De Blois, “Caesar the General and Leader”, in Kurt A. Raaflaub, ed., *The Landmark Caesar*, New York: Anchor Books, 2017, 102-108; W. Carpenter, “An Analysis of Julius Caesar’s Generalship as Compared to Proper Generalship in Vegetius”, *Student Research Submissions* 342, 2020, 4-36.

갈리아 전쟁기의 병참 문제는 카이사르의 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글은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군지휘관의 모습, 군량 확보에 성공하는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돋보이고자 하는 수사적 의도가 다분하다.¹¹⁾ 로마군의 병참술을 알기 위해서는 카이사르 개인의 군사적 능력보다 그가 실제로 군량 확보에 성공했는지, 군수물자 확보를 위한 병참 체계가 적합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카이사르가 병참 체계를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것과 실제 병참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리아 전쟁기 카이사르의 군수물자 확보 과정을 통해 로마군의 병참술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여러 관료(*praefectus annonae*, *praefectus vehiculorum*, *curator copiarum*)와 영구 주둔지를 거점으로 병참술이 체계화된 제정기로 이어지는 단계이므로 의의가 있다.

2. 현지 조달의 필요성

아군의 군수물자 확보와 적군의 군수물자 부족 유도 전략은 군사 전략가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바이다. 프론티누스(*Sextus Julius Frontinus*)는 전투 전에 아군의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적은 피곤하고 배고파지도록 전투를 지연하는 전략을 권고했다. 가령 기원전 218년 트레비아 전투에서 로마군이 패배한 것은 군인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차가운 강물을 건너게 한 것이라는 것이 사가들의 분석이다.¹²⁾

11) D. Ruppel, "Caesar's Corny Commentaries: Provisions as Power in *The Gallic War*", 101-106.

12) Frontinus, *Strategemata* 2.1.1, 2.1.5; Livius, *Ab Urbe Condita* 21.54; Polybius, *Historiae* 3.72.4-5.

4세기 말에서 5세기의 군사 전략가인 베게티우스(Publius Vegetius)는 주로 카이사르가 살았던 공화정 말기와 제정 초기의 군대를 표준으로 삼았다. 그가 병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카이사르의 행동에서 유래했다. 그에 따르면, “사료와 곡물 공급은 위기에 처했을 때 미리 보관하는 것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 어떤 원정에서든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아군의 식량은 충분하고 적군은 부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군수물자 공급 체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군대란 전투보다 굶주림으로 파괴되는 일이 더 빈번하고, 기근은 검보다 더 야만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¹³⁾이라고 했다.

군수물자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 군인들이 모든 군량을 짊어지고 가면 좋지만, 군인의 짐에는 한계가 있다. 코윈(R. Cowan)의 평가에 따르면, 투구 2kg, 사슬갑옷 12kg, 벨트 1.2kg, 방패 10kg, 검과 칼집 2.2kg, 단도와 칼집 1.1kg, 투창 1.9kg 등 무구의 무게는 총 30.4kg이었다.¹⁴⁾ 여기에 60로마파운드(19.647kg)에 달하는 군장을 짊어져야 했다.¹⁵⁾ 군장에 대해 리비우스(Titus Livius)는 “12개의 말뚝을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요세푸스(Flavius Josephus)는 군인들이 각자 청동으로 된 그릇, 물항아리, 곡물과 꼴을 자르는 작은 낫, 흙을 나르는 나뭇가지로 엮은 바구니, 곡괭이(*dolabra*), 삽, 주둔지를 방어하기 위해 박는 말뚝(*pilupe murale*) 2개, 도끼, 갈고리 등을 가지고 다녔다고 기록했다.¹⁶⁾ 건설 도구까지 가지고 다녔다는 것은 갈리아 전쟁에서 증명

13)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3, 3.6, 3.11; W. Carpenter, “An Analysis of Julius Caesar’s Generalship”, 4.

14) R. Cowan, *Roman Legionary 58 BC-AD 69*, Oxford: Osprey Publishing, 2003, 26-29, 32, 42-43; A. Goldsworthy, *Roman Warfare*, London: Basic Books, 2000, 125.

15)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1.19.

16) Livius, *Ab Urbe Condita* 3.27; Josephus, *Bellum Judaicum* 3.95.

된다. 당시 무거운 화물을 두고 왔는데도 주둔지의 도로를 건설한 것, 로마군 병사들이 목재와 군량을 구하는 동안 방어시설을 구축한 것을 보면 리비우스와 요세푸스의 말처럼 병사들이 주둔지 건설 도구를 들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¹⁷⁾ 군인들에게 많은 짐을 들고 가게 한 사람은 체력 단련을 위한 훈련의 중요성과 군수물자 행렬을 줄여 빠르게 이동하는 이점을 강조했던 마리우스(Gaius Marius)였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마리우스의 노새(*mulus Mariani*)’라 불렸다.¹⁸⁾

무장한 상태에서 건설 도구를 가지고 다녔다면 병사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군량의 양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군량의 양에 대해 리비우스는 기원전 458년 아이퀴아인(Aequia)과 전쟁하러 출발할 때 ‘5일분의 식량’을 가지고 갔다고 했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는 병사들이 ‘반 달 이상의 식량’을 휴대했다고 했으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요세푸스는 병사들이 ‘3일분의 식량’을 휴대했다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3-4세기의 기록에서 군인들이 적지를 제외하고는 보통 가지고 다니던 17일분의 식량을 줄어지지 않아도 된다가나 전장으로 갈 때 17일분의 식량을 가지고 다녔다는 표현이 있다.¹⁹⁾

매일 필요한 군량의 양에 대해 폴리비우스(Polybius)는 기록하기를, 보병은 매달 밀 $\frac{2}{3}$ 아티카 메딤노스(*Attic medimnos*)를, 기병은 보리 7메딤노스와 밀 2메딤노스를 받고 봉급에서 공제했다. 동맹군 보병은 로마군 보병과 같게 받았고, 동맹군 기병은 보리 5메딤노스와 밀 $\frac{1}{2}$ 메딤노스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한 매튜(S. R.

17) Caesar, *Bellum Gallicum* 5.49, 7.73.

18) Plutarchos, *Marius* 13; Frontinus, *Strategemata* 4.1.7; Caesar, *Bellum Gallicum* 5.16.

19) Livius, *Ab Urbe Condita* 3.27; Cicero, *Tusculan Disputations* 2.37; Josephus, *Bellum Judaicum* 3.95;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A. Severus* 47.1; Ammianus Marcellinus, 17.9.2.

Matthews)의 계산에 따르면, 최대치로 추정하여 군인은 매일 곡물 0.809kg, 고기 0.100kg, 올리브유 0.043kg, 포도주 0.5ltr, 과일 및 기타 채소 0.270kg을 소비한다.²⁰⁾ 포도주의 무게를 제외하면 1.222kg이고, 3일분이면 3.666kg이고, 17일분은 20.774kg에 달한다. 여기에 포도주의 무게, 무장과 건설 도구를 더하면 17일분은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장의 거리나 상황에 따라 휴대할 수 있는 양이 달라 정확히 며칠 분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3-5일분이고, 17일분은 최대치일 가능성이 크다.

군인들이 본국에서 출발할 때 들고 갈 수 있는 양이 3-5일분 정도, 최대한 17일분이라면 나머지 기간은 다른 방법으로 군량을 확보해야 한다. 전쟁이 휴대한 군량의 양에 맞추어 전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본국에서 수송해 오는 것이다. 공화정 초기와 중기는 원로원이 군대와 군수물자의 공급을 주관했다. 전쟁이 선포되면 원로원이 명령권을 가진 정무관들(*consul*, *proconsul*, *praetor*, *propraetor*)에게 군수물자를 구매하거나 징발할 권한을 부여했다.

집정관이 내가 말한 권력을 가지고 군대와 함께 떠날 때, 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그는 시민과 원로원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그들의 지원 없이는 작전을 끝낼 수 없다. 군단들은 항상 군수물자가 있어야 하는데, 원로원의 동의 없이는 곡물도, 의복도, 봉급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²¹⁾

20) S. R. Matthews, "The Logistics of Feeding the Roman Army on the Lower Danube", 64.

21) Polybius, *Historiae* 6.15.

군대나 군수물자를 모으는 실질적인 준비는 군사령관인 집정관이 했지만, 그렇게 하도록 승인하는 권한은 원로원에게 있었다. 기원전 215년 스페인에서 카르타고 세력에 대항하고 있던 스키피오 형제 (Publius Scipio, Gnaeus Cornelius Scipio)는 원로원에 편지를 보냈다.

병사들에게는 돈, 의복, 곡물이 부족하고, 선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 돈에 관한 한 만일 국고(*aerarium*)가 비었다면 우리는 스페인인에게서 얻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나머지 모든 것은 로마에서 보내야만 할 것이다.²²⁾

이에 원로원은 곡물과 의복을 배로 보내는 특별한 조치를 했다. 또 3차 마케도니아 전쟁에 앞서 아이밀리우스(Aemilius Paulus)가 원로원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공급해 달라고 한 사례도 있다.²³⁾ 이를 볼 때 공화정기는 원로원이 병사들의 봉급과 군량을 포함하여 '다른 전쟁 필수품' 확보를 승인하고, 이렇게 모은 군수물자를 필요한 군대로 옮기는 중앙집중식 병참 체계였다.²⁴⁾

원로원이 군수물자 확보를 승인하는 체제가 카이사르 때에도 유지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군대를 모집하는 과정이 공화정 후기에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마리우스는 메텔루스(Quintus Caecilius Metellus)의 후임으로 유구르타(Jugurtha) 전쟁을 지휘할 때 그에게 받은 2개 군단으로 모자랐다. 더 많은 병력을 징집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원로원은 승인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22) Livius, *Ab Urbe Condita* 23.48.4-23.49.4.

23) Plutarchos, *Aemilius Paulus* 11.1; Polybius, *Historiae* 6.12-13.

24) Livius, *Ab Urbe Condita* 33.43.3-9, 36.1.6-8;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27.

그는 원로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군대에 입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복무에 필요한 군수물자는 자신의 경비로 조달했다.²⁵⁾ 마리우스가 원로원의 승인 없이 군대를 모은 이후 내전기 군사령관들은 군대와 군수물자의 원로원 승인이 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군대를 모집한 군사령관 개인에게 군수물자 확보의 책임이 주어지는 상황은 카이사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폼페이우스(Gnaeus Pompeius)는 스페인에서 세르토리우스(Sertorius)와 싸우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군인들을 부양해야 했다.²⁶⁾ 카이사르가 기사 신분의 푸피우스(Gaius Fufius Cita)에게 군량 확보 업무를 맡긴 것은 그의 개인적인 선택일 뿐 공식적인 병참 관료는 아니었다. 기원전 46년 아프리카 전쟁에서 역사가 살루스티우스(Gaius Sallustius)에게 케르키나(Cercina)섬에서 군수물자를 확보하도록 한 것 또한 카이사르의 개인적인 명령이었다.²⁷⁾ 따라서 공화정 후기는 군사령관 개인이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체제, 즉 분산적인 병참 체제였으므로 카이사르도 군수물자를 자체 해결해야 했다.

카이사르가 군수물자를 갈리아 현지에서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는 방법은 농사를 짓는 것이다. 베게티우스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가능한 한 식량을 많이 저장해 놓거나 동물을 많이 기르는 방법을 권장했다. 또 빈 땅에 농사를 짓거나 과일 나무를 키우는 것도 권장했다.²⁸⁾ 갈리아 지방이 “북쪽에 위치해 날씨가 추위 곡식이 아직 영글지 않았다”거나 갈리아인이 “인구 과잉과 경작지 부족으로 레누스(Rhenus)강 동쪽으로 이민단을 보낸 적도

25)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46, 64, 82-86.

26) Plutarchos, *Pompeius* 20.1; Sallustius, *Historiae* 2.98.3-9.

27) Caesar, *Bellum Gallicum* 7.3; *Bellum Africum* 8.3, 34.1-3.

28)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4.7-10.

있다”²⁹⁾는 기록을 보건대 이들이 농사를 짓는 법을 알기에 현지인을 이용한 재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로마군은 갈리아에서 여러 지역으로 빈번하게 이동하는 상황이었다. 가령 로마군은 기원전 58년 갈리아 키살피나(Gallia Cisalpina) 속주의 아퀼레이아(Aquileia)에서 오켈룸(Ocelum)까지 510km를 이동했는데, 매일 50km를 행군한다고 해도 10일이 넘게 걸렸다. 오켈룸에서 제네브르산(Mt. Genevre)을 통과하여 보콘티이(Vocontii)까지 산악 지역을 거쳤으니 매일 28km 행군하면 그해 3월 내내 행군만 했을 것이다. 또 그해 6월 28일에서 7월 14일까지 헬베티이인과 첫 번째 전투를 하고, 7월 17일 아리오비스투스와 전투를 했다. 8월 21일에 카이사르는 동쪽으로 3일 동안 120km의 거리를 이동했다. 또 아리오비스투스가 베손티오(Vesontio)를 장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속력으로 행군했는데, 행군한 거리는 대략 170-210km이다.³⁰⁾ 이처럼 갈리아 전역이 전장이었으므로 빈번한 이동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군량 확보를 위해 농사를 짓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갈리아인이 아니면 인근 게르마니아인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도로가 모두 차단되어 속주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증원 부대가 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카이사르가 게르마니아인에게 사자를 보내 기병과 경보병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들 지역을 군수물자 보급지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게르마니아인은 농사를 짓지 않고, 곡물을 많이 소비하지 않으며, 우유와 고기를 주식으로 했다. 실제로 카이사르는 수에비인이 숲속으로 퇴각한 것을 알고도 그들

29) Caesar, *Bellum Gallicum* 1.16, 6.24.

30) Caesar, *Bellum Gallicum* 1.23, 1.30-33, 1.37-41; Kurt A. Raaflaub & John T. Ramsey, “Reconstructing the Chronology of Caesar’s Gallic Wars”, *Histos* 11, 2017, 13-15.

을 추격하지 않았다. 이유는 게르마니아인은 어느 부족도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영토로 들어가 군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³¹⁾

군사 전략가들이 풍부한 군수물자 확보를 주장해도 카이사르 군은 이탈리아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공화정 후기의 군대는 이전처럼 원로원의 승인 아래 군사령관이 군대 모집과 군수물자 확보가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이사르는 갈리아 현지에서 군수물자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지 농경 재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3. 군수물자 확보의 즉흥성과 위험성

『갈리아 전쟁기』에서 병참에 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것은 카이사르가 병참에 관해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가의 기록과 달리 카이사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진 배경에는 당시 로마군의 군수물자가 지속해서 부족했던 상황이 있다. 가령 기원전 57년에는 군량과 다른 군수물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절망적이었고, 기원전 56년에도 군량이 부족하여 군량과 다른 군수물자를 구하려 이웃 부족에게 갔다. 기원전 55년 브리타니아에서 폭풍으로 고초를 겪을 때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식량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로마군의 병사들이 낙담했다. 기원전 54년에도 군량이 모자라자 군대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었다.³²⁾

31) Caesar, *Bellum Gallicum* 4.1, 6.22, 6.29, 7.65.

32) Caesar, *Bellum Gallicum* 3.3, 3.7, 4.29, 5.24.

로마군은 갈리아 지역에서 군수물자, 특히 군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원전 58년 로마의 동맹군인 아이두이인은 카이사르에게 사절단을 보내 헬베티이인이 자신들의 나라를 약탈하고 있다고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구에 응한 카이사르는 아라르(Arar) 강을 건너 헬베티이인을 공격했다. 그사이 카이사르는 아이두이인에게 약속한 군량을 제공하라고 재촉했다. 이는 카이사르가 동맹군으로부터 군수물자를 공급받았다는 말이 된다.³³⁾

문제는 동맹군이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수물자를 지속해서 공급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기원전 262년 카르타고는 시킬리아(Sicilia)에서 군수물자 부족으로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시라쿠사이(Syracusae)의 히에로 왕(Hiero II)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견했다. 하지만 히에로 왕은 로마군에게 군수물자를 제공해 주었다. 이런 사례가 카이사르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다. 실제로 카이사르가 아이두이인에게 군수물자를 공급하라고 재촉했으나 그들은 차일피일 미루었다. 아이두이인은 날씨가 추워 곡식이 익지 않았거나 곡식을 모으고 있거나 곡식을 운반하고 있거나 곡식이 도착하기 직전이라는 등 갖은 핑계를 댔다. 너무 핑계를 대면서 미룬다고 생각한 카이사르는 휘하 부대에 군량을 배급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아이두이인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을 추궁한 끝에 아이두이인이 로마군이 이기면 자유를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로마군에 타격을 주고자 군량을 모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³⁴⁾

동맹군에게 의존하는 것은 동맹군의 배신으로 언제든지 군수물자 부족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군수물자를

33) Caesar, *Bellum Gallicum* 1.11-17; A. Goldsworthy, *The Complete Roman Army*, London: Thames & Hudson Ltd, 2003, 169-171.

34) Polybius, *Historiae* 1.16-18; Caesar, *Bellum Gallicum* 1.11-17.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었다. 가령 스키피오는 스페인에서 카르타고에 대항할 때 전쟁 개시 전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이탈리아의 다양한 공동체로부터 군수물자를 받았다. 키케로도 스페인에서 세르토리우스와 전쟁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곡물’을 확보했다.³⁵⁾ 카이사르는 동맹군에게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 나머지, 전투 전에 군수물자 확보 다양화와 동맹군의 배신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적지에서 군수물자가 부족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찾으러 나가는 것, 즉 즉흥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다. 첫째는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물자를 약탈하는 방법이다. 기원전 55년 메나피이인(Menapii)의 영토에서 로마군은 들판을 약탈하고, 곡식을 베어버리고 농가에 불을 질렀다. 기원전 53년 카이사르는 에부로네스인을 괴롭히기 위해 출동했다. 이때 곡식은 가축과 사람이 먹거나 늦가을 비에 쓰러져 대신 가축 떼를 전리품으로 몰고 갔다.³⁶⁾ 이처럼 약탈은 군수물자 보충과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 197년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 황제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항복을 이유로 하트라(Hatra) 요새에 대한 약탈을 금지했을 때 서부 지역 출신의 병사들이 황제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 요새에 대한 재공격을 거부한 일이 있을 정도로 약탈은 빈번했다.³⁷⁾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약탈은 권장할만한 방법이 아니었다. 1세기의 철학자인 오노산드로스(Onosandros)는 약탈을 경계했다.

35) Livius, *Ab Urbe Condita* 28.45.1-21; Cicero, *Pro Fonteio* 6.13.

36) Caesar, *Bellum Gallicum* 4.38, 6.43.

37) Livius, *Periocha* 15; Plutarchos, *Lucullus* 17, 19; *Pompeius* 11; Dio, *Historia Romana* 48.5-14, 56.21, 75.9.

동맹국을 통과할 때 군지휘관은 병사들에게 그 나라를 공격하거나 파괴하지 말라고 명령해야 한다. 이유는 약탈이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하거나 그들을 상당히 적대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적국일 경우 파괴하고, 방화하고, 황폐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돈의 손실과 군량 부족이 풍요가 자양분이 되는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군지휘관은 적에게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알려야 한다.³⁸⁾

현지 주민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무례한 공급을 요구할 때 그들을 적대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은 약탈을 금지했다. 피루스(Pyrrhus) 전쟁 때 레기움(Regium)에 들어갔던 4,000명의 병사가 그 도시의 규모와 부에 매혹되어 주민을 살해하고 약탈한 적이 있었다. 약탈한 병사들을 응징하려 또 다른 로마군이 파견되었고, 결국 살아남은 300명이 붙잡혀 로마시에서 처형된 사건이 있었다. 238년 트라키아의 한 마을 주민들은 군인들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숙식을 요구하여 로마에 우호적이었다가 불만이 극에 달한 사례가 있다.³⁹⁾ 약탈은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행동이고, 우호적인 갈리아인에게 군수물자를 공급받아야 하는 카이사르로서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하는 행동이었다. 약탈은 군량 확보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갈리아인 전반으로 전쟁을 확산, 격화시킬 수 있었다.

둘째는 현지에 널려있는 곡식을 즉흥적으로 수확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는데, 그것은 현지에 곡식이 자라는 계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인 밀은 6월부터 수확할

38) Onosandros, *Strategikos* 6.6-11.

39) Polybius, *Historiae* 7; M. Grant, *The Army of the Caesars*, New York: M. Evans & Company, 1974, 273.

수 있으므로 여름에는 어느 지역이든 밀이 풍부했다. 6월에서, 늦으면 10월 사이의 여름 전쟁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갈리아가 로마시에 침입했을 때는 기원전 387년 7월이었다. 트라시메누스(Trasimenus) 전투는 기원전 217년 6월, 칸나이(Cannae) 전투는 기원전 216년 7월, 자마(Zama) 전투는 기원전 202년 10월, 피드나(Pydna) 전투는 기원전 168년 6월, 아라우시오(Arausio) 전투는 기원전 105년 10월, 베르켈라이(Vercellae) 전투는 기원전 101년 6월, 파르살루스(Pharsalus) 전투는 기원전 48년 8월, 2차 베드리아쿰(Bedriacum) 전투는 69년 10월, 베로나(Verona) 전투는 249년 10월,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전투는 357년 8월, 아드리아노폴리스(Adrianopolis) 전투는 378년 8월, 샬롱(Châlons) 전투는 451년 6월이었다. 6-10월 전쟁이 빈번한 이유, 일명 ‘전쟁 계절’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격군이든 방어군이든 현지에 곡식이 자라는 것이 군량 확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⁴⁰⁾

카이사르도 전쟁 계절을 활용했다. 그가 5개 군단과 함께 갈리아 지역으로 건너간 것은 기원전 58년 6월 8일이었고, 베손티오에서 출발한 것은 들판에 곡식이 익고 있을 때였다. 다음 해 전투를 재개한 것은 6월 중순이었고, 전투를 종결한 것은 10월 중순이었다. 기원전 56년 베네티인과 전쟁한 것은 7월 초순이었고, 그해 전쟁을 종결한 것은 10월 말이었다. 기원전 55년 5월 말 게르마니아 지역으로 갔고, 전투를 한 것은 6월 말이었으며, 10월 중순 그해 전쟁을 종결했다.⁴¹⁾

40) Ammianus Marcellinus, 16.12,62; Livius, *Ab Urbe Condita* 22.6; Plutarchos, *Marcellus* 24; *Aemilius Paulus* 22; *Flamilius* 4.

41) Caesar, *Bellum Gallicum* 1.23-26, 1.30-33, 1.40, 2.2, 2.34-35, 3.9-12, 4.7-14, 4.36-38; Kurt A. Raaflaub & John T. Ramsey, “Reconstructing the Chronology of Caesar’s Gallic Wars”, 14-37.

전쟁 계절에 전투하고 있다면 현지 들판에서 군량을 수확할 수 있다. 2세기의 사가 아피아누스(Appianus)는 현지에서 꼴을 찾아다니는 것도 군인들에게 필요한 노동이라고 했다. 그것은 농사를 짓는 것처럼 힘든 노동이어서 현지에서 모집한 군인들이 도망가려고 할 정도였다. 59년 코르볼로(Gnaeus Domitius Corbulo)의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땀감을 묶어 운반하던 병사의 손이 동상에 걸려 떨어져 나간 적도 있었다.⁴²⁾ 기원전 52년 로마군 지휘관인 라비에누스(Titus Labienus)는 들판에서 곡식을 다량 발견하자 병사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주었다. 적지를 돌아다니다 예기치 않게 군량을 확보한 사례이다.⁴³⁾

문제는 적지에서 곡식 수확에 열중한다는 것은 경계가 느슨해진다는 것이고, 이는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베게티우스는 적을 공격하기 좋은 시점으로서 “주민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어슬렁거리거나 약탈하는 자들을 급습하라”고 했다.⁴⁴⁾ 실제로 기원전 55년 카이사르의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무구를 내려놓고 곡식을 수확하고 있을 때 적군이 기습 공격하여 로마군 병사들 몇 명이 죽은 일이 있었다. 또 기원전 53년 키케로(Quintus Cicero)는 군량을 구해오도록 가까운 들판으로 5개 대대와 원기를 회복한 약 300명의 병사를 따로 보냈는데, 이들이 게르마니아인 기병대의 기습 공격을 받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기원전 52년 베르킨게토릭스는 로마군이 농가로 흩어져 곡식과 꼴을 구하러 갈 때마다 갈리아인 기병대를 보내 그들을 낚아채라고 연설했다. 갈리아인은 기병대가 우수하고, 로마군은 군량과 군수물자를 보급받지 못하면 현지에서 구하려고

42) Tacitus, *Annales* 1.35, 13.35; Josephus, *Bellum Judaicum* 3.85; Appianus, *Bellum Iberica* 88; *Bellum Punica* 7.40; Livius, *Ab Urbe Condita* 44.33.

43) Caesar, *Bellum Gallicum* 7.56.

44)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10.

하니 그때 갈리아인이 공격하려는 전술이었다. 당시 카이사르도 “군량과 꼴을 구하러 위험을 무릅쓰고 주둔지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도록 하라고 명령했다.”⁴⁵⁾ 이를 볼 때 약탈이나 현지에서의 군량 확보는 그만큼 로마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방법이었다.

동맹군의 공급이나 약탈, 수확으로도 군량이 부족할 때 상황은 심각해진다. 기원전 205년 아프리카 전쟁 때 스키피오가 아레티움(Arretium)에서 1만 명의 병력이 3개월 먹을 분량의 곡식을 조달한 적이 있다. 기원전 46년 아프리카에서 카이사르 군대는 군량 30만 모디우스(modius), 즉 4만 명의 군인이 60일 동안 먹을 양을 저장했다. 반면 갈리아에서 카이사르는 1개월 분량의 군량만 확보되면 주둔지 밖으로 구하러 나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다른 전쟁과 비교해 보면 카이사르 군대의 군수물자 확보 상황은 긴급했다고 할 수 있다.⁴⁶⁾

카이사르는 병사들에게 군량을 배급할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아이두이인의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인 비브락테(Bibracte)로 향했다. 헬베티이인을 뒤쫓다가 방향을 바꾸어버린 것이다. 또 아리오비스투스가 세콰니인과 아이두이인이 운반 중이던 군수물자를 로마군이 받지 못하게 가까이에서 진을 치자 카이사르는 게르마니아인의 주둔지를 지나 600파수스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주둔할 장소를 찾았다. 행군 방향과 주둔지 장소를 변경한 이유는 군수물자를 공급받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또 기원전 57년 벨가이인을 공격하러 갈 때 군량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놓은 뒤 출동했다. 이들 사례는 군수물자로 인해 전투 방향이 바뀌거나 전투 시점이 결정된 사례이다.⁴⁷⁾

45) Caesar, *Bellum Gallicum* 4.31-32, 6.36-37, 7.14, 7.74.

46) Livius, *Ab Urbe Condita* 28.45.13-21; Caesar, *Bellum Africanum* 36; *Bellum Gallicum* 7.74.

기원전 56년 크라수스(Publius Crassus)는 제7군단과 함께 안데스인(Andes)의 영토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다. 그 지역에 식량이 부족해서 몇 명의 기병대 장교와 천부장을 이웃 부족들에게 보내 군량과 군수물자를 구해오도록 했다. 그런데 베네티인에게 파견된 벨라니우스(Quintus Velanius)와 실리우스(Titus Silius)가 억류되었다. 대서양 해안지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베네티인은 크라수스에게 잡힌 인질을 되찾을 목적에서 로마군에 반기를 들었다. 로마군은 지형도 모르고 항구도 적어 뱃길로 다니기 어려운 점, 군량이 부족하여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점, 함선이 부족한 점 등 모든 것이 불리했지만, 반로마적인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쟁을 감행했다. 로마군이 승리했고, 베네티인은 노예화되었다.⁴⁸⁾

로마군에게 군수물자를 공급하는데 우호적이었던 베네티인의 반발로 갈리아 지역에 전쟁이 재개되었다. 카이사르는 벨가이인이 패하고, 게르마니아인이 축출됨으로써 갈리아 전역이 평정되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군수물자 공급을 요구하면서 전쟁이 재개되자 동쪽의 일리리쿰(Illyricum)으로 가려던 방향을 서쪽의 대서양 해안지역으로 틀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크라수스가 보카테스인(Vocates)과 타루사테스인(Tarusates)의 영토로 진격했는데, 그 이유는 군량과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데다 적군의 수는 갈수록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기원전 55년 카이사르는 군량이 확보된 후에야 비로소 게르마니아인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으로 행군하기 시작했다.⁴⁹⁾ 이처럼 군수물자 문제는 전장이

47) Caesar, *Bellum Gallicum* 1.48-49, 2.2.

48) Caesar, *Bellum Gallicum* 3.7-16.

49) Caesar, *Bellum Gallicum* 3.24, 4.7; S. Mattern, "Imperial Power in the Roman Republic", in D. Tabachnick, & T. Koivukoski, eds., *Enduring Empire: Ancient Lessons for Global Politic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9, 127-146.

바뀔 정도로 전쟁의 향방에 영향을 끼쳤다. 군수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했고, 군수물자를 확보한 후에야 작전이 수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카이사르의 군사 작전의 즉흥성을 보여준다.

즉흥적으로 전장을 결정하는 것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스굿(J. Osgood)은 카이사르가 병력과 군수물자에 관한 한 즉각적인 재배치와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한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 크라우스(C. Kraus)와 카펜터도 카이사르가 개인의 이익이 아닌 로마를 위해 전쟁했고, 그가 주장하는 논리는 병사들을 잘 먹이고 잘 준비된 최적의 상태에서 전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으므로 즉흥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⁵⁰⁾

하지만 군수물자 부족으로 인한 조급성과 즉흥성에서 나온 작전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기원전 57년 갈바(Severus Galba)는 군량과 군수물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물자 부족에 대한 절망감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 안전한 지역으로 가려다가 적군의 공격을 받았다. 6시간 이상의 전투로 패전 직전에 때마침 원군이 와서 구조되었다. 또 기원전 54년에 부로네스인과의 전투에 앞서 코타(Lucius Cotta)는 군량이 부족하지 않고, 카이사르의 명령이 없으니 카이사르에게서 증원 부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다. 사비누스(Titurius Sabinus)는 오랫동안 포위 공격당하면 어차피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니 전투하자고 주장했다. 군수물자 부족에 대한 우려로 즉흥적으로 전투

50) J. Osgood, "The Pen and the Sword: Writing and Conquest in Caesar's Gaul", *Classical Antiquity* 28.2, 2009, 334; C. Kraus, "Bellum Gallicum", in G. Miriam, ed., *A Companion to Julius Caesar*,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9, 157-174; W. Carpenter, "An Analysis of Julius Caesar's Generalship as Compared to Proper Generalship in Vegetius", 6-28.

를 결정한 것이 로마군의 패전으로 이어졌다.⁵¹⁾ 따라서 군수물자로 인한 작전과 전장 변경은 전체 부대와와의 조율도, 체계적인 대응도 불가능하므로 패전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었다.

기원전 3-2세기 원로원은 필요한 식량의 확보를 승인했고, 실제로는 1년 이상 전쟁이 지속되었지만 1년 단위로 군수물자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가령 기원전 180년 집정관인 알비누스(Aulus Postumus Albinus)가 켈티베리아인(Celtiberia)에게 승리한 후 원로원에 올해 군대를 위해 관습적으로 보내는 봉급(*stipendium*)과 곡물(*frumentum*)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⁵²⁾ 이처럼 중앙집중식 병참 체계는 안정적인 체계적인 군수물자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와 비교하면 카이사르는 군수물자를 자체 조달해야 해서 불안정했다. 카이사르가 군수물자를 갈리아 동맹군에게 의존하는 것은 안정적인 체계적인 방법이지만 동맹군의 배신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군수물자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다. 약탈이나 수확은 현지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방법이지만, 현지 주민에게 적대감을 불어넣을 가능성과 적군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위험하다. 군수물자 부족으로 작전과 전장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이러한 즉흥성은 패전의 위험성을 키웠다. 따라서 성공한 전쟁이고, 카이사르가 병참에 관심이 있었지만, 당시 로마군이 군수물자를 모으는 과정이 기원전 3-2세기와 비교해서 체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51) Caesar, *Bellum Gallicum* 3,3-7, 5,28-31.

52) Livius, *Ab Urbe Condita* 39,7, 39,23, 40,31-32, 40,35.

4. 군수물자 수송과 병참 기지 선정의 위험성

군수물자를 모은 지역에서 다 소비할 수도 있지만, 다른 주둔지나 전장에 군량이 필요하면 옮겨야 한다.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방법은 해로와 육로가 있다. 해로에 관한 한 카이사르는 강을 끼고 있는 도시를 군수물자 비축에 최적의 장소라고 보았다. 그는 기원전 58년 아리오비스투스가 베손티오를 장악하지 못하게 최고의 속도로 행군하여 점령했다. 이 도시는 높은 언덕과 두비스(Dubis)강이 도시를 에워싸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형이어서 모든 전쟁물자를 넉넉히 비축해 두었기 때문이다. 또 기원전 56년 젤리스(Gélise)강을 따라 손티아테스인(Sontiates)과 보카테스인, 타루사테스인의 영토로 진격했다. 기원전 52년 루아르(Loire) 강변에 위치하여 전략적 요충지였던 노비오두눔(Noviiodunum)에 군량과 군자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군수물자를 모아두었다.⁵³⁾

카이사르가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을 군수물자를 모아두는 거점으로 정한 것은 전략적으로 타당한 듯하다. 기원전 178년 이스트리아(Istria)에 대한 전쟁에서 상당량의 군수물자를 실은 배들이 이스트리아의 가까운 항구에 보냈고, 그곳에서 주둔지로 수송된 사례가 있다. 공화정기 항구를 활용한 병참선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이다.⁵⁴⁾ 이처럼 바다나 강으로 수송하는 것이 육로 수송과 비교할 때 싼고, 대량의 식량을 수송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은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브룬트(P. A. Brunt)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륙 지방이나 갈리아 키살피나 지역에서 육로로 수송하는 비용은 상당히 비쌌다.⁵⁵⁾ 가령 연간 로마시에서 소비되는 곡

53) Caesar, *Bellum Gallicum* 1.38, 3.20-23, 7.55.

54) Livius, *Ab Urbe Condita* 41.1.4-6.

물의 4-8개월 분량을 책임지고 있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서 로마시까지의 해로는 1,250로마마일 거리이다. 301년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황제가 법정 최고 가격을 공포한 최고 가격령(*Edictum de pretiis rerum venalium*)에 따르면, 그 수송비용은 카스트렌시스 모디우스(*kastrensis modius*) 당 16테나리우스이다. 이는 1로마마일 당 0.013테나리우스라는 의미이다. 최고 가격령에서 무게 1,200로마파운드의 짐을 육로에서 수레로 실어나르면 1로마마일 당 20테나리우스가 되는데, 이를 모디우스로 계산하면 1로마마일 당 0.362테나리우스가 된다.⁵⁶⁾ 해로는 육로로 수송할 때보다 수십 배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수송에서 카이사르 군대의 문제점은 전장의 대부분이 바다나 강과 떨어진 내륙이라는데 있다. 가령 기원전 52년 아바리쿰(Avaricum)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도시가 강과 늪지로 둘러싸이고 좁은 통로가 나 있는 곳에 진지를 구축했다. 그는 보이이인(Boii)과 아이두이인에게 군량을 대라며 계속 재촉했고, 병사들은 여러 날 군량을 받지 못해 최악의 굶주림에 지쳐 있었다. 베르킨게토릭스 역시 주변의 도시들을 모두 불태워 로마군이 물자 부족을 견뎌내지 못하게 하려는 작전을 제안했다. 카이사르가 베르킨게토릭스에게 패한 게르고비아 역시 고원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은 장소였다. 이들 지형은 요새로서는 적합하지만, 군수물자의 원활한 수송에는 부적합한 곳이었다.⁵⁷⁾

55) J. Paterson, "Trade and trader in the Roman world: scale, structure, and organization", in H. Parkins & C. Smith, eds., *Trade, traders, and the ancient city*, London: Routledge, 1998, 149-167; D. Kessler & P. Temin, "The organization of the grain trade in the early Roman Empire", *Economic History Review* 60, 2007, 313-332.

56) *Edictum Diocletiani* 17.3, 37.1; Plinius, *Naturalis Historiae* 18.66; A. H. M. Jones, *The Later Roman Empire, 284-602: a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urve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841.

57) Caesar, *Bellum Gallicum* 7.14-17, 7.35-37.

갈리아인이 로마군에 대항하는 전술로서 도로를 차단하여 군수물자 부족을 유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⁵⁸⁾ 전장이 내륙 지역으로 향할수록 군수물자 수송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배후의 병참선 확보 문제에서 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us)의 예루살렘 공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67년 베스파시아누스는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배후의 병참선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포위 공격할 수 있었지만, 곧바로 함락되지 않고 지연된다면, 배후의 적대 세력이 군수물자 공급을 차단한다면 군수물자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그래서 배후인 사마리아(Samaria)와 갈릴리(Galilee)에 있는 적대 세력들을 척결하는 작전부터 먼저 했다.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중요한 요새들을 점령한 후 예루살렘으로 진격함으로써 군수물자 부족이나 배후의 공격 가능성을 차단했다.⁵⁹⁾ 이를 보전대 전장이 내륙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카이사르 역시 농업 생산성이 뛰어났던 갈리아 키살피나와 갈리아 나르보넨시스(Gallia Narbonensis)의 남쪽 항구를 거점으로 내륙으로 가는 경로를 배후의 병참선으로 삼았다면 북부 아프리카,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수송하기 쉬웠을 것이다.⁶⁰⁾

배후의 병참선 확보가 어렵다면 육로 수송도 불가능 방법은 아니다. 수송 시간을 볼 때 육로는 해로보다 훨씬 더 걸린다. 해로일 경우 오스티아(Ostia)에서 아프리카까지 499.5km의 거리는 1.5일 만에, 푸테올리(Puteoli)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1,850km의

58) Caesar, *Bellum Gallicum* 1.48, 3.3-6, 5.24.

59) Josephus, *Bellum Judaicum* 3.29-58; J. Roth,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264 B.C.-A.D. 235*, 286-297.

60) B. Cunliffe, *Greeks, Romans and Barbarians: Spheres of Interaction*, London: Chrysalis Books, 1988, 40, 87-97.

거리도 8.5일이면 도착했다. 하루 평균 이동한 거리가 전자는 333km, 후자는 217.6km였다. 육로의 경우 오비디우스(Publius Ovidius)에 따르면, “여행할 때 서두르지 않아도 브룬디시움(Brundisium)에서 출발하여 10일 안에 로마시에 도착”⁶¹⁾한다. 총 544km의 거리를 10일 걸렸으니 하루 평균 54km를 갔다는 말이 된다. 육로의 수송 시간은 해로와 비교할 때 최소한 4배는 더 걸리는 셈이다.

브룬디시움에서 로마시까지의 아피우스 가도(Via Appia)가 잘 닦여 있어서 평균 54km이라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갈리아의 상황은 다르다. 기원전 122년의 집정관인 도미티우스(Cn. Domitius Ahenobarbus)가 최초로 갈리아 지역을 횡단하는 도미티우스 가도(Via Domitia)를 건설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남부 갈리아를 연결하는 이 가도는 육로를 활용하는 병참선으로 유용했다. 이처럼 관통하는 가도가 갈리아 전역에 있으면 유익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갈리아는 정복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도미티우스 가도 외에는 잘 닦인 도로망이 없었다. 소가 끄는 수레는 땅이 평탄하고 단단한 표면일 경우 시속 4km로 가고, 풀을 뜯어야 하므로 하루 7-8시간만 움직인다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도로라고 해도 하루 최대 28-32km밖에 움직이지 못하므로 카이사르는 소가 아닌 노새에 의존했다. 한 쌍의 노새가 끄는 수레의 경우 1,200로마파운드(392.9kg)를 끌 수 있었다.⁶²⁾ 로스의 계산에 따르면, 카이사르 군대는 시간당 7.2-8km를 매일 10-12시간씩 달려 72-96km를 갔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육로로 수송할 때 평탄하지 않은 도로여서 제대로 속도를 낼 수

61) Plinius, *Naturalis Historiae* 19.3-4; Ovidius, *Ex Ponto* 4.5.8.

62) *Edictum Diocletiani* 17.3-4; Vergilius, *Georgica* 1.273-5; J. P. Roth,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206; J. Peddie, *The Roman War Machine*, Gloucestershire: Sutton Publishing, 2004, 59-71.

없었지만, 장시간 이동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해로 수송에서 선단이 움직이듯이 육로 수송도 대규모 군수물자 행렬이 동반한다. 해로의 경우 작은 배로 한꺼번에 1만 모디우스(70-80ton)를 수송할 수 있지만, 수레는 그 정도의 양을 수송하려면 178.2-203.6대의 수레가 필요하다. 페디(J. Peddie)의 계산에 따르면, 카이사르의 군대가 하루 필요로 하는 곡물의 양은 79ton이다. 카이사르가 1개월분의 군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므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수백 대의 수레가 필요하다. 수송해야 할 군수물자에는 30-80kg에 달하는 공성 장비도 포함된다. 아바리쿰 공성전에서 로마군은 화살을 발사하는 포(*scorpio*)를 장착했고, 기원전 51년 옥셀로두눔(Uxellodunum) 공성전에서는 공성탑(*turris*)과 ‘비틀림 포(*tormentis*)’를 배치했다. 그래서 한니발(Hannibal Barca)이 군수물자를 공급받으려면 2,000대의 수레가 필요했다고 한 것이다.⁶³⁾

카이사르가 수백 대의 수레를 동원하여 군수물자를 수송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무거운 장비가 없다면 공성전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수송해야 한다. 문제는 수백 대의 수레를 동원한 군수물자 행렬이 적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데 있다. 기원전 57년 카이사르는 두 군단 사이에 긴 군수물자 행렬을 두었다. 기원전 52년에도 베르킨게토릭스가 기병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로마군을 공격할 때 카이사르는 군수물자 행렬을 군단 사이로 옮겼다. 중앙에 배치하더라도 군수물자를 호위하는 부대를 따로 두어야 한다. 오나산드로스가 “의료 장비를 포함한 모든 군수물자를 군대의 중앙에 두어야 한다. 만약 후방이 안전하지

63) *Digesta* 50.5.3; Livius, *Ab Urbe Condita* 25.13.10; Caesar, *Bellum Gallicum* 7.17-29; Plutarchos, *Antonius* 38; Tacitus, *Annales* 2.5; Josephus, *Bellum Judaicum* 3.7.19;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25; J. Peddie, *The Roman War Machine*, 70.

않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썩썩하고 용기 있는 병사들로 후위 부대를 형성해야 한다”⁶⁴⁾라고 했다. 카이사르는 군수물자 행렬을 군단 사이에 배치하여 군수물자를 지키고자 했다. 병력을 나누어 군수물자를 수송하거나 지키는 수비대를 배치했다.⁶⁵⁾

군수물자 행렬을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었다. 58년의 아르메니아 전쟁, 67년의 갈릴리 진격, 70년의 예루살렘 진격이 그 사례이다.⁶⁶⁾ 하지만 군수물자 행렬을 중앙에 배치하여 패전한 사례도 많다. 9년 토이토부르크(Teutoburg) 숲 전투, 69년의 베드리아쿰과 크레모나(Cremona) 전투에서 군수물자가 대열 중앙에 있어서 전투 대형을 전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⁶⁷⁾ 또 다른 문제는 베르킨게토릭스가 포로를 통해 대열 중앙에 군수물자 행렬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는 데 있다. 로마군의 군수물자 부족을 유도하려는 베르킨게토릭스에게 군수물자 대열을 좋은 표적이었다. 이처럼 내부 현황이 적에게 노출된 상황이라면 전투 상황에 따라, 지형에 따라 군수물자 행렬의 배치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대규모 군수물자 행렬은 적의 공격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거리로 수송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병참 기지이다. 오나산드로스에 따르면,

군지휘관은 육지와 바다를 통해 군수물자를 병참 기지에 안전하게 하역하는지, 군수물자를 재빠르게 수송할 수 있는지를 고려

64) Onasandros, *Strategikos* 6.6.

65) Caesar, *Bellum Gallicum* 2.17, 5.49, 6.32, 7.67.

66) Livius, *Ad Urbe Condita* 8.8, 30.30-35; Polybius, *Historiae* 3.113, 15.9-14; Caesar, *Bellum Civile* 1.83, 3.88; Dio, *Historia Romana* 49.30;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6; Tacitus, *Annales* 1.50-51, 3.45, 13.40; Josephus, *Bellum Judaicum* 3.115-126, 5.47-48.

67) Dio, *Historia Romana* 56.20; Tacitus, *Annales* 1.63; *Historiae* 2.41, 3.25.

해야 한다.⁶⁸⁾

병참 기지는 군대와 군량을 모으고 제공하는 장소이자 작전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한다. 스키피오는 카르타고의 병참 기지인 노바 카르타고(Nova Carthago)를 “요새이자 군량 창고, 금고, 무기고, 기타 모든 것을 위한 저장소”라고 했다. 기원전 242년 릴리바이움(Lilybaeum) 전투에서 이탈리아와 시킬리아의 다른 동맹 지역에서 모은 군수물자를 시라쿠사이에 모아 보급했다. 기원전 203-202년 안티오코스 3세(Antiochos III)의 전쟁에서 키오스(Chios)를 병참 기지로, 기원전 178년 일리리아로 이동할 때 아퀼레이아를 병참 기지로 사용했다. 16년 게르마니쿠스(Germanicus)의 전투, 70년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 “시리아와 그 인접한 속주”에서 군량을 가져온 것을 보전대 병참 기지로 삼을만한 지역은 도시라고 해도 전장에서 가까운 지역, 해로나 육로에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었다.⁶⁹⁾

카이사르 군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병참 기지로 사용한 장소이다. 로마군은 병참 기지를 겨울 주둔지를 사용했는데, 그 장소는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나 산, 숲, 늪지대, 요새, 도시 등 다양했다. 기원전 58년 말 카르누테스인(Carnutes), 안테스인, 투로네스인(Turones)의 영토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이곳은 루아르 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갈바가 이끄는 군대의 겨울 주둔지는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고, 기원전 56년과 55년에는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으며, 기원전 54년에는 숲과 늪지대였다. 기원전 53년 에부로네스인의 영토 중앙에 방어시설을

68) Onasandros, *Strategikos* 6.14; Polybius, *Historiae* 1.17.5.

69) Livius, *Ad Urbe Condita* 21.57, 26.48, 31.33, 34.28, 37.27, 41.3-5; Polybius, *Historiae* 3.75; Tacitus, *Annales* 1.71; Josephus, *Bellum Judaicum* 5.520.

구축한 요새를 겨울 주둔지로 사용했다. 기원전 52년 너무 일찍 겨울 주둔지를 나서면 군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까 두려워했는데, 그 장소가 도시였다.⁷⁰⁾

로마군은 가능한 한 항구나 하구를 병참 기지이자 겨울 주둔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령 기원전 169년 로마군은 일부를 에우보이아의 섬인 스키아투스(Sciathus)의 겨울 주둔지에, 일부는 항구인 오레우스(Oreus)에 있었는데, “이곳이 마케도니아와 테살리에 군수물자를 보내는데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북부 아프리카의 항구 도시인 우티카(Utica)는 기원전 149-146년, 기원전 47년 모두 로마군의 병참 기지이자 주둔지로 활용되었다. 제정기에도 마찬가지였다. 70년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과 가까운 요파(Joppa)나 얄니아(Jamnia)가 아니라 카이사레아(Caesarea)에 병력과 군수물자를 집결시킨 이유는 이곳이 해안에 군수물자를 내리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다.⁷¹⁾ 따라서 전장이 내륙이라는 지형적인 한계를 참작하더라도 카이사르가 겨울을 났던 산, 숲, 늪지대는 일반적인 곳이 아니었고, 병참 기지로서도 한계가 있었다. 이런 장소는 강이나 바다를 활용한 배후의 병참선과 연결되기 어려웠다.

카이사르가 병참 기지에 군수물자를 보관하는 방식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53년 사마로브리바(Samarobriva), 아두아투키(Aduatuci)에 모든 군수물자를 모았고, 크라수스 군대와 제14군단이 그곳에 남아 군수물자를 지키게 했다. 또 기원전 52년에도 카이사르는 모든 갈리아인 인질과 군자금, 군수물자 대부분을

70) Caesar, *Bellum Gallicum* 2.35, 3.1-2, 3.29, 4.38, 5.52-53, 6.32, 7.10; Appianus, *Bellum Civile* 5.12,116.

71) Livius, *Ad Urbe Condita* 41.3, 44.13; Plutarchos, *Cato Minor* 58.3; Appianus, *Bellum Punica* 11.75;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47.2; Josephus, *Bellum Judaicum* 4.659-663.

노비오두눔에 모아두었다. 하지만 키케로의 겨울 주둔지, 사마로브리바, 노비오두눔에 모두 수비대가 있었는데도 적군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비오두눔에 적군이 침입하여 군량을 배로 싣고 가고, 나머지는 강물에 던져버리거나 불태워 못쓰게 했다.⁷²⁾ 따라서 군수물자를 분산 배치하지 않고, 수비나 배급의 편의성을 위해 한곳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수송비용이나 수송 시간에서 육로보다 강이나 바다를 활용한 해로가 훨씬 유익했다. 하지만 갈리아에서 카이사르의 전장은 대부분 내륙 지역이어서 군수물자 수송이 어려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카이사르가 갈리아 남부의 항구를 활용한 배후의 병참선을 구축했다면 군수물자 수급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또 군수물자 행렬의 위치를 다변화시켜 적군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막는 것 또한 필요한 전략이었다. 카이사르가 군수물자의 단거리 수송과 겨울을 위한 병참 기지이자 겨울 주둔지로 사용한 곳은 배후의 병참선과 연결하기 쉽지 않은 산, 숲, 늪지대, 요새 등이었다. 군수물자 수송에 불리한 지형, 군수물자를 한곳에 보관하는 방식은 카이사르 군대의 지속적인 군수물자 부족 현상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카이사르의 병참 기지는 병참선을 고려하여 영구 주둔지를 건설하는 제정기와 비교하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맺음말

대다수의 고대 사가들이 병참에 대해 무관심했지만, 카이사르는 군수물자 확보나 수송에 관심이 많았다. 병사들이 무구를 갖추고 건설 도구를 지참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지고 가는 군량의

72) Caesar, *Bellum Gallicum* 5.44-47, 6.32, 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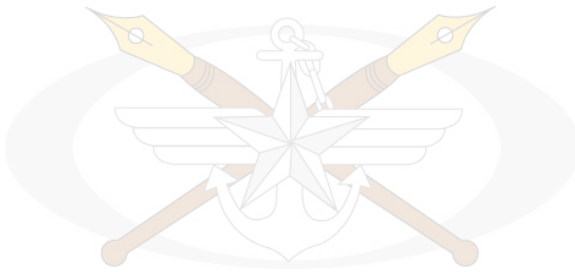
양은 3-5일분이 평균적이었다. 나머지는 현지에서 조달해야 했다. 공화정 후기에는 병력과 군수물자 확보의 책임이 원로원이 아니라 군사령관 개인에게 있었다. 카이사르가 현지에서 경작하여 군수물자를 모으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다양한 갈리아인과의 전쟁으로 빈번하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았다. 따라서 카이사르는 현지 주민들에게 의존하여 군수물자를 확보할 수 밖에 없었다.

카이사르는 로마와 동맹관계에 있는 갈리아인의 군수물자 공급에 의존했다. 하지만 동맹군은 군수물자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반로마로 돌아서서 군수물자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 카이사르는 동맹군의 배신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다. 현지 주민의 식량이나 가축 떼를 약탈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약탈은 적대적인 갈리아인을 확산하므로 자제해야 하는 방법이었다. 곡식 수확 시기에 현지에서 수확하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이 또한 수확으로 인해 경계가 느슨하여 적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처럼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군수물자를 제때 확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군수물자 부족은 군수물자 확보를 위한 조급하면서도 즉흥적인 작전 변경을 유발했고, 이는 작전 실패로 이어졌다.

군수물자를 전장이나 다른 주둔지로 수송할 때 해로는 육로보다 수십 배 더 짧고, 수송 시간도 4배 덜 걸렸다. 하지만 카이사르 군대의 전장이 바다나 강과 떨어진 내륙이어서 해로의 유의성을 활용하기 쉽지 않았다. 게다가 수백 대의 군수물자 행렬은 적의 표적이 되기 쉬웠다. 이동을 적게 하면서 병참선을 연결하는 것이 병참 기지였다. 전장이 내륙이나 산, 숲, 늪지대를 병참 기지로 활용했는데, 이는 강이나 바다를 활용한 배후의 병참선과 연결되기 어려웠다. 또 수비나 보급의 편이성을 위해 군수물자를

한곳에 보관했는데, 이는 적군의 공격으로 군수물자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카이사르의 군수물자 수송이나 보관 방식, 병참 기지 선정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여 모든 전략과 전술, 지도력, 용병술, 병참술이 완벽했다고 볼 수 없다. 카이사르는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군수물자 부족 현상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그의 상황은 중앙집중식 병참 체계가 있었던 포에니 전쟁기나 상비군과 영구 주둔지 체제로 군수물자 수급이 일정했던 제정기에 비하면 열악했다. 따라서 공화정 후기는 이전이나 이후 시대와 비교하여 병참술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사료

Appianus, *Bellum Punica*.

Caesar, *Bellum Gallicum*.

Cicero, *Tusculan Disputations*.

Dio, *Historia Romana*.

Frontinus, *Strategemata*.

Josephus, *Bellum Judaicum*.

Livius, *Ab Urbe Condita*.

Onasandros, *Strategikos*.

Plinius, *Naturalis Historiae*.

Polybius, *Historiae*.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Tacitus, *Annales*.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 2차 사료

Carpenter, W., “An Analysis of Julius Caesar’s Generalship as Compared to Proper Generalship in Vegetius”, *Student Research Submissions* 342, 2020, 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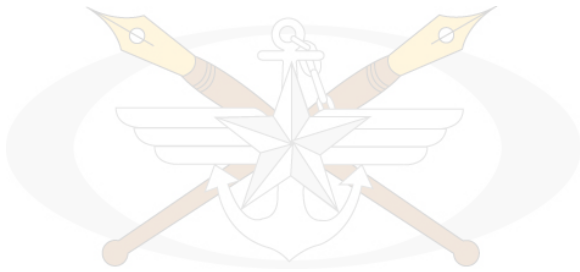
Cowan, R., *Roman Legionary 58 BC–AD 69*, Oxford: Osprey Publishing, 2003.

Cunliffe, B., *Greeks, Romans and Barbarians: Spheres of Interaction*, London: Chrysalis Books, 1988.

- De Blois, L., “Caesar the General and Leader”, in Raaflaub, Kurt A., ed., *The Landmark Caesar*, New York: Anchor Books, 2017, 102–108.
- Erdkamp, P., *Hunger and Sword. Warfare and food supply in Roman republican wars(264–30 BC)*, Amsterdam: J C. Gieben, 1998.
- Goldsworth, A., *Roman Army at War: 100 BC-AD 200*, Oxford: Clarendon Press, 1998.
- _____, *Roman Warfare*, London: Basic Books, 2000.
- _____, *The Complete Roman Army*, London: Thames & Hudson Ltd, 2003.
- Johnson, Kyle P. “Organization and Decision Making in Caesar’s ‘Bellum Gallicum’” *PhD. diss.*, New York University, 2012.
- Jones, A. H. M., *The Later Roman Empire, 284–602; a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urve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Kessler, D. & Temin, P., “The organization of the grain trade in the early Roman Empire”, *Economic History Review* 60, 2007, 313–332.
- Kraus, C., “Bellum Gallicum”, in Miriam, G., ed., *A Companion to Julius Caesar*,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9, 157–174.
- Mattern, S., “Imperial Power in the Roman Republic”, in Tabachnich, D. & Koivukoski, T., eds., *Enduring Empire: Ancient Lessons for Global Politic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27–146.
- Matthews, S. R., “The Logistics of Feeding the Roman Army on the Lower Danube”, *PhD. diss.*, University of London, 2018, 1–340.
- McMahon, Thomas Christian, “A Soldier in the Dark: Navigating Gaul through the Eyes of Caesar and His Men”, *World Languages*,

- Literatures and Cultures Undergraduate Honors Theses* 3, 2005, 1-64.
- Midford, S. & Evans, R., *Caesar's Triumphs over Gaul, and Rome*, Melbourne: La Trobe University, 2017.
- Osgood, J., "The Pen and the Sword: Writing and Conquest in Caesar's Gaul", *Classical Antiquity* 28.2, 2009, 328-358.
- Parkins, H. & Smith, C., eds., *Trade, traders, and the ancient city*, London: Routledge, 1998.
- Peddie, J., *The Roman War Marchine*, Gloucestershire: Sutton Publishing, 2004.
- Phang, S. E. & Spence, I., eds., *Conflict in Ancient Greece and Rome: The Definitive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Encyclopedia*, California: ABC-CLIO, 2016.
- Phillips, Freedom-Kai, "A General's Self-Depiction: The Political Strategies of Gaius Julius Caesar as Seen in the Commentarii de Bello Gallico", *Senior Honors Theses* 109, 2004, 1-22.
- Raaflaub, Kurt A. & Ramsey, John T., "Reconstructing the Chronology of Caesar's Gallic Wars", *Histos* 11, 2017, 1-74.
- Raaflaub, Kurt A., "Caesar and Genocide: Confronting the Dark Side of Caesar's Gallic Wars", *New England Classical Journal* 48, 2021, 54-80.
- Rosenstein, N., "Military Logistics", in Raaflaub, Kurt A., ed., *The Landmark Caesar*, New York: Anchor Books, 2017, 92-96.
- Roth, J.,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264 B.C.-A.D. 235)*, Leiden: Brill, 1999.
- Ruppel, Dan, "Caesar's Corny Commentaries: Provisions as Power in The Gallic War", *Hirundo: The McGill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7, 2008/2009, 101-106.
- Serrati, J., "Review of Hunger and the Sword: Warfare and Food

Supply in Roman Republican Wars (264–30 BC)”,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90, 2000, 222–224.



(Abstract)

The Limitations of Roman Military Logistics during the Gallic War

Bae, Eun-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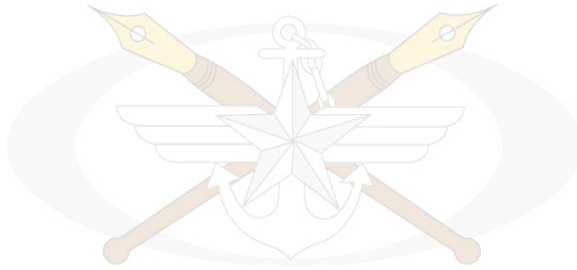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whether the logistics system is properly prepared in the actual battlefield, as Caesar emphasized the logistic system. Caesar relied on the supply of munitions from the Gauls, allied with Rome. However, Caesar was not well prepared for the betrayal of the allies. One way was to loot food or livestock from local residents. However, looting was a way to refrain from spreading of the hostile Gauls. Harvesting on the battle spot during the harvest season was also a method, but this also had the disadvantage of being highly likely to be attacked by enemies due to loose boundaries due to harvesting. Caesar's lack of munitions led to hasty and improvised operational changes to secure munitions, which led to operational failure.

When munitions were transported to battlefields or other garrison sites, it was cheaper and took less time to transport by sea than by land. However, the battlefield of Caesar's army was inland away from the sea or river, so it was not easy to take advantage of the sea route. Mountains, forests, and swamps were used as logistical bases, which made it difficult to connect with the logistics lines behind them. In addition, munitions were kept in one place for the convenience of defense and distribution,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munitions may be lost due to an enemy attack. Therefore, there were problems in Caesar's method of transporting and storing munitions and selecting a logistical base.

Even if it is a victorious war, it cannot be said that all strategies, tactics, leadership, and military logistics are perfect. Caesar made great efforts to secure military supplies, but suffered from a constant shortage

of military supplies. His situation was poor compared to the period of the Punic War, when there was a centralized military logistical system, or the Imperial period when the supply of munitions was constant with the standing army system and the permanent garrison system.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late republican period had limitations in military logistics compared to the previous or later peri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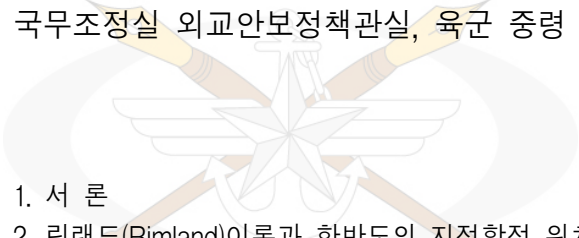
Keywords : military logistics, local procurement, munitions transport procession, logistical base, sea and land transport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375-419
<https://doi.org/10.29212/mh.2022..122.37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미·중 군사경쟁 양상 분석

강정일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육군 중령

- 
- 목 차
1. 서 론
 2. 림랜드(Rimland)이론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3. 중국과 미국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4. 미·중의 군사적 충돌과 한반도 : A2/AD와 MDO
 5. 결 론

초 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미·중의 군사적 경쟁 양상과 연계·분석함으로써,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안보환경을 평가하여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스파이크만의 림랜드이론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어떠한 지정학적 시각을 견지하여 그들의 군사전략을 어떻게 한반

도에 적용해왔는지'에 대해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의 反접근/지역거부전략(A2/AD전략)과 미국의 다영역작전(MDO)을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작전 양상 속에서 봉쇄의 전략적 요충이자, 순망치한의 완충지로, 이면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한반도의 가치와 함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특히, A2/AD전략의 근간이 되는 제1도련선 내에 위치하면서, 미국의 對중국 봉쇄정책과 MDO의 첨단 에 위치한 양국의 핵심이익이 중첩되는 지정학적 공간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미·중의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양상이 충돌하는 새로운 안보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환경 변화가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아태지역에서의 미·중 패권경쟁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제어 : 지정학, 봉쇄정책, A2/AD전략, 다영역작전(MDO), 한반도

(원고투고일 : 2021. 7. 3,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서론

가.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韓半島)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끊임없는 충돌이 발생하는 민감한 지역이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반도는 대륙국가에게는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팽창의 발판으로, 해양국가에게는 해상 무역로의 거점이자 대륙세력을 저지하고 견제하는 봉쇄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해왔다.¹⁾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모두에게 자유롭지 못했다.²⁾ 21세기 한반도는 고난의 일제강점기를 지나 냉전 구조 속에서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 탈냉전 이후에도 남한과 북한으로 분리되어 패권국가인 미국과 도전국인 중국의 파트너로서, 또는 인접국인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단국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더구나 미·중 패권경쟁을 포함한 주변국 간의 경쟁 구도가 인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재 안보상황을 고려 시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로버트 카플란(Robert D. Kaplan)은 그의 저서 『지리의 복수(The Revenge of Geography)』를 통해 중국의 패권 도전과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 증대는 제국적 영역을 재확립

1) 한반도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으나 본 논문은 학계의 주된 관점에 따라 한반도의 가치를 분석할 것이다. 비판적 주장은 김학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인식에 대한 재고 : 전략적 요충지 통념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53(2), 2019.를 참고할 것.

2) G. A. Lensen, Korea and Manchuria Between Russia and Japan, 1895-1904 (Florida: The Diplomatic Press, 1966), pp.2~3.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며, 중국의 군사적 도전은 지리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간접적 위협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³⁾.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도전은 시작단계를 뛰어넘어 현실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국력은 카플란이 평가했던 시기와 달리 급부상하여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다. 2021년 기준 중국의 국민총생산(GDP)은 16.86조 달러로 미국의 22.9조 달러의 2/3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였으며, 2021년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산한 중국의 GDP는 27.07조 달러로 미국의 22.9조 달러를 초월한 상황이다⁴⁾.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군사력의 비약적인 증강으로 이어져, 2021년 기준 중국의 국방비는 1,782억 달러로, 7,405억 달러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위치에 올라있다⁵⁾.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가열될수록 한반도 안보환경의 유동성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 영토 또는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연루와 방기의 위험성 또한, 점증 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국력 신장과 미국의 對 중국 봉쇄정책이 상충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전략 및 작전수행 양상이 변모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정학을 중심으로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미·중의 군사적 경쟁 양상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흔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3) 로버트 D.카플란 지음, 이춘호 옮김, 『지리의 복수』, 서울: 미지북스, 2017, 294-296쪽.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October> (검색일: 2021.12. 1.)

5)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검색일: 2021. 12. 1.)

설파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미·중 패권경쟁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과거와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림1>과 같이 지정학이라는 분석의 틀을 중심으로 스파이크만의 림랜드이론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살펴본 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어떠한 지정학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군사전략을 한반도에 어떠한 형태로 적용해왔는지’에 대해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국의 反접근/지역거부전략(이하 A2/AD전략)⁶⁾과 미국의 다영역작전(MDO)⁷⁾을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작전 양상 속에서 봉쇄정책의 요충지이자, 순망치한의 완충지로서 이면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한반도의 가치와 함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전쟁의 양상은 시대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화되어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역사라는 학교가 가르쳐주는 변화하지 않는 교훈이 담겨 있다. 이 교훈은 보편적인 함의를 가지고 지속되며, 일반적 원칙으로 적용 가능한 역사의 산물이다.”⁸⁾ 라는 마한(A. T. Mahan)의 주장과 같이 역사가 항상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고, 지리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현실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방법론도 충분히 타당성을 가질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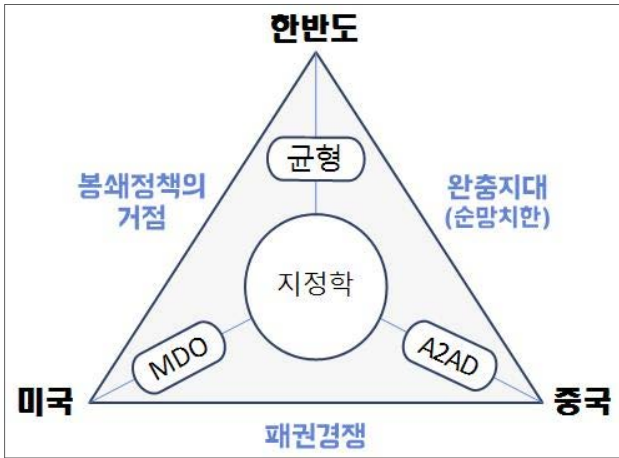
6) 美 국가안보전략서(NSS, '10. 5. 27.)에서 최초로 정의한 중국의 전략으로 A2(Anti-Access)는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反접근(Anti-Access)을 의미하며, AD(Area Denial)은 작전지역 내 미국의 행동을 제한하는 지역거부(Area Denial)를 의미한다. 본 논문은 중국의 해양전략을 A2/AD전략으로 기술한다.

7) 다영역작전(MDO: Operation)은 2025~2040년에 미국과 동맹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여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상한 개념이다. 허광한, “미국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대한 비판과 수용” 『軍史研究』, 제147집, 2019, 148쪽.

8) A.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49), p.2.

을 것이다.

〈그림 1〉 분석의 틀



2. 림랜드(Rimland)이론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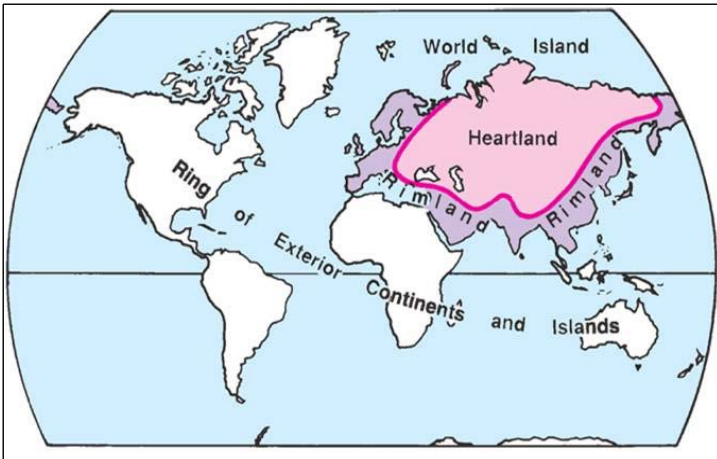
가. 스파이크만의 림랜드이론과 봉쇄정책

스파이크만(Nicholas J. Spykman)은 『평화의 지리학(The Geography of peace)』을 통해 국가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지정학적 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스파이크만은 연안지역인 림랜드의 중요성에 대해 “유라시아의 주변 지역은 심장지역(Heartland)과 연안(Marginal sea)의 사이에 위치한 매개지역일 뿐만 아니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광활한 완충지대(Bufferzone)이다.”라고 강조하며⁹⁾ 림랜드(Rimland) 지역

9) Nicholas J. Spykman, The Geography of peace (New york: Harcourt, Brace, 1944), p.41.

을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점유해야 할 열쇠와 같은 곳으로 지목하였다¹⁰⁾. 림랜드 지역은 고온다습하여 대부분 지역이 농경에 적합하고, 많은 인구가 생활하는 문명화된 지역으로 해양 및 대륙세력 양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공간이다. 원충지대인 림랜드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정치적 통일성과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해양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용한 거점이자 정치·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¹¹⁾.

〈그림 2〉 스파이크만의 세계구분



* 출처 : <https://slideplayer.com/slide/14776816/> (검색일 : 21. 4. 8)

스파이크만의 림랜드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냉전 종식 시기까지 서구의 대표적인 지전략(Geostrategy)으로 활용되

10) S. B. Cohen, *Geography and Politics in a World Divide* (New York: Random House, 1963), p.46.

11) 림랜드 지역은 4대 고대문명과 기독교, 불교 등 종교가 발원한 지역이다. 김종두, 『한반도 해양정치학』, 서울: 문영사, 2000, 80-82쪽.

었다. 당시 스파이크만은 림랜드이론을 중심으로 소련의 확장을 저지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지정학적 논리는 1947년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에 투영되어 미국의 對 소련 봉쇄정책의 기본적 틀로 활용됨으로써, 림랜드를 장악하려는 대륙국가들의 침투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반영되었다¹²⁾. 스파이크만의 이론은 이후 조지 케넌(George F. Kennan)과 브레진스키(Brzezinski)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냉전기 미국 군사정책의 기본적 틀인 봉쇄정책(containment)으로 적용되었다.¹³⁾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이념적 적국이자 냉전의 한 축인 소련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고심하였고, 그 결과 지정학에 기반을 둔 봉쇄정책을 계획하여 소련을 대상으로 적용한 것이다. 스파이크만의 림랜드이론에 영향을 받은 브레진스키는 그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경쟁국들을 그들의 영토 내에 봉쇄시킴으로써, 한 국가의 영향력이 범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브레진스키는 유라시아의 주변부라 할 수 있는 림랜드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특히, 한반도는 판단의 시점과 무관하게 전략적 요충지로 지속하여 분류해 오고 있다¹⁴⁾.

12) 이기택, 『현대국제정치이론』, 서울: 박영사, 1997, 108쪽.

13) 모스크바 주제 美 외교관이던 George Kennan은 소련에 관한 정보를 미국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였으며, 봉쇄정책에 대해 학술지인 Foreign Affairs에 X라는 필명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 케넌은 “소련을 봉쇄하고 내부적인 변화를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X,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Vol. 25, No. 4, 1947, pp.566~582.

14)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Basic Books, 2007), ch. 2.

나. 동북아시아의 림랜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대륙의 동북쪽 끝에 위치한다.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동북부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삼면은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일본열도를 향해 약 1,000km 정도 뻗어 있다. 한반도의 국경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1,416km, 러시아와는 두만강 하류를 기준으로 19km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스파이크만이 주목한 ‘림랜드 지역’으로 분류되는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이자, 마한이 강대국 지위를 결정하는 전략적 핵심이라고 여겼던 중요 해로 즉, 태평양으로 진출이 가능한 대한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거점이기도 하다¹⁵⁾.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림랜드, 한반도는 온대지역에 속하여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해양과 대륙을 이어 주는 매개지역이자, 해양국가 또는 대륙국가가 선점하여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는 태평양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인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세력 관계 속에서 분쟁의 역사를 감수해야 하였다. 19세기와 20세기에는 해양국가 영국, 미국,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였고, 대륙국가 러시아와 중국 또한, 지정학적 이해에 따라 한반도를 두고 경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한반도는 패권경쟁의 전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는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위치한 폴란드처럼 양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쉬운 지역이면서¹⁶⁾,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15) A. T. Mahan(1949), pp.281~329.

16) 강성학,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 러일전쟁의 외교와 군사전략』,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278쪽.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선점해야 할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끊임없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 20세기 이전의 범세계적 패권경쟁이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1세기 패권경쟁의 중심은 동아시아 지역의 림랜드인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¹⁷⁾.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가 다시 패권경쟁의 전장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3. 중국과 미국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가. 중국의 전통적 인식 : 순망치한과 완충지대

19세기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인식은 외교관 황준헌(黃遵憲)이 쓴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황준헌은 “조선이라는 위치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에 있어 그 형세가 반드시 분쟁을 가져오게 되어있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앙 및 동아시아 정세도 날로 위급해질 것이다.”¹⁸⁾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지리적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예로부터 한반도는 중국이 구축해온 화이질서(華夷秩序)를 뒷받침하는 극동의 첨단에 위치하는 속방이자, 중국의 동쪽 지역을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온 군사적 요충지였다. 한반도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톈진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 이르는 주요한 길목에 위치하여 중국의 정치적 중심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입술과 같은 역할을 해온 핵심지역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지정학적 인식은

17) 이영형, “중국의 도련선(島鏈線) 전략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 『한국과 국제사회』,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18년 3월, 138쪽.

18) 황준헌, 김승일 편역, 『조선책략』, 서울: 범우사, 2007, 68쪽.

순망치한(脣亡齒寒)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접한 강대국 일본과의 지역 패권경쟁이 심화 될수록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고양되어 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다수의 학자들은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 ‘해양제국의 전초기지’, ‘중국의 머리를 가격하기 위한 망치’, ‘아시아 본토로 진출하기 위한 도약대’ 등으로 표현하였다¹⁹⁾. 이 모든 수식어들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순환되어 온, 경쟁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가 가지게 된 지정학적 가치를 강조한 말들이다. 중국에게 한반도는 대륙에서 일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단 거리의 돌출부였고, 일본에게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상륙지였다²⁰⁾. 이것이 바로 한반도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게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는 이유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에 대해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한국을 지배하는 우월한 한 나라인 중국, 혹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서 경쟁하는 일본, 러시아 두 국가 간의 세력균형에 의해 결정되어왔다고 주장하였다²¹⁾.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극복하지 못한 채 세력균형의 결과에 따라 종속된 삶을 살아가거나 직접적인 지배를 당해야만 했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주요한 변인은 중국이었다.

19) William Elliot Griffis, Korea, The Hermit Nation, 9th ed. (New York: AMS, 1971), p.9. ; John Chay, "Korea, A buffer State," John Chay and Tomas Ross (eds.), Buffer States in World Politics (Boulder: Westview Press, 1986), p.191.

20) S.C.M. Paine,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98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32~33.

21)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Brief edition (New York: McGraw-Hill Co., 1993), pp.192~193.

6.25전쟁을 통해 중국이 인식해 온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분명해졌다. 개전초기 중국은 건국 후 정리되지 않은 중국 내부의 상황과 지도부의 강력한 개입반대로 인해 참전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이 38선을 향해 진출하자 1950년 9월 30일,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중국인은 외세의 침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웃 국가가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침공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고²²⁾, 10월 7일, 미 제1기병 사단이 38선을 실제로 넘어 북진하자, 10월 13일, 마오쩌둥(毛澤東)은 70시간 가까이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심사숙고하여 6.25전쟁의 참전을 결정하였다. 마오쩌둥은 “중국이 참전하지 않으면 미국은 압록강을 넘어 중국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미군과 유엔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한다면 한반도 전체는 물론 중국 본토까지 군사적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결국 중국은 순망치한(唇亡齒寒)의 두려움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며 6.25전쟁의 참전을 결정하였다²³⁾. 중국은 외부세력의 침공으로부터 국경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필요했고, 완충지대이자 중국 본토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인 한반도의 북부지역 즉, 북한이 필요하였다. 중국의 6.25참전은 북한을 상실하면 중국 본토의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인식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인식은 6.25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61년 7월 11일, 중국은 북한과 전시협력 관계를 넘어서는 북중동맹조약인 ‘중·조 우호합작호조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을 체결하였다. 중국이 북한과 조약을

22) 윌리엄 스톡 저, 서은경 역,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서울: 나남출판, 2005, 122쪽.

23) 세르게이 곤차로프, 존 루이스, 웨리타이 지음, 『흔들리는 동맹: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서울: 일조각, 2011, 339쪽.

체결한 것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이었다²⁴⁾. 북·중 동맹조약이 체결된 이후, 변모하는 국제질서와 북핵문제에 따라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수시로 변화하였지만 중국이 바라보는 순망치한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상황하에서 중국은 국경의 안전보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1961년 북중동맹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후원자로서 북한체제를 옹호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는 이유이다²⁵⁾. 더구나 최근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국제적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중국의 대북정책이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이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충분한 영향력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중국은 북한 정권이 유지되어 자국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지속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로 서방과 함께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 정권과 국경의 안전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고, 반대로 북한이 자체적인 정권교체나 붕괴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유지된다면 중국은 국경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남한과 경제적 상호성이 확대된 현실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혼란은 중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내 분단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을 미

24) Ji-Young Lee, “Geopolitics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 Implications for U.S Policy in the Indo-Pacific”, p.14. <https://www.rand.org/pubs/perspectives/PEA524-1.html> (검색일: 2021. 3. 12.)

25) Ji-Young Lee(2021), p.15.

국에 대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방목표로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치·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학적 요인을 근본으로 하는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과 지전략적 인식은 외부의 충격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 인식 : 봉쇄정책의 전략적 요충지

미국과 한반도의 공식적인 관계는 1882년 5월 12일,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常條約)을 체결한 이래로 지속 되어 왔다. 미국은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첫 번째 서구열강 국가로서, 조선에 전권공사까지 파견하면서 새로운 상업중심지가 될 조선과의 교역에 큰 기대를 지니고 있었다²⁶⁾. 그러나 당시 조선과의 교역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비한 수준이었고, 향후 개선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자, 미국은 먼로독트린을 내세워 한반도에 대한 우호정책을 변경하기 시작하였다²⁷⁾. 미국은 수교체결 2년 만인 1884년 7월 7일, 「외교 및 영사법(Diplomatic and Consular act)」을 통해 주한 공사의 지위를 ‘특명전권공사’에서 총영사급의 ‘변리공사’로 강등시켰다. 이에 격분한 푸트(Foote, L. H.)공사가 사임하자 미국 정부는 공사의 후임을 내정하지 않고 18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겨둘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당시 미국은 ‘먼로독트린

26) 당시 유럽 열강들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경 중국 공사가 조선공사를 겸직하도록 하였으나, 미국은 북경과 분리된 조선만의 전권공사를 파견하였다. 강성학(1999), 118쪽;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서울: 지식산업사, 2007, 172쪽.

27) 미국은 조선의 시장성에 대한 실망으로 조선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했고, 미국의 입장에서 조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최문형(2007), 177~180쪽.

(Monroe Doctrine)'을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러시아를 포함한 제국주의 열강들과의 마찰을 감수할 생각이 없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도 미국은 일본이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한반도와 청나라의 무역장벽을 제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팽창을 묵인하였으며²⁸⁾, 일본 또한,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자국의 이익선에서 태평양과 필리핀을 제외하면서, 남쪽으로 타이완, 서쪽으로는 한반도와 중국대륙을 목표로 한 팽창정책을 적용할 수 있었다²⁹⁾. 그 결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었던 미국을 대신하여 일본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세력구도와 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해 다시금 회귀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하트랜드를 기반한 신생 사회주의국가 소련이 이념을 중심으로 국경 주변부에 대한 팽창정책을 가속화 하면서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전략적·지정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제지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당시 駐 소련대사였던 케넌(George Kennan)의 주장을 수용하여 소련의 주변부를 포위하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적용하게 되었다³⁰⁾. 미국은 1950년 4월 'NSC 68 문서'³¹⁾를 통해 '전 세계를 포괄하

28) В. Д.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осква, ИВ РАН.(2004), С.207. ;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지음, 민경현 옮김, 『러시아와 한국』,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390~391쪽.

29)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의 역사 3』,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74쪽.

30)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82), pp.55~56.

31)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NSC 68,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April 14, 1950.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191.pdf?v=2699956db534c1821edefa61b8c13ffe> (검색일: 2021. 1. 14.)

는 공세적 봉쇄전략의 필요성을 명시하였고³²⁾ 이로써 봉쇄정책은 냉전 이후 미국의 對 소련 안보정책의 근간이 되었다³³⁾.

그러나 봉쇄정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구상되었고, 당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는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³⁴⁾. 미국은 1947년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을 통해 아시아지역 핵심국가로 일본을 지목하였으며, 1948년 4월, 트루먼 대통령이 美 국가안보회의에서 “남한에 현재의 군대와 군사기지를 유지하는 것은 전략적 가치가 거의 없다.”³⁵⁾라고 발언한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미국이 바라보는 한반도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차적인 공간이었다. 이러한 인식과 판단 아래 미군은 1949년 6월 29일, 소수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긴 채 남한에서 철수하였고, 급기야 1950년 1월 12일, 국무장관 애치슨(Dean Acheson)은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였다. 이는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암시적으로 시사한 것이기도 하였다³⁶⁾. 극동방위선의 개념은 美 합참이 소련과의 전면전을 가정하여 고안한 극동지역전략의 하나였지만³⁷⁾,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은

32) 패트릭 모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원격억제정책,” 박동환 편, 『주한미군의 전략 가치』,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0, 71쪽.

33) George F. Kennan, *Memoirs 1925-1950* (London: Hutchinson, 1968), pp.292-295.

34) 차상철, “트루먼과 아시아에서의 냉전,” 최영보 외, 『미국현대외교사: 루스벨트 시대에서 클린턴 시대까지』, 서울: 비봉출판사, 1998, 176쪽.

3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The Far East and Austrasia, Volume VI*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8v06/d776>(검색일: 2021. 1. 28)

36) Edward A. Olson,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San Francisco: World Affairs Council of Northern California, 1988), p.3.

37)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175쪽.

알류산 열도,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가 있는 류큐에서 필리핀으로 연결된다.”³⁸⁾라고 범위를 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한반도는 미국의 봉쇄정책을 위한 방어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물론 한반도가 극동방위선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긴 하였지만³⁹⁾, 애치슨 선언 이후 스탈린이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다는 사실은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⁴⁰⁾.

이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지정학적 인식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크게 변화하였다.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비호 아래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 침공한 북한의 행위를 소련의 군사적 팽창을 위한 전초전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제2차세계대전 이후 패권국으로 부상한 자국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다⁴¹⁾. 따라서 한반도 특히, 남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일본의 공산화를 완화하는 완충지대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첨단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⁴²⁾.

미국의 對 한반도 정책은 對 소련 봉쇄정책을 바탕으로 남한에 대한 ‘경제·군사적 원조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기조 아래 지속해서 유지되어왔다. 특히, 동북아지역 봉쇄정책의 첨병인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충분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한 가운데 봉쇄정책을 유지하였다. 비록 미국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변화를 거듭하였지만 6.25전쟁 이후 미국은 한반도를 강대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림랜드 지

38) Dean. Acheson, January 23, 1950, “Crisis in Asia—An Examination of U.S. Policy,”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X X I I., No. 551, pp.111~118. <https://worldjpn.grips.ac.jp/documents/texts/docs/19500112.S1E.html> (검색일: 2021. 1. 28)

39) 김영호(2005), 172~176쪽.

40)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서울: 백산서당, 2000, 75~76, 87쪽.

41) Dean Acheson, The Korean War (New York: W. W. Norton, 1971), p.20.

42) 김일수, “한·미 군사동맹의 초기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학 논집』, 제35권, 제2호, 2003, 한국아메리카 학회, 65쪽.

역으로 인식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과 데탕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노력해 왔다. 미국은 봉쇄정책을 통해 소련을 저지하고 압박해 나가면서, 소련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주변국가들의 反소련 연대와 단체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련의 붕괴를 촉진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⁴³⁾.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체제가 수립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북한이 핵 문제를 포함한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하면서 한반도는 여전히 지정학적 충돌 요인이 상존하는 국제사회의 관심 지역으로 남아 있다. 미국은 1990년 새로운 세계 질서에 부합하는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을 포함한 군비감축을 단행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시도한 바 있으나, 북한의 핵 위협이 증대됨으로써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도 북한 문제는 미국의 안보정책에 있어 핵심위협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정책의 변인이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유산인 분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공고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과 북한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지정학적 안보 상황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더욱이 북한 핵 문제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고, 패권국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현실화되고 있어 미국에게 한반도는 도전국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핵심적 요충지로서 인식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일본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겠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의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에 있어 간과할 수 없

43) Peter Schweizer, Victory: The Reagan Administration's Secret Strategy That Hastene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94), Ch 4, 15. 를 참고할 것.

는 핵심적 지역으로 명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대륙국가 소련, 중국, 북한에 맞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지속하여 주둔해 온 군사적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위협과 도전이 상시 내재 되어있는 민감한 지역이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요충지로서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가 상충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4. 미·중의 군사적 충돌과 한반도 : A2/AD와 MDO

가.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과 A2/AD전략

1) 해양국가로의 전환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한 중국은 총 22,457Km의 지상 국경선을 따라 총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남쪽 방면에 형성되어 있는 해안선은 태평양과 14,500Km를 연해 있다⁴⁴⁾. 중국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지정학적 특징이 혼재되어 있으나 역사적으로 광활한 내륙지역에서 자급자족하는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봉건사회를 유지하며 생활해 왔기 때문에 대륙국가의 특징이 강하게 남아있다. 중국은 대륙과 해양의 혼합적인 특성을 지닌 국가였지만 오랜 기간 대륙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온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도 내륙중심의 방어전략에 치중하며 해양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다. 대부

44)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china/#geography>(검색일: 21. 1. 3.)

분의 위협은 내륙으로부터 야기되었고, 해양을 통한 침략은 근대에 이르러 발생했기 때문에 해양은 열린 공간이 아닌 방어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해양으로의 진출은 극히 통제되어왔다⁴⁵⁾. 그러나 내륙에 치중된 중국의 전통적 관념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20세기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변모하기 시작하였다⁴⁶⁾.

중국은 1990년대 경제개발을 통해 국력이 점차 신장됨에 따라 대륙이 아닌 해양의 중요성과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하였다⁴⁷⁾. 1992년 장쩌민(江澤民)이 중국공산당 제14차 당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중국이 해양에서 가지는 권리와 이익’을 주장한 이래로, 2004년 후진타오(胡錦濤)가 ‘해양으로의 발전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 시키기 위한 전략 과제’라고 제시하면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하였다⁴⁸⁾. 이후 중국은 2007년 제17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 목표로 지정하였으며, 2012년 제18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자국을 최초로 해양국가로 정의하면서 해양권리와 이익을 강력하게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4년 중국의 국방백서는 ‘육지가 해양보다 중요하다’는 내륙중심의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해상에서의 군사투쟁 준비를 강조하였으며, 더 나아가 중국은 2017년 19차 당대회보고를 통해 ‘육해통합 견지와 해양강국 건설(堅持陸海統籌, 加快建設海洋強國)’을 재차 강조하였

45) 이동률,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정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57(2), 2017, 370쪽.

46) 19세기 쇠약해진 청나라에 대한 서구열강들의 침략으로 인해 중국의 림랜드인 동남연안지대를 해양세력에게 조차해야만 하는 무기력한 상황에 봉착하였다. 로버트 D.카플란(2017), 317쪽.

47) 해양전략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Lixin Sun, "Chinese Maritime Concepts" Asia Europe Journal, Vol. 8, No. 3, 2010, pp.327~338. 를 참조할 것.

48) "紀念我國批准《聯合國海洋法公約》十周年座談會在京召開," 中國海洋學會, 2006. <http://www.hycfw.com/Article/3499> (검색일: 2021.1.5.)

다. 당대회에서 중국지도부는 해양을 민족번영과 국가 안위의 흥망 성쇠를 결정짓는 요소로 부각시키면서 대륙을 벗어나 해양으로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는 ‘중국몽(夢)’ 실현을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이 ‘해양강국 건설’을 통해 초강대국으로의 지위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륙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국가전략을 해양지역까지 범위를 확장 시켜, 미국을 포함한 해양국가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⁴⁹⁾. 현재 중국은 국력 신장과 해륙복합형 국가로서의 지정학적 특성을 재고하여, 연안 방어 수준을 넘어 남·동중국해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을 포함한 남·동중국해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중국의 해양력을 투사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보호하는 해법을 ‘해양국가 건설’에서 찾고 있다⁵⁰⁾.

2) 중국의 A2/AD전략

역사적으로 내륙중심의 방어전략을 구사해온 중국은 안보의 취약 요소로 해양방어를 인식하게 되면서 해양을 이용한 방어전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82년 당시 해군사령관 류화청이 ‘근해 적극방어이론’을 발표하면서 중국 해군의 역할이 연안 방어에서 적극적인 근해 방어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았으며, 이것이 A2/AD전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1996년 대만해협위기 이후 중국은 해양에 대한 외부세력의 진입을 억제, 지연, 방지하기 위한 A2/AD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A2/AD전략은 중국의 서태평양 영역지배 전략을 일컫는 것으로

49) 정혜영, “중국의 지정학과 동남아 네트워크 협력구상: 대륙부·해양부 동남아국가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1호, 2020, 104~105쪽.

50) 차경미, “북중관계의 지정학 : 중국 지정학 전략의 ‘변화’와 대북 지정학 인식의 ‘지속’을 중심으로.” 『東西研究』 제31권 2호, 2019. 143쪽.

로, 해양력이 열세한 중국이 우세한 미국을 상대로 해상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원해에서부터 적의 접근을 거부하는 공세적인 방어전략을 말한다. 사실 ‘A2/AD전략’이라는 명칭은 중국이 새롭게 만들어 낸 작전개념이 아닌 해양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를 기초로 수립된 해안방어전략에 대해 미국에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A2/AD전략은 2001년 미국의 「4개년 국방정책 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최초로 언급된 이후, 2007년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인 ‘Entering the Dragon’s Lair’⁵¹⁾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A2/AD전략은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확보와 영향력 확대, 미국을 포함한 해양세력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A2/AD 전략의 핵심은 미국의 전략적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도련선(島鏈線)의 설정에 있다고 할수 있다. 도련선은 1951년 미국외교정책 분석가이자 6.25전쟁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덜레스(J.F. Dulles)가 대륙국가 소련과 중국을 전략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해상에 구상했던 아일랜드 체인 전략(Island Chain Strategy)⁵²⁾에서 가져온 개념으로, 중국이 이를 반대로 준용하여 미국의 아일랜드 체인 전략에 대한 대응개념을 도련선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다⁵³⁾.

51) Entering The Dragon’s Lair : Chinese Antiac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monographs/2007/RAND_MG524.pdf (검색일: 21.4.13)

52) 아일랜드 체인의 첫 번째 선은 대만-보르네오해-필리핀-쿠릴섬이며, 두 번째 선은 마리아나 제도-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일본 화산 열도, 세 번째 선은 시베리아 동쪽 끝-알류산열도-하와이-뉴질랜드를 연결하고 있다. S. Kulshrestha, “OPINION : Tonga & the Third Island Chain” IndraStra Global, February 25, 2016.

<https://www.indrastra.com/2016/02/OPINION-Tonga-and-Third-Island-Chain-002-02-2016-0070.html> (검색일 : 2021. 1. 3.)

53) Hiroyuki Umetsu, “Communist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hostilities and a U.S. proposal for a 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 in the Pacific offshore island chai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ume 15, 1996, pp.98~118.

현재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을 위시한 해양국가들의 접근을 해양에서부터 거부할 목적으로 A2/AD 전략과 도련선을 구상하여 대응해나가고 있다. 중국은 1985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쿠릴열도~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의 설정을 통해 중국 근해에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美 해군력의 동아시아 주요 해역의 진입을 저지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제1도련선의 완충지대를 확장하여 서태평양 연안을 장악하기 위해 알류산열도~사이판~팜~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제2도련선을 설정하였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제1·2도련선에 그치지 않고 서태평양 전역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류산 열도~하와이~뉴질랜드 일대를 연결하는 제3도련선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중국이 하와이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제3도련선을 공식화하고 해양력까지 구비하게 된다면 중국의 군사전략은 근해를 넘어 원해까지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원해 적극방어전략’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⁵⁴⁾.

〈그림 3〉 미국의 아일랜드 체인 / 중국의 도련선과 애치슬라인



54) 김열수,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대비 전략” 『국가전략』, 2012년 2호, 181쪽.
 55) <https://www.indrastra.com/2016/02/OPINION-Tonga-and-Third-Island-Chain-002-02-2016-0070.html>(검색일 : 2021. 1. 3.)

현재 중국은 A2/AD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합동작전 지휘체계와 국방현대화를 통해 전역작전 능력 제고와 A2/AD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⁵⁶⁾ 2016년 2월,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작전지휘센터(聯合作戰指揮中心)와 각 전구별 별도의 합동작전지휘기구(戰區聯合作戰指揮機構)를 설치하여 A2/AD 전략을 위한 지휘체계를 정립하였고, 육군의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개편하면서 모듈화(模化)된 부대구조의 합성여단과 합성대대를 편성하여 효율적 부대개편을 시행하였다. 해군은 '근해방어형'에서 '원양방어형'으로 전환하여 2017년 4월, 2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호'를 진수하고, 3번째 항공모함을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군은 '영토방공형'에서 '공방점비형'으로 전환하여, 폭격기와 공중급유기를 증강시키고, 전략 수송기와 무인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군사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무기체계의 장사정화, 정밀화, 지능화, 스텔스화, 무인화 추세와 우주·사이버 공간의 전략적 중요성의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2/AD 전략에 있어 한반도는 제1도련선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해상에서 미군 전력의 진입을 거부하고, 중국의 내해를 장악하기 위한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제1도련선은 1950년 미국에서 선언한 극동방위선과 아일랜드 체인과 맞물리는 전략선으로, 미국과 중국 어느 한 나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 지역이다. 특히, 제1도련선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항상 고조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자국의 지정학적, 군사적 안보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제1도련선의 방어를 러시아와의

56) 謝游麟, "析論中共軍改後之聯合作戰指揮體制," 海軍學術雙月刊 52.1 (2018): 42-55.

<https://navy.mnd.gov.tw/Files/Paper/4-析論中共軍改後之聯合作戰.pdf>(검색일: 21. 8. 16)

전략적 공조를 통해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인근에서 정례적으로 해상연합훈련과 평화사명훈련⁵⁷⁾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합초계비행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는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군사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될수록 주변국들에 의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점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다영역작전

1) 인도-태평양 전략

2017년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다. 특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격차의 감소가 미국의 억제력을 약화시켜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규범에 대한 도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⁵⁸⁾ 이 같은 위기의식 아래 2019년 6월, 미국방부는 아시아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⁵⁹⁾’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인

57) 상하이협력기구(SOC)가 주관하는 對테러합동훈련으로서, 2004년 7월, 중러 국방장관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하여 2005년 이후부터 2년에 1회의 연례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반테러리즘을 훈련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 핵전력을 제외한 전략폭격기, 잠수함 등이 투입되고 있어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동맹, 미일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추정되고 있다.

58) U.S. Army TRADOC, *The Operational Environment and the Changing Character of Future Warfare* (Washington D.C.: TRADOC, 2017), p. 2
<https://adminpubs.tradoc.army.mil/pamphlets/TP525-92.pdf>(검색일: 2021. 4. 11)

59)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중국·러시아·북한을 지역 내 현상유지를 타파하려는 도전세력으로 간주하면서 특히, 중국군의 현대화와 A2/AD 능력확대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지역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협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냉전시대 舊 소련에 적용하였던 봉쇄정책과 유사한 對 중국 견제 방향을 제시하였다⁶⁰⁾.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를 통해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주요 동맹국으로서 일본과 호주에 대한 전략적 역할을 규정하면서 일본을 동맹전략의 초석(Cornerstone)으로, 호주는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대상(collaborating)으로,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의 축(Linchpin)'으로 표현하였다⁶¹⁾.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역할을 '평화와 안정'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일본과 호주는 다르게,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적용하며 인도·태평양전략의 참여에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표현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는 한국의 역할을 북한 문제와 한반도 지역에 국한하여 기술하였고, 한국과 관련된 내용에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에 관한 내용 또한, 수록하지 않았다⁶²⁾. 이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통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검색일: 2021. 4. 11.)

60) 박휘라, “미국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분석 : 투키디데스 함정의 위협” 『국제정치연구』, 제23집 2호, 2020, 106쪽.

61) Department of Defense(2019), pp.23~27.

62) 2017년 11월 9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지

해 현재 美 국방부가 생각하는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對 중국 봉쇄정책과 북한 위협 대응이라는 안보적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정학적 거점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는 미국이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 삼국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안보체계의 강화를 강조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요 인사들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등 양자동맹을 인도·태평양전략의 주축으로 삼아, 동맹국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 상호운용성의 확대 등을 통해 자국의 안보 부담을 줄여나가기에 희망하고 있다.

2) 다영역작전(MDO)과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전구전략

다영역작전은 美 육군이 합동군의 일부이자 인도·태평양전략의 군사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작전개념이다. 다영역작전은 2025~2040년 기간을 상정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A2/AD전략에 대한 대응을 통해 무력분쟁이 발생하기 직전인 이른바 회색지대(Gray Zone)에서부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한 작전개념이다⁶³⁾. 이러한 다영역작전의 개념에 대해 냉전시대의 작전개념으로 회귀하였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으나 미국이 패권유지와 연관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견해

역의 안보,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였지만, 다음날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등을 의식하여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부인하였다. 이정훈,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 분석” 『東西研究』, 제30권 4호, 2018, 82쪽.

63) 허광한(2019), 148쪽.

가 많다⁶⁴⁾.

다영역작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 美 육군 전략연구소(SSI: Strategic Studies Institute)에서 발간한 ‘육군의 변혁 :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육군의 전구설계’라는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⁶⁵⁾. 2028년의 전략적 환경을 예측하여 작성된 이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새로운 전구 작전 수행전략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책임지역을 냉전 종식 이후에 도래한 급격한 변화의 중심 또는 재앙의 진원지(Ground Zero)로 표현하면서, 가장 위협적인 도전국인 중국과의 초경쟁(Hypercompetition)의 시대가 도래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전략·작전적 우위는 상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⁶⁶⁾. 이에 따라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적 접근법(reactive approach)’ 보다는 합동군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영역작전을 통해 ‘선제적 접근법(activist approach)’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패권경쟁에 있어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⁶⁷⁾.

이 보고서는 미국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전장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전력화해야

64) 박휘락, “트럼프 행정부의 미래전 대비 방향 평가: MDO를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103호, 2020년(가을), 97~99쪽.

65) ‘An Army Transformed: USINDOPACOM Hypercompetition and Army Theater Design’으로 발간되었으며 2018년 마크 에스퍼 당시 육군장관(前 美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인도·태평양사령부 책임지역에 대한 미래 美 육군 전구설계 방안을 제시한 문건이다.

66) US Army War College SSI, An Army Transformed: USINDOPACOM Hypercompetition and Army Theater Design, 2020, p.8.
<https://press.armywarcollege.edu/cgi/viewcontent.cgi?article=1905&context=monographs> (검색일 : 2021. 4. 23.)

67) US Army War College SSI(2020), pp.28~29.

한다고 조언하면서 일본, 호주를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 중국의 A2/AD전역 내 위치하는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작전기지로서 중국, 북한, 러시아에 맞서 다영역작전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거점으로 묘사하였다⁶⁸⁾.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략·운용적 상황이 변화될 경우, 고정되어 있는 한·미간 안보협력 관계가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다고 예상하며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일본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국가이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이지만 중국과의 문화적 근접성과 A2/AD전역 내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일본과의 악화된 관계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여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역할 수행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⁶⁹⁾. 더불어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책임지역 내 미군의 배치는 6.25전쟁과 냉전의 유산으로 현재의 미군 배치는 초경쟁 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역량을 증대해 나가는 중국의 새로운 군사적 적대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⁷⁰⁾. 이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한반도의 전략·작전적 상황이 변화될 경우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목적이 재설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전략과 다영역작전의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향후 미국의 행보에 동참하라는 무언의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이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육군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군사정책을 결정하는 에스퍼 前 국방장관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의 시각과 생각을 반영한 문

68) US Army War College SSI(2020), p.77.

69) US Army War College SSI(2020), pp.78~79.

70) US Army War College SSI(2020), p.59, 74.

서로,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안보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바이든 정부의 국방정책 또한, 획기적인 변화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 합동 전영역작전(JADO : Joint All-Domain Operations) 으로의 발전

미국 합참은 '다영역작전(MDO)' 개념을 모태로, 중국의 A2/AD전력을 극복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합동 전영역작전(JADO : Joint All-Domain Operations)'을 발전시키고 있다. JADO는 변화하는 작전환경과 적의 A2/AD 전략에 대응하고 대규모 전쟁 수행을 위한 합동작전 기본개념으로 모든 전장 영역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작전개념이다⁷¹⁾. JADO는 공지전투(Air-Land Battle)에서 수행된 영역 간 지원의 개념을 넘어선 지상, 공중, 해양, 사이버 등 작전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합동 전력들의 통합작전으로 구성된다.

JADO 개념은 이전의 합동작전 접근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과 마찬가지로 전면전의 경우 중국의 A2/AD전력을 와해, 패배시키는 공격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JADO는 전 영역의 센서들과 공격무기들을 포괄적으로 연결한 자동화된 지휘통제 체계인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JADC2 : 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 체계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⁷²⁾. 美 육군은 합동 전영역작전의 모태가 된 '다영역작전(MDO)' 개념을, 공군은 JADO를 통한 강력한 시너지 효과의 중요

71) Brett Daniel, "What Is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 Trenton Systems Blog, on Nov 9, 2020

<https://www.trentonsystems.com/blog/what-is-jadc2> (검색일: 2021. 4. 19.)

72) 최우선, "미중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국립외교원,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62, 8-9쪽.

성을 강조하는 '신속전투배치 (Agile Combat Employment)'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美 해군은 통합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분산된 기동작전 수행을 위한 '분산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개념을, 해병대는 작은 섬들을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기동전을 수행하는 '원정전진기지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을 발전시키고 있다⁷³⁾. 향후 미국은 분쟁 역제를 달성하기 위해 평시부터 다영역작전을 포함한 JADO작전을 통한 경쟁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4)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과 2022년 국방예산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⁷⁴⁾'을 공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지침을 통해 국제 안보환경 내 위협들이 국경이나 장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반영하였다. 특히, 중국을 '급속도로 강해지고 있으며,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인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으로 표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협력과 다자주의 공조, 외교정책을 통한 갈등 해결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미국 국민, 경제, 민주주의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한국을 포함한 NATO, 호주, 일본 등 동맹과의 파트너십을 다시금 활성화, 현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⁷⁵⁾.

73) 최우선(2020), 10-12쪽.

74)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March, 2021.
<https://fas.org/irp/offdocs/inssg.pdf> (검색일: 2021. 4. 11.)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전략은 국방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다. 2021년 12월 27일 2022회계연도 국방예산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⁷⁶⁾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2021년 국방예산 7,405억 달러(한화 870조 원) 대비 약 5% 증가한 총 7,680억 달러(한화 912조 원)로 확정되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을 증강하는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에 약 51억 달러(한화 5.6조 원)를 배정하였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위협국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분야에 204억 달러(한화 22.5조원)를 배정하였다.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국가안보전략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살펴본 중간지침과 국방예산안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미국은 ‘경쟁적 우위’ 요소를 이용하여 중국의 A2/AD체계를 무력화하고 중국에게 비용 소모를 강요하는 경쟁전략을 지속해나가며, 분쟁 억제에 달성을 위해 평시부터 다영역작전을 통한 경쟁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A2/AD전략의 내선에 위치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여러 방면에서 인도·태평양전략과 다영역작전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75) The white house(2021), p. 10.

76)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4350/text>(검색일: 2021. 12. 16.)

5. 결론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분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양측세력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안지역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륙과 해양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자, 지속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 같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냉전시기 한반도는 정치·이념적 충돌을 감수해야 하는 민감한 완충지대였으며, 현재도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 대치하는 냉전의 유산이 유지되는 유일한 대립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군사·안보적으로 한반도는 강대국의 핵심이익과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지역이자, 중국의 부상과 북한과 대만 문제, 동아시아국가들의 첨예한 영토분쟁이 지속되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경쟁의 공간이기도 하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특히, A2/AD전략의 근간이 되는 제1도련선 내에 위치하여, 미국의 對 중국 봉쇄정책과 다영역작전의 첨단에 위치한 양국의 핵심이익이 중첩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미국의 對 중국 봉쇄정책의 전략적 교두보로서 ‘중국의 머리를 가격할 수 있는 망치’ 역할이 가능한 공간이며, 중국에게 있어서는 외세의 침입을 저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미국의 봉쇄정책을 와해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입술과 같은 공간인 것이다.

최근 중국의 국력신장과 미국의 對中봉쇄정책이 현실화되면서, 한반도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미·중의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양상이 충돌하는 새로운 안보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중국은 방어와 공격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전략적 방어’와 ‘적극적 자위를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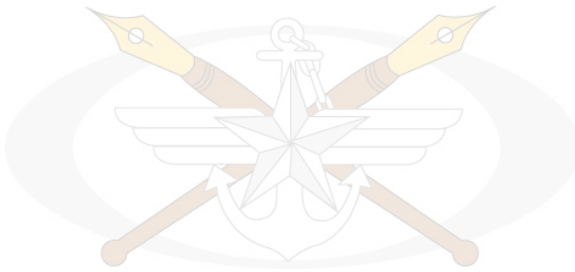
한 반격'이 중심이 되는 공세적인 방어개념인 '적극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여 'A2/AD전략'을 구현하고 있다. 중국은 서해를 이미 내해화하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고, 한반도를 중국의 핵심이익에 포함하여 한반도 근해의 미군 군사활동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향후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지역적 불안정성은 가중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주한미군의 재배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전구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육군전력의 재배치를 통해 더욱 촘촘한 對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 호주와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통해 對 중국 봉쇄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미·중의 전략개념과 작전수행 방식의 변화는 한반도의 안보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패권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의 다영역작전과 중국의 A2/AD전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패권경쟁의 전장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록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위협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미·중 패권경쟁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 영토 또는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지역분쟁에 연루될 가능성 또한, 증대될 것이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에 대항하여 인도·태평양전략과 다영역작전에 참가하는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증가하고, 패권국 미국에 맞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등 세력 구도가 재편됨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지정학적 가치

가 상쇄되어 양 세력 모두에게서 방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순망치한의 북중관계와 한미동맹이 중심이 되는 한미관계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대체할 수 있는 필리핀과 같은 새로운 지정학적 요충지를 확보한다면, 과거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를 배제한 것처럼 우리를 방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70년을 넘게 동맹관계를 이어 온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연루의 상황 또한,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본 논문은 군사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해 ‘처방이 아닌 진단’의 수준에서 기술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환경 변화가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아태지역에서의 미·중 패권경쟁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안보적 측면에서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이익을 증대시키는 국가적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의 수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은 한반도 내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동맹국 한국이 對 중국 봉쇄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지정학적 거점으로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안보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반면, 안보적 측면과는 다르게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는 미국보

다는 중국과 더 큰 규모의 교역을 유지하고 있으며⁷⁷⁾, 향후에도 지리적 근접성에 기반한 對中 무역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두 개의 핵심축인 안보와 경제,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어느 국가와도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율성을 유지한 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해징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서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우리의 국력과 한미동맹, 한중관계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배합하는 지혜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77)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최대 수출입국은 중국으로 2위인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교역량은 1.7~1.8배의 차이가 난다.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 (검색일 : 2021. 12. 23.)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성학,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 러일전쟁의 외교와 군사 전략』,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http://uci.or.kr/G901:A-0008559712@N2M>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http://uci.or.kr/G901:A-0006108905@N2M>

김종두, 『한반도 해양정치학』, 서울: 문영사, 2000.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의 역사 3』,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http://uci.or.kr/G901:A-0006376793@N2M>

로버트 D. 카플란 지음, 이춘호 옮김, 『지리의 복수』, 서울: 미지북스, 2017.

박동환 편, 『주한미군의 전략가치』,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0.

<http://uci.or.kr/G901:A-0008437140@N2M>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지음, 민경현 옮김, 『러시아와 한국』,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세르게이 곤차로프, 존 루이스, 웨리타이 지음, 『흔들리는 동맹: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서울: 일조각, 2011.

<http://uci.or.kr/G901:A-0006335675@N2M>

윌리엄 스톡 지, 서은경 역,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경기 파주: 나남출판, 2005.

<http://uci.or.kr/G901:A-0006080310@N2M>

이기택, 『현대국제정치이론』, 서울: 박영사, 1997.

<http://uci.or.kr/G901:A-0008446637@N2M>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서울: 백산서당, 2000.

<http://uci.or.kr/G901:A-0005994797@N2M>

- 황준현, 김승일 편역, 『조선책략』, 서울: 범우사, 2007.
<http://uci.or.kr//G901:A-0006457997@N2M>
-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서울 : 지식산업사, 2007.
<http://uci.or.kr//G901:A-0006167425@N2M>
- 최영보 외, 『미국현대외교사: 루스벨트 시대에서 클린턴 시대까지』,
서울: 비봉출판사, 1998.
- A.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49.
-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 Basic Books, 2007.
- Dean Acheson, The Korean War, New York: W. W. Norton, 1971.
- Edward A. Olson,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San Francisco: World Affairs Council of Northern California, 1988.
- George F. Kennan, Memoirs 1925-1950, London: Hutchinson, 1968.
- G. A. Lensen, Korea and Manchuria Between Russia and Japan, 1895-1904, Florida : The Diplomatic Press, 1966.
-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Brief edition, New York : McGraw-Hill Co., 1993.
- John Chay and Tomas Ross (eds.), Buffer States in World Politics. Boulder: Westview Press, 1986.
-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82.
- Nicholas J. Spykman, The Geography of peace, New york: Harcourt, Brace, 1944.

- Peter Schweizer, Victory: The Reagan Administration's Secret Strategy That Hastene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94.
- S. B. Cohen, Geography and Politics in a World Divide, New York : Random House, 1963.
- S. C. M. Paine,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98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William Elliot Griffis, Korea, The Hermit Nation, 9th ed., New York: AMS, 1971.
- Б. Д. Пак.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осква, ИВ РАН, 2004.

2. 논문

- 김열수,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대비 전략", 『국가전략』, 제18권 2호(2012): 171-194.
<http://uci.or.kr/G901:A-0003060886@N2M>
- 김일수, "한·미 군사동맹의 초기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학 논집』, 제35권, 제2호, 한국아메리카 학회(2003): 50-80.
<http://uci.or.kr/G901:A-0001830498@N2M>
- 김학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인식에 대한 재고: 전략적 요충지 통념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53(2)(2019) : 5-30.
<http://dx.doi.org/10.18854/kpsr.2019.53.2.001>
- 박휘락, "미국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분석 : 투키디데스 함정의 위험", 국제정치연구 제23집 2호(2020): 105-129.
<http://uci.or.kr/I410-ECN-0101-2020-349-000889236@N2M>
- 박휘락, "트럼프 행정부의 미래전 대비 방향 평가: MDO를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103호(2020): 85-106.
<http://uci.or.kr/I410-ECN-0102-2021-300-001390584@N2M>

이동률,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정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57(2)(2017): 367-401.

<http://uci.or.kr//G701:D-00115849343@N2M>

이영형, “중국의 도련선(島鏈線) 전략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 『한국과 국제사회』, 한국정치사회연구소(2018): 137-162.

<http://uci.or.kr//I410-ECN-0102-2018-300-003892515@N2M>

이정훈,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 분석”, 『東西研究』, 제30권 4호(2018): 63-97.

<http://dx.doi.org/10.29274/ews.2018.30.4.63>

정혜영, “중국의 지정학과 동남아 네트워크 협력구상: 대륙부·해양부 동남아국가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1호(2020): 101-136.

<http://uci.or.kr//I410-ECN-0102-2021-300-001394077@N2M>

차경미, “북중관계의 지정학 : 중국 지정학 전략의 ‘변화’와 대북 지정학 인식의 ‘지속’을 중심으로”, 『東西研究』 제31권 2호(2019): 139-168.

<http://dx.doi.org/10.29274/ews.2019.31.2.139>

최우선, “미중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국립외교원,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62.

허광한, “미국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에 대한 비판과 수용”, 『軍史研究』, 제147집(2019): 125-153.

<http://dx.doi.org/10.17934/jmhs..147.201906.125>

Hiroyuki Umetsu, “Communist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hostilities and a U.S. proposal for a 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 in the Pacific offshore island chai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ume 15, 1996.

Lixin Sun, "Chinese Maritime Concepts," *Asia Europe Journal*, Vol. 8, No. 3, 2010.

X,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Vol. 25, No. 4, 1947.

3. 인터넷 자료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October> (검색일: 2021년 12월 1일)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검색일: 2021년 12월 1일)

<https://slideplayer.com/slide/14776816/>

(검색일 : 2021년 4월 8일)

Ji-Young Lee, "Geopolitics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 Implications for U,S Policy in the Indo-Pacific"

<https://www.rand.org/pubs/perspectives/PEA524-1.html>

(검색일: 2021년 3월 12일)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NSC 68,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April 14, 1950.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191.pdf>

?v=2699956db534c1821edefa61b8c13ffe (검색일: 2021년 1월 14일)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The Far East and Austrasia, Volume VI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8v06/d_776

(검색일: 2021년 1월 28일)

Dean. Acheson, January 23, 1950, "Crisis in Asia-An Examination of U.S. Policy,"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X X I I., No. 551,

https://worldjpn.grips.ac.jp/documents/texts/docs/19500112_S1E.html (검색일: 2021년 1월 18일)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china/#geography> (검색일: 2021년 1월 3일)

Entering The Dragon's Lair : Chinese Antiac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monographs/2007/RAND_MG524.pdf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S. Kulshrestha, "OPINION : Tonga & the Third Island Chain", IndraStra Global, February 25, 2016.

<https://www.indrastra.com/2016/02/OPINION-Tonga-and-Third-Island-Chain-002-02-2016-0070.html> (검색일 : 2021년 1월 3일)

<https://www.indrastra.com/2016/02/OPINION-Tonga-and-Third-Island-Chain-002-02-2016-0070.html> (검색일 : 2021년 1월 3일.)

U.S. Army TRADOC, The Operational Environment and the Changing Character of Future warfare (Washington D.C.: TRADOC, 2017), p. 2

<https://adminpubs.tradoc.army.mil/pamphlets/TP525-92.pdf> (검색일 : 2021년 4월 11일)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검색일 : 2021년 4월 11일)

US Army War College SSI, An Army Transformed: USINDOPACOM Hypercompetition and Army Theater Design, p.8.

<https://press.armywarcollege.edu/cgi/viewcontent.cgi?article=1905&context=monographs> (검색일 : 2021년 4월 23일)

Brett Daniel, 'What Is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 Trenton Systems Blog, on Nov 9, 2020

<https://www.trentonsystems.com/blog/what-is-jadc2> (검색일: 2021년 4월 19일)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March, 2021, p.8.

<https://fas.org/irp/offdocs/inssg.pdf>(검색일: 2021. 4월 11일)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4350/text>

(검색일: 2021년 12월 16일)

謝游麟, "析論中共軍改後之聯合作戰指揮體制." 海軍學術雙月刊 52.1 (2018),

<https://navy.mnd.gov.tw/Files/Paper/4-析論中共軍改後之聯合作戰.pdf> (검색일: 2021년 8월 16일)

"紀念我国批准《联合国海洋法公约》十周年座谈会在京召开," 中國海洋學會, 2006.

<http://www.hycfw.com/Article/3499>(검색일: 2021년 1월 5일)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 (검색일 : 2021년 12월 23일)

(Abstract)

Analysis of the Geopolitical Valu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Kang, Jung-il

This research paper is about the Geopolitical value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one of the factors the U.S. and China's battle for hegemony. To further analyze "geopolitical position" that implies, Spykman's Rimland theory was used, and past examples were used to obtain a better answer on "What Kind of do they seek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kind of military strategies have been utiliz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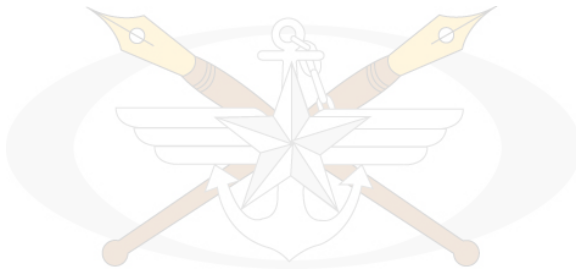
The change in the military strategies of the U.S. and China, or other word's China's anti-access/regional denial (A2AD) strategy and U.S. multi-domain operations (MDO) were analyzed in order to examine how the traditional U.S. and Chinese view of Korean Peninsula is currently being applied. This gives a better understanding how important the Korean Peninsula is, and what it implies for the future of U.S. and China.

The Korean Peninsula is a key area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where the U.S. and China can pitch their power, as the land and sea can separated, and on the contrast, the a coastal area can also provide to be medicator that can connect the force on opposite sides, Therefore with these reason the Korean Peninsula has no choice but to be in middle of a continuous conflict.

During the Cold War, the Korean Peninsula was a sensitive buffer zone that had to endure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flicts, and with the current separation maintaine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i is still one of the only places where the legacy of the Cold War is preserved. With regards to military security, the Korean Peninsula is located within the first island chain of A2AD strategy hence it is a competitive space

for the U.S's MDO and its containment policy on China. South Korea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Geopolitical factors and prepare to make strategic choices by closely monitoring the operational environment regardless dichotomous thinking.

Keywords : Geopolitics, Containment Policy, A2/AD, MDO, Korean Peninsu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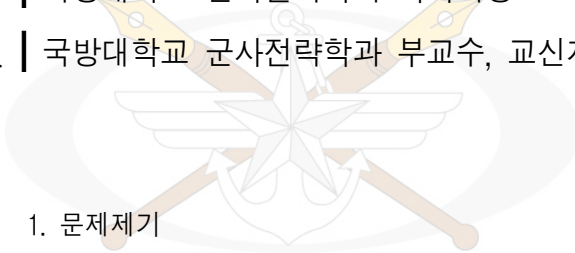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421-462
<https://doi.org/10.29212/mh.2022..122.42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전략대안의 창출과 선택

- “솔라리움 프로젝트(Project Solarium)” 사례 -

이진기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박사과정

손한별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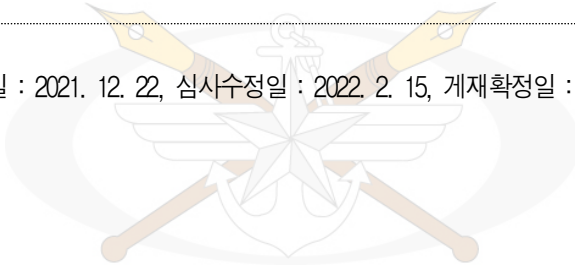
1. 문제제기
2. 전략기획의 개념적 검토
3. 미국의 “솔라리움 프로젝트(Project Solarium)”
4. 한국에 주는 함의

초 록 전략기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전략대안을 창출하고 선택하는 과정은 전략기획의 핵심적인 단계를 차지한다.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략대안을 탐색하고 분석하며, 전략을 선택하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기획의 조직과 절차, 방법 등이 발전되어야 한다.

미국의 “솔라리움 프로젝트”는 냉전 초기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소련에 대한 전략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운영하였으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 전략기획의 과정으로 평가된다. 최고 관리자인 대통령의 지침과 전략기획위원회인 돌리틀 패널의 운영, 전략기획팀이었던 세 개의 팀의 역동적 활동을 통해 전략대안이 창출 및 선택되었으며, 이는 “뉴룩(New Look)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냉전기 전체를 관통하는 對蘇전략으로 확립되었다.

주제어 : 전략기획, 국가안보전략, 냉전, 아이젠하워, 솔라리움 프로젝트

(원고투고일 : 2021. 12. 22,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문제제기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대통령은 지난 2월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 미·중 관계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¹⁾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의 중국에 대한 분명하고 공격적인 발언보다는 외교적이고 순화된 표현인 것만은 분명했지만, 이전 행정부보다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첫째는 미국의 다자주의적 대응에 있다. 다자주의는 곧 미·중 경쟁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참가국의 확대는 결국 갈등 영역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²⁾ 둘째는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국가의 전선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다차원적인 경쟁구도를 확대하고 있다.³⁾ 셋째, 냉전과 달리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은 미중 경쟁의 불확실성을 보다 강화한다.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미국 내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⁴⁾

1) Aravinda Korala, "US-China relations: new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will leave the whole world better off," *US-China Relations* (16 March, 2021),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125241/us-china-relations-new-era-great-power-competition-will-leave-whole> (검색일: 2021.6.21).

2) 박병광, 유현정,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정책 전망 및 시사점,” 『INSS 전략보고』, No. 114 (March 2021), pp. 4-6.

3) Michael R. Pompeo,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U.S. Department of State* (July 23, 2020), <https://2017-2021.state.gov/communist-china-and-the-free-worlds-future-2/index.html> (검색일: 2021.6.21).

4) Joseph Nye, “For the US and China, interdependence is a double-edged sword,” *Financial Times* (February 4, 2020), <https://www.ft.com/content/b3f5e946-4441-11ea-9a2a-98980971c1ff> (검색일: 2021.6.21).

불확실성은 외부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요인의 변화에 따라서도 증폭된다. 위협에 대한 인식의 주관성, 위협대응의 목표의 상이성, 방법과 수단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불확실성은 실존하는 위협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부재와 내부 구성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시각차에 의해 가속화된다. 이러한 복잡한 전략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략적 대안을 탐색하고 분석하며, 대안을 선택하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기획의 조직과 절차, 방법 등이 발전되어야 하며, 창출된 전략대안은 전략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전략기획의 모델로서 “솔라리움 프로젝트 (Project Solarium)”의 부활이 언급되고 있다. 2014년 미 육군 참모총장 레이먼드 오디에르노(Raymond T. Odierno)는 ‘솔라리움 2014’라는 구호 아래 미 육군의 미래 방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2014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캔자스 주 포트 레벤워스(Fort Leavenworth)에 있는 미 육군교육사령부 연합군센터에 육군 고위 지휘관 100명을 모아서, 미래 육군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안을 마련하고자 했다.⁵⁾ 중국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솔라리움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였고,⁶⁾ 국방수권법에 따라 설립된 “사이버공간 솔라리움위

5) U.S. Army, "Solarium 2014," *U.S. Army* (June 30, 2014), <https://www.army.mil/standto/archive/2014/06/30/> (검색일: 2021.6.21).

6)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중국에 대한 솔라리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야에서 등장하였으며, 바이든 정부 시기에도 국가전략을 만들기 위해 취임 초기 100일 동안 새로운 솔라리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Aaron Friedberg, "A U.S. 'Solarium Project' for China," *The Wall Street Journal* (August 26, 2015),

원회(Cyberspace Solarium Commission)”는 2020년 3월 사이버 억제전략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결과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⁷⁾

솔라리움이라는 제도화된 노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외부 위협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부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전략대안을 창출하고 선택하기 위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먼저,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전략대안을 탐색하는 방법은 민주국가의 의사결정에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최근의 솔라리움 프로젝트가 재조명되는 이유는 외부적으로는 미·중 경쟁이 과거 미소 냉전과 유사하게 강대국의 패권 경쟁의 형태를 띠는 것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독단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⁸⁾ 그만큼 민주국가에서는 전략적 수준의 평가나 대안 탐색에서 다양한 의견 취합이라는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외부 위협이 변화하고 내부 능력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외부 위협이 불확실하고 커진 만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능력이 가늠되지 않을 때 솔라리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얼마만큼의 재원을 투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예산 전문가나 입법 전문가들의 조언이 전략가의 결심을 바꿀

<https://www.wsj.com/articles/a-u-s-solarium-project-for-china-1440609226>
; Ronald Marks, "#21: Produce A New 'Project Solarium'," *Atlantic Council* (February 9, 2021),

<https://www.atlanticcouncil.org/uncategorized/21-produce-a-new-project-solarium/> (검색일: 2021.6.21).

7) United States of America Cyberspace Solarium Commission, *CSC Finished Report* (March 2020), <https://www.solarium.gov/home> (검색일: 2021.7.10.).

8) Kori Schake, "Trump Doesn't Need a Second 'Solarium'," *The Atlantic* (October 30, 2018),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18/10/what-eisenhower-could-teach-trump-about-strategy/574261/> (검색일: 2021.6.21).

수도 있다. 자원은 한정되어있고 위협은 지속적으로 추가 식별되는 상황이라면 국가는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렇다면 솔라리움 프로젝트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미국의 전략기획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솔라리움 프로젝트가 만들어낸 전략대안은 무엇인가?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한 과정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전략기획의 주요 단계로서 전략형성과 전략대안 탐색을 위한 조직과 절차, 방법을 검토한다. 아울러 전략기획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솔라리움 프로젝트를 분석한다. 솔라리움 프로젝트의 배경, 기획조직의 구성, 전략대안 창출과 선택의 과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솔라리움 프로젝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한계 등을 확인하여 오늘날 한국의 전략기획 과정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전략기획의 개념적 검토

가. 전략기획의 개념과 목적

인간 사이의 싸움이 시작된 이래 상대방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방법이 필요했다. 고대 그리스의 군사령관을 의미하는 “strategos”에서 전략(strategy)의 어원을 찾는 것은, 전략이 전장에서 기계적인 전투 활동을 지휘하는 것에 머물렀던 근대 이전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는 군사적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차원으로 영역이 확대되었으며,⁹⁾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는 전쟁의 계획과 준비의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 시간적인 범위도 확장되었다.¹⁰⁾ 웹스터 사전은 전략을 “전시나 평시에 채택된 정책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한 국가 또는 국가군의 정치, 경제, 심리, 군사력을 운용하는 술과 과학”으로 정의한다. 오늘날 전략이라는 용어는 정치,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쟁의 준비와 실행이라는 핵심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국가안보전략은 정치영역에서 제시된 목표(ends)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국가 수단(means)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방법(ways)으로서 정의된다. 안보전략은 안보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며 수단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안보전략의 수립과정은 외교, 국방, 국가정보, 경제전략 등 기능별 전략기획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안보전략은 국가안보 비전과 임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국가안보조직을 더욱 창의적으로 만들며 구성원을 통합한다. 또 기획과 관리 과정에의 참여를 유도하여 집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안보전략이 필요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의 변화와 불확실성”, “불확실성과 우연, 마찰”로 점철된 전쟁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된다.¹¹⁾ 안보전략이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핵심적인 역할은 미래 예측과 준비를 통해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는 항상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다.¹²⁾ 불확실한 미래 안보환경 속에서, 안보전략은 “무엇이, 얼마나 국가를

9)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pp. 77-83.

10) 리델하트는 전략을 전투와 군사적 영역을 탈피하여 군사력에 대한 계산, 동원, 조정, 절약, 집중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했으며, 비전투적 영역과 평시 군사력 건설로 개념을 확대하였다. B. H. Liddel Hart, *Strategy* (New York: Sogent Book, 1967), pp. 319-321.

11) Carl von Clausewitz, 『전쟁론』, 김만수 역 (서울: 갈무리, 2016), 제1편 1장.

12) Zalmay Khalizad and David Ochmanek, *Strategy and Defense Planning for the 21st Century*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1997), pp. 45-49, 74-83.

위협하는가?”와 “어느 정도의 대응능력이 필요한가?”의 핵심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생존을 위해 “위협”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¹³⁾ 그러나 각각의 방안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하나의 방안은 다른 부분의 약화를 가져오고, 선택에 따른 위험(risk)을 가지고 있다.

결국, 미래의 안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전략기획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전략기획은 결코 고정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절차와 방법, 조직이 발전해왔지만, 전략기획은 태생적으로 미래에 대한 “추측”에 기반한 작업이다. 맥마스터가 최근 미국의 전쟁을 두고 제시한 세 가지 교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쟁은 정치적이며(political), 인간적이고(human), 그 때문에 불확실하다(uncertain)는 것이다.¹⁴⁾ 의도와 능력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정치에 민감한 정치인과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도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그러므로 전략기획은 계획(plans)이 아니라 준비(preparation)라는 그레이의 주장은 합당하다.¹⁵⁾

학자마다 전략기획의 과정과 절차, 핵심질문에 대한 정의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전략기획의 과정은 아래의 <그림1>과 같다. ① 기획을 위한 계획 단계, ② 환경평가 단계, ③ 전략적 방향 설정 단계, ④ 전략형성 단계, ⑤ 전략집행 단계, ⑥ 통제와 평가 단계로 구분된다. 본 연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단계는 전략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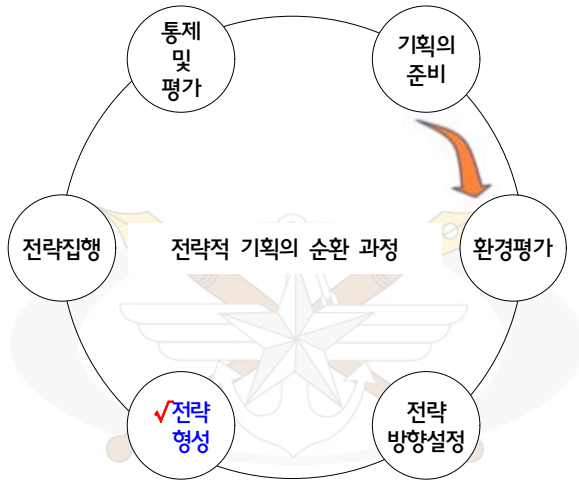
13) 위험, 도전, 취약성, 위협 등 주요 개념에 대한 대표적 이론 연구로, Hans G. Brauch, et al., *Coping with Global Environmental Change, Disasters and Security* (Heidelberg: Spinger-Verlag Berlin, 2011), pp. 61-106 참고.

14) H. R. McMaster, “The Pipe Dream of Easy War,” *The New York Times* (2013.7.20.), <https://www.nytimes.com/2013/07/21/opinion/sunday/the-pipe-dream-of-easy-war.html>

15) Colin Gray, *Strategy and Defense Planning: Meeting the Challenge of Uncertain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30-34.

단계인데, 전략형성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결과물로서 전략은 전략형성 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략계획서로 완성된다.¹⁶⁾

〈그림1〉 전략기획의 과정



※ 출처: 박홍윤, 『공공조직을 위한 전략적 기획론』, p. 105.

나. 전략대안의 창출과 선택

전략형성의 절차에 대한 정형화된 틀이 있을 수 없으나, 문제의 정의 → 전략대안의 탐색 → 전략대안의 분석 → 전략대안의 선택 → 전략계획서의 작성 → 전략계획서의 공개 및 활용의 순으로 이루어진다.¹⁷⁾ 미래에 대한 예측과 기존전략을 비교하고 분석함

16) 박홍윤, 『공공조직을 위한 전략적 기획론』 (서울: 대영문화사, 2014), pp. 106-108.

17) Ibid., pp. 282-285.

으로써 문제를 정의하고,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서의 전략적 대안을 탐색하며, 비교분석을 통해 전략적 대안을 선택한다.¹⁸⁾ 이렇게 선정된 전략은 전략서로 작성 및 공개, 활용된다.

본 연구는 안보전략의 필요성과 목적, 전략기획의 절차, 전략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고려하여, 창출 및 형성되는 전략대안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안보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adpating)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안보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것으로, 속도(speed), 기민성(agility), 유연성(flexibility) 등이 요구된다.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적실한 내외부 환경평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전략기획 절차 자체를 간소화하거나, 상황변화에 따라 기획의 주기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고, 아울러 모듈화된 국방력을 확대함으로써 수단의 적응력 자체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둘째, 우호적인 안보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shaping)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전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위협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도적으로 국제적 제도와 규범을 규정하고, 관련국들에게 전략적 이익과 제재를 부여함으로써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강력한 국가 능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외교, 정보, 군사, 경제(DIME) 등 제 요소를 융합하기 위한 안보전략이 요구된다. 아울러 분명하지만 전략적인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communication)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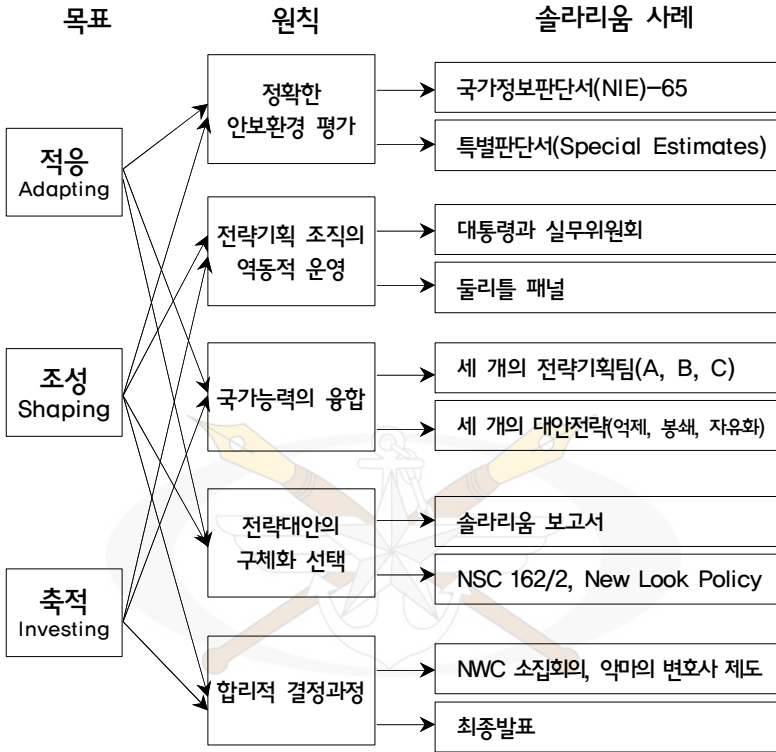
셋째,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을 축적(investing)해야 한다. 가장 간결한 방법이지만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18) 일반적으로 전략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은, 효과성과 능률성, 적합성, 타당성, 시행 가능성, 일관성, 모험성, 적시성, 대응성과 적응성 등이 있다. 박홍윤, 『공공조직을 위한 전략적 기획론』, pp. 299-302.

방법으로, 목표나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하는 것이다. 정보 우위의 유지, 연구개발의 확대, 군사과학기술의 혁신, 국방력의 증강, 동맹 및 협력국의 확대 등이 대표적인 축적의 방법이다. 아울러 내부역량의 결집하고 내부의견의 합일성을 추구하는 것도 축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민주국가의 내부역량 결집을 위한 방법론으로써, 합리적 절차 정립과 조직구성, 다양한 전략대안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위의 세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최적의 전략대안을 창출 및 선택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안보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한 내외부 평가를 위한 국가정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보순환단계를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전략기획을 위한 조직의 역동적인 운영이다. 최고관리자, 전략기획위원회, 전략기획팀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적응, 조성, 축적을 위한 제 국가 능력을 융합해야 한다. 다양한 안보 유관부처 및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된다. 넷째, 선택 가능한 다양한 전략대안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분석에 의해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형성 과정 전반에서 합리적 결정 과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림2) 논문의 분석 틀



3. 미국의 “솔라리움 프로젝트(Project Solarium)”

전략대안의 탐색과 선택은 전략기획의 핵심적인 단계이다. 전략형성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솔라리움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전략기획을 위한 교훈과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구체적으로 솔라리움 프로젝트의 배경과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구분된 전략 방향만큼이나 중요했던 세

개로 나누었던 팀의 구성원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전략대안을 바탕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구하려던 목표와, 그것이 어떻게 국가안보정책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가. 새로운 전략기획의 요구

슬라리움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젝트의 시점인 1953년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953년은 6·25전쟁이 휴전된 시점이였다. 6·25전쟁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누구의 승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된 시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냉전의 초입에서 미국 내부에서는 소련에 대한 국가전략에 대한 치열한 내부적 갈등이 존재하였다. 6·25전쟁으로 확인된 것은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전 세계에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었고, 자유주의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이다.

소련에 대응하기 위한 NSC-68은 장기간의 재래식 군사력을 포함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기조로 삼고 있는 ‘경성 봉쇄전략(Hard Containment Strategy)’이었다.¹⁹⁾ 이러한 봉쇄전략의 기조는 트루먼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아이젠하워 정부로 바뀌었지만 봉쇄전략의 기조가 NSC-153/1 문서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새롭게 바뀐 정부 구성원들은 봉쇄전략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봉쇄전략이 아닌 자유화 정책(a policy of liberation)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군사적 공격이 아닌 방법으로 공산주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소련의 통치하에 고통받는 국민

19)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177.

을 자유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 것이다.²⁰⁾ 소련의 변화를 기다리는 ‘봉쇄’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소련을 변화시키려는 ‘자유화’라는 상대적인 전략 대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예산도 중요한 변수였다. 1950년에 국방비 상한선을 135억 달러로 제한하려는 미국이었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1950년 12월 1일에 482억 달러의 국방비를 책정하게 된다.²¹⁾ 이런 국방비 증가가 지속된다면 1959년까지 미국은 440억 달러의 적자를 안게 될 것이었다.²²⁾ 비록 전쟁에 의한 결과였지만, 봉쇄전략을 위해 트루먼 행정부가 추진한 급격한 국방비의 증가는 아이젠하워 정부에게는 부담이었다. 그렇다고 전쟁이라는 과격한 방안도 좋은 해결책은 아니었다. 아이젠하워는 단순한 보복적 공격 역량은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는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화가 가능하다고 확신하였다.²³⁾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봉쇄와 자유화라는 양극의 스펙트럼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합리적인 위치를 찾아야만 했다.²⁴⁾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6·25전쟁과 냉전의 심화라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과제를 가지고 국가 운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는 국방비의 과도한 증가만을 우려하지는 않았으며,²⁵⁾ 자신 앞에 놓인 사건에 대하여 수동

20)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53-1954* (Washington D.C.: Historical Office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1998), p. 11.

21)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p. 111.

22) *Ibid.*, p. 144.

23) *Ibid.*, p. 126.

24) Glenn H. Snyder, "The 'New Look' of 1953," in Warner R. Schilling, Paul Y. Hammond, and Glenn G. Snyder, *Strategy, Politics, and Defense Budget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2), pp. 407-409.

25)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 년 동안 안보예산을 대폭 삭감한 트루먼 행정부에 분노하기도 하였다. Paul Lettow, "Ike's Triumphs," *National Review*

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기획가로 평가된다. 그는 미국이 포괄적이고 일관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축된 냉전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냉전의 시대를 맞이한 미국이 소련, 공산화된 중국, 그리고 공산주의 위성국가와의 지속적이고 격렬한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²⁶⁾ 전략기획의 목적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아이젠하워가 국가안보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기획 체계를 수립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²⁷⁾

나. 전략기획 조직의 구성

1) 최고 관리자: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는 1953년 5월 8일 백악관 옥상에 있는 일광욕실 (solarium, 솔라리움)에서 주요 정책입안자와의 비공식 회의에서 “솔라리움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오후 5시부터 6시 45분까지 대통령과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은 새 행정부가 직면한 외교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트루먼 행정부가 NSC-68에서 기획한 연간 국방비를 3배나 증가시킨 봉쇄전략이 미국을 필연적으로 외교적·경제적 재앙으로 이끌 것이라는 생각을 공유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덜레스 국무장관의 동서 동맹에 대한 냉혹한 평가와 시간은 미국의

LXX, no. 10 (May 28, 2018), pp. 37-38.

26) Robert R. Bowie and Richard H. Immerman, *Waging Peace: How Eisenhower Shaped an Enduring Cold War Strate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75-80.

27) Paul Lettow,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Lessons Learned,"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Vol. 4, Issue 2 (Spring 2021), p. 123.

편이 아니므로 소련과의 전쟁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롤백 전략(Rollback strategy)과 같은 대담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⁸⁾

아이젠하워는 그 순간 덜레스 국무장관과 같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미국 내부에 존재하는 전략가들의 생각을 하나의 방향으로 응집시킬 필요를 느꼈다.²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덜레스에게 영민하고 젊은(bright and young) 전략가들로 구성된 세 개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³⁰⁾ A팀은 미국의 경제 및 군사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축하고 소련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취약성을 신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된 형태의 ‘봉쇄전략’을 발전시킬 것을, B팀은 소련이 구축한 지정학적 구역에 하나의 선을 그리고 이 선을 넘으면 핵 공격을 포함한 대규모 보복과 전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리는 ‘억제전략’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C팀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은밀한 행동, 심리전, 경제전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소련을 약화시키고 자유 세계를 고무하는 승리의 환경을 창조하는 ‘롤백 전략’ 혹은 ‘자유화 전략’을 구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³¹⁾ 네 번째 전략팀도 존재하였는데, 이는 소련의 핵 능력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기 전에 소련의 핵 능력을 파괴하는 ‘예방전쟁’이었다. 이후 소련으로부터 보복당할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네 번째 전략은 배제하였다.³²⁾

28) Robert R. Bowie and Richard H. Immerman, *Waging Peace: How Eisenhower Shaped an Enduring Cold War Strategy*, pp. 124-125.

29) Emmet John Hughes, *The Ordeal of Power: A Political Memoir of the Eisenhower Years* (NY: Macmillan Publish Company, 1975), p. 51.

30) Ibid., p. 125.

31) Ibid., pp. 125-126.

32)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p. 144.

2) 전략실무위원회: 돌리틀 패널(Doolittle Panel)

아이젠하워는 5월 8일 솔라리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에는 국가안보특별보좌관인 로버트 컷틀리(Robert Cutler), 전 중앙정보국장이고 당시 국무차관인 월터 비델 스미스(Walter Bedell 'Beetle' Smith), 그리고 중앙정보국장인 앨런 덜레스(Allen Dulles)가 임명되었다. 아이젠하워는 실무위원회에 솔라리움 프로젝트를 위한 기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단 하루 만에 기준 지침이 작성 및 승인되고, 아이젠하워는 5월 9일에 세부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지시하였다.³³⁾ 협의체의 수장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제임스 돌리틀(James H. Doolittle) 공군 장군이 선임되었고, 이 협의체는 돌리틀 패널로 불리게 된다. 돌리틀 패널에는 다음의 5명이 포함되었다.

〈표1〉 돌리틀 패널 명단

성 명	직책 및 이력
제임스 돌리틀(James H. Doolittle)	돌리틀 패널 위원장, 공군 중장
로버트 아모리(Robert Amory Jr.)	중앙정보국 정보부국장, 2차대전 참전용사
리먼 렘니처(Lyman L. Lemnitzer)	NWC 부사령관, 육군 중장
딘 러스크(Dean Rusk)	전 국무부 극동아시아차관보, 록펠러재단 회장
레슬리 스티븐스(Leslie C. Stevens)	전 모스크바 해군 무관, 해군 제독

※ 출처 : Cutler, Memorandum for the Record by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15 May 1953, FRUS 1952-1954, Vol. II, p.328.

33) Robert Cutler, Memorandum for the Record by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9 May 1953, FRUS 1952-1954, Vol. II, p. 323; Robert Cutler to W. B. Smith, 15 May 1953, 'Project Solarium', Subject Files 1947-1965, Executive Secretariat, Lot 6D148, RG 59,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College Park, MD, NARA.

둘리틀 패널의 과업은 솔라리움 프로젝트를 담당할 똑똑하고 젊은 전략가들로 세 개의 팀을 구성하는 일이었다.³⁴⁾ 이를 위해서 각 팀에는 특별히 선발된 5명의 전략가와 당시 국가전쟁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2명의 현역 군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선발 기준이 존재했다.³⁵⁾ 왜 국가전쟁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현역 군인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솔라리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략대안을 탐색하는 핵심 목적 이외에 미래의 전략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둘리틀 패널의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둘리틀 패널은 1953년 5월 25일 실무위원회와 함께 소집되어 솔라리움 프로젝트의 기준 지침을 검토한 후, 6쪽 분량의 솔라리움 프로젝트 운영 지침 문서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6월 1일에 해당 문서를 완성하였다. 이 문서는 국가정보판단서-65(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s-65)가 1957년까지의 소련의 능력을 예측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³⁶⁾ 일정한 가정사항을 통해서 상황을 제한하는 것은 둘리틀 패널이 프로젝트팀들을 통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둘리틀 패널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구상한 틀 내에서 전략대안들을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솔라리움 프로젝트의 각 팀에 전쟁, 벼랑 끝 전술, 내부적 균형이라는 세 종류의 소련 행동과 관련된 전략대안을 분석하도록 운영지침을 구상하였다.³⁷⁾ 둘리틀 패

34) Memorandum of Conversation, Solarium Project, 8 May 1953, '1953,' Lot 66D148, Secretary of State NSC Files, RG 59, NARA.

35) Philip H. Watts to Policy Planning Staff, 12 August 1953, 'Solarium,' Box 43, Policy Planning Council, Alphabetical Files, 1948-1961, Lot 61D167, RG 59, NARA.

36) Paper Prepared by the Directing Panel of Project Solarium, 1 June 1953, *FRUS* 1952-1954, Vol. II, p. 361.

37) Steven Grundman, "Opinion: Lessons From A Korean War-Era National Security Exercise," *Aviation Week Network* (August 3, 2017), <https://aviationweek.com/defense-space/opinion-lessons-korean-war-era->

널은 전략대안과 관련된 요소를 프로젝트팀들보다 먼저 검토하고 완전성을 제고함으로써, 토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주고자 하였다.³⁸⁾

둘리틀 패널은 각 팀에게 국가정보판단서-65 이외에도 12개의 특별 문서를 제공했다. 이 문서에는 국가안보계획과 비용을 요약한 3개의 배경 지식 문서와 4개의 국가정보판단서, 그리고 한 개의 국가정보판단서 부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국가정보판단서는 단기간 판단서로 대부분은 1953년 중반이나 1954년 후반까지를 평가하고 있는 문서였다. 또한, 두 개의 특별판단서(Special Estimates)가 제공되었다. 첫 번째는 향후 10년 동안 세계 상황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가정사항들이었고, 두 번째 특별판단서는 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가정사항들이었다. 각 팀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문서들을 받았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³⁹⁾

3) 세 개의 전략기획팀

솔라리움 프로젝트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의 하나는 팀별로 프로젝트에 참가한 인원을 분석하는 것이다. 참석한 인원의 배경이나 성격, 그리고 전문성은 각 팀이 개발해야 하는 전략대안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

national-security-exercise (검색일: 2021년 6월 21일).

38) Paper Prepared by the Directing Panel of Project Solarium, 1 June 1953, *FRUS* 1952-1954, Vol. II, p. 362; Robert Cutler to W. B. Smith, 15 May 1953, 'Project Solarium,' Subject Files 1947-1965, Executive Secretariat, Lot 6D148, RG 59, NARA.

39) Project Solarium Special Documents Initially Available, 'General Papers (Col. Bonesteel),' Box 11, Executive Secretary's Subject File Series, NSC Papers, EPL.

이다. 또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강조한 영민하고 젊은 전략가에 속하는 군인들이 솔라리움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 어떠한 보직을 통해서 활용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인원들이 국가안보전략을 작성하고 이행하는 부서로 이동했거나 진급을 하여 더 중요한 곳에서 활동했다면, 솔라리움 프로젝트는 ‘교육’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A팀의 경우에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경제적 동원을 강조한 트루먼 행정부의 NSC-20/4와 같은 봉쇄전략을 주장할 것이므로, 미국과 자유세계 그리고 소련의 과거 정책과 행동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정치, 군사, 경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를 기획할 수 있는 척도를 가진 전략가가 필요했다.⁴⁰⁾ NSC-68을 작성한 폴 니츠(Paul Nitze)가 A팀의 팀장으로 고려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봉쇄전략을 최초로 제시한 조지 케난(George F. Kennan)이 임명되었다.⁴¹⁾ 결과부터 말하자면, A팀에 소속되어 있던 전략가들은 솔라리움 프로젝트 이후 최소 준장부터 대장까지 진급하였으며, 함대 사령관이나 주한미군사령관 같은 주요 보직에 중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솔라리움 프로젝트는 미래의 전략가를 양성하는 교육 수단으로써의 역할도

40) Annex A, ‘General Papers (Col. Bonesteel),’ Box 11, Executive Secretary's Subject File Series, NSC Papers, EPL.

41) Robert Bowie와 Richard Immerman은 케난이 가진 소련에 대한 전문성과 전략적 견해를 존중한 아이젠하워가 케난을 발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NSC-68과는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아이젠하워의 입장에서 NSC-68을 작성한 니츠를 A팀장으로 선발하는 것은 건설적인 비판이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니츠가 배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Robert R. Bowie and Richard H. Immerman, *Waging Peace: How Eisenhower Shaped an Enduring Cold War Strategy*, p. 127; William B. Pickett (ed.), *George F. Kennan and the Origins of Eisenhower's New Look: An Oral History of Project Solarium*, p. 6.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B팀의 경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억제전략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억제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했다. ① 공산주의자들의 반응과 대응 방법에 익숙한 지식, ② 공산주의 위성국가와 자유 세계를 구분하는 건전한 정치적·군사적 판단 능력, ③ 비전통적 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의 군사 능력에 대한 지식, ④ 전략대안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나머지 자유 세계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요했다.⁴²⁾ B팀의 팀장으로는 돌리틀 패널 중의 한 명인 스티븐슨 제독이 내정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핵무기 전문가인 제임스 맥코맥(James McCormack) 공군 소장이 맡게 되었다.⁴³⁾ 아울러 억제전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팀을 구성했는데, 다수의 대학교수와 소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C팀의 전략대안은 전쟁이 아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세계의 시민을 자유화시킬 수 있는 “롤백 전략”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C팀의 구성원들은 ①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군사정치·심리전·체제전복과 관련된 기획을 경험, ② 소련-공산주의 진영의 행동과 반응에 대한 심오한 경험, ③ 한국 및 소련 위성국가 지역의 군사 상황에 대한 지식, ④ 롤백 전략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평가하는 능력 등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다.⁴⁴⁾ 최종적으로 C팀의 팀장은 해군전쟁대학 총장인 리처드 코놀리(Richard

42) Annex B, 'General Papers (Col. Bonesteel),' Box 11, Executive Secretary 's Subject File Series, NSC Papers, EPL.

43) Richard G. Hewlett and Francis Duncan, 'Atomic Shield, 1947-1952,' in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tomic Energy Commission Vol. 2*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69) p. 33.

44) Annex C, 'General Papers (Col. Bonesteel),' Box 11, Executive Secretary 's Subject File Series, NSC Papers, EPL.

L. Conolly) 중장으로 선임되었다. C팀의 구성원은 주로 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인물들로 이루어졌다. 현역 장교들은 정보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룰백 전략을 유지하는 전략대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했을 것이며, C팀의 구성원들은 주로 정보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원들로 배치되었다.

〈표2〉 솔라리움 프로젝트 팀별 명단

	A팀	B팀	C팀
팀장	조지 케난(국무부)	제임스 맥코맥(공.소장)	리처드 코놀리(해.중장)
팀원	타일러 우드(국무부) 해롤드 스미스(해.소장) 조지 A. 링컨(육.대령) 찰스 본스틸 III(육.대령) 해리 시어스(해.대령) 존 모우리(CIA)	존 R. 딘(예비역 육.소장) 캘빈 후버(듀크대 교수) 필립 모슬리(코넬대 교수) 제임스 팬필드(국무부) 엘빈 리건(공.대령) 존 C. 캠벨(국무부)	리먼 L. 렘니저(육.중장) 조지 라인하르트(국무부) 킬본 존스톤(CIA) 앤드류 굿패스터(육.대령) 레슬리 브래디(정보국) 해롤드 존슨(육.대령)

※ 출처 : Michael J. Gallagher,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examining Project Solarium,"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30, No. 4 (2015), pp. 466-469.

다. 전략대안의 창출과 선택

1) 전략 창출의 원칙과 운영

아이젠하워는 5월 8일에 “각 팀은 법정에서 좋은 변호사가 소송을 처리하는 방식처럼 전략대안을 다룰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⁴⁵⁾ 실무위원회는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지침을 기본 지

45) Quoted in Memorandum of Conversation, Solarium Project, 8 May 1953, '1953,' Lot 66D148, Secretary of State NSC Files, RG 59, NARA.

침에 명시하였고⁴⁶⁾, 돌리틀 패널은 "악마의 변호사(Devil's Advocate) 제도"를 운영하여 '비판을 위한 비판'도 서슴지 않는 분위기를 제공하였다.⁴⁷⁾ 돌리틀 패널은 각 팀에 특정 지역 문제나 미국 국내정치 및 국제 체제의 전체적 맥락에서 제안된 행동 방침을 평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질문 목록도 제공하였다. 그리고 패널은 각 팀이 전략 대안을 수립할 때 고려한 가정사항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이러한 가정사항은 다른 팀과 다를 경우는 협조를 통해 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각 팀은 전략대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가능한 효과적으로 팀별 주장을 정리하고, 자신들의 전략대안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반대 주장까지 공개할 것을 지시받았다.⁴⁸⁾

솔라리움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은 1953년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국가전쟁대학(National War College, NWC)의 지하에 모여 팀별 토의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오전 8시에 일과를 시작하여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위한 시간과 한 시간 정도의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 자정까지 토의를 지속하였다.⁴⁹⁾ 6월 8일에 토의가 시작되어 9일부터 11일까지는 모든 팀이 모여서 전체 회의를 했다. 14일부터 20일까지는 돌리틀 패널로부터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지침을 받았으며, 팀별로 각자의 주제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토의했다. 이후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발표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 사

46) Memorandum for the Record by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9 May 1953, *FRUS* 1952-1954, Vol. II, p. 324.

47) Memorandum on Project Solarium Organization and Arrangements for Preparing Plans and Presentations on Alternative Courses of Action, 26 May 1953, 'General Papers (Col. Bonesteel),' Box 11, Executive Secretary's Subject File Series, NSC Papers, EPL, pp. 2-3.

48) Paper prepared by the Directing Panel of Project Solarium, *FRUS* 1952-1954, Vol. II, pp. 362-363.

49) William B. Pickett (ed.), *George F. Kennan and the Origins of Eisenhower's New Look: An Oral History of Project Solarium* (Princeton, NJ: Prince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udies Monograph Series Number 1, 2004) p. 24.

이 6월 26일에는 각 팀장이 돌리틀 패널에 보고서의 방향성과 일반적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7월 6일부터 16일까지는 팀 내부와 전체 회의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비판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최종 발표안을 수정하였다.⁵⁰⁾

각 팀은 7월 16일 오전 9시부터 백악관의 회의실에서 39명의 청중 앞에서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39명에는 NSC 요원과 NSC 기획위원회 위원, 군 장성, 그리고 다양한 국가안보부서의 요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⁵¹⁾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청중이 결정된 것인데, 솔라리움 프로젝트의 최종결과 발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구상한 다양한 전략대안들이었으며, 이를 자신이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요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한 전략대안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내부 구성 요원들의 전략대안에 대한 방향성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것이 보다 용이해졌다.⁵²⁾

2) 세 가지 전략대안 : 봉쇄, 억제, 자유화

A팀은 전략의 중심을 유럽으로 선정하고 다른 곳에서는 중요한 군사적 행동을 회피하면서, 주로 소련에 대한 정치적 전략에 집중할 수 있는 ‘봉쇄’ 개념의 전략대안을 구상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형태의 전쟁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유럽에서 소련의 확장을 저지할 것을 주장한 기존의 봉쇄 전략을 맥락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50) Michael J. Gallagher,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examining Project Solarium,"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30, No. 4 (2015), p. 475.

51) Minutes of the 155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6 July 1953, *FRUS* 1952-1954, Vol. II, pp. 394-395.

52) Kori Schake, "Trump Doesn't Need a Second 'Solarium'."

A팀이 제시한 미국 정책의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소련의 군사적 태세에 대응하여 미국의 안보를 보장할 것
- 주변 국가들이 추가로 점령당하여 소련이 확장하는 것을 방지할 것
- 중·동부 유럽의 위성국가 지역에서 소련의 통제가능 지역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소련과 동맹을 맺은 정권에 의해 중국이 지배되지 않는 상황을 구축할 것

이러한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A팀이 제시한 전략대안은 ① 동맹국의 도움, ② 동유럽 위성국가와 중국에 대한 소련의 통제력 축소 및 점진적 철회, ③ 외교 정책을 통한 소련 권력과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불신 확대, ④ 소련 체제 내부의 갈등 증가 유도 등이 있다.⁵³⁾ A팀의 주장은 NSC-68 이전의 봉쇄전략과 거의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팀의 팀장이 케난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쉽게 납득될 수 있는 결과였다.

B팀은 A팀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전략대안인 ‘억제’ 개념을 구상하였다. B팀은 지정학적으로 소련에 대하여 하나의 선을 그어 이를 넘어서는 소련의 행동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행동은 동맹국에 의존하는 외부적 균형이 아닌,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내부적 균형을 추구할 것을 요구했다. B팀은 다음의 전략대안을 제

53) Memorandum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22 July 1953, *FRUS* 1952-1954, Vol. II, Part 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2-54v02p1/d80>(검색일: 2021년 6월 21일).

시하였다.

- 경계를 넘어선 소련 군대의 진격은 전쟁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미국은 소련을 패퇴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
- 미국은 수립한 정책과 정책 시행의 결정을 적절하고 명백하게 공개할 것
- 미국은 다른 국가에서 토착 공산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경우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는 상황 조성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⁵⁴⁾

B팀은 A팀과는 다르게 소련 내부의 변화를 추구하거나 소련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했다. 어디까지나 임계점에 해당하는 지점을 설정하고 이를 넘었을 때는 반드시 보복적 행동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지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정학적 선을 ‘침략이 없는 선(The Line of No Aggression)’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억제력을 목표로 하는 B팀의 전략대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핵 능력 우위였다. B팀의 팀장인 맥코맥은 최종안을 발표할 때 NSC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향후 2년 동안은 소련이 미국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핵 공격 능력은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미국의 방어 능력의 향상⁵⁵⁾은 이러한 미국이 가진 핵 우위

54) Ibid.

55)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캐나다를 포함한 미국의 북쪽에 레이더망을 구축하고, 소련의 폭격기가 침투할 수 있는 경로에 전투기를 배치하고, 주요 도시 주위에 대공 미사일 망을 구축하였다, Steven J. Zaloga, *Target America: The Soviet Union and the Strategic Arms Race, 1945-1964* (NY: Presidio Press, 1993), pp. 87-88; 1953년 당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1,169발이었으며, 소련

의 시간을 몇 년은 더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⁵⁶⁾

C팀의 전략대안은 1953년 6월 10일에 채택된 NSC-153/1의 전략목표를 수정하고자 했다. NSC-153/1에서는 억제 이외의 방법은 전쟁의 승리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⁵⁷⁾ 하지만 C팀의 전략대안에서는 소련을 교란하고 약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주장했다. C팀의 주요 정책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 군사, 경제, 외교, 은밀한 행동, 선전·선동, 이념 등의 모든 분야에서 공격적인 정치 전략을 추진할 것
-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결정이 보장될 때까지 강력한 정치 노선을 지원할 군사 정책을 발전시키고 유지할 것
- 역동적인 행동 계획을 구상 및 실행할 수 있는 냉전 조직을 구축 및 운용할 것
- 소련의 힘에 대항하는 모든 요소를 구축하고 통합하는 것을 지속할 것
- 군사적·외교적 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을 최대한 이용할 것⁵⁸⁾

이 보유한 핵무기는 120발이었다, Robert S. Norris and Hans M. Kristensen, "Global nuclear weapons inventories, 1945-2010," *SAGE journals*, Vol. 66, Issue 4 (27 November, 2015), p. 81, <https://doi.org/10.2968/066004008> (검색일: 2021년 6월 21일).

56) Task Force B of Project Solarium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6 July 1953, 'Project Solarium - Task Force "B" Full Report (1),' Box 39, Disaster File Series, NSC Papers, EPL, pp. 4-5.

57)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10 June 1953, *FRUS* 1952-1954, Vol. II, Part 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2-54v02p1/d74>(검색일: 2021년 6월 21일).

58) Memorandum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22 July 1953, *FRUS* 1952-1954, Vol. II, Part 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2-54v02p1/d80>(검색일: 2021년 6월 21일).

C팀의 전략대안에서는 NSC-153/1에서 말한 ‘중요한 확장’을 막기보다 ‘어떠한 확장’도 막는다는 목표를 강조하며,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동 이행을 요구했다. 이는 전쟁 이전 단계에서부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유 세계를 수호하고 소련의 영향력에 있는 국가들을 자유화시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전략대안이었다. 또한, 국가정보판단서-65를 기반으로 소련이 1955년까지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미국의 주요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⁵⁹⁾ 소련의 위협을 분석함에 있어서 시간이 미국의 편이 아닌 점을 강조했다며,⁶⁰⁾ 이는 더욱 강경하게 소련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3) 전략대안의 최종 선택: 억제와 봉쇄의 절충

세 개의 팀이 모두 발표를 마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45분간의 즉석연설을 통해 솔라리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칭찬했다. 대통령은 각 팀의 전략대안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중요하며, 각 팀의 전략대안은 큰 틀에서 하나의 정책 계획으로 융합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⁶¹⁾ 흥미로운 사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손으로 쓴 메모에 “세 가지 계획이 모두 아름답게 제시되었음. 모두가 믿는 것 같음”이라고 적었다는 점이다.⁶²⁾ 이 메모는 아이젠

59) Task Force C of Project Solarium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6 July 1953, Box 9, NSC Series, White House Office of the Special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WHOSANSA), EPL, pp. 12-13.

60) Memorandum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22 July 1953, *FRUS* 1952-1954, Vol. II, Part 1.

61) Michael J. Gallagher,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examining Project Solarium," p. 478.

62) Handwritten Note by Eisenhower on Project Solarium, 16 July 1953, 'DDE Diary December 52-July 53 (1),' Box 3, DDE Diary Series, Ann Whitman File, EPL.

하위 대통령이 솔라리움 프로젝트를 추진한 초기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전략대안을 기획하여 내부의 의견을 결집하고자 한 아이젠하워의 의지가 정확하게 반영된 것이다. 또한, 솔라리움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략대안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다른 정부 요원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다. 대통령의 전략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돌리틀 패널과 각 팀의 전략대안은 아이젠하워를 만족시켰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NSC에 세 팀이 작업한 모든 결과를 NSC-162/2에 포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⁶³⁾ 3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커틀리 국가안보특별보좌관은 1953년 10월 7일에 NSC-162 초안인 기획위원회 "솔라리움 보고서(Solarium Paper)"를 NSC에 제출하였다.⁶⁴⁾ 여전히 소련의 위협에 대한 평가가 하나로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의견이 추가로 반영되고 수정되면서 1953년 10월 29일에 NSC-162/2, 일명 "뉴룩 정책(New Look Policy)"이 채택되었다. 아이젠하워는 NSC-162를 수정하면서 기습공격으로도 무력화시킬 수 없는 보복 능력을 유지해야 NSC-162/2의 전략대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⁶⁵⁾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은 아이젠하워 정부의 대량보복전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정리하면, 솔라리움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A팀의 봉쇄전략을 중심으로 B팀의 억제전략의 의견이 보충된 형태로 미국의 새

63) Michael J. Gallagher,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examining Project Solarium," p. 462.

64) Marion W. Boggs,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157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ursday, 30 July 1953, *FRUS* 1952-1954, Vol. II, p. 436.

65) S. Everett Gleason,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168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ursday, 29 October 1953, '168th Meeting of NSC October 29, 1953,' Box 4, NSC Series, Ann Whitman File, EPL, pp. 8-9.

로운 전략대안을 선택한 것이다.⁶⁶⁾

4. 한국에 주는 함의

솔라리움 프로젝트는 냉전 초기 이후 약 60년 동안 국가안보 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모델이며, 장기전략 기획의 가장 좋은 예로 평가받고 있다.⁶⁷⁾ 우선, 솔라리움 프로젝트는 최고 관리자인 대통령과 들리를 패널, 그리고 전략기획팀이 어떻게 전략대안을 탐색하는지에 대한 이상과 현실을 보여주

66) 개디스는 A팀의 의견이 수정되어 채택된 솔라리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NSC-68과 유사했다고 평가하지만, 이는 케난이 초기에 주장한 연성 봉쇄전략과 비교했을 때 NSC-68의 경성 봉쇄전략과 유사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봉쇄-억제-자유화’의 전략대안의 스펙트럼에서는 솔라리움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억제를 활용한 봉쇄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p. 144.

67) Michele A. Flournoy and Shawn W. Brimley, “Strategic Planning for National Security: A New Project Solarium,” *Joint Forces Quarterly*, Vol. 41, No. 2, (2006), p.83; 트루먼 행정부는 냉전 초기 소련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가안보전략을 작성함에 있어서 조지 케난(George F. Kennan)이나 폴 니츠(Paul Nitze)와 같은 개인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행정부 내부 인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을 만들었다. 또한, 케네디 행정부나 존슨 행정부의 경우에는 엄격한 전략 계획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반으로 한 민첩한 의사 결정을 통한 국가전략 구상을 선호했다. 이는 새로운 정치지도자 세대의 분석적 기량과 지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기존의 오래된 방식의 권력 집단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다. 마지막으로 닉슨 행정부의 경우에는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백악관 중심의 국가안보전략 설계에 집중했다. 키신저는 모든 정보가 백악관으로 집중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백악관 중심의 정책 결정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듯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탁월한 개인의 능력에 기반한 국가전략을 만들었다. 반면,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솔라리움 프로젝트는 구성원 의견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내부 정치적 합의 과정이 국가전략의 창출과 대안을 선택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국가안보전략 형성의 이상적인 모델로 손꼽히는 이유이다, Paul Lettow,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Lessons Learned,” *The Strategist*, Vol. 4, Issue 2 (Spring 2021), <http://dx.doi.org/10.26153/tsw/13195> (검색일: 2022년 2월 9일).

는 좋은 사례이다. 냉전 초기의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전략대안을 탐색하는 틀로서, 다음의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첫 번째 교훈은 전략기획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 측면이다. 전략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고 관리자는 지침을 제공하였고, 전략기획위원회와 전략기획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략대안을 탐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전략대안을 탐색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기도 했지만, 전략기획위원회인 돌리틀 패널을 중심으로 전략대안을 사전에 탐색하고 내부의견을 결집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최고 관리자는 지침만을 제시하였고, 기획팀의 활발한 토의를 촉진하였다. 아울러 전략기획팀이 자신들의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전략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략기획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솔라리움 프로젝트의 두 번째 교훈은 전략기획 과정은 새로운 전략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전략가를 양성하는 교육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전략가는 인간이기에 유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항상 새로운 전략과 함께 새로운 전략가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전략가를 양성할 수도 있지만, 실전과 같은 시간적 압박과 책임의 무게는 조성해 줄 수 없다. 이러한 환경을 경험한 슬기롭고 젊은 전략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후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국가 차원의 지도자로 성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프로젝트의 교육 효과는 지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했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다. 솔라리움 프로젝트는 정보가 의사결정에서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⁶⁸⁾ 솔라리움 프로젝트에서는

둘리틀 패널이 제공한 제한된 정보를 기준으로 전략대안을 탐색했다. 이러한 시도는 정보가 때로는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짧은 시간에 전략대안을 창출하는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제한된 정보는 각 팀이 서로 다른 미래를 예측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의를 통해 수정되기도 했기에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도 있었다. 따라서 솔라리움 프로젝트가 보여준 정보의 공유는 오늘날 전략대안을 탐색하는 조직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솔라리움 프로젝트는 오늘날 한국의 전략기획과정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며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현재 한국의 전략기획과정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권이 들어서면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서(국방전략서로 변경될 예정임), 합동군사전략서의 순서로 안보전략 및 군사전략이 작성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전문가들의 책임있는 참여는 제한된다. 대부분은 해당하는 문서를 주도하여 작성하는 부서 중심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경청할 뿐이다. 따라서 전략기획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인원들의 소수의견이 융합되기 어렵다. 미국의 솔라리움 프로젝트가 1953년 국가전쟁대학과 같은 곳에서 실천되었던 것처럼, 한국도 이와 유사한 공간에서 한국형 솔라리움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론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⁶⁹⁾

68) Jack S. Levy, "Learning and Foreign Policy: Sweeping a Conceptual Minefiel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8, No. 2 (Spring, 1994), p. 293.

69) 박영준,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한국판 솔라리움 프로젝트'," 『헤럴드경제』 (2022년 1월 26일),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126000532> (검색일: 2022년 2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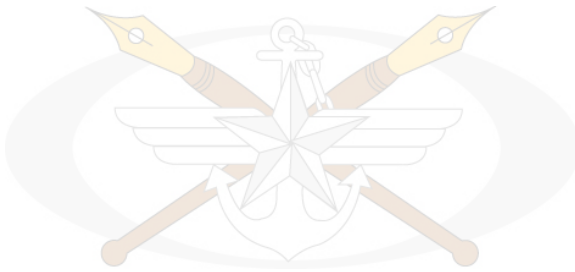
물론 솔라리움 프로젝트가 장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솔라리움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다.⁷⁰⁾ 아이젠하워의 머릿속에는 이전 행정부의 NSC-68를 대체할 수 있는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솔라리움 프로젝트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NSC-68 방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솔라리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롤백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생각이 봉쇄전략과 억제전략의 사이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은 솔라리움 프로젝트가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전략기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솔라리움 프로젝트가 가진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전략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전략기획자문위원회와 같은 외부 인원들과의 상호 의견교환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철저하게 팀의 주제에 부합하는 전략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전략기획팀의 고립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건설적 비판이나 전략대안의 확장성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이는 A팀의 전략대안에 대한 내용이 케난의 연성 봉쇄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지 케난이라는 팀장의 명성에 대항하여 팀원들이 얼마나 악마의 변호사 같은 철저한 비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전략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했어야만 했다.

몇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솔라리움 프로젝트는 여전히 전략기획 과정의 모범이다.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솔라리움 프로젝트와 유사한 형태의 전략기획 과정을 운영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70) Michael J. Gallagher,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examining Project Solarium," p. 482.

"정치·군사게임(Pol-Mil Game, 폴밀게임)"이다.⁷¹⁾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략대안을 탐색하는 폴밀 게임은 한국에서도 다양한 조직에서 시도되고 있다. 폴밀게임은 다양한 관점의 환경평가나 새로운 전략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많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다 보니 폴밀게임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나 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가 사례로 제시한 솔라리움 프로젝트는 전략기획을 위한 조직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71) 정치·군사게임이란 국가적 수준의 위기관리를 위하여 정치와 군사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국가 정책이나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폴밀게임의 효용성과 실제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손경호, “정치·군사게임의 효용성과 실제 및 발전 방안,” 『정치정보연구』, 제22권, 제3호 (2019.10), pp. 150-170.

〈참고문헌〉

1. 1차 사료

- ‘General Papers (Col. Bonesteel)’. Box 11, Executive Secretary’s Subject File Series, NSC Papers, EPL.
- Boggs, Marion W.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157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ursday, 30 July 1953. FRUS 1952-1954, Vol. II.
- Cutler. Memorandum for the Record by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15 May 1953, FRUS 1952-1954, Vol. II.
- Cutler, Robert. Memorandum for the Record by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9 May 1953. FRUS 1952-1954, Vol. II.
- Cutler, Robert to W. B. Smith, 15 May 1953, ‘Project Solarium.’ Subject Files 1947-1965. Executive Secretariat, Lot 6D148, RG 59.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College Park, MD, NARA.
- Gleason, S. Everett.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168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ursday, 29 October 1953. ‘168th Meeting of NSC October 29, 1953.’ Box 4, NSC Series, Ann Whitman File, EPL.
- Handwritten Note by Eisenhower on Project Solarium, 16 July 1953. ‘DDE Diary December 52-July 53 (1).’ Box 3, DDE Diary Series, Ann Whitman File, EPL.
- Memorandum for the Record by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9 May 1953, FRUS 1952-1954, Vol. II.

Memorandum of Conversation, Solarium Project, 8 May 1953, '1953,' Lot 66D148, Secretary of State NSC Files, RG 59, NARA.

Memorandum on Project Solarium Organization and Arrangements for Preparing Plans and Presentations on Alternative Courses of Action, 26 May 1953, 'General Papers (Col. Bonesteel),' Box 11, Executive Secretary's Subject File Series, NSC Papers, EPL.

Memorandum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22 July 1953, FRUS 1952-1954, Vol. II, Part 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2-54v02p1/d80> (검색일: 2021년 6월 21일).

Minutes of the 155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6 July 1953, FRUS 1952-1954, Vol. II.

Paper Prepared by the Directing Panel of Project Solarium, 1 June 1953, FRUS 1952-1954, Vol. II.

Project Solarium Special Documents Initially Available, 'General Papers (Col. Bonesteel),' Box 11, Executive Secretary's Subject File Series, NSC Papers, EPL.

Quoted in Memorandum of Conversation, Solarium Project, 8 May 1953, '1953,' Lot 66D148, Secretary of State NSC Files, RG 59, NARA.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10 June 1953, FRUS 1952-1954, Vol. II, Part 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2-54v02p1/d74> (검색일: 2021년 6월 21일).

Task Force B of Project Solarium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6 July 1953, 'Project Solarium - Task Force "B" Full Report (1),' Box 39, Disaster File Series, NSC Papers, EPL,

Task Force C of Project Solarium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6 July 1953, Box 9, NSC Series, White House Office of the Special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WHOSANSA), EPL,

United States of America Cyberspace Solarium Commission, CSC Finished Report (March 2020),
<https://www.solarium.gov/home> (검색일: 2021.7.10.),

Watts, Philip H, to Policy Planning Staff, 12 August 1953, 'Solarium,' Box 43, Policy Planning Council, Alphabetical Files, 1948-1961, Lot 61D167, RG 59, NARA,

2. 단행본

박홍윤. 『공공조직을 위한 전략적 기획론』. 서울: 대영문화사, 2014.

<http://uci.or.kr//G701:B-00114473019@N2M>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9.

<http://uci.or.kr//G901:A-0006266927@N2M>

Bowie, Robert R, and Richard H, Immerman. Waging Peace: How Eisenhower Shaped an Enduring Cold War Strate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Gaddis, John Lew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Hewlett, Richard G. and Francis Duncan. 'Atomic Shield, 1947–1952.' in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tomic Energy Commission Vol. 2*.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69.
- Hughes, Emmet John. *The Ordeal of Power: A Political Memoir of the Eisenhower Years*. NY: Macmillan Publish Company, 1975.
- Kahn, Herman. *On Escalation: Metaphors and Scenarios*. NY: Routledge, 2017.
- Pickett, William B. (ed.). *George F. Kennan and the Origins of Eisenhower's New Look: An Oral History of Project Solarium*. Princeton, NJ: Prince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udies Monograph Series Number 1, 2004.
- Snyder, Glenn H. "The 'New Look' of 1953." in Warner R. Schilling, Paul Y. Hammond, and Glenn G. Snyder. *Strategy, Politics, and Defense Budget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2.
- Watson, Robert J.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53–1954*. Washington D.C.: Historical Office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1998.
- Zaloga, Steven J. *Target America: The Soviet Union and the Strategic Arms Race, 1945–1964*. NY: Presidio Press, 1993.

3. 논문

- 박병관, 유현정.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정책 전망 및 시사점.” 『INSS 전략보고』 . No. 114. March 2021.
- 손경호. “정치·군사게임의 효용성과 실제 및 발전 방안.” 『정치정보연구』 . 제22권. 제3호. 2019.
<https://doi.org/10.15617/psc.2019.10.31.3.149>
- Flournoy, Michele A. and Shawn W. Brimley. “Strategic Planning for National Security: A New Project Solarium.” Joint Forces Quarterly. Vol. 41. No. 2. 2006.
- Gallagher, Michael J.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examining Project Solarium."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30. No. 4. 2015.
<https://doi.org/10.1080/02684527.2014.885203>
- Lettow, Paul, “Ike’s Triumphs.” National Review LXX. no. 10. May 28, 2018.
- _____,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Lessons Learned."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Vol. 4. Issue 2. Spring 2021.
<http://dx.doi.org/10.26153/tsw/13195>
- Levy, Jack S. "Learning and Foreign Policy: Sweeping a Conceptual Minefiel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8. No. 2. Spring, 1994.
- Norris, Robert S. and Hans M. Kristensen. "Global nuclear weapons inventories, 1945–2010." SAGE journals. Vol. 66. Issue 4. 27 November, 2015.
<https://doi.org/10.2968/066004008>

4. 기타 자료

박영준.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한국판 솔라리움 프로젝트.’” 『헤럴드경제』 2022년 1월 26일.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126000532>
(검색일: 2022년 2월 9일).

European Foresight Platform. "Scenario Method." EFP.
<http://www.foresight-platform.eu/community/forlearn/how-to-do-foresight/methods/scenario/> (검색일: 2021년 6월 21일).

Fedorov, Evgeny. "American "Vlasov army" and the "Solarium" project, Dwight D. Eisenhower's anti-Soviet scripts." Top War. January 4, 2021.
<https://en.topwar.ru/178717-amerikanskaja-armija-vlasova-i-p-roekt-soljarij-antisovetskie-scenarii-duajta-jejzenhajera.html>
(검색일: 2021년 6월 25일).

Friedberg, Aaron. "A U.S. 'Solarium Project' for China." The Wall Street Journal. August 26, 2015.
<https://www.wsj.com/articles/a-u-s-solarium-project-for-china-1440609226> (검색일: 2021년 6월 21일)

Kahn, Herman and Anthony J. Wiener. "The Use of Scenario." Hudson Institute. January 1, 1967.
<https://www.hudson.org/research/2214-the-use-of-scenarios>
(검색일: 2021년 6월 21일).

Korala, Aravinda. "US-China relations: new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will leave the whole world better off." US-China Relations. 16 March, 2021.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125241/us-china-relations-new-era-great-power-competition-will-leave-whole>
(검색일: 2021년 6월 21일).

- Grundman, Steven. "Opinion: Lessons From A Korean War-Era National Security Exercise," Aviation Week Network, August 3, 2017.
<https://aviationweek.com/defense-space/opinion-lessons-korean-war-era-national-security-exercise> (검색일: 2021년 6월 21일).
- Marks, Ronald. "#21: Produce A New 'Project Solarium'." Atlantic Council, February 9, 2021.
<https://www.atlanticcouncil.org/uncategorized/21-produce-a-new-project-solarium/> (검색일: 2021년 6월 21일).
- Nye, Joseph "For the US and China, interdependence is a double-edged sword." FINANCIAL TIMES. February 4, 2020.
<https://www.ft.com/content/b3f5e946-4441-11ea-9a2a-98980971c1ff> (검색일: 2021년 6월 21일).
- Pompeo, Michael R.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U.S. Department of State, July 23, 2020.
<https://2017-2021.state.gov/communist-china-and-the-free-worlds-future-2/index.html> (검색일: 2021년 6월 21일).
- Schake, Kori. "Trump Doesn't Need a Second 'Solarium'." The Atlantic, October 30, 2018.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18/10/what-eisenhower-could-teach-trump-about-strategy/574261/>
 (검색일: 2021년 6월 21일).
- "Sun Room," The White House Museum,
<http://www.whitehousemuseum.org/floor3/sun-room.htm>
 (검색일: 2021년 6월 21일).
- U.S. Army. "Solarium 2014," U.S. Army, June 30, 2014.
<https://www.army.mil/standto/archive/2014/06/30/>(검색일: 2021년 6월 21일)

(Abstract)

The Creation and Selection of Strategic Alternatives - A Case Study of the Project Solarium -

Lee, Jin-ki / Sohn, Han-byeol

Strategic planning is the process of selecting ways and means to achieve goals. Therefore, the process of creating and selecting various strategic alternatives takes up a key step in strategic planning. The organization, procedures, and methods of strategic planning should be developed to accurately recognize threats, explore and analyze strategic alternatives, select strategies and perform a series of processes that combine organizational capabilities.

The U.S. "Project Solarium" was run by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in the early Cold War to explore strategic alternatives against the Soviet Union. It is regarded as the most successful strategic planning process in history. Strategic alternatives were created and selected through the guidance by the president as the chief manager, the operation of Dolittle Panel for the Strategic Planning Committee, and the dynamic activities of the three teams that were strategic planning teams. The result was embodied as a "New Look policy" and established as a strategy to counter the Soviet Union throughout the Cold War.

Keywords : Strategic planning,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Cold War, Eisenhower, Project Solarium.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463-477
<https://doi.org/10.29212/mh.2022..122.46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자료소개]

한반도주둔일본군 사료총서 ①~⑨

-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편, 역사공간, 2020, 2021

서민교 |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책임연구원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사료총서 ①~⑨의 각권의 구성 내용과 특징
 3.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한국근대사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군사사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의 근대사는 일본군의 조선 침략의 역사다’라는 명제로 치환될 수 있겠다. 호, 불호를 떠나 근대 한반도를 침략한 일제의

물리적 기반이자, 조선 통치의 근간으로 작용했던 한반도 주둔 일본군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연구가 더욱 진척되어야 하는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료총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소장 정태헌)의 [한반도주둔 일본군 연구팀]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수행했던 [한반도주둔 일본군(1875~1945) 관계 기초사료 수집 및 번역 총서 발간]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한반도주둔 일본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한국에서는 임종국의 연구¹⁾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전문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의 저변이나 전문연구자가 많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일본에서도 군사사 연구의 일환으로 한반도주둔 일본군(이하 조선군으로 약칭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또한 한국에서의 연구와 유사한 상황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학계의 연구를 종합해 보더라도 그 연구의 저변이 결코 넓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다.

한국에서의 연구 상황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간단히 요점만 지적하자면 먼저 전문연구자가 극히 소수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근대사분야에서 군사사 연구자들의 풀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연구저변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또 하나는 사료가 매우 제한적이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어 자료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등이 조선군에 대한 연구 사료의

1)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1, 2(일월서각, 1989)

중심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방위성 자료에 대한 접근이 이전부터 그리 용이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더불어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사료들의 대부분이 일본어자료라는 점으로 인해 자료상의 언어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전문연구자들은 이 일본어 자료를 구사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언어적인 한계도 연구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사료총서는 조선군에 대한 기초적이며 중요한 사료를 수집하여 한국어로 해제 번역 출간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에서의 조선군 연구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 기초적인 연구 저작물이라는 점만으로도 그 학술적인 의미가 큰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 사료총서 ①~⑨의 각권의 구성 내용과 특징

한반도주둔일본군 사료수집·번역총서①~⑨의 각권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료총서① 일본의 군사적 침략과 한국주차군

(역사공간, 조건 편역)

사료총서② 군대해산과 한국주차군의 독립운동 탄압

(역사공간, 김영숙 편역)

사료총서③ 일본 해군의 한반도 기지 건설

(역사공간, 김연옥 편역)

사료총서④ 일제 헌병의 조선 주둔과 식민지 지배

(역사공간, 조건 편역)

- 사료총서⑤ 조선군의 기지 구축과 무단지배
(역사공간, 김영숙 편역)
- 사료총서⑥ 중일전쟁과 한반도 병참기지화
(역사공간, 김윤미 편역)
- 사료총서⑦ 일제말기 조선군의 전시동원과 식민지배
(역사공간, 조건 편역)
- 사료총서⑧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군의 동원·개편·해체
(역사공간, 김영숙 편역)
- 사료총서⑨ 한반도주둔 일본군의 기초 사료 해제집
(역사공간, 한반도주둔일본군연구팀 편)

먼저 각권의 주제와 구성 내용, 그리고 그 사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료총서① 일본의 군사적 침략과 한국주차군(역사공간, 조건 편역)은 주로 러일전쟁 시기의 ‘한국주차군’²⁾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청일전쟁 이후 한국주차대의 편성과 활동(1894년 6월~1903년 11월)에서는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의 개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의 사료를 중심으로 한국주차대 편제와 러일전쟁 직전까지의 경성주차대의 보고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청일전쟁에서의 조선으로 출병 경험이 러일전쟁으로 연결되면서 1890년대 청일전쟁 당시의 일본군의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매뉴얼화하여 1900년대 러일전쟁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로 한국주차대가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를 무력으로 강점하는 임무를

2) 한국주차군은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과 동시에 한반도를 무력점령하기 위해 편성된 임시한국주차대에서 비롯된 한반도주둔 일본군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갖고 편제된 부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2. 러일전쟁기 간첩활동과 군사적 침략에서는 러일전쟁 시기의 한반도에서의 일본군의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 한국주차군의 편성과 활동에서는 한국주차대의 편성, 병영 등의 건축, 한국주차군 사령부 조례 등 한국주차군 및 한국주차군 사령부의 전모를 알 수 있다. 4. 한국주차군의 군사 활동 보고서에서는 1907년~1910년까지의 한국주차군의 보고서를 해제 번역한 것으로서 러일전쟁이 끝난 뒤에도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고, 한국주차군으로 계속하여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군사강점의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5. 한국주차군 연도별 작전계획은 1907년~1910년까지의 연도별 작전계획에 관한 군중앙부의 훈령으로서 연도별 전시 작전 계획, 즉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주차군은 어떠한 작전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료이다.

사료총서①은 러일전쟁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1910년 한국병합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국의 무력강점의 전위부대였던 한국주차군에 대한 자료를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료총서② 군대해산과 한국주차군의 독립운동 탄압(역사공간, 김영숙 편역)는 주로 1907년과 1908년의 한국주차군의 전투상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907년은 정미7조약으로 알려진 '일한신협약'이 체결된 해로서 헤이그밀사 사건을 트집 잡아 한국군대 해산과 고종의 퇴위, 후기의병투쟁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했다. 사료총서②권은 1907년 9월부터 1908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한국 각지에서 발생한 의병투쟁을 탄압하는 일본군의 전

투행위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전투상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05년 을사늑약을 강요한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고 난 후 점차적이지만 본격적으로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전개되는데 한국식민지화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1907년이었으며, 한국 민중의 일본에 대한 저항이 거세어지기 시작한 시기에 발생한 후기의 병투쟁에 대해서 일본군이 어떻게 대처하고 철저한 탄압을 실행해 갔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료를 해제 분석한 점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한국주차군의 전투상보 자료는 나중에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³⁾를 간행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자료총서③ 일본 해군의 한반도 기지 건설(역사공간, 김연옥 편역)은 일제강점기 식민지조선에서 일본 해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료를 해제 번역한 것이다.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적 사실 가운데,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지구의 절반 이상을 돌아오는 원거리 항해에 지쳤던 러시아 발틱 함대를 맞이하여 만이틀 만에 이를 거의 전멸시켰던 일본의 연합함대 본진이 발틱 함대를 영격(迎擊)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곳이 다름 아닌 진해만이었다. 1910년 한국병합을 전후하여 일본의 조선통치의 물리적 근간은 일본 육군이었다. 조선총독부 설치 이해 조선통치의 중심세력은 일본 육군이었던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일본 해군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조선의 경남 진해만과 함경도 영흥만에 일본 해군 기지가 건축되어 일본 육군이 주도하는 조선군사령부 아래 배속되어 있었다.

3)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조선주차군사령부, 1913)는 1913년 조선주차군사령부에서 간행한 항일의병 탄압을 기록한 책이다.

사료총서③의 제1장은 일본 해군의 진해·영흥 기지 구출에 대한 사료를 해제 번역하였다. <극비자료> 1909년의 군항의 성질, 가치 및 필요한 시설방침을 비롯하여 1934년까지 주로 진해를 중심으로 한 해군 자료가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되어 있다. 참고로 영흥만 요새 건축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이미 충실한 선행연구⁴⁾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 두겠다. 또한 마산과 영흥만 중포병 연대의 설치 과정이나, 1923년부터 1936년에 걸친 조선에서의 해군군사시설의 확장과정에 대한 자료도 주목할 만하다.

사료총서④ 일제 헌병의 조선 주둔과 식민지 지배(역사공간, 조건 편역)는 제1장 일제 헌병의 조선 주둔과 역할, 제2장 조선 주둔 헌병의 역사 자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1910년 9월의 한국병합에 연동하여 조선주차 헌병 복무규정 자료를 비롯하여 조선주차 헌병과 조선인으로 구성된 헌병보조원 규정을 분석 해제하고 있다.

원래 헌병이란 군사경찰로서 군대라는 조직 내부의 경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엘리트 군사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군 헌병도 이와 유사한 엘리트 군사기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선 주둔 일본 헌병의 특징적인 점은 조선 민중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제대로 군사경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에 가까운 인원을 모아 대규모의 헌병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1914년 당시) (조선에서는 조선인으로 구성된 헌병)보조원을 포함하는 조선주차헌병대의 인원이 거의 8,000명(그 중 일본인 헌병은 약 3,500명)이었는데 비해서 일본 본국의 헌병의 총 수는 1,000명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⁵⁾는 지적에

4) 加藤圭木, 「日露戦争以降の朝鮮における軍事基地建設と地域—永興灣を対象として—」(『一橋社会科学』第5巻 第号) p.29-43 참조.

5) 松田利彦, 「解説 朝鮮憲兵隊小史」『朝鮮憲兵隊歴史 第1巻』(不二出版, 2000年),

서도 잘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1907년 이후 항일의병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으로 구성된 헌병보조원제도를 만들어 조선인으로 하여금 항일조선인을 탄압하는 헌병 말단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조선인 헌병보조원제도는 1908년부터 해방을 맞이하는 1945년까지 존속했던 기구로서 1908년 최초로 모집한 조선인 헌병보조원만 4,234명이었으며 1918년까지 매년 약 4,600 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⁶⁾

제2장에서는 조선 주둔 헌병의 역사적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 헌병의 기원과 연혁에서부터 1919년 3.1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의 실상, 조선헌병대의 역사, 경성헌병대의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제 번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헌병경찰시기의 헌병대의 역할과 행동을 잘 보여주는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총서⑤ 조선군의 기지 구축과 무단지배(역사공간, 김영숙 편역)는 제1장 1910년대 일본군의 조선 주둔 관련 자료, 제2장 1919년 3.1운동에 대한 탄압, 1920년 조선의 정황에 대한 첩보 보고, 제3장 1919년 3.1운동에 대한 조선군사령부의 각종 보고서, 제4장 1930년대 일본군의 만주침략에 일익을 담당했던 조선군의 상황에 대한 자료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 중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제1장에서는 1915년 이전의 조선주둔군이 조선주차사단 및 임시파견부대의 형식으로 일본 본토에서 1년에서 2년간 교대로 파견되어 주둔하고 있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으며, 1916년부터는 제19사단, 제20사단의 조선 상주사단이 편성되는 과정을 다루는 자료가 포함되어

2쪽, 8쪽 참조.

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Ⅲ-2(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년), 182쪽 참조.

있다. 제2장에서는 1919년 독립운동 탄압과정에서 조선주둔군이 담당했던 역할과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제3장은 1919년 3.1운동 당시의 정황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제 번역작업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의 만주침략에 조선군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군은 전쟁을 상정하여 식민지 조선에 배치되어 중국, 러시아 (=소련)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방의 대외전쟁을 대비한 전투부대였지만 1910년대~1920년대에는 주로 조선 내의 치안유지와 조선인의 항일투쟁을 조선 내에서 탄압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30년대가 되면 조선군이 만주의 일본군인 관동군과 더불어 일본의 본격적인 만주침략의 선봉대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잘 보여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료총서⑥ 중일전쟁과 한반도 병참기지화(역사공간, 김윤미 편역)는 제1장 중일전쟁기의 군사수송과 제2장 조선군의 병참기지화 구상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7년 7월 일본의 중국대륙침략전쟁인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은 본격적인 전시총동원체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제1장에서는 일본본토의 동원부대의 철도수송에서 조선이 담당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임시병참, 병마창 업무에 대한 건, 철도수송과 병사들의 급양, 병참업무에 대한 건 등을 중심으로 1937년부터 1938년까지의 중일전쟁 초기의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의 사례를 들어보면,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국철은 임시열차(=군사철도)운영태세에 돌입하여 약 2개월

사이에 3번에 걸쳐 연인원 16만 명의 병력과 군마 약 4만 5천 마리, 기타 군수품의 수송을 수행하였는데, 이들 병력의 대부분은 서일본의 여러 항구를 출발하여 징용선박을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한 다음, 경부선, 경의선 철도를 통해 만주의 안동으로 운송되었고, 거기서 중국의 화북지역으로 수송되었다.⁷⁾

물론 이러한 전시기 군사철도 우선 전용이라는 비상조치는 일반 화물수송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일전쟁 발발 직후 약 2개월 사이에 경부선, 경의선을 비롯한 조선철도 전체 노선의 열차운행을 제한하여 확보한 화차의 약 80%를 군사수송으로 전환한 결과 엄청난 내수물자의 운송제한이 발생하였고, 8월부터 약 한달 이상은 석탄과 광석을 제외한 모든 화물의 수탁들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일시적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조선인들의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물자부족과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었다.

제2장에서는 1938년부터 일제가 본격적인 전시총동원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중국의 전선으로 병력과 각종 무기와 식량 등 병참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는 중간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조선의 철도와 항만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선 자체를 병참 기지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던 것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중일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일본은 전시총동원체제에 돌입하게 되는데 조선국철을 비롯한 조선의 육상운송부문은 초과수요의 압력을 끊임없이 받게 되었다. 국가통제체제 하에서 공업화가 발전⁸⁾되는

7) 石川準吉 『國家總動員史 上』(國家總動員史刊行會, 1983), 965~1297쪽.

8) 1930년대 전시체제하에서 조선에서 공업화가 발전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事實)로서는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엄밀하게는 그 공업화의 발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방적공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은 면화생산지로서의 기능도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도 공업화의 발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堀和生, 『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日本資本主義と植

한편으로 일본의 중국점령지의 획득은 군사수송을 포함하는 일본, 만주, 중국 블록으로의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하여 조선국철의 수송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사료총서⑦ 일제말기 조선군의 전시동원과 식민지배(역사공간, 조건 편역)는 1939년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 직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이른바 중국침략전쟁인 중일전쟁과 더불어 1941년부터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었던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의 조선군에 대한 자료를 해제 번역한 것이다. 제1장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조선군의 전시동원, 제2장은 조선군 헌병의 전시 활동, 제3장은 패전 직후의 일본군의 조선지배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사료총서⑦에서는 먼저 일제의 전시총동원기의 조선인 병력동원에 대한 부분으로 조선인 지원병, 징병제도 실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어서 조선군 경성헌병대와 조선헌병대의 전시기 활동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 그동안 그리 주목하지 않았던 일본의 패전 직후의 조선군의 상황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고 있어 조선군이 패전 직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귀환 구상을 갖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조선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이 시기의 조선군에 대한 연구 및 특히 조선인의 병력동원의 실상에 대한 연구가 대폭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료총서⑧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군의 동원·개편·해체(역사공간, 김영숙 편역)는 제1장 전시기 일제의 조선인 병력동원정

책에 관한 자료, 제2장에서는 조선군 예하 부대인 제20사단, 제17방면군 관련 지휘관 보고 자료 등이 분석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조선군에 대한 전후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이른바 조선군 귀환[復員]문제를 중심으로 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조선인 병력동원문제는 육군지원병제도, 해군지원병제도, 군속 동원에 관한 건, 학도지원병제도, 징병제도 등의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일정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향후의 연구의 확대가 더욱 필요한 연구 과제라고 생각된다.

조선군 지휘관의 보고서는 전쟁말기의 조선군 지휘관들의 전황보고가 중심이 되어 있으며 주로 전쟁 말기의 상황보고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 직후의 조선군 및 군 관련자들의 일본 본토로의 귀환문제가 제3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본군 및 민간인 귀환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들과 연동시키면서 향후의 연구 지평의 확대가 기대되는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사료총서⑦과 일부 자료가 중복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향후 보완하거나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료총서⑨ 한반도주둔 일본군의 기초 사료 해제집(역사공간, 한반도주둔일본군연구팀 편)은 앞에서 살펴 본 사료총서①~⑧과는 약간 체제 구성이 달리 이루어진 해제 번역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①~⑧ 사료총서는 한반도주둔일본군 연구팀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해제 번역작업을 한 것으로서 시대별, 주제별로 구분하여 각론적으로 해제 번역작업을 행한 자료집인 것에 비해 사료총서⑨는 연구팀 전체가 참여하여 간행한 총론적인 기

초사료 해제집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1부에서는 일본군의 무력침략과 군사지배 관계 사료를 중심으로 한국주차군 전투상보, 진해만, 영흥만 관계서류, 조선주차군 경리부 역사, 조선헌병대역사, 조선 상황 보고 등의 사료에 대한 기초적인 해제 작업을 제시하고 있다.

제2부는 시기별 주요 사료라는 제목으로 1870~1890년대부터 시작하여 1945년 일본의 패전 직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각 시기를 대체로 10년을 단위로 구분하여 기존의 사료총서에서 제시하지 못한 자료와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각 시기의 자료도 후반부로 갈수록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의 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앞서 언급한 사료총서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시대의 상황이나 사건 등 역사적 사건의 변화에 따라 구성된 기초 자료의 해제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구분하다보니 각론적인 주제에 맞추어 구성했다고 하기 보다는 각 시대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발췌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자료의 연관성과 정합성이 일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정치적 사건, 조선군 및 헌병대의 파견과 군사시설에 관련된 자료, 조선의 항일운동에 대한 대응과 탄압, 조선군 군사시설의 설치, 진해 영흥의 해군기지 및 요새 건설 관련 자료, 조선철도의 군사철도로서의 역할, 만주로의 조선군의 월경 침략행위, 전시총동원시기의 다양한 조선군 관련 자료가 시대적인 정합성은 갖추고 있지만, 상호 연관성이나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앞의 사료총서①~⑧의 각론적 해제 번역 작업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료와 일부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 내용의 확인과 정리 작업이 추후에라도 보완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3. 나가는 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875년 강화도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한국의 근대사는 일본과는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하나의 사상(事象)의 빛과 그림자와 같은 관계를 지녔던 역사였다고도 말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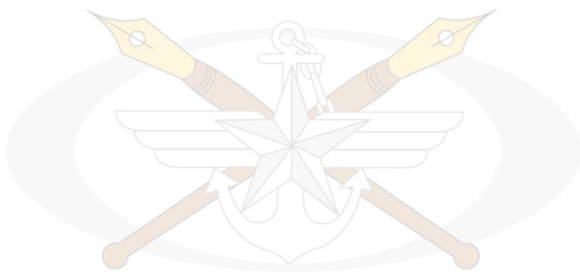
달리 이야기하면 한국의 근대사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근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일본근대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역사적 행위와 관련되는 확대되어진 공간, 즉 한국을 포함하는 영역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근대 일본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이해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의 근대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일국사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동아시아사적 관점, 나아가 세계사적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입각해 볼 때, 조선에서 활동했던 일본군, 즉 조선군에 대한 연구는 일국사적 한계를 넘어서는 한국근대사의 연구 분야이자 일본근대사, 나아가 동아시아 근대사의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의 열악한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근대사 연구의 지평이 제한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주둔일본군에 대한 연구의 확대는 한국근대사

연구의 깊이와 지평을 확대시키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든 매우 중요하며 향후 중요한 역사학적 연구과제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사료총서의 간행은 조선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조선군 연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집으로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학계에도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연구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료총서의 간행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향후 군사사적으로도 조선군이라는 연구주제가 확대되어 한국, 일본, 중국 등 근대 동아시아의 군사사 연구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연구소 동정

1. 대외교류 및 주요 활동

○ 2021-4차 군사사연구포럼

- 일자/장소: 2021. 12. 15.(수) /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 참석: 군 및 대외기관 30여 명
- 세부진행

* 사회 :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13:00~13:10	개회사,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13:10~15:10	<p>#1. 조선시대 遺將儀를 통해 본 군사의례와 군사외교 * 발표 : 윤승희(숙명여대) 토론 : 서인범(동국대)</p> <p>#2. 문헌을 통해 본 임진전쟁기 조선사행의 군사외교 분석 * 발표 : 김동건(제주대) 토론 : 박준영(한중연)</p> <p>#3. 임진전쟁기 명 장관에 대한 접대와 기록화 * 발표 : 정은주(한중연) 토론 : 박현규(순천향대)</p>
15:30~17:30	<p>#4. 병자호란기 청의 전쟁의도와 전투과정 * 발표 : 장정수(고려대) 토론 : 박민수(이화여대)</p> <p>#5. 北洋文書의 「蘇州碼子」와 개성상인의 胡算 비교분석 * 발표 : 안광호(한국고전번역원) 토론 : 정지호(경희대)</p> <p>#6. 조선후기 동래부사의 외교군사적 책무: 「萊府日記」를 중심으로 * 발표 : 심민정(부경대) 토론 : 김태훈(단국대)</p>
17:40~18:30	맺음말씀, 사진촬영, 폐회, 식사



〈 2021-4차 군사사 연구포럼 〉

- 2021년 공동 군사학술교류 세미나
 - 일자/장소: 2021. 12. 14.(화) /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 참석: 나라기록관 등 5개 기관 8명
 - * 나라기록관 김재순, 군사편찬위원회 이상록,
한국학연구원 노관범, 동북아 역사재단 신호승,
군사편찬위원회 김경록
 - 내용: 군사편찬연구소와 유관기관의 중장기 계획 소개 및 학술교류 발전방안 논의



〈 2021년 공동 군사학술교류 세미나 〉

2. 인 사

○ 임 명

- 전윤재(전쟁사부): '22. 1. 24.부




〈 임용자 신고 〉

○ 전 역

- 중령 김정기(조사연구부): '22. 2. 28.부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국방편년사 제8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사부 • 4×6배판(양장) • 2021. 12. 1. 	<p>본 책자는 1976년에서 1980년까지 우리 군의 국방정책과 주요 추진 업무를 편년체 형식으로 정리한 역사서로, 국방·안보 관련 정책·조직·제도·전력증강과 국방외교, 주요 사건·행사 등 제반 국방업무와 대한민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및 주변국의 주요 안보 관련 사항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p> <p>이 책은 당대 역사를 기록·유지한다는 일차적인 목적 외에도 국방정책 및 군사 전략 업무 관계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p>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48-0946, 0947
(군) 900-0946, 0947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계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a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http://uci.or.kr/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mh.2017.105..103.](http://doi.org/10.12345 / mh.2017.105..103)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 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85(김태헌)
- FAX : 02-748-1638
- E-mail : imhc2@mnd.go.kr

-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 제정 2007. 7. 1.
- 부분개정 2008. 12. 1.
- 부분개정 2009. 11. 1.
- 부분개정 2017. 8. 1.
- 일부개정 2022. 2. 18.



제 1 조	목	적	490
제 2 조	적용대상	490	
제 3 조	적용범위	490	
제 4 조	용어의 정의	490	
제 5 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491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 6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492
제 7 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493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494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494
제7조의 4	(중복계재)	495

제7조의 5(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495
 제7조의 6(공동연구) 496
 제7조의 7(저자결정 기준) 496
 제7조의 8(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496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496
 제 9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497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497
 제1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498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498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499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499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500
 제16조 판 정 500
 제17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500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501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501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501
 부 칙 5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 재산을 말한다.

제5 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모든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번안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의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한다.

제7조의 4 (중복게재)

-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가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들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여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7조의 5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원저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번역출판은 저작권 침해의 우

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 6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의 7 (저자결정 기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의를 표하는 각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7조의 8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 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청렴이 세상

유능한 안보
본뜬한 국방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심헌용(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세찬(국방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결순(충북대학교)	박상철(전남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오영섭(경희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한우(서강대학교)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박종상(군사편찬연구소)	이미숙(군사편찬연구소)
정형아(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 편집간사

김태현(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22/3(第122號)

2022년 3월 8일 印刷

2022년 3월 15일 發行

發行處 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02-748-1685 FAX : 02-748-1638

印刷處 _ 국방출판지원단 (M22020116)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122. 2022. 3.

Ryu, Eui-yeon	A Study on the Fire employment of the R.O.K. Army and U.N. Forces during the Battle of Yongmunsan in May 1951
Shin, Seong-jae	The Navy Flag : the symbol of Republic of Korea Navy
Kim, Myung-seob	The anti-Japanese song at Shingheung Military Academy and Gumsung school)
Kim, Mi-sung	The Military Impli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Market at the Song-pa(松坡) located in the Area of Han River during the period of late Joseon Dynasty
Heo, Dae-yeong	The Changes in battle formation trai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Daeyeul' in early Chosŏn dynasty
Lee, Min-su	The War Situation of the Goguryeo-Táng War in 661
Yoon, Byoung-mo	The war between Yan, Qin and Kochosun during the period of Ancient China ansd Korea
Lee, Pyo-gyu	An Analysis and Lessons learned of the USMC's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s in the Persian Gulf War in 1990
Bae, Eun-suk	The Limitations of Roman Military Logistics during the Gallic War
Kang, Jung-il	Analysis of the Geopolitical Valu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Lee, Jin-ki	The Creation and Selection of Strategic Alternatives
Sohn, Han-byeol	- A Case Study of the Project Solarium -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MND



9 771598 317009 01
ISSN 1598-317X